

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8권 (제85회 ~ 제96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https://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冲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85회 — 송공명이 밤에 익진관을 건너고, 오학구가 지혜로 문안현을 취하다	6
제86회 — 송공명이 독록산에서 크게 싸우고, 노준의가 군사를 일으켜 청석육을 함락시키다	35
제87회 — 송공명이 유주에서 크게 싸우고, 호연작이 힘을 다해 번장 을 사로잡다	55
제88회 — 안 통군이 진열을 혼천상으로 하고, 송공명이 꿈속에서 현 녀에게 법을 전수받다	76
제89회 — 송공명이 진법을 깨뜨려 공을 세우고, 숙 태위가 은혜로운 강림 조서를 내리다	104
제90회 — 오대산에서 송강이 참선하고, 쌍림진에서 연청이 옛 친구를 만나다	126
제91회 — 송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황하를 건너고, 노준의가 밤중에 성을 속여 빼앗다	147
제92회 — 군대의 위엄을 떨친 소이광의 신궁, 개갑군을 상대로 지다 성 오용이 비밀리에 계책을 세우다	170
제93회 — 이규가 꿈속에서 천지를 소란케 하고, 송강이 병력을 두 갈 래로 나누다	187
제94회 — 관승이 의리로 세 장수를 항복시키고, 이규가 무모하게 행 동하여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다	201

제95회 — 송공명이 충심으로 후토를 감동시키고, 교도청이 술법으로 송나라 군사를 패퇴시키다	225
제96회 — 환마군이 술수로 오룡산을 곤경에 빠뜨리고, 입운룡 두가 백곡령을 에워싸다	242

제85회 — 송공명이 밤에 익진관을 건너 고, 오학구가 지혜로 문안현을 취하다

宋公明夜度益津關 吳學究智取文安縣

이야기는 이러하다. 구양시랑이 주상께 아뢰었다.

“송강 무리는 모두 양산박의 영웅호걸들입니다. 지금 송나라에는 어린 황제가 즉위하여 채경, 동관, 고구, 양전이라는 네 명의 간신이 권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재능 있는 이를 시기하고 어진 이의 길을 막으며, 친인척이 아니면 받아주지 않고 재물을 바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니, 머지않아 저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신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주상께서 송강에게 관직과 작위를 내리고 금과 비단, 그리고 좋은 가죽 옷과 살찐 말을 듬뿍 하사하신다면, 신이 사신이 되어 그들을 설득해 우리 대요국에 항복하게 만들겠습니다. 주상께서 저 군마들을 얻으신다면 중원을 차지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만큼 쉬워질 것입니다. 신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주상의 성스러운 결단을 청하옵니다.”

주상이 말을 듣고 대답했다.

“그대 말이 옳다. 그대는 사신이 되어 좋은 말 백여덟 필과 좋은 비단 백여덟 필, 그리고 나의 칙명을 가져가라. 송강을 진국대장군에 봉하고 요나라 병사를 총괄하는 대원수로 삼으며, 금 한 제(提)와 은 한 칭(秤)을 내려 신표로 삼게 하라. 또한 그 무리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모두 적어 오게 하여, 그들에게 줄 관직도 빠짐없이 봉하거라.”

그때 반부(班部)에 있던 올안 도통군이 나와 주상께 아뢰었다.

“송강 같은 도적 떼를 무엇 하러 초안합니까? 우리 수하에는 이십팔수 장군과 십일요 대장이 있고, 강한 병사와 용맹한 장수들이 넘쳐나는데 어찌 저들에게 지겠습니까? 만약 저 야만인들이 물러가지 않는다면, 소신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저놈들을 소탕하겠습니다.”

주상이 말했다.

“그대는 이미 날개 돋친 호랑이처럼 용맹한 호걸이거늘, 저 무리까지 함세한다면 그대에게 두 날개가 더 돌아나는 격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그대는 막아서지 말고 물러나 있거라.”

요나라 주상이 올안의 말을 듣지 않으니, 그 누가 감히 더 입을 열 수 있었겠는가. 본래 이 올안광 도통군은 요나라 제일의 상장으로, 열여덟 가지 무예에 통달하였고 병법과 전략에도 매우 능숙했다. 나이는 서른다섯 혹은 서른여섯 정도로, 풍채가 당당하고 기개가 넘쳤으며 키는 여덟 자가 넘었다. 얼굴은 희고 입술은 붉으며 수염은 노랑고 눈은 푸른 빛을 띠어 위엄이 넘치고 용맹했다. 전쟁터에 나갈 때면 무쇠로 만

든 점강창을 휘두르며, 싸움이 치열해질 때마다 허리춤에서 철간을 뽑아 휘둘러 췌소리를 내니, 참으로 만 명의 적도 당해내지 못할 용맹을 갖추고 있었다.

울안 통군의 간언은 제쳐두고, 이야기는 이러하다. 구양시량은 요나라의 칙명을 받들고 수많은 예물과 말을 챙겨 말을 타고 곧장 계주로 향했다. 송강은 마침 계주에서 군사들을 양성하고 있었는데, 요나라에서 사신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의도가 길할지 흉할지 알 수 없어 ‘현녀(玄女)’의 점괘를 뽑아 점을 쳤다. 점을 쳐보니 상상(上上, 가장 좋은)의 징조가 나왔다. 송강은 곧 오용과 상의하며 말했다.

“점괘에 상상의 징조가 나온 것을 보니, 아마도 요나라에서 우리를 회유하러 오는 모양이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만약 그렇다면 오히려 그 계책을 역이용하여 그들의 회유를 받아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계주는 노선봉(노준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그들의 패주를 취하는 것입니다. 패주까지 손에 넣는다면 요나라가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미 그들의 단주를 취했으니, 요나라의 왼팔 하나를 먼저 잘라낸 셈입니다. 이 일은 그리 어렵지 않으나, 다만 처음에는 짐짓 어려운 척하다가 나중에 쉬워지는 것처럼 꾸며야 그들이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구양시량이 이미 성 아래에 도착하자 송강이 명을 내려 성문을 열고 그를 들여보내게 했다. 구양시량은 성안으로 들어와 주아(州衙, 지방 관청)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린 뒤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서

로 예를 나눈 뒤 손님과 주인으로 자리를 나누어 앉았다. 송강이 곧 물었다.

“시랑께서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구양시랑이 말했다.

“주상께 아뢰어야 할 작은 일이 있으니, 좌우의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 주십시오.”

송강이 즉시 좌우의 사람들을 꾸짖어 물러나게 한 뒤, 후당 깊숙한 곳으로 안내하여 이야기를 나누게 했다. 구양시랑은 후당에 이르러 송강에게 몸을 굽혀 인사하며 말했다.

“우리 대요국은 장군님의 대명을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왔으나, 산천이 멀고 물길이 험하여 장군님의 위엄 있는 얼굴을 뵈지 못했습니다. 또한 장군님께서 양산박 대채에서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여러 형제와 한마음 한뜻으로 협력하고 계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오늘날 송나라의 간신들은 어진 이의 길을 막고 있어, 금과 비단을 문하에 바치는 자는 높은 관직에 올라 중용되지만, 뇌물을 바치지 않는 자는 나라에 큰 공을 세우고도 허무하게 묻혀 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간사한 무리가 권력을 휘두르고 아첨하는 자들이 요행을 얻으며, 재능 있는 이를 시기하고 상벌이 분명하지 않으니 천하가 크게 어지러워진 것입니다. 강남, 양절, 산동, 하북에서 도적들이 잇따라 일어나고 무리가 날뛰니, 선량한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겨우 목숨만 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군님께서서는 십만 정예병을 거느리고 참된 마음으로 복종하고 계시나, 겨우 선봉의 직책만 얻었을 뿐 품계와 관직을 높여 받

지 못하고 계십니다. 여러 형제들이 애써 나라에 보답하려 해도 모두 평민의 신분일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막까지 군사를 이끌고 가 고생하며 나라에 공을 세워도, 조정에서는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간신들의 계책입니다. 만약 가는 길에 금은보화를 약탈하여 채경, 동관, 고구, 양전이라는 네 명의 간신에게 뇌물로 바친다면, 관직을 보장받고 은혜로운 명을 즉시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리하지 않는다면, 장군께서 설령 참된 마음으로 나라에 보답하고 큰 공을 세운다 해도, 조정으로 돌아가면 도리어 죄인이 될 것입니다. 저 구양은 오늘 대요국 주상의 명을 받들어, 특별히 작은 관직을 가진 몸으로서 칙명을 가져왔습니다. 장군을 요나라의 진국대장군에 봉하고 병마를 총괄하는 대원수로 삼으며, 금 한 제(提)와 은 한 칭(秤), 비단 백여덟 필과 명마 백여덟 필을 내리려 합니다. 또한 백여덟 명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보내면, 그 이름에 따라 관직을 내려줄 것입니다. 이는 장군을 유혹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국왕께서 장군님의 성덕을 오래전부터 들으시고 특별히 저를 보내어, 장군님과 여러 장수께서 뜻을 같이 하여 본국을 돕도록 청하려는 것입니다.”

송강은 말을 다 듣고 대답했다.

“시랑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하지만 송강은 출신이 미천하여 운성(鄆城)의 작은 아전이었으며, 죄를 짓고 도망쳐 양산의 물가에 몸을 의탁해 재난을 피하고 있을 뿐입니다. 송나라 황제께서 세 번이나 조서를 내려 죄를 사하고 초안하러 하셨으나, 비록 관직이 낮고 직책이 미미할지언정 아직 조정의 사죄 은혜에 보답할 만한 공적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주상께서 제게 두터운 작위와 큰 상을 내리려 하시

니, 송강은 감히 이를 받들 수 없으니 시랑께서는 이만 돌아가 주십시오. 지금 날씨가 무척 더우니, 우선 군마를 쉬게 하고 잠시 국왕의 이 두 성을 빌려 군사를 주둔시키겠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히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논의하도록 합시다.”

구양시랑이 말했다.

“장군께서 거절하지 마시고, 우선 요나라 왕이 내린 금과 비단, 안장과 말부터 받으십시오. 제가 돌아가서 천천히 다시 이야기를 나누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시랑께서는 우리 백여덟 명의 귀와 눈이 매우 밝다는 것을 모르시는군요. 만약 소문이 퍼져나가면 먼저 화를 입게 될 것입니다.”

구양시랑이 말했다.

“병권은 모두 장군님의 손안에 있는데, 누가 감히 따르지 않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시랑께서는 사정을 잘 모르십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는 성품이 곧고 용맹한 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상황을 잘 조율하여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뒤에 천천히 답을 드려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금과 비단 가득 싣고 계주를 나서니,
훈풍에 돌아본 얼굴 수줍음 건넌 길 없네.
요왕이 만약 행복하여 돌아온 일을 묻는다면,
구름은 푸른 산에 있고 달은 누각에 있다 하리.

그리하여 술과 안주를 준비해 시중들게 하고, 구양시랑을 배웅하여 성 밖으로 나가 말을 타게 했다. 송강은 곧 군사 오용을 청해 상의하며 물었다.

“방금 구양시랑이 한 말은 어떠하오?”

오용은 그 말을 듣고는 길게 한숨을 내쉬더니,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속으로 깊이 생각에 잠겼다. 송강이 곧 물었다.

“군사께서는 어찌하여 한숨을 쉬시오?”

오용이 대답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형님께서는 충의를 위주로 삼으시니 아우인 제가 감히 많은 말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양시랑이 한 말은 참으로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송나라 천자가 지극히 성스럽고 명철하시다 하나, 과연 채경, 동관, 고구, 양전이라는 네 간신이 권력을 독점하여 주상께서 그들의 말을 믿고 계십니다. 만약 나중에 설령 공을 세운다 해도 반드시 상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 번이나 초안을 받았으나 형님께서는 우두머리이심에도 겨우 선봉이라는 허울뿐인 직책만 얻으셨지 않습니다. 제 어리석은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송나라를

버리고 요나라를 따르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다만 그것은 형님의 충의로운 마음을 저버리는 일이 될 뿐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곧 말했다.

“군사께서는 틀렸소! 만약 요나라를 따른다면 그런 말은 결코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설령 송나라가 나를 저버릴지언정, 나의 충심은 송나라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오. 훗날 설령 공을 세워 상을 받지 못한다 해도 역사에 이름을 남길 것이오. 만약 바른 길을 등지고 역행한다면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오! 우리들은 마땅히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 죽음으로써 그 뜻을 다할 것이오!”

오용이 말했다.

“만약 형님께서 마음속에 충의를 간직하신다면, 바로 이 계책을 써서 패주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니, 일단 잠시 멈추고 군마를 쉬게 하며 기운을 북돋워야 합니다.”

송강과 오용은 계책을 세운 뒤, 아직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은 여러 장수와 함께 계주에 주둔하며 무더위가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다음 날, 공손승과 중군(中軍)에서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던 중 송강이 물었다.

“선생님의 스승님이신 나진인께서 성세의 고결한 선비라는 소문을 익히 들었습니다. 지난번 고당주를 칠 때 고령의 사악한 술법을 깨뜨리

려, 몰래 대중과 이규를 보내 당신께 전하기를, ‘존경하는 스승 나진인의 술법은 영험하기 그지없다’라고 하더군요. 결례가 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현재께서 저 송강을 이끌고 법좌 앞으로 가 향을 피우며 참배하게 하여 속세의 때를 씻어내게 도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선생의 뜻은 어떠신지요?”

공손승이 대답했다.

“빈도 또한 고향에 계신 노모를 뵙고 스승님께 문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연일 군사를 주둔시키느라 자리를 비우지 못하시는 것을 보고 감히 말씀을 꺼내지 못했을 뿐입니다. 마침 오늘 형님께 말씀을 올리려던 참이었는데, 뜻밖에 형님께서 먼저 제안을 하시니 참으로 반갑습니다. 내일 새벽에 함께 스승님께 예를 갖추러 가고, 저는 그 길에 노모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송강은 군사 오용에게 군마를 관리하도록 잠시 맡겼다. 명향과 깨끗한 과일, 금과 구슬, 채색 비단 등을 준비하고 화영, 대중, 여방, 광성, 연순, 마린 등 여섯 명의 두령을 데려갔다. 송강과 공손승을 포함해 총 여덟 명의 기병이 오천 명의 보병을 거느리고 길을 나서 구궁현 이선산으로 향했다. 송강 일행이 말을 타고 계주를 떠나 산봉우리 깊숙한 곳에 이르니, 푸른 소나무가 길에 가득하고 서늘한 기운이 솔솔 불어와 무더위가 전혀 느껴지지 않으니 참으로 아름답고 경치 좋은 산이었다. 공손승이 말 위에서 말했다.

“이곳은 호어비산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송강이 그 산을 바라보니 다음과 같았다.

사방이 험준한 산봉우리로 둘러싸였고, 여덟 방향에서 뿔어져 나오는 경치는 눈부시게 아름답구나.

겹겹이 쌓인 새벽빛은 맑은 노을에 비치고, 쉼 없이 흐르는 거문고 소리는 폭포수처럼 쏟아지네. 계곡물은 옥을 씻어내듯 맑게 흐르고, 옥빛 벼랑 위에는 푸른 숲이 층층이 쌓였구나. 흰 구름 머무는 동굴 입구에는 자줏빛 등나무와 푸른 덩굴이 높이 드리워져 있고, 벽옥 같은 봉우리 앞에는 붉은 계수나무가 절벽에 매달려 푸른 넝쿨을 휘감고 있네. 푸른 원숭이는 과일을 바치고, 무리 지은 사슴들은 꽃을 입에 물고 노니는구나. 천 개의 봉우리는 저마다 빼어난 자태를 뽐내고, 깊은 밤 백학은 신선의 경전을 듣는 듯하며, 만 개의 골짜기는 물줄기를 다투어 흐르고, 따스한 바람 속에서 산새들은 서로 마주 보며 지저귀네. 세속의 먼지 닿지 않는 외딴곳에 자리 잡았으니, 깊은 산속에 수레와 말 발길이 어찌 닿았으랴.

공손승과 송강은 곧장 자허관 앞까지 이르렀다. 일행은 말에서 내려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소교(小校, 하급 군졸) 하나가 향과 예물을 받쳐 들고 관 안의 학헌(鶴軒) 앞으로 곧장 들어갔다. 관 안에 있던 도사들이 공손승을 보자 모두 앞으로 나와 예를 갖추었고, 함께 온 송강에게도 다가와 예를 올렸다.

공손승이 물었다. “스승님께서는 어디 계시는가?”

도사들이 대답했다. “스승님께서는 요근래 뒤편 은거처에서 정좌하며 수행 중이시라, 관 안으로는 좀처럼 나오지 않으십니다.”

공손승은 그 말을 듣고 송강과 함께 곧장 뒷산의 은거처로 향했다. 관 뒤편으로 들어가니 길은 험하고 굽이굽이 계단과 길이 뒤섞여 있었다. 채 일 리도 못 가서 가시덤불이 울타리처럼 둘러쳐진 곳이 나타났는데, 울타리 밖은 온통 푸른 소나무와 향나무뿐이었으나 울타리 안은 온통 보석 같은 풀과 꽃이 가득했다. 그 가운데 세 칸짜리 설동(雪洞)이 있었는데, 나진인이 그 안에서 단정히 앉아 경전을 읽고 있었다. 동자가 손님이 온 것을 알고 문을 열어 맞이했다.

공손승은 먼저 초암의 학헌 앞으로 나아가 스승에게 절을 올린 뒤 이렇게 아뢰었다. “제자의 옛 친구인 산동의 송공명이 조정의 초안(招安, 항복 권유)을 받아들여, 이제 칙명을 받들어 선봉의 직책을 맡고 대요의 적을 물리치러 군사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계주에 이르러 특별히 스승님께 인사를 올리고자 이곳에 들렀습니다.”

나진인이 그 말을 듣고는 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송강이 초암 안으로 들어서자 나진인이 계단을 내려와 맞이했다. 송강은 나진인에게 몇 번이고 간곡히 청하며 앉아서 예법을 받으라고 권했다. 나진인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국가의 상장군이신데, 빈도는 그 저 산골의 초야에 사는 촌부일 뿐이니 어찌 감히 이런 대접을 받겠습니까?”

송강이 완강하게 사양하며 꼭 예를 올리겠다고 고집하자, 그제야 나진인도 자리에 앉았다. 송강은 먼저 향로를 가져다 향을 피운 뒤 여덟 번 절을 올리며 예를 갖추었다. 이어 화영 등 여섯 명의 우두머리를 불

러 모두 절을 올리게 했다. 나진인은 그들 모두를 앉으라고 권하고, 동자에게 명하여 차를 달이고 과일을 내오게 했다.

나진인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위로는 별들의 기운에 응하고 밖으로는 행성들과 조화를 이루어, 함께 하늘의 도를 행하고 계십니다. 이제 송나라에 귀순하셨으니, 이 청명한 명성은 만 년 동안 닳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저는 운성(鄆城)의 보잘것없는 아전이었으나 죄를 피해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 저를 위해 사방의 호걸들이 바람을 타고 달려와 주셨으니, 마음이 통한 이들은 서로 응하고 뜻을 같이하는 이들은 서로를 찾는 법입니다. 그 은혜는 혈육 같고 그 정은 팔다리처럼 소중한 법입니다. 하늘이 상서로운 징조를 내리시니, 이제야 제가 하늘의 별과 땅의 빛에 응하여 한곳에 모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칙명을 받들어 대군을 거느리고 요나라를 정벌하러 가는 길에 뜻밖에 신선의 경지에 발을 들였으니, 전부터 맺어온 인연으로 스승님을 뵈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입니다. 부디 스승님께서 저의 앞길을 밝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나진인이 말했다. “장군께서 저를 버리지 않고 몸을 굽혀 물어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출가한 지 오래되어 속세의 법도를 떠난 몸이라 마음이 죽은 재와 같으니, 충성을 다할 길 또한 없습니다.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송강이 다시 절하며 가르침을 청했다. 나진인이 말했다. “장군, 잠시 앉아 계십시오. 소박한 채식을 준비하겠습니다. 날이 이미 저물었으

니, 이 거친 산속의 초라한 잠자리에서 하룻밤 머무시고 내일 일찍 길을 떠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장군의 뜻은 어떠신지요?”

송강이 즉시 대답했다. “송강은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아 어리석음을 깨우치고자 하는데, 어찌 그리 쉽게 떠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고는 곧바로 수하를 불러 금과 구슬, 채색 비단을 가져오게 하여 나진인에게 올렸다. 나진인이 말했다. “빈도는 그저 들판에 사는 늙은이로 세상에 몸을 기탁하고 있을 뿐입니다. 설령 이런 금과 구슬을 받는다 한들 제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에는 입을 무명옷 한 벌 뿐이고, 비단옷은 입어본 적도 없습니다. 장군께서는 수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계시니 군 앞에서의 상금이 막대할 텐데, 제게 주시는 것은 거두어 가시길 바랍니다.”

송강이 다시 절하며 부디 받아달라고 간청했다. 나진인이 완강히 거절하자, 그제야 소박한 채식을 차려 내왔고 식사를 마친 뒤 차를 마셨다. 나진인은 공손승에게 집에 가서 어머니를 뵙고 내일 아침 다시 와서 장군과 함께 성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그날 밤, 나진인은 송강을 초암에 머물게 하며 한담을 나누었다. 송강은 자신의 속마음을 상세히 털어놓으며 길을 밝혀달라고 청했다.

나진인이 말했다. “장군의 충의로운 마음은 천지와 같으니, 신명께서 반드시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훗날 살아생전에는 제후로 봉해질 것이요, 죽어서는 사당에 모셔질 것이니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장군의 명운이 짧아 온전하고 아름답게 마무리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송강이 물었다. “스승님, 설마 저 송강의 목숨이 비참하게 끝난다는 말씀입니까?”

나진인이 말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장군은 반드시 제 집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것이고, 반드시 무덤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다만 타고난 운명이 박하여 가는 곳마다 풍파가 많고, 근심은 많으나 즐거움은 적을 것입니다. 일이 잘 풀리고 기세가 좋을 때일수록 물러날 줄 알아야 하며, 부귀영화에 오래 미련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스승님, 부귀영화가 저의 뜻이 아닙니다. 그저 형제들이 늘 함께 모여, 비록 가난하고 천한 처지에 있더라도 마음만은 넉넉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저 모두가 안락하기만을 원합니다.”

나진인이 웃으며 말했다. “운명의 때가 다가오는데, 어찌 그대들이 미련을 두도록 내버려 두겠는가?”

송강이 다시 절하며 나진인에게 법어를 구했다. 나진인은 동자에게 명하여 종지와 붓을 가져오게 한 뒤, 여덟 구절의 법어를 써서 송강에게 건네주었다. 그 여덟 구절은 이러하였다.

충성스러운 이는 적고, 의기 있는 이는 드물구나.

유연 땅의 공을 다 마쳤으나, 밝은 달은 헛되이 빛나네.

겨울 끝자락에 처음 마주하니, 기러기 떼는 흩어져 날아간다.

이곳저곳 떠돌다 결국, 관직의 길로 함께 돌아가는구나.

송강은 여덟 구절을 다 읽고도 그 뜻을 알 수 없어, 다시 절하며 간곡히 말했다. “스승님, 부디 그 귀한 입으로 직접 풀이해 주시어 어리석은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로진인이 말했다. “이것은 천기(天機)이니 함부로 누설할 수 없습니다. 훗날 때가 되면 장군께서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밤이 깊고 사방이 고요하니, 장군께서는 우선 관 안에서 하룻밤 머무르시고 내일 다시 만납시다. 빈도는 예전에 잠자리에 들 때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꿈이 있어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 보려 하니, 부디 너그러이 이해해 주십시오.”

송강은 여덟 구절의 법어를 거두어 품속에 깊이 간직한 뒤, 로진인에게 작별을 고하고 관 안으로 들어가 쉬었다. 도사들은 송강 일행을 방丈(方丈, 주지 스님의 거처)으로 안내하여 하룻밤을 묵게 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로진인을 찾아가니 공손승은 이미 초암에 와 있었다. 로진인은 소박한 채식 식사를 준비하여 대접하게 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로진인이 다시 송강에게 말했다.

“장군, 빈도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제자인 공손승은 본래 저와 함께 산속에서 출가하여 속세와 멀리 떨어진 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도리입니다. 허나 하늘의 별들이 잠시 모이는 운명이라 어찌 오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지금은 속세의 인연은 짧아지고 도력은 깊어지는 때입니다. 만약 그를 오늘 이곳에 머물게 하여 저를 모시게 한다면, 장군의 형제들과 맺은 지난날의 정을 저버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장군을 따라 큰 공을 세우고 승전보를 울리며 경성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때 가서 작별하는 것이 장군께서도 너그러이 이해해 주실 일입니다.

다. 그리하면 빈도에게는 도를 전수할 사람이 남게 되고, 공손승에게는 늙은 어머니께서 문가에서 애타게 기다리는 일을 면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충의를 아는 선비이니 반드시 충의로운 행동을 실천하실 터인데, 장군의 너그러운 뜻으로 빈도의 청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스승님의 법도를 어찌 감히 거역하겠습니까? 하물며 공손승 선생과 저의 형제 관계가 그러하니, 그가 가고 머무는 것을 어찌 막겠습니까?”

로진인과 공손승은 함께 절을 올리며 말했다. “장군의 금석 같은 약속에 감사드립니다.”

말을 마친 일행은 로진인에게 작별을 고했다. 로진인은 송강 일행이 초암을 나설 때까지 직접 배웅하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부디 몸을 잘 보전하시어, 하루빨리 공을 세우고 제후로 봉해지기를 바랍니다.”

송강은 절을 하고 작별 인사를 나눈 뒤 관 앞에 나왔다. 타고 온 말들은 관 안에서 먹이를 먹이고 있었으며, 수하들이 이미 관 밖에서 말들을 끌고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도사들은 송강 일행이 관 밖으로 나갈 때까지 배웅했다. 송강은 말을 끌고 산 중턱의 평탄한 곳까지 가서 공손승 일행과 함께 말에 올라타, 다시 계주로 향했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 없이 일찍 성안에 도착하여 관아 앞에 말을 멈추었다. 흑선풍 이규가 맞이하며 말했다. “형님, 로진인을 찾아가실 때 어찌하여 이 아우를 데리고 한번 가지 않으셨습니까?”

대중이 말했다. “로진인께서 말씀하시길, 네가 전에 자기를 죽이려 했던 일로 너를 몹시 괴씸하게 여기신다더라.”

이규가 대답했다. “그 양반도 나를 어지간히 골탕 먹였으면서!”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송강이 관아 안으로 들어가니 사람들이 모두 후당으로 모여들었다. 송강은 로진인이 남긴 여덟 구절의 법어를 꺼내 오용에게 건네며 그 뜻을 자세히 살펴보게 했으나, 오용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다. 사람들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어보았지만, 여전히 갈피를 잡지 못했다.

공손승이 말했다. “형님, 이것은 하늘의 기밀이 담긴 오묘한 말씀이니 절대로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잘 간직하여 평생의 보배로 삼으시고, 그저 의심만 하지 마십시오. 스승님의 법어는 나중에 때가 되면 자연히 알게 될 것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따랐고, 법어를 천서(天書) 속에 깊이 갈무리해 두었다.

이후 군마를 주둔시키며 계주에 머문 지 한 달 남짓 되었으나, 별다른 군사적 변동은 없었다. 7월 중순이 지나자 단주에서 조 추밀(추밀원 관리)의 공문이 도착했는데, 조정의 칙지를 받들어 군사를 출동시켜 싸우라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추밀원의 공문을 받자마자 군사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했다. 우선 옥전현에 가서 노준의 일행과 합류하여 군마를 훈련시키고 무기를 정비하며 인원을 배정하는 일을 마친 뒤, 다시 계주로 돌아와 깃발에 제사를 올리고 길일을 택해 출정하기로 했다.

그때 곁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대요국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송강이 나가서 맞이하니 바로 오양시랑이었다. 송강은 그를 후당으로 모셨다. 인사를 나누고 난 뒤 송강이 물었다. “시랑께서는 어떤 일로 오셨습니까?”

오양시랑이 말했다. “곁에 있는 사람들을 물러가게 해주시오.”

송강은 즉시 군사들을 물러가게 했다. 그러자 시랑이 말했다. “우리 대요의 국왕께서 공의 덕망을 몹시 흠모하고 계십니다. 만약 장군께서 흔쾌히 귀순하여 대요를 돕는다면, 반드시 작위를 내리고 후작으로 봉할 것입니다. 부디 조속히 대의를 이루어, 우리 국왕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여기에는 외인이 없으니 시랑께 충심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곳에 오셨을 때 모든 군사가 그 뜻을 알았으나, 그중 절반은 귀순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만약 제가 시랑을 따라 유주를 나가 낭주(郎主, 요나라 임금)를 알현하러 간다면, 부선봉 노준의가 반드시 군사를 이끌고 뒤쫓아올 것입니다. 만약 그 성 아래에서 맞붙게 된다면 우리 형제들이 그동안 보여준 의리가 무색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우선 심복 몇 명만을 데리고 어느 성이든 가리지 않고 빌려 몸을 피하려 합니다. 저들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와 제 행방을 알게 되면, 그때 그들을 피하면 됩니다. 만약 저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들과 맞붙어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저들이 우리 행방을 알지 못한다면, 저들의 군마가 동경(東京, 송나라 수도)으로 돌아가 보고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다른 말썽이 생길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낭주를 알현하고 대요의 군마를 이끌고 나아가 저들과 싸운다 해도 결코 늦지 않을 것입니다!”

오양시랑은 송강의 말을 듣고 속으로 매우 기뻐하며 대답했다. “우리 쪽에는 패주와 가까운 곳에 두 개의 요충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익진관이라 불리는 곳인데, 양옆이 험준한 높은 산이고 가운데는 오직 역로 하나뿐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안현인데, 양쪽이 험한 산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관문을 통과하면 바로 현의 치소(행정 중심지)가 나옵니다. 이 두 곳은 패주로 들어가는 두 개의 큰 문과 같습니다. 장군께서 정 그러하시다면 패주로 가서 몸을 피하십시오. 그 고을은 우리 대요의 국구 강리정안이 지키고 있습니다. 장군께서 그곳에서 국구와 함께 머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제가 밤을 도와 사람을 보내 집으로 가서 늙은 아버지를 모셔와, 송나라와 얽힌 근본을 끊어 버리겠습니다. 시랑께서는 몰래 사람을 보내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우선 그렇게 하기로 하고, 오늘 밤에 바로 채비를 마치겠습니다.”

오양시랑은 크게 기뻐하며 송강과 작별하고 말을 타고 떠났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나라를 위해 싸운 선비가 오랑캐에게 굴복하니 얼마나 가슴 아픈가,
상산에서 적을 꾸짖던 그 이름은 여전히 향기롭구나.

만약 송강이 요나라에 항복하려 했다면,
어찌 양산에서 대왕 노릇을 하던 모습과 같겠는가.

그날 송강은 사람을 보내 노준의, 오용, 주무를 계주로 불러들여, 패주를 피로써 차지할 방책을 함께 논의하게 했다. 논의를 마친 뒤 노준의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오용과 주무는 몰래 여러 장수에게 이렇게 이렇게 행동하라고 일러두었다.

송강이 데려가는 인원은 임충, 화영, 주동, 유당, 목홍, 이규, 번서, 포옥, 향충, 이곤, 여방, 광성, 공명, 공량까지 총 열다섯 명의 두령이었으며, 군졸은 만 명 남짓한 군교들만 데리고 갔다. 인원 배정을 마치고 오양시랑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이틀을 기다리니 오양시랑이 말을 타고 급히 달려오며 송강에게 말했다.

“우리 국왕께서 장군이 참으로 마음 씀씀이가 넓은 분임을 알고 계십니다. 이미 귀순하기로 마음먹으셨는데, 송나라 군사들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우리 대요국에는 훌륭한 병사와 장수가 얼마든지 있으며, 강한 인물과 튼튼한 군마가 도울 것입니다. 만약 장군께서 명령을 받드는 것이 불안하시다면, 우선 패주에서 국구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제가 사람을 보내 장군을 모셔오게 하는 것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시랑에게 물었다. “함께 가기로 한 군사들이 채비를 모두 마쳤으니, 언제 출발하면 되겠습니까?”

오양시랑이 대답했다. “오늘 밤 바로 출발할 것이니, 장군께서는 명령을 내려주십시오.”

송강이 즉시 명령을 내리니, 모든 군사에게 말의 방울을 떼게 하고 입에 재갈을 물린 채 급히 이동하게 했다. 그렇게 하여 그날 밤 바로 길

을 떠났다. 송강은 사신을 정성껏 대접했다. 황혼이 질 무렵, 성의 서문을 열고 나아갔다. 오양시랑이 수십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장서서 길을 인도했고, 송강이 한 무리의 군마를 이끌고 그 뒤를 따랐다.

20여 리쯤 갔을 때, 송강이 말 위에서 갑자기 소리를 높여 외쳤다.
“이런, 큰일이로다!”

그가 말했다. “군사 오용 학사도 함께 와서 대요에 귀순하기로 약조하였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너무 급히 오느라 그를 기다리지 못했구나. 군마를 천천히 움직여서, 서둘러 사람을 보내 그를 데려오게 하라.”

당시는 이미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을 넘긴 시각이었고, 앞에는 이미 익진관의 관문이 보였다. 오양시랑이 크게 외쳤다. “문을 열어라!”

그러자 관문을 지키던 군장들이 문을 열었고, 군마와 군사들은 모두 관문을 통과하여 패주에 이르렀다. 날이 밝아올 무렵, 오양시랑은 송강을 성 안으로 모셔 들여 국구 강리정안에게 알렸다.

알고 보니 이 국구는 대요 국왕 황후의 친오라비로, 권세가 매우 당당할 뿐만 아니라 용맹함 또한 남달랐다. 그는 두 명의 시랑을 두어 패주를 지키게 했는데, 한 명은 금복 시랑이고 다른 한 명은 엽청 시랑이었다. 송강이 항복하러 왔다는 소식을 듣자, 그는 군마를 일단 성 밖에 진을 치게 하고, 우두머리인 송 선봉만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오양시랑은 송강을 데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정안 국구를 알현했다. 국구는 송강을 보자 범상치 않은 기운을 느끼고는, 격식을 낮추어 그를 맞이했다. 그를 후당으로 모셔 인사를 나눈 뒤 상석에 앉혔다. 송강이 말했다. “국구께서는 금지옥엽 같은 귀한 몸이신데, 저 같은 항복한 자가 어찌 국구의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감당하겠습니까? 제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안 국구가 말했다. “장군의 명성이 온 세상에 자자하고 중원을 진동시키며 대요국에까지 들려오고 있다고 들었소. 우리 국왕께서도 장군을 몹시 흠모하고 계시구려.”

송강이 대답했다. “소장은 국구의 복음(福蔭)에 미치지 못할 뿐이니, 국왕의 큰 은혜에 온 마음을 다해 보답하겠습니다.”

정안 국구는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축하 연회를 준비하게 했다. 또 한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삼군에게 상을 내리게 했다. 성 안에서 저택 한 채를 골라 송강과 화영 등이 머물게 한 뒤에야 비로소 군마들을 모두 성 안으로 들여 진을 치게 했다. 화영 등 장수들도 모두 국구 일행을 찾아뵙게 했다.

번장(외국 장수)들이 송강과 함께 머물 자리를 정하고 난 뒤, 송강은 오양시랑에게 부탁하며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시랑께서 관문을 지키는 군사들에게 사람을 보내 전해주시시오. 혹시 군사 오용이 올 수도 있으니, 오면 바로 관문을 통과하게 하라고 말입니다. 그와 함께 머물고자 합니다. 어젯밤에는 너무 급히 오느라 그를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잠시 당신과 함께 오느라 그를 깜빡 잊었습니다. 군사적 대소사를

결정하는 데 그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게다가 우리 군사는 문무를 겸비하고 지략이 뛰어나, 육도삼략에 통달하여 못 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양시랑은 그 말을 듣자마자 즉시 명을 전하여, 익진관과 문안현 두 곳의 관문을 지키는 장수들에게 다음과 같이 알리게 했다. “글 읽는 선비의 차림을 한 사람이 있는데, 성은 오요, 이름은 용이라 하니, 그를 보면 즉시 통과시켜 주시오.”

한편, 문안현은 오양시랑의 말을 전해 듣자마자 즉시 사람을 보내 익진관으로 가서 그 사정을 자세히 전하게 했다. 관문 위에서 바라보니, 흙먼지가 해를 가리고 안개가 하늘을 덮은 듯 자욱한 가운데 군마들이 관문을 향해 달려오고 있었다. 관문을 지키던 장병들이 통나무와 포석을 준비하며 적을 맞이할 채비를 하는데, 산 앞쪽 말 위에 선비 차림을 한 한 사람이 보였다. 그 뒤로는 행각승 한 명과 행자 한 명이 따르고 있었고, 그 뒤로 수십 명의 백성들이 줄지어 관문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말이 관문 앞에 이르자, 그 선비가 큰 소리로 외쳤다. “나는 송강 수하의 군사 오용이다! 형님을 찾아가려는데 송나라 군사들에게 급히 쫓기고 있으니, 어서 문을 열어 나를 구해주시요!”

관문을 지키던 장수가 말했다. “분명 이 사람일 것이로다.”

그는 즉시 문을 열어 오용 학사를 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러자 뒤따르던 두 승려와 행자도 함께 관 안으로 비집고 들어왔다. 관문을 지키던 이들이 막아섰으나, 행자는 이미 문 안으로 밀고 들어간 뒤였다. 그

러자 승려가 말했다. “우리 두 출가자가 군마들에게 쫓기고 있으니, 어서 우리를 구해주시오!”

관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기어이 그들을 밖으로 밀어내려 하자, 승려가 발끈하였고 행자 또한 화를 내며 크게 소리쳤다. “우리는 출가자가 아니다! 우리는 사람 죽이는 태세(太歲), 노지심과 무송이 바로 우리다!”

화화상 노지심이 철선장을 휘둘러 머리를 내리쳤고, 행자 무송은 쌍계도를 뽑아 들어 마치 오이를 베고 채소를 썰 듯이 사람들을 베어 넘겼다. 뒤따르던 수십 명의 백성들은 바로 해진, 해보, 이립, 이운, 양림, 석용, 시천, 단경주, 백승, 옥보사 일행이었다. 그들은 일제히 관안으로 돌진하여 단숨에 관문을 장악했다. 이때 노준의가 군사를 이끌고 관문에 이르러 일제히 문안현으로 쳐들어왔으니, 관문을 지키던 관원들이 어찌 적을 막아낼 수 있었겠는가. 이리하여 이 무리는 모두 문안현에 모여 합류하게 되었다.

한편, 오용이 말을 타고 달려 패주 성 아래에 이르자, 성문을 지키던 번장(외국 관리)이 성안에 보고했다. 송강이 오양시랑과 함께 성 밖에서 만나 오용을 정안 국구에게 소개했다. 오용이 말했다. “오용이 미처 제때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막 성 밖으로 나오려는데, 생각지도 못하게 노준의가 눈치를 채고 관문 앞까지 쫓아왔습니다. 소생이 이제야 성안으로 들어왔으니, 지금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유성처럼 빠른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했다. “송나라 군사가 문안현을 점령하고, 군마들이 패주 근처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정안 국구는 즉시 병사를 점검하여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려 했다. 송강이 말했다. “아직 병사를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그들이 성 아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제가 직접 좋은 말로 달래보겠습니다. 만약 말을 듣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그들과 맞붙어도 늦지 않습니다.”

정찰병이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송나라 군사가 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정안 국구와 송강은 함께 성벽 위로 올라가 상황을 살폈다. 송나라 군사들이 성 아래에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다. 노준의는 투구를 쓰고 갑옷을 갖춘 채, 말을 타고 창을 가로지르며 군사를 지휘하고 장수들을 점검하며 위세를 떨치고 있었다. 그는 문기(門旗) 아래에서 말을 타고 서서 큰 소리로 외쳤다. “반역을 꾀하는 송강은 당장 나오너라!”

송강은 성루 아래 여장(女牆, 성벽 위의 낮은 담)에 서서 노준의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우여, 송나라는 상과 별이 분명치 못하고, 간신들이 득세하며 간사한 무리가 권력을 휘두르고 있소. 나는 이미 대요국 국왕에게 귀순했소. 그대도 마음을 합쳐 나를 도와 대요 국왕을 보필한다면, 양산박에서 함께 지내던 정을 저버리지 않는 것이 될 것이요.”

노준의가 크게 꾸짖었다. “나는 북경에서 가정을 이루고 평안히 살고 있는데, 네놈이 나를 꾀어 산으로 끌어들이려 하는구나! 송나라 천자가 세 번이나 조서를 내려 우리를 귀순시키라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네놈에게 잘못된 일이란 말이나? 네놈이 어찌 감히 조정에 반역을 한

단 말이냐! 식견도 짧고 무능한 놈은 어서 나와서 말로 해보아라. 승패가 누구에게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자꾸나!”

송강은 크게 노하여 성문을 열라고 명령한 뒤, 임충, 화영, 주동, 목홍 네 장수를 보내 저놈을 생포하게 했다. 노준의는 네 장수를 보자마자 군사들을 멈춰 세우고, 말을 달려 창을 휘두르며 네 장수를 향해 돌진하니 조금의 두려움도 없었다. 임충 등 네 장수는 스무 합 넘게 싸우다가 말을 돌려 성 안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노준의가 창을 휘두르며 신호를 보내자, 뒤따르던 대부대가 일제히 들이닥치며 추격해 왔다.

임충과 화영은 조교(弔橋, 다리)를 지키며 몸을 돌려 다시 싸웠는데, 이는 일부러 패하는 척하며 노준의를 성 안으로 유인하기 위함이었다. 뒤따르던 삼군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자, 성안에 있던 송강과 여러 장수도 일제히 병변을 일으켜 성 안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맞이했다. 사방에서 뒤섞여 싸움이 벌어지니, 적들은 손을 쓸 도리가 없었고 모두가 항복하였다. 정안 국구는 너무 놀라 눈을 부릅뜬 채 멍하니 서 있다가 어찌할 바를 모르더니, 여러 시랑과 함께 사로잡히고 말았다.

송강이 군사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오자, 여러 장수도 모두 주아(州衙, 지방 관아)로 모여 송강을 뵈었다. 송강은 명을 내려 정안 국구와 오양시랑, 금복시랑, 엽청시랑을 먼저 모시고 모두 자리를 나누어 앉게 하여 예우를 갖추어 대접했다. 송강이 말했다.

“그대들은 대요국의 사정을 잘 모르고 우리를 잘못 보고 있구려! 우리 호걸들은 그저 산림에 모여 지내는 무리가 아니오. 하나같이 하늘의

별자리에서 내려온 신령한 신하들인데, 어찌 주군을 배반하고 대요에 항복하겠소? 우리는 그저 패주를 취하고자 이번 기회를 빌렸을 뿐이오. 이제 뜻을 이루었으니 국구와 여러분은 어서 본국으로 돌아가시오. 부디 의심하거나 근심하지 마시오. 나는 여러분을 해칠 마음이 전혀 없소. 다만 여러분의 부하들과 각 집안의 노인과 아이들까지 모두 본국으로 돌려보내 주겠소. 패주 성은 이미 천조(天朝, 송나라)의 땅이 되었으니, 다시는 와서 다투려 하지 마시오. 앞으로는 칼과 창이 가는 곳마다 다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오.”

송강이 호령을 마치자, 성안에 있던 번장들을 모두 불러 모아 정안 국구를 수행하여 유주로 돌아가게 했다. 송강은 한편으로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부선봉 노준의에게 군사의 절반을 나누어 주어 계주를 지키러 가게 했으며, 자신과 나머지 장수들은 패주를 지키기로 했다. 또한 사람을 보내 군첩을 지니게 하여 조 추밀사에게 패주를 함락했다는 소식을 급히 전하게 했다. 조 안무는 이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즉시 표문을 작성하여 조정에 보고했다.

한편, 정안 국구와 세 명의 시랑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연경으로 돌아가 국왕을 뵈었다. 그들은 송강이 항복하는 척하며 속인 일을 낱낱이 보고했고, 이 때문에 저 오랑캐 무리에게 패주를 빼앗겼다고 아뢰었다. 대요 국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오양시랑을 꾸짖었다. “이 비겁하고 간사한 놈 같으니! 네놈이 이리저리 아첨하며 일을 꾸미는 바람에 나의 요충지인 패주를 잃었으니, 이제 내가 연경을 어찌 지키란 말이나? 어서 저놈을 잡아다 목을 베어라!”

이때 조정에서 올안 통군이 나와 아뢰었다. “국왕 전하, 심려치 마옵소서. 저놈을 상대하는 데 국왕 전하께서 직접 힘을 쓰실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소신에게 따로 방도가 있으니, 오양시랑을 베는 것은 거두어 주시옵소서. 만약 송강이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비웃을 것입니다.”

대요 국왕은 그 말을 허락하여 오양시랑을 사면했다. 그러자 올안 통군이 다시 아뢰었다. “소신이 부하인 이십팔수 장군들과 십일요 대장들을 거느리고 진을 쳐서, 저 오랑캐 무리를 단숨에 평정하겠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이번에는 하 통군이 달려와 보고했다. “국왕 전하,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소신에게 따로 식견이 있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닭을 잡는 데 어찌 소 잡는 칼을 쓰겠느냐’고 하지 않습니까? 주력이신 올안 통군께서 친히 나서실 것까지도 없이, 이 하 아무개가 작은 계책을 써서 저 오랑캐 무리가 시체조차 문힐 땅이 없게 만들어 버리겠습니다!”

국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사랑하는 경이여, 그 묘책을 어서 들려다오.”

하 통군이 입을 열어 혀를 놀리며 묘책을 설명하니, 그 내용은 이러하였다. 노준의가 어느 곳에 이르러, 말은 먹일 풀이 없고 사람은 군량이 끊겨, 삼군(三軍)의 용맹한 장졸들의 기운을 단번에 꺾어놓고 당대의 영웅들조차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하 통군이 과연 어떤 계책을 내놓았는지, 그 내용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6회 — 송공명이 독록산에서 크게 싸우고, 노준의가 군사를 일으켜 청석옥을 함락시키다

宋公明大戰獨鹿山 盧俊義兵陷青石峪

이야기는 이러하다. 하통군의 성은 하요, 이름은 중보로, 요나라 울 안통군의 부통군(副統軍, 부사령관) 직책을 맡고 있었다. 키는 한 장(丈, 약 3m)에 달할 만큼 거구였고 힘은 만 명을 상대할 정도로 장사였으며, 요술에도 능했다. 그는 삼첨양인도를 무기로 사용하며 현재 유주를 지키며 여러 길의 군마를 거느리는 제독(提督)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당시 하중보가 국주에게 보고했다. "소인이 살펴보니, 유주 땅에 청석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들어가는 길이 단 하나뿐이고 사방이 온통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빠져나갈 길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신이 기병 십여 기를 뽑아 저 오랑캐들을 그 안으로 직접 몰아넣

은 뒤, 밖에서 군사를 배치해 포위한다면, 저들이 앞뒤로 막혀 퇴로가 없으니 반드시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울안통군이 물었다. "어떻게 저놈들을 그곳으로 불러들일 셈이냐?"

하중보가 대답했다. "저놈들은 이미 큰 고을 세 곳을 함락시켜 기세가 등등하고 마음이 교만해진 상태라, 분명 유주를 노릴 것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군사를 나누어 저들을 유인하면, 저들은 기세를 몰아 쫓아올 것이고, 그렇게 함정에 빠진 산속으로 끌어들인다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울안통군이 말했다. "네 계책이 혹시라도 잘 안되면 내 대군을 보내 쓸어버려야 할 터이니, 네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다."

하중보는 즉시 국주에게 작별을 고하고 갑옷과 무기, 말들을 챙겨 보병 병사들을 거느리고 유주성으로 돌아갔다. 그는 장수와 군마를 점검한 뒤 세 부대로 나누었다. 한 부대는 유주를 지키게 하고, 나머지 두 부대는 패주와 계주 쪽으로 진격하도록 했다. 명령을 내린 뒤 두 부대의 군마를 성 밖으로 내보내며, 두 아우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나가라고 일렀다. 큰아우 하철은 패주를 공격하고, 작은아우 하운은 계주를 공격하게 하되, 절대로 이겨서는 안 되며 오직 패배하는 척하며 유주 경계 안으로 유인해야 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렇게 하면 자연히 계책이 통할 것이었다.

한편, 송강 일행이 패주를 지키고 있을 때 누군가 급히 달려와 보고했다. "요나라 군사가 계주를 침범했습니다. 자칫 큰 화를 입을까 두려우니, 군사를 움직여 구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강이 말했다. "저들이 공격해 온다면 마땅히 맞서 싸워야 한다. 이번 기회에 유주를 취하자."

송강은 소수의 군사만 남겨 패주를 굳건히 지키게 하고, 나머지 대부대는 진영을 걷어 일으켰다. 그들은 군사를 이끌고 계주로 이동하여 노준의의 군마와 합류한 뒤, 진군할 날짜를 정했다.

한편, 요나라 장수 하철이 군사를 이끌고 패주로 쳐들어왔다. 송강이 막 군마를 몰아 나가던 참이라 길 한복판에서 딱 마주치게 되었다. 싸움이 세 합을 채 가기도 전에 하철이 군사를 이끌고 패배하여 달아났으나, 송강은 굳이 뒤쫓지 않았다. 한편, 하운은 계주를 공격하러 나갔다가 마침 호연작과 마주쳤는데,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물러났다.

송강은 노준의와 합류하여 함께 막사에 들어앉아 유주를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그러자 오용과 주무가 말했다. "유주에서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공격해 오다니, 이는 필시 우리를 유인하려는 계책이니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나 노준의는 이렇게 말했다. "군사님, 틀렸습니다! 저놈들이 벌써 여러 번이나 패배했는데, 이것이 어찌 적을 유인하는 계책이겠습니까? 지금 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당장 유주를 치지 않으면 또 언제 가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저들의 기세가 꺾이고 힘이 다했으니, 어떤 좋은 계책을 쓸 수 있겠느냐? 마침 이 기회를 이용하면 된다."

결국 송강은 오용과 주무의 말을 따르지 않고, 군사를 이끌고 유주를 향해 곧장 진격했다. 그는 양쪽의 군마를 크고 작은 세 갈래 길로 나누어 출발시켰다. 그때 전군에서 보고가 올라왔다. "요나라 군사가 앞에서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송강이 군사들 앞으로 나가 살펴보니, 산비탈 뒤쪽에서 검은 깃발 한 무리가 나타났다. 송강이 즉시 전군에게 진형을 갖추라고 명하자, 요나라 장수들이 네 갈래로 나뉘어 산비탈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송강과 노준의, 그리고 여러 장수가 살펴보니, 마치 수천수만 명의 군마가 검은 구름처럼 쏟아져 나오는 듯했다. 그들은 한 명의 요나라 관원을 호위하며, 삼첨양인도를 옆으로 비껴 든 채 말 위에서 진영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그 요나라 관장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서리처럼 빛나는 철갑 투구 쓰고,
몸에는 해처럼 빛나는 고리 갑옷 입었네.
발에는 초록빛 구름무늬 장화 신고,
허리에는 거북 등무늬 띠를 맸구나.
비단처럼 화려한 붉은 도포를 받쳐 입고,
손에는 쇠막대 늑대 이빨 몽둥이 들었네.
세 갈래 날 달린 여덟 고리 칼을 쥐고,
날개 달린 천리마에 올라타 앉아 있네.

앞에 나부끼는 군기에는 '대료 부통군 하중보'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는 말을 달려 칼을 가로로 든 채 진영 앞으로 나섰다. 송강이 이

를 보고 말했다. "요나라의 통군이라면 필시 상장일 터인데, 누가 감히 나가 싸우겠느냐?"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도' 관승이 청룡언월도를 휘두르며 적토마를 타고 번개같이 진영 밖으로 튀어 나갔다. 그는 아무 말도 없이 곧장 하중보와 맞붙었다. 서른 합 넘게 싸우자 하중보의 기력이 다하여, 칼을 휘둘러 피하며 본진을 향해 달아나기 시작했다. 관승이 말을 몰아 뒤쫓았고, 하중보는 패배한 병사들을 이끌고 산비탈 너머로 도망쳤다. 송강도 즉시 군마를 몰아 추격했는데, 한 4, 50리쯤 갔을 때 사방에서 북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송강이 급히 군사를 돌리라고 외치는 찰나, 산비탈 왼쪽에서 요나라 군사 한 무리가 나타나 길을 가로막았다. 송강이 다급히 병력을 나누어 적을 맞서려는데, 이번에는 오른쪽에서 또 다른 요나라 군사가 나타났다. 설상가상으로 앞서 달아났던 하중보가 군사를 이끌고 되돌아와 협공해 왔다. 송강의 병마는 사방에서 구원하려 애썼으나, 몰려드는 요나라 군사들에게 밀려 두 갈래로 흩어지고 말았다.

한편, 노준의는 뒤에서 군사를 이끌고 싸우던 중 앞서 나간 군마들이 보이지 않자, 서둘러 길을 찾아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측면에서 또 다른 요나라 군사가 들이닥쳐 맞붙어 싸웠다. 요나라 군사들의 함성이 하늘을 찌를 듯했고, 사방에서 몰아치는 공격에 노준의와 장수들은 좌우로 요나라 군사들에게 포위되어 진영의 한복판에 갇히고 말았다. 노준의는 여러 장수를 배치하여 좌우로 부딪치고 전후로 휘저으며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장수들은 위세를 떨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방을 누비며 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검은 안개

가 하늘을 가리더니, 대낮인데도 밤처럼 캄캄해져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노준의는 마음이 급해져 즉시 한 무리의 군사를 이끌고 죽기 살기로 길을 뚫으며 나아갔다. 어둠 속에서 앞쪽으로부터 난령(鸞鈴, 말방울) 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말을 몰아 병사들을 이끌고 그 소리를 향해 돌진했다. 어느 산고개에 이르자 안에서 사람들의 말소리와 말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노준의가 군사를 거느리고 안으로 들어서자,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돌과 모래가 날아다녀 맞은편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노준의가 안으로 들어가 싸운 지 대략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쯤 되었을 때야 비로소 바람이 잦아들고 구름이 걷히며 다시 별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주위를 살펴보니, 사방은 온통 높은 산이었고 좌우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었다. 험준한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 올라갈 길이란곤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함께 온 일행을 살펴보니 서녕, 색초, 한도, 팽기, 진달, 양춘, 주통, 이충, 추연, 추윤, 양림, 백승 등 열두 명의 장수와 오천 명의 군마가 있었다. 별빛 아래에서 돌아갈 길을 찾으려 했으나,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 노준의가 말했다. "군사들이 하루 종일 싸우느라 정신이 몹시 피곤할 것이다. 우선 이곳에서 하룻밤 쉬면서 말도 좀 돌보고, 내일 다시 돌아갈 길을 찾아보자."

한편, 송강이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방에서 검은 구름이 일어나고 돌과 모래가 휘몰아치더니, 군사들이 서로의 얼굴조차 보이지 않을 지경이 되었다. 이때 군사들 틈에 있던 공손승이 말 위에

서 이 상황을 보고 이것이 요술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급히 보검을 뽑아 들고 말 위에서 도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호통을 쳤다. "물러가라!" 그가 보검으로 가리키자 먹구름이 사방으로 흩어지고 광풍이 멈추더니, 요나라 군사들이 싸우지도 않고 스스로 물러갔다. 송강은 군사를 몰아 포위망을 뚫고 나가 어느 높은 산에 이르러 본대의 군마들과 합류했다. 그는 식량 수레들을 앞뒤로 길게 이어 붙여 임시로 진영을 만들었다. 크고 작은 장수들의 수를 세어보니, 노준의를 포함한 열세 명의 장수와 오천여 명의 군사는 보이지 않았다.

날이 밝자 송강은 즉시 호연작, 임충, 진명, 관승에게 각각 군사를 나누어 주어 사방을 찾아 나서게 했으나, 하루 종일 아무런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다. 송강은 현녀과(玄女課, 점술의 일종)를 가져와 향을 피우고 점을 친 뒤 이렇게 말했다. "대운(大運)에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어둡고 음침한 곳에 갇혀 있어 당장 나오기가 매우 어렵겠구나." 송강은 마음이 놓이지 않아 해진과 해보를 사냥꾼으로 변장시켜 산 주변을 돌며 찾게 했다. 또한 시천, 석용, 단경주, 조정을 시켜 사방으로 소식을 알아보게 했다.

한편, 해진과 해보는 호랑이 가죽 도포를 걸치고 강철 창을 든 채 깊은 산속을 향해 걸어갔다. 어느덧 날이 저물어갈 무렵, 두 사람이 산속에 이르러 주위를 둘러보니 인가라고는 눈에 띄지 않고 온통 험한 산봉우리들뿐이었다. 해진과 해보는 몇 개의 산등성이를 더 넘었다.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데, 멀리 산기슭에서 등불 하나가 깜빡이는 것이 보였다. 형제는 서로 말했다. "저기 등불이 보이는 곳이면 분명 사람이 사는 집이 있을 거야. 우리 저기로 가서 밥이라도 좀 얻어먹어

보자." 두 사람은 등불이 보이는 곳을 향해 발걸음을 재촉하며 달려갔다. 1리 남짓 가지 않아 숲 근처 비탈에 초가집 서너 채가 모여 있는 곳에 다다랐는데, 허물어져 가는 벽 사이로 등불 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해진과 해보가 문을 밀고 들어가니, 등불 아래 예순은 족히 되어 보이는 노파가 앉아 있었다. 형제는 강철 창을 내려놓고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노파가 말했다. "우리 자식들이 돌아온 줄 알았더니, 뜻밖에도 손님들이 오셨구려. 손님들, 절은 하지 마시오. 어디 사냥꾼이시오? 어찌 여기까지 오게 되었소?" 해진이 대답했다. "저희는 본래 산동 사람인데, 대대로 사냥꾼 집안이었습니다. 이곳에 장사를 하러 왔다가 뜻하지 않게 군사들이 몰려와 싸우는 바람에, 연달아 전투를 치르다 밀천을 다 날리고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그래서 형제 둘이 산속에서 산짐승이라도 잡아 먹고 살 길을 찾으려다, 길을 잃고 헤매는 바람에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부디 할머니께서 하룻밤만 재워 주십시오!" 노파가 말했다. "옛말에 '누가 집을 머리에 이고 다니겠느냐'고 했거늘. 우리 자식들도 사냥꾼이라 지금쯤 돌아올 때가 되었소. 손님들, 우선 좀 앉아 계시오. 내가 저녁을 좀 차려 드릴 테니 두 분이서 드시오." 해진과 해보가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라며 연신 고마워했다. 노파가 집 안으로 들어가자 두 사람은 문 앞에 앉아 기다렸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문밖에서 두 사람이 노루 한 마리를 짊어지고 들어오며 외쳤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노파가 나오며 말했다. "얘들아, 돌아왔느냐. 노루는 내려놓고 이 손님들과 인사를 나누어라." 해진과 해보가 황급히 절을 올렸다. 두 사람이 인사를 마친 뒤 물었다. "손님들은 어디서 오셨으며, 어찌 이곳에 오셨습니까?" 해진과 해보가 방금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들려주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말했다. "우리 조상은 원래 이곳 사람입니다. 나는 유이이고, 이쪽은 내 동생 유삼입니다. 아버지

는 유일인데 불행히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십니다. 이곳에서 사냥으로 먹고산 지 삼십 년은 되었습니다. 이 근처는 길이 워낙 복잡해서 우리도 모르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산동 사람인 당신들이 어찌 여기까지 와서 먹고살 길을 찾는단 말ियो? 나를 속이지 말고 말해 보시오. 당신들, 정말 사냥꾼이 맞소?" 해진과 해보가 말했다. "이미 여기까지 왔으니 어찌 숨기겠습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첩첩이 쌓인 봉우리들이 주위를 둘러싸고
군사들은 포위망 한가운데 갇혀 도망칠 길 없네.
용맹한 장수의 길을 알고자 한다면
일부러 어부와 나무꾼의 흔적 속에 몸을 숨기리라.

그때 해진과 해보가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희는 정말로 산동에서 온 사냥꾼이 맞습니다. 형제 이름은 해진과 해보라고 합니다. 양산박에서 송강 형님을 모시고 오랫동안 산적 생활을 하다가, 이번에 초안(招安)을 받아들여 형님을 따라 요나라를 치러 왔습니다. 며칠 전 하 통군(賀統軍)의 군대와 크게 싸우다가 군사가 흩어졌는데, 한 부대의 군마가 어디에 갇혔는지 알 길이 없어 저희 형제가 특별히 소식을 알아보러 왔습니다."

두 형제가 웃으며 말했다. "두 분이 호걸이시라면 어서 일어나십시오. 제가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앉아 계십시오. 제가 노루뿔다리 고기를 삶고 사주(社酒) 한 잔 데워 두 분을 대접하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기가 다 삶아져 나왔고, 유이와 유삼은 해진과 해보를 정성껏 대접했다. 술을 마시는 도중 물었다. "우리는 양산박의 송강이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선량한 백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요나라까지 전해 들어왔소." 그러자 해진과 해보가 대답했다. "저희 형님은 충의를 으뜸으로 삼아 선량한 이들을 괴롭히지 않으시며, 오직 부패한 관리와 가혹한 관리, 그리고 강한 자를 믿고 약한 자를 괴롭히는 자들만을 처단하십니다." 유이와 유삼이 말했다. "듣던 대로 정말 그렇구려!" 모두가 기뻐하며 서로 정이 들어 헤어지기 아쉬워할 정도였다.

해진과 해보가 말했다. "저희 부대에는 열댓 명의 장수가 있고 병졸이 삼오천 명이나 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가두어 두려면 꽤 넓은 땅이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그 두 사람이 말했다. "이곳 북쪽 지형을 잘 모르시는 모양이군요. 이 근처 유주 관할 지역에 청석욕(靑石峪)이라는 곳이 있는데, 들어가는 길은 딱 하나뿐이고 사방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인 높은 산입니다. 만약 그 들어가는 길을 막아버리면 다시는 나올 수 없습니다. 분명 그곳에 갇혀 있을 것입니다. 이 근처에는 그만큼 넓은 곳이 또 없습니다. 지금 송 선봉이 군사를 주둔시킨 곳은 독록산(獨鹿山)이라 불리는 곳입니다. 그 산 앞은 평탄한 지형이라 전투를 벌이기 좋고, 산 정상에서 바라보면 사방에서 오는 군마들이 다 보입니다. 만약 그 부대를 구하고 싶다면 목숨을 걸고 청석욕을 뚫어야만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청석욕 입구에는 분명 군사가 많아 그 길목을 차단하고 있을 겁니다. 그 산에는 측백나무가 아주 많지만, 청석욕 입구에 있는 커다란 측백나무 두 그루가 가장 큼니다. 그 모양이 마치 우산

뒹개 같아서 사방에서 다 보일 정도지요. 그 큰 나무 옆이 바로 골짜기 입구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조심할 것이 있습니다. 하 통군이 요술을 부릴 줄 아니, 송 선봉이 그를 물리치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해진과 해보가 이 말을 듣고 유씨 형제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밤을 도와 진영으로 돌아왔다. 송강이 보고를 받고 물었다. "두 사람이 알아낸 것이 좀 있느냐?" 해진과 해보가 유씨 형제에게 들은 말을 하나 하나 상세히 아뢰었다. 송강은 깜짝 놀라 즉시 군사 오용을 불러 상의했다. 한창 상의를 나누고 있는데, 마침 소교(小校, 하급 군관)가 달려와 보고했다. "단경주와 석용이 백승을 데리고 왔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백승은 노준의 선봉장과 함께 고립된 자인데,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니 필시 무슨 일이 생긴 것이 틀림없다." 송강이 즉시 부하를 불러 자세한 상황을 물으니, 단경주가 먼저 말했다. "저와 석용이 고산간 근처에서 상황을 살피고 있는데, 갑자기 산 정상에서 커다란 털 뭉치 하나가 굴러 내려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희 둘이 지켜보니 산기슭까지 굴러떨어졌는데, 보니 털옷을 겹겹이 둘러싸고 밧줄로 단단히 묶어놓은 뭉치였습니다. 나무 근처까지 가서 확인해 보니, 그 안에 백승이 들어 있었습니다."

백승이 말했다. "노준의 형님과 저희를 포함한 열세 명의 장수가 한창 전투를 벌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과 땅이 어둑어둑해지더니 햇빛조차 비치지 않아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직 사람의 목소리와 말 울음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노준의 형님은 그저 앞만 보고 싸우며 들어가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적진 깊숙이

들어간 줄 모르고 보니, 그곳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빠져나갈 길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군량미조차 보급받지 못해 우리 일행은 실로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노준의 형님은 저에게 산 정상에서 굴러 내려가 길을 찾아 소식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다 운 좋게 석용, 단경주 두 사람과 딱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부디 서둘러 구원병을 보내 도와달라고 하셨습니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장수들이 모두 죽게 될 것입니다."

송강은 말을 듣자마자 밤을 도와 군마를 일으켰다. 해진과 해보에게 앞장서서 길을 인도하게 한 뒤, 저 커다란 측백나무가 보이는 곳이 바로 골짜기 입구라고 일러두었다. 이어 마보군(馬步軍, 기병과 보병)에게 명하여 힘을 합쳐 돌격함으로써 반드시 골짜기 입구를 뚫어내라고 명령했다.

군마와 병사들이 밤새 달려가니 날이 밝아왔다. 멀리 산 앞에 서 있는 커다란 측백나무 두 그루가 과연 우산 모양처럼 보였다. 해진과 해보가 군마를 이끌고 산 앞까지 들이닥쳤다. 골짜기 입구를 지키던 하통군의 군대가 군마를 배치하며 맞섰고, 하탁과 하운 두 형제는 앞다투어 출전했다. 송강의 군대가 골짜기 입구를 탈취하기 위해 일제히 앞으로 나아갔다.

'표자두' 임충이 말을 달려 가장 먼저 도착하여 하탁과 맞붙었다. 두 사람은 겨우 두 합을 겨루었는데, 임충이 하탁의 복부를 향해 창을 내질러 그를 말 아래로 떨어뜨렸다. 보병 두령들은 기병대가 먼저 승기를 잡는 것을 보고 앞다투어 안으로 돌격했다. '흑선풍' 이규는 양손에 도끼를 휘두르며 요나라 병사들을 베며 나아갔다. 그 뒤를 '혼세마왕' 번

서와 '상문신' 포육이 따랐고, 그들은 패수(牌手, 방패병)인 항충, 이곤과 수많은 방패병을 거느리고 요나라 진영을 향해 곧장 들어섰다.

이규는 하운과 마주치자마자 말 아래로 파고들어 도끼로 말의 다리를 찍어버렸다. 말이 쓰러지자 하운도 말에서 떨어졌다. 이규는 날아다니는 도끼로 사람과 말을 가리지 않고 마구 베어 넘겼다. 요나라 병사들이 몰려들려 했으나, 번서와 포육이 이끄는 방패병 무리에게 가로막혀 버렸다.

하 통군이 두 형제를 잃은 것을 보고는 입으로 무언가 주문을 외우며 요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도대체 무슨 술법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갑자기 광풍이 휘몰아치더니 그 자리에서 구름이 피어올라 산봉우리를 뒤덮고 골짜기 입구를 어둡고 침침하게 가려버렸다.

그 요술이 한창 작용할 때, 송나라 군대 쪽에서 공손승이 나타났다. 그는 말 위에서 보검을 뽑아 들고는 몇 마디 주문을 외우더니 크게 외쳤다. "질(疾)!" 그러자 사방에서 광풍이 불어닥쳐 떠다니던 구름을 쓸어버렸고, 밝고 붉은 태양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마보 삼군(馬步三軍)의 장수들은 앞을 향해 돌진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요나라 병사들과 싸웠다. 하 통군은 자신의 술법이 통하지 않고 적군이 거세게 몰려오자, 스스로 칼을 휘두르고 말을 몰아 진영을 뚫고 지나가려 했다. 양군이 뒤엉켜 혼전이 벌어졌고, 송나라 군사들의 기세에 눌린 요나라 병사들은 동서남북으로 뿔뿔이 흩어져 도망치기 시작했다.

기병대가 요나라 병사들을 뒤쫓는 사이, 보병들은 골짜기 입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알고 보니 요나라 병사들이 커다란 청석(靑石)들을

겹겹이 쌓아 올려 출구를 막아놓았던 것이다. 보병들이 골짜기 입구를 뚫어내자, 그들은 청석욕 안으로 들어닥쳤다.

노준의는 송강의 군마가 도착한 것을 보고는 모두 부끄러운 마음을 느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요나라 병사들을 쫓는 것을 멈추고, 군사를 거두어 독록산으로 돌아가 고립되었던 일행을 쉬게 하라고 일렀다.

노준의는 송강을 보자마자 목놓아 울며 말했다. "만약 형님께서 구원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 형제들의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송강과 노준의는 오용, 공손승과 함께 말을 나란히 타고 진영으로 돌아왔다. 삼군(三軍)의 병사들을 쉬게 하고 갑옷을 벗으며 잠시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군사 오용이 말했다. "이 기세를 몰아간다면 유주를 쉽게 취할 수 있습니다. 유주만 손에 넣는다면 요나라의 멸망은 손바닥 뒤집듯 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송강은 노준의 등 열세 명의 장수에게 군마를 거두어 계주로 돌아가 잠시 휴식을 취하라고 명했다. 그러고는 송강 자신이 크고 작은 장수와 군졸들을 거느리고 독록산을 떠나 유주를 공격하러 나아갔다.

하 통군(賀統軍)은 막 성 안으로 퇴각해 있던 차에, 형제 두 명을 잃게 되어 마음속이 무척 괴로웠다. 그때 정찰병이 달려와 보고하기를, "송강의 군마가 유주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라고 외치니 요나라 군사들이 더욱 당황하였다. 요나라 병사들이 성벽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동북쪽에서 붉은 깃발 무리가 내려오고 서북쪽에서는 푸른 깃발 무리

가 내려오고 있었다. 두 갈래의 군마가 유주를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고 즉시 하 통군에게 보고했다.

하 통군은 그 소식을 듣고 크게 놀라 직접 성벽에 올라가 살펴보았다. 요나라의 깃발임을 확인한 그는 마음속으로 크게 기뻐했다. 붉은 깃발을 든 군마에는 모두 은색 글자가 쓰여 있었는데, 이 군대는 요나라의 부마 태진서경이 이끄는 오천여 명의 홍기군이였다. 푸른 깃발을 든 군마에는 깃발마다 금색 글자가 쓰여 있고 꿩 꼬리 장식을 꽂았는데, 이는 바로 이금오 대장군이였다.

알고 보니 이 이금오라는 자는 본명이 이집으로, 황문시랑 좌집금오 상장군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었다. 그는 이릉의 후손으로서 금오의 작위를 물려받은 자로, 현재 응주에 주둔하며 일만여 명의 군마를 거느리고 있었다. 대송의 국경을 침범한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는데, 요나라 국주가 성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지원을 위해 군사를 일으켜 온 것이였다.

하 통군은 이를 보고 사람을 보내 두 갈래의 군마에게 전했다. "성안으로 바로 들어오지 말고, 산 뒤편에 매복하여 잠시 휴식을 취하라. 우리 군사가 성 밖으로 나가 송강의 병사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좌우에서 협공하여 몰살할 것이다."

하 통군은 명령을 다 내린 뒤, 군사를 이끌고 유주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러 나아갔다.

송강의 장수들이 이미 유주 근처에 다다랐다. 오용이 말했다. "만약 적이 성문을 닫고 나오지 않는다면 별다른 계략(매복)이 없는 것이지

만, 만약 군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적을 맞이하려 한다면 반드시 매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군사는 먼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진격해야 합니다. 한 갈래는 곧장 유주로 나아가 적군을 맞이하고, 나머지 두 갈래는 날개처럼 좌우에서 서로를 호위하게 하십시오. 만약 매복군이 일어나면 이 두 갈래 군사가 즉시 적을 맞서게 하면 됩니다."

송강은 즉시 관승에게 선찬과 학사문을 거느리고 왼쪽을 맡게 했고, 이어 호연작에게 단정규와 위정국을 거느리고 오른쪽을 맡게 하였다. 각 갈래는 일만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산 뒤편의 작은 길을 따라 천천히 이동했다. 송강 등은 대군을 이끌고 곧장 유주를 향해 진격했다.

한편, 하중보가 군사를 이끌고 마중을 나오니 마침 송강의 군마와 마주쳤다. 양측 군사가 서로 대치한 가운데, 임충이 말을 몰아 나가 하중보와 싸웠으나 다섯 합을 채 버티지 못하고 하중보가 말머리를 돌려 달아났다. 송강의 군사가 이를 추격하자, 하중보는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유주 성 안으로 들어가는 대신 성을 빙 둘러 돌아 나갔다.

오용이 말 위에서 외쳤다. "추격하지 마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왼쪽에서 태진부마가 들이닥쳤으나, 다행히 관승이 나가 그를 맞이했다. 오른쪽에서도 이금오가 나타났으나, 이번에도 호연작이 나가 그를 막아섰다. 이렇게 세 갈래의 군마가 정면으로 맞붙어 격렬한 대전을 벌이니, 시체가 들판에 널브러지고 피가 강물처럼 흘러넘쳤다.

하 통군은 요나라 군사가 이길 수 없음을 직감하고 유주로 되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가는 길마다 장수들과 맞닥뜨려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화영과 진명이 나타나 죽기 살기로 덤벼들었다. 하 통군이 서문 쪽 성벽 근처로 퇴각하려 하자 이번에는 쌍창장 동평과 마주쳐 한바탕 싸워야 했다. 남문 쪽으로 방향을 틀자 이번에는 주동이 나타나 또 한 차례 격전을 벌였다. 하 통군은 도저히 성 안으로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큰길을 따라 북쪽으로 달아났다.

앞을 살필 겨를도 없이 정면에서 진삼산 황신이 나타나 대도를 휘두르며 하 통군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하 통군은 당황하여 손쓸 틈도 없이 황신의 칼날에 말머리를 정통으로 맞았다. 하 통군이 말을 버리고 도망치려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번에는 양웅과 석수 두 보군 두령이 옆 구리에서 튀어나와 함께 하 통군을 덮쳐 땅바닥에 거꾸러뜨렸다. 뒤이어 송만이 창을 꼬나들고 달려왔다. 장수들은 서로 공을 다투다 의리를 그르칠까 염려하여 하 통군을 창으로 난도질해 죽여버렸다. 그를 따르던 요나라 병사들은 이미 뿔뿔이 흩어져 각자 살길을 찾아 달아나고 없었다.

태진부마는 통군 부대의 수자기(帥字旗)가 쓰러지고 부하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했다. 그는 즉시 홍기군을 이끌고 산 뒤편으로 도망쳤다. 이금오 역시 한창 싸우던 중에 홍기군이 사라지는 것을 보고 일이 틀어졌음을 짐작하여, 청기군을 이끌고 산 뒤쪽으로 물러났다.

송강은 세 갈래의 요나라 군사가 모두 물러나는 것을 보고, 군마를 크게 몰아 유주를 탈취하기 위해 달려들었다. 그는 아무런 기색도 내비

치지 않은 채 북소리 한 번에 군사를 수습하여 성을 점령했다. 유주 성 안에 도착하여 삼군을 주둔시킨 뒤, 곧바로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이어 사람을 급히 보내 단주에 승전보를 알리는 한편, 조 추밀에게 계주를 지키도록 병력을 옮겨달라고 청했다. 또한 수군 두령과 배들을 유주로 보내 명령을 기다리게 하고, 부선봉 노준의에게는 패주를 나누어 지키게 했다. 이로써 전후로 네 개의 큰 고을을 얻게 되었다. 조 안무는 전령이 가져온 문서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한편으로는 조정에 보고를 올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계주와 패주의 방비를 조정하였다. 그러고는 수군 두령에게 다시 연락하여 짐을 꾸려 출발할 준비를 하라고 명하니, 이는 수륙 양면으로 진격하기 위함이었다.

한편, 요나라 국주는 대전에 올라 문무백관을 소집했다. 좌승상 유서의 발근과 우승상 태사 저견을 비롯한 통군 대장들이 조정에 모여 논의했다. "지금 송강이 국경을 침범하여 우리의 큰 고을 네 곳을 빼앗았소. 머지않아 반드시 황성을 침범할 것이니 연경을 지키기 어렵겠소. 하 통군 형제 셋도 이미 죽었으니, 문무백관 여러분은 나라가 위태로운 이 시국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소?"

이때 도통군 울안광이 나아가 아뢰었다. "주군,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소신이 누차 직접 가서 병사를 거느리려 했으나 번번이 남에게 가로막히는 바람에, 도리어 도적의 세력을 키워 이런 큰 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부디 친히 성지(聖旨)를 내려주시어, 제가 직접 군마를 선발하고 각지의 군사들을 모아 날짜를 잡아 출병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반드시 송강 일당을 사로잡고 빼앗긴 성들을 되찾겠습니다."

국주는 그 청을 허락하고는 명주호패와 금인 칙지, 황월백모, 주변 조개(황색 도끼와 흰 깃발, 붉은 깃발과 검은 덮개)를 모두 울안광에게 하사하며 말했다. "금지옥엽인 황실 친척이라 할지라도, 어떤 군마인지 가리지 말고 모두 경의 뜻대로 부리도록 하시오. 속히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떠나시오!"

울안광은 성지와 병부를 받자마자 곧장 연무장으로 내려가 여러 번 장들을 소집했다. 그리고 장령을 내려 각지의 군마를 불러 모아 지원하게 했다. 명령을 다 내리기도 전에, 울안광의 장자인 울안연수가 연무정 위로 올라와 아뢰었다.

"아버지, 아버님께서 대군을 정비하시는 동안 소자가 먼저 용맹한 장수 몇 명을 데리고 태진 부마와 이금오 장군의 군사를 합류시켜 유주로 먼저 가겠습니다. 가서 저 오랑캐들을 여덟 할쯤 꺾어 놓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도착하실 때쯤이면 항아리 속의 자라를 잡듯 손쉽게 송나라 군사들을 일거에 소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은 어떠하십니까?"

울안광이 말했다. "네 말이 옳다. 네게 돌격기병 오천과 정예병 이만 명을 내어줄 테니, 네가 선봉이 되어 즉시 태진 부마와 이금오 두 장군을 합류시켜 당장 출발하거라. 승전보가 들리면 지체 말고 급히 전하라."

어린 장군은 기쁘게 명령을 받들고 삼군을 정비하여 곧장 유주로 달려 나갔다.

시로 이르되, 만 마리 군마가 내달리니 천지가 두려워하고 천군이
용솟음치니 귀신도 시름하네.

결국 울안연수 장군이 어떻게 싸움을 걸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7회 — 송공명이 유주에서 크게 싸우고, 호연작이 힘을 다해 번장을 사로잡다

宋公明大戰幽州 呼延灼力擒番將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오안연수는 2만여 명의 군마를 이끌고 태진부마, 이금오와 합류하여 총 3만 5천 명의 군사를 거느렸다. 그들은 창과 칼, 활과 화살 등 온갖 무기를 완비하고 정돈하여 진을 쳤다. 일찍이 정찰병이 유주성에 들어가 송강에게 보고를 올렸다. 송강은 즉시 군사 오용을 불러 의논을 청했다.

"요나라 군대가 연거푸 패했으니, 이번에는 분명 정예병과 용맹한 장수들을 골라 우리와 맞붙으려 할 것이오. 어떠한 계책으로 대응해야 하겠소?"

오용이 말했다.

"먼저 군사를 성 밖으로 내보내 진을 치십시오. 요나라 군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천천히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 그들에게 별다른 능력이 없다면 저절로 물러날 것입니다."

송강은 곧바로 군마를 몰아 성 밖으로 나갔다. 성에서 십 리 떨어진 방산은 지세가 평탄하고 산과 물이 인접한 곳이었다. 그곳에 '구궁팔괘진'을 펼쳐 놓고 기다리니, 요나라 군사가 세 부대로 나뉘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오안 소장군의 병마는 검은 깃발을, 태진부마의 군은 붉은 깃발을, 이금오의 군은 푸른 깃발을 내걸었다.

세 군이 일제히 도착하여 송강이 진을 친 것을 보고, 오안연수는 아버지 밑에서 진법을 익힌 덕에 그 오묘한 이치를 깊이 알고 있었다. 그는 청기와 홍기 두 군을 좌우로 나누어 진영을 구축하게 하고, 자신은 중군에 자리 잡았다. 구름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송나라 군의 진법이 과연 '구궁팔괘진'임을 확인한 그는 냉소를 멈추지 못했다. 좌우 부장들이 물었다.

"장군, 어찌하여 계속 냉소를 지으십니까?"

오안연수가 말했다.

"저놈들이 펼친 '구궁팔괘진' 따위를 누가 모르겠느냐? 저런 진법으로 사람을 속이려 들다니, 내 오히려 저놈들을 놀려주마!"

그는 군사들에게 북을 세 번 울리게 하고 장대를 세운 뒤, 장대 위에서 두 개의 깃발을 휘두르며 좌우에 진형을 갖추게 했다. 정돈을 마친 그는 장대에서 내려와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선봉 장수에게 진문을 열게 한 뒤, 직접 진 앞으로 나아가 송강과 말을 나누려 했다. 과연 이 소장군은 어떤 차림새였던가? 그 모습을 보니 이러했다.

삼차여의가 장식된 자금관을 머리에 쓰고, 축나라 비단 꽃무늬가 놓인
은빛 갑옷을 입었네.

매의 부리 모양 초록 장화를 신고, 용 뿔이 새겨진 황금띠를 허리에 댔
네.

깃발을 삼키는 채찍을 휘두르고, 서리처럼 날카로운 칼로 적을 베네.
왼쪽에는 금빛 그림이 새겨진 보물 활을 매달고, 오른쪽에는 은을 박은
늑대 이빨 화살을 쏘았네.

한 손에는 방천화극을 쥐고, 발이 튼튼한 대추빛 말을 타고 달리는구
나.

오안연수가 말을 몰아 진 앞으로 다가와 큰 소리로 외쳤다.

"네놈이 '구궁팔괘진'을 펼쳐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너는 내 진법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송강은 장수들이 진법 대결을 벌이려 한다는 말을 듣고, 군사들에게
구름사다리를 세우게 했다. 송강과 오용, 주무가 구름사다리에 올라
요나라 군의 진세를 살펴보니, 세 부대가 서로 연결되어 좌우를 빈틈없
이 살피고 있었다. 주무가 이미 그 형세를 알아보고 송강에게 말했다.

"이것은 '태을삼재진'입니다."

송강은 오용을 남겨 주무와 함께 장대 위에 있게 하고, 자신은 구름
사다리에서 내려와 말에 올라 진 앞으로 나갔다. 그는 채찍을 들어 요
나라 장수를 가리키며 호통쳤다.

"네놈의 '태을삼재진' 따위가 대수라고 생각하느냐!"

오안 소장군이 말했다.

"내 진법을 알아본다니, 그럼 내가 진형을 바꾸는 것을 보고도 알아볼 수 있는지 보아라!"

그는 말을 몰아 중군으로 들어간 뒤 다시 장대 위로 올라가, 깃발을 휘둘러 진형을 바꾸었다. 장대 위에서 이를 지켜보던 오용과 주무가 보니, 진법이 '하락사상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즉시 사람을 내려보내 송강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오안 소장군이 다시 진문 밖으로 나와 창을 가로로 뉘어 들고 물었다.

"이제 내 진법을 알겠느냐?"

송강이 대답했다.

"이것은 '하락사상진'으로 변한 것이로구나."

오안 소장군은 고개를 저으며 냉소를 짓더니,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 장대 위에서 깃발을 좌우로 휘둘러 또 다른 진형을 만들었다. 이를 지켜보던 주무가 말했다.

"이번에는 '순환팔괘진'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다시 사람을 보내 송강에게 알렸다. 소장군이 다시 진 앞으로 나와 큰 소리로 물었다.

"내 진법을 여전히 알아볼 수 있겠느냐?"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고작 '순환팔괘진'으로 변한 것뿐이니, 그리 놀라울 것은 없다!"

그 말을 들은 소장군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펼친 이 진법들은 모두 비전으로 내려온 것들인데, 생각지도 못하게 이 자가 모두 간파하다니. 송나라 군사 중에 분명 대단한 인물이 있구나!'

오안 소장군은 다시 진 안으로 들어가 말에서 내려 장대 위로 올라갔다. 그는 깃발을 좌우로 휘두르며 빙글빙글 돌리더니, 사방에 출입구가 전혀 없고 안에는 여덟 줄 여덟 열, 곧 8×8 예수네 부대의 병마가 숨겨진 진형을 만들었다. 주무가 다시 구름사다리에 올라가 살펴보고는 오용에게 말했다.

"이것은 제갈공명의 '팔진도'입니다. 머리와 꼬리를 숨겨두어 사람들이 도저히 알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주무는 즉시 사람을 보내 송강을 진 안으로 청하여 장대 위에서 이 진법을 보게 했다.

"그를 너무 몰아세우지 마시오. 요나라 군의 이런 진법은 모두 전수 받은 것이요. 이 네 가지 진법은 모두 한 계파에서 전해 내려온 것이라 그 흐름이 변함이 없소. 먼저 '태을삼재'에서 '하락사상'이 나오고, '사상'에서 '순환팔괘'가 나오며, '팔괘'에서 다시 8×8 예수네 괘가 나와

'팔진도'가 되는 것이오. 이는 순환이 끝이 없는 지극히 높은 진법이라고."

송강은 장대에서 내려와 말을 타고 진 앞으로 나갔다. 소장군은 창을 손에 쥐고 진 앞에서 말을 멈춘 채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진법을 알아볼 수 있겠느냐?"

송강이 호통을 쳤다.

"너는 나이 어린 장수로서 배움이 얕아, 마치 우물 안 개구리처럼 이런 진법이 지극히 높은 줄로만 아는구나. 머리와 꼬리를 숨긴 이 '팔진도'로 누구를 속이려 하느냐? 우리 대송에서는 어린아이조차도 속이지 못할 것이다!"

오안 소장군이 말했다.

"네놈이 내 진법을 안다니, 그렇다면 너도 기이한 진형을 펼쳐 나를 한번 속여 보아라!"

송강이 외쳤다.

"내 '구궁팔괘진'이 비록 얕다 하나, 네놈이 감히 덤벼들겠느냐?"

소장군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런 작은 진법이 무엇이 어렵겠느냐! 네놈 군사들은 화살을 함부로 쏘지 마라. 내가 이 작은 진법을 단숨에 깨부숴 주마!"

한편, 오안 소장군은 즉시 장령을 내려 태진부마와 이금오에게 각각 천 명의 군사를 나누어 주게 하며 말했다.

"내가 이 진법을 단숨에 깨부수고 나면, 곧바로 뒤를 받쳐라!"

명령을 내리자마자 군사들이 북을 울려댔다. 송나라 군사들도 이미 장령을 내려 군중에서 전투 북을 세 번 울리게 하고, 진문의 깃발을 양쪽으로 열어 진법을 시험할 소장군이 들어올 수 있게 했다. 오안연수는 자신의 본대 소속 아장(牙將, 정예 장수) 스무 명과 갑주를 입은 기마병 천 명을 거느리고, 손가락으로 괘를 짚어 계산해 보았다. 이날의 기운은 화(火)에 속하니, 정남쪽의 이(離)방향으로 오지 말고 오른쪽으로 돌아 서쪽의 태(兌)방향에서 공격하기로 한 것이다. 그는 군마를 몰아 백기를 휘날리며 진 안으로 들어닥쳤다. 그러나 뒤따라오던 병사들이 궁수들의 화살 세례를 받는 바람에, 겨우 절반의 군마만이 진 안으로 들어갔고 나머지는 모두 본진으로 되돌아갔다.

한편, 소장군이 진 안으로 들어갔으나 곧장 중군을 향해 달렸을 때, 눈앞에는 은색 벽처럼 하얗고 단단한 장벽이 둥글게 둘러싸여 소장군을 가로막고 있었다. 오안연수는 그 광경을 보고 얼굴이 흙빛이 되어 놀라며 속으로 생각했다.

'진법 안에 어찌 이런 성벽 같은 것이 있단 말인가!'

그는 우선 사방의 옛 길을 뚫어 진 밖으로 탈출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나 군사들이 뒤를 돌아보니, 온 세상이 은빛 바다처럼 하얗게 뒤덮여 있었고 바닥에는 물소리만 들릴 뿐 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소장군이 당황하여 군사를 이끌고 남문으로 돌진했으나, 그곳에는 천 개의 불덩

이와 만 갈래의 붉은 노을 같은 기운이 땅 위를 굴러다닐 뿐, 군마의 모습은 눈 씻고 찾아볼 수 없었다. 소장군이 감히 남문으로 나가지 못하고 비스듬히 동문 쪽으로 돌려 공격하려 하니, 이번에는 나뭇가지와 산 나무들이 땅 위에 어지럽게 뒤엉켜 가로막고 있었고 양옆에는 사슴뿔 모양의 장애물인 녹각이 가득해 도저히 나아갈 길이 없었다. 다시 북문 쪽으로 방향을 틀었으나, 이번에는 검은 기운이 하늘을 가리고 먹구름이 해를 가려 손바닥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어두컴컴한 지옥과도 같았다.

오안 소장군은 진 안에서 네 개의 문 모두 길이 막히자 속으로 의심하며 생각했다.

'이것은 필시 송강이 요술을 부리는 것이로구나. 어떻게 되었든 일단 여기서 부딪쳐 돌파하는 수밖에 없다.'

군사들이 명령을 받자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돌파를 시도했다. 그때 옆에서 한 장수가 튀어나오며 큰 소리로 호통쳤다.

"어린 장수 놈아, 어디로 가느냐!"

오안 소장군이 맞서 싸우려 했으나 미처 손쓸 틈도 없이, 그의 정수리 위로 채찍이 날아들었다. 소장군이 눈을 부릅뜨고 재빨리 방천극으로 막아냈으나, 쌍편이 동시에 내리치는 위력에 그만 창대가 두 동강나고 말았다. 소장군이 다급히 저항하려 했으나, 그 장수는 이미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어 원숭이처럼 팔을 뻗고 늑대처럼 허리를 틀어 오안 소장군을 덥석 생포했다. 그는 뒤따라오던 후군을 가로막으며 모두 말

에서 내려 항복하라고 호통쳤다. 군사들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한 채, 그저 말에서 내려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소장군을 생포한 이는 다름 아닌 호군 대장, '쌍편' 호연작이었다. 당시 중군에서 도술을 부리고 있던 공손승은 소장군을 잡았다는 보고를 듣고 도술을 거두었다. 그러자 진법 안의 풍경은 다시 예전처럼 푸른 하늘과 밝은 햇살이 비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왔다.

한편, 태진부마와 이금오 장군은 각각 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진 안에서 소식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곧장 지원하려 했다. 그러나 아무런 움직임이 없자 감히 공격해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송강이 진 앞으로 나서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대들 두 군대가 항복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는가! 오안 소장군은 이미 우리에게 생포되었다!"

말을 마친 송강은 칼을 든 병사들에게 진 앞으로 돌격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이를 본 이금오가 말 한 필과 창 한 자루를 들고 오안연수를 구하기 위해 곧장 달려왔다. 하지만 마침 전방에 있던 '벽력화' 진명이 낡아뒀을 휘두르며 이금오를 향해 들이닥쳤다. 두 마리의 말이 맞부딪치고 병기들이 허공을 가르는 가운데, 양측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이금오는 먼저 마음이 흔들려 대처가 늦어졌고, 결국 진명의 곤봉에 머리를 정통으로 맞아 투구와 함께 머리가 박살 나며 쓰러졌다. 이금오가 말에서 떨어지자, 태진부마는 이금오가 패한 것을 보고는 군사를 이끌고 즉시 퇴각했다. 송강이 군사를 독려하며 몰아치자 요나라 군대는 대패하여 도망치기 바빴다. 송나라 군은 전장에 버려진 말 삼천여

필과 깃발, 칼, 창 등을 모두 전리품으로 챙겼다. 송강은 군사를 이끌고 곧장 연경을 향해 진격하며, 기세를 몰아 요나라를 쓸어버리고 왕의 봉호를 되찾고자 했다.

한편, 요나라 군대는 패하여 인마가 뿔뿔이 흩어졌고, 살아남은 자들은 요나라로 도망쳐 돌아가 오안 통군에게 보고했다. 소장군이 송나라 군의 진영을 공격하러 갔다가 생포되었으며, 나머지 장수들도 모두 항복했다는 내용이었다. 이금오 또한 그곳에서 곤봉에 맞아 죽었다고 전했다. 태진부마는 겨우 목숨만 건져 어디론가 달아나 행방이 묘연했다.

오안 통군은 이 말을 듣고 크게 놀라며 말했다.

"내 아들은 어려서부터 진법을 익혀 그 오묘함을 잘 알고 있거늘, 송강 그놈이 대체 어떤 진법을 써서 내 아들을 잡아갔단 말이나?"

좌우의 부하들이 대답했다.

"그저 '구궁팔패진'이었을 뿐,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소장군께서 네 차례나 진형을 바꾸어 배치하셨으나, 저 만만치 않은 놈들에게 모두 간파당하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에 소장군께서 '내가 구궁팔패진을 알고 있으니, 감히 공격해 보겠느냐!'라며 호기롭게 외치셨습니다. 그러고는 천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서문으로 돌격하셨으나, 저들의 강한 활과 노에 맞아 겨우 절반 정도의 병력만 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어찌하여 생포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안 통군이 다시 말했다.

"그깟 구궁팔괘진이 어찌 그리 깨뜨리기 어렵단 말이나? 필시 저놈들이 진법을 변형시킨 것이 분명하구나."

군사들이 말했다.

"저희가 장대 위에서 진 안을 살펴보니, 대열은 움직이지 않고 깃발도 그대로였는데, 다만 진 안 위로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덮여 있는 것만 보였습니다."

오안 통군이 말했다.

"그것은 필시 요술이로구나. 내가 직접 군사를 일으키기도 전에 저놈들이 벌써 들이닥쳤으니 말이다. 만약 승리하지 못한다면 내 스스로 목을 베리라! 누가 감히 나의 전봉이 되어 군사를 이끌고 앞으로 나가겠느냐? 내가 대군을 이끌고 곧 뒤따라가겠다."

그러자 막사 앞으로 두 장수가 나아와 말했다.

"저희 두 사람이 전봉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명은 번관인 경요납연이었고, 다른 한 명은 연경의 용맹한 장수로 성은 구(寇), 이름은 진원, 곧 구진원이었다. 오안 통군은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대들 둘은 부디 조심하여 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전봉이 되어라. 산을 만나면 길을 내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놓으며 나아가라. 내가 대군을 이끌고 곧 뒤따라가겠다."

경요납연과 구진원 두 장수가 나서는 것을 뒤로하고, 이야기는 다시 오안 통군에게로 이어진다. 오안 통군은 즉시 본부 소속의 십일요 대장과 이십팔수 장군들을 모두 점검하여 출정시켰다. 먼저 십일요 대장들에 대해 말하자면 다음과 같다.

"태양성" 어제대왕(御弟大王) 야율득중은 병사 오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태음성" 천수공주 답리패는 여병 오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나성" 황질 야율득영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계도성" 황질 야율득화는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자성" 황질 야율득충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월패성" 황질 야율득신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동방청제수성" 대장 지아불랑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서방태백금성" 대장 오리가안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남방형감화성" 대장 동선문영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북방현무수성" 대장 곡리출청은 병사 삼천 명을 이끌고 나섰다.

"중앙진성토성" 상장 도통군(都統軍) 올안광은 각 부대 비병(飛兵)과 마수장(馬首將) 오천 명을 거느리고 중단(中壇)을 지켰다.

울안통군은 다시 자신의 부하인 이십팔수(二十八宿) 장군들을 점검하였다.

"각목교" 손충과 "항금룡" 장기는...

"저토학" 유인과 "방일토" 사무도...

"심월호" 배직과 "미화호" 고영흥

"기수표" 가무와 "두목해" 소대관

"우금우" 설웅과 "여토복" 유득성

"허일서" 서위와 "위월연" 이익

"실화저" 조흥과 "벽수홀" 성주나해

"규목량" 광영창과 "루금구" 아리의

"위토치" 고표와 "묘일계" 순수고

"필월오" 국영태와 "자화후" 판이

"참수원" 주표와 "정목안" 동리합

"귀금양" 왕경과 "유토장" 뇌춘

"성일마" 가군보와 "장월록" 이복

"익화사" 적성(狄聖)과 "진수인" 반고아(班古兒)

그 올안광(兀顏光)이 십일요(十一曜)의 대장과 이십팔수(二十八宿)의 장군들을 정갈하게 갖추고, 정예 병마 이십여 만의 대군을 일으켰다. 온 나라의 힘을 기울여 군사를 일으키며, 주군께서 친히 어가를 몰아 출정하시기를 받들어 청하였다. 이를 증명하는 옛 시(古風) 한 편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양뿔 같은 바람이 천지를 뒤흔들며 검게 변하고, 황량한 사막 위로 구름이 드리워져 어둡고 쓸쓸하구나.

거란 군사의 움직임이 산악을 무너뜨릴 듯 사납고, 만리 강산의 천지가 그 기세에 빛을 잃는구나.

거친 울음소리를 내뿜는 준마에 올라탄 오랑캐가 시냇물을 뛰어넘고 험한 고개를 넘으니, 그 기세가 마치 유성처럼 빠르게 달리는구나.

혜성(攬槍)이 빛을 내뿜으니 하늘의 개(天狗)가 짖는 듯하고, 어지러이 자욱한 독무 속으로 도깨비 떼가 내달리는구나.

보배롭게 조각한 활을 당기니 검은 용의 등뼈처럼 팽팽하고, 눈처럼 새하얀 칼날과 서리 같은 칼은 차가운 햇살을 받아 번뜩인다.

만 갈래 노을빛이 비단 띠처럼 깃발에 어른거리고, 천 개의 연잎처럼 푸른 모자가 군사들의 머리 위로 가득하다.

호가(胡笳) 소리가 일제히 천산(天山)의 노래에 어우러지고, 북소리는 흰 낙타들을 흔들며 진동한다.

요나라 왕의 좌우에서는 수놓은 도끼를 든 호위병들이 버티고 있고, 통군(統軍)의 앞뒤로는 금색 창과 칼을 휘두르는 군사들이 가득하다.

수놓은 도끼와 금빛 창칼이 서로 맞서며 위세를 다투니, 몰아치는 군사들의 행렬이 지나간 길목에는 곡식 한 톨 남지 않았다.

해동청(海靑, 사냥매)을 풀어 날리니 기러기와 고니가 시름에 잠기고, 표범이 울부짖을 때면 신과 귀신조차 겁에 질리나니.

유주 성 아래는 끓는 물처럼 복적이고, 연이어 늘어선 군영에는 정예병과 기병이 구름처럼 많았다.

강성(罡星)은 하늘이 내려 보낸 별빛으로 요사스러운 재앙을 물리치는데, 어지러이 흩어진 숙요(宿曜)의 별들은 나를 어찌하겠는가.

한편, 兀顏통군이 대군을 일으켜 땅을 뒤덮을 듯 몰려오고 있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봉장인 경요와 구진 두 장수가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먼저 진격해 왔다. 이미 첩자가 송강에게 이 소식을 보고했으니, 이번 싸움은 결코 작지 않을 터였다. 송강은 보고를 듣고 크게 놀라 장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우선 노준의 휘하의 군마를 모두 모으게 하고, 단주(檀州)와 계주(薊州)에 있던 옛 부하들을 모두 불러 모아 명령을 기다리게 했다. 이어 조 추밀사에게 전투 감독을 맡기기 위해 그를 청했다. 또한 수군의 우두머리들에게 명하여 수선(水手)들을 모두 데리고 상륙한 뒤, 패주에서 전열을 가다듬어 육로로 진격하도록 하였다.

수군 우두머리들은 조 추밀사를 뒤에서 호위하며 따라왔는데, 응당 있어야 할 군마들은 모두 유주에 있었다. 송강 일행은 조 추밀사를 접견하여 예를 갖추어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친 조 추밀사가 말했다.

"장군께서 이토록 애써주시니, 참으로 나라의 기둥이십니다. 그 명성이 만대에 전해질 것입니다. 제가 조정으로 돌아가면 반드시 천자 앞에서 장군을 크게 추천하겠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무능한 장수일 뿐이니 입에 담을 말도 아닙니다. 위로는 천자의 홍복에 의지하고 아래로는 원수님의 호랑이 같은 위엄에 기대어, 어찌다 작은 공을 세운 것이니 결코 제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첩자로부터 급보가 왔는데, 요나라의兀顔통군이 이십만 대군을 일으켜 나라의 운명을 걸고 몰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의 흥망과 승패가 이번 한 판 싸움에 달려 있습니다. 부디 추밀사께서는 따로 진영을 세워 십오 리 밖에서 대기해 주십시오. 저 송강이 개나 말처럼 몸을 던져 싸우며 형제들과 힘을 합쳐 전진하는 모습을 지켜봐 주십시오. 반드시 이 싸움으로 승부를 내겠습니다."

조 추밀사가 말했다.

"장군께서 형편을 잘 살피시는군요."

송강은 조 추밀사와 작별한 뒤, 노준의와 함께 대군을 이끌고 유주 땅에 속한 영청현 경계로 넘어가 군마를 거느리고 진영을 구축했다. 그

리고는 여러 장수와 우두머리들을 불러 모아 막사 안에서 함께 앉아 군사 작전의 대사를 논의했다.

송강이 말했다.

"이번에 兀顏통군이 직접 요나라 군대를 이끌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물러오고 있으니, 결코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삶과 죽음, 승패가 바로 이 한 판 싸움에 달려 있다! 너희 형제들은 모두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며, 결코 물러나거나 후회하는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작은 공이라도 세운다면 조정에 보고하여, 천자의 은총과 상을 반드시 함께 나누도록 하겠다."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외쳤다.

"형님의 명을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한창 상의를 나누던 중, 소교(小校, 하급 군관)가 달려와 요나라에서 전서를 보낸 사절이 왔다고 보고했다. 송강이 그를 막사 안으로 불러들이자 사절이 서신을 바쳤다. 송강이 서신을 뜯어보니, 요나라 兀顏통군의 선봉장인 경요와 구진 두 장군이 전방의 병마를 거느리고 조만간 결전을 벌이자고 청하는 내용이었다. 송강은 서신 끝에 내일 결전을 벌이겠다는 답장을 적어 보냈다. 그리고는 사절에게 술과 음식을 대접하여 자신의 진영으로 돌려보냈다.

이 무렵은 가을이 다하고 겨울이 찾아온 때라, 군사들은 두꺼운 갑옷을 입고 말들에게는 가죽 갑옷을 씌웠으니 모두 계절에 딱 맞는 차림이었다. 이튿날, 새벽 다섯 경(오경, 오전 3~5시 사이)에 아침밥을 지

어 먹고 동이 틀 무렵에 진영을 걸어 모두 행군을 시작했다. 채 4, 5리도 못 가서 송나라 군대는 과연 요나라 군대와 맞닥뜨렸다. 멀리 검은 깃발의 그림자 사이로 두 명의 선봉장 기호가 번뜩이며 나타났다. 복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진영의 깃발이 열리더니, 경 선봉장이 앞장서서 말을 타고 나왔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머리에는 물고기 꼬리 모양의 구름무늬가 새겨진 강철 관을 쓰고, 용의 비늘처럼 서리를 이겨낼 듯한 갑옷을 입었으며, 몸에는 석류 빛깔의 화려한 비단 도포를 걸쳤다. 허리에는 여지 열매 모양의 일곱 가지 보석이 박힌 황금띠를 맸고, 발에는 초록빛이 도는 매 부리 모양의 금실 장식 장화를 신었으며, 허리춤에는 은을 입힌 대나무 마디 모양의 강철 채찍을 매달고 있었다. 왼쪽에는 강궁을 차고 오른쪽에는 긴 화살을 맸다. 그가 탄 말은 험한 산을 넘는 야수 같았고, 그가 휘두르는 창은 강과 바다를 뒤흔드는 용과 같았다.

그때 경요납연이 창을 가로로 쥐고 말을 뛰어오르며 진영 앞에 버티고 섰다. 송강이 깃발 아래에서 경 선봉장의 영웅적인 기개를 보고는 물었다.

"누가 저 장수와 싸우겠느냐?"

그러자 '구문룡' 사진이 칼을 들고 말을 뛰어올라 나와 경 장군과 맞붙었다. 전마가 서로 맞부딪치고 병기들이 번뜩이며 교차했다. 두 장수가 서른 합쯤 싸웠을 때, 사진이 휘두른 칼이 허공을 가르자 그는 깜짝 놀라 말머리를 돌려 본진을 향해 도망치려 했다. 경 선봉장 역시 말을 몰아 뒤쫓아왔다.

이때 송나라 군대의 진영 안, 송강의 등 뒤에 있던 '소이광' 화영이 사진이 밀리는 것을 보고는 즉시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메웠다. 그는 말을 몰아 진영 앞으로 나아가더니, 달려오는 적이 가까워진 틈을 타 획 하고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히 경 선봉장의 얼굴 정면을 꿰뚫었고, 그는 말 위에서 뒤로 고꾸라졌다. 사진은 뒤에서 말이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는 쏜살같이 몸을 돌려 다시 칼을 내리쳤고, 결국 경요납연을 처단했다.

경 선봉장이 처단당하는 것을 본 구 선봉장 구진원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 말을 뛰어오르며 창을 치켜든 채 진영 앞으로 곧장 달려 나와 큰 소리로 욕설을 퍼부었다.

"이 도적놈들이 감히 내 형제를 암습하다니!"

그때 '병위지' 손립이 말을 몰아 쏜살같이 달려 나가 구진원을 향해 돌진했다. 군중에서는 북소리가 하늘을 뒤흔들고, 꺾가에는 함성이 끊이지 않았다. 손립의 금창은 귀신이 곡할 정도로 신출귀몰했다. 구 선봉장은 스무 합도 채 버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형을 흔들까 두려워 차마 진영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진영의 동북쪽을 빙 돌아 도망쳤다. 손립이 막 공을 세우려는데 어찌 그냥 보내겠는가. 그는 말을 몰아 뒤쫓았다.

구 선봉장이 멀리 달아나자, 손립은 말 위에서 창을 쥐어 잡은 채 왼손으로는 활을 만지고 오른손으로는 화살을 집어 들었다. 화살을 메고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뒤, 구 선봉장의 등 뒤가 적당히 가까워진 것을 보고 획 화살을 날렸다. 구 선봉장은 활시위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뒹눴으나, 화살은 정확히 그를 향해 날아갔다. 그는 재빨리 손을 뻗어 날아오는 화살을 낚아챘다. 손립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내심 감탄했다.

구 선봉장은 냉소하며 말했다.

"이놈이 활숨씨를 뿜내는구나!"

그는 낚아챈 화살을 입에 물고는 창을 말 안장에 묶어 고정했다. 그러고는 급히 왼손으로 강궁을 꺼내고 오른손으로는 입에 문 화살을 가져와 시위에 매운 뒤, 몸을 뒹 돌려 손립의 가슴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손립은 이미 눈치채고 말 위에서 좌우로 요리조리 피했다. 화살이 가슴팍에 닿을 듯 다가오자, 그는 몸을 뒤로 젖혔고 화살은 그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그러나 말이 멈추지 않고 그대로 달려들었다.

구 선봉장은 활을 팔에 끼운 채 몸을 돌려 손립이 말 위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속으로 '분명 화살에 맞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다. 사실 손립은 두 다리에 힘을 주어 갑옷을 짊어지고 있었기에, 말 위에서 쓰러지는 척하며 일부러 그렇게 보였을 뿐 결코 말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구 선봉장은 손립을 잡으려고 말머리를 돌려 달려들었다. 두 말의 머리가 서로 마주 보며 한 장(丈) 거리도 안 되게 맞붙었을 때, 손립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며 크게 호통을 쳤다.

구 선봉장은 깜짝 놀라며 외쳤다.

"내 화살은 피했을지 몰라도, 내 창은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손립의 가슴을 향해 온 힘을 다해 창을 내질렀다. 손립은 가슴을 내밀어 그 창을 받아냈다. 창끝이 갑옷에 닿는 순간 살짝 비껴가게 하여, 창이 옆구리 사이로 빠져나가게 했다. 그 틈을 타 구 선봉장이 손립의 품 안으로 달려들 듯 들이닥쳤다. 손립은 즉시 손목에 차고 있던 호안강편(호랑이 눈 모양의 강철 채찍)을 들어 올려 구 선봉장의 머리를 향해 내리쳤고, 그의 정수리뼈를 반쯤 깎아버렸다. 반평생 요나라(오랑캐)의 관직을 지냈던 구 선봉장은 결국 손립의 손에 죽어 시체가 말 앞에 떨어졌다.

손립이 창을 들고 진영으로 돌아오자, 송강이 삼군에 명령을 내려 적진을 향해 돌격시켰다. 요나라 군사들은 대장이 사라지자 동서로 흩어져 각자 살길을 찾아 도망치기 바빴다.

송강이 군사를 몰아 몰아붙이던 중, 앞쪽에서 연달아 포성 같은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들었다. 송강은 즉시 수군 두령에게 명하여 군사 한 부대를 먼저 이끌고 나가 물길을 막게 하였다. 그리고 화영, 진명, 여방, 광성에게 말을 타고 산꼭대기에 올라가 살펴보라고 일렀다. 그들이 산 정상에서 내려다보니, 사방에서 요나라 군사들이 구름떼처럼 몰려오고 있었다.

바로 이러한 광경이었다.

우는 화살은 천둥처럼 울리며 오랑캐 기병이 내달리고, 흙먼지는 안개처럼 일며 오랑캐 군사가 밀려드네.

결국 몰려오는 요나라 군사는 어디서 온 자들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88회 — 안 통군이 진열을 혼천상으로 하고, 송공명이 꿈속에서 현녀에게 법을 전수받다

顏統軍陣列混天象 宋公明夢授玄女法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송강은 높은 언덕 위에서 요나라 군대의 기세가 워낙 거센 것을 보고는, 급히 말머리를 돌려 본진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장수들에게 명령하여 군사들을 퇴각시켜 영청현 산길 입구에 진을 치게 했다. 곧이어 막사 안에서 노준의, 오용, 공손승 등과 함께 상의하며 말했다.

"오늘 비록 한바탕 싸움에서 이겨 적의 선봉장 둘을 베긴 했으나, 내가 언덕 위에서 살펴보니 요나라 군대의 기세가 실로 대단하오. 하늘과 땅을 뒤덮으며 몰려오는 것이 분명 대규모 번병(番兵)들이요. 내일이면 필히 적과 큰 전투를 벌여야 할 텐데, 적의 수가 너무 많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까 두렵구려.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옛날 병법에 능한 자는 적은 수로 많은 적을 물리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전에 진나라의 사현이 5만 명의 군사로 부견의 100만 대군을 물리쳤으니, 선봉장들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지금 즉시 삼군 장수들에게 명을 내려, 내일은 반드시 깃발을 엄정히 세우고 활과 쇠뇌에는 시위를 걸며, 칼과 검은 칼집에서 뽑아 두게 하십시오. 또한 사슴뿔 모양의 장애물인 녹각을 깊이 박아 진영을 경계하고, 해자를 갖추어 방비하며, 모든 군기를 갖추게 하십시오. 운제(雲梯, 사다리)와 포석(砲石) 같은 무기들도 미리 정돈하여 대기하게 해야 합니다. 오직 '구궁팔괘'의 진법을 펼쳐 놓았다가, 적이 공격해 오면 차례대로 대응하십시오. 설령 적이 100만 대군이라 한들 어찌 감히 우리 진영을 뚫고 들어오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참으로 탁월하오."

말을 마친 송강이 즉시 명령을 내리자, 모든 장수와 삼군 병사들이 일제히 명을 받들었다. 오경에 아침밥을 짓고, 날이 밝자마자 진영을 거두어 모두 출발했다. 창평현 경계에 다다르자마자 장수들은 군사를 배치하여 진을 치고 영채를 세웠다.

앞쪽에는 기병대를 배치했는데, 그중 호군(虎軍)은 다음과 같았다. 대장인 진명이 앞장서고 호연작이 뒤를 따랐으며, 관승이 왼쪽에, 임충이 오른쪽에 자리 잡았다. 동남쪽에는 소초, 동북쪽에는 서녕, 서남쪽에는 동평, 서북쪽에는 양지가 배치되었다. 송강은 중군을 거느리며 진두지휘하였고, 나머지 장수들은 각자 맡은 직책에 따라 배치되었다.

뒤쪽에는 보병대를 별도의 진으로 구성하였는데, 노준의, 노지심, 무송 세 사람이 주축이 되었다. 수만 명의 군사들 모두가 전투에 능한 장수와 병사들이라, 저마다 주먹을 불끈 쥐며 싸울 준비를 마쳤다. 진형이 갖춰지자, 이제 요나라 번병들이 들이닥치기만을 기다릴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멀리서 요나라 군대가 몰려오는 것이 보였다. 앞장선 여섯 부대의 번병은 각 부대마다 500명씩이었는데, 왼쪽에 세 부대, 오른쪽에 세 부대를 배치하여 이리저리 순환하며 움직이니 그 기세가 일정하지 않았다. 이 여섯 부대의 유격병은 '초로(哨路, 정찰대)'라고도 불렸고, '압진(壓陣, 후방 지원대)'이라고도 불렸다.

그 뒤를 이어 대규모 본대가 땅을 뒤덮으며 몰려왔다. 전군에는 검은 깃발들이 가득했는데, 일곱 개의 깃발 문(旗門)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천 마리의 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마다 대장 한 명씩이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검은 투구를 쓰고 몸에는 검은 갑옷을 입었으며, 검은 도포를 걸친 채 검은 말을 타고 있었다. 손에 든 무기 또한 북방의 별자리인 두(斗), 우(牛), 여(女), 허(虛), 위(危), 실(室), 벽(壁)의 위치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일곱 문 안에는 각각 한 명의 파총(把總, 중급 장교) 상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의 '북방현무수성'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푸른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노란 머리띠를 단단히 묶은 채 금빛 머리띠를 돌렸으며, 소매가 없는 검은 도포를 입고 검은 기름을 바른 갑옷 위로 은빛 갑옷을 촘촘히 덧대었다. 발에는 천 리를 달리는 검은 말인 오추마를 타고, 손에는 검은 자루가 달린 삼첨도(三尖刀)를 높이 들고 있었다. 바로 번장 곡리출청이 머리

를 풀어헤치고 검은 갑옷을 입은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진오성군'의 진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깃발 아래 모인 군병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시로 이르되,

얼어붙은 구름이 동쪽의 해를 가로막으니, 검은 기운이 북해의 바람을 통째로 삼키는구나.

좌군에는 검은 깃발 대신 청룡기(靑龍旗)가 가득했는데, 역시 일곱 개의 깃발 문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천 마리의 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마다 대장 한 명씩이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사봉투구(四縫盔)를 쓰고 몸에는 버들잎 모양의 유연갑(柳葉甲)을 입었으며, 푸른 도포를 걸친 채 푸른 갈기의 말을 타고 있었다. 손에 든 무기 또한 동방의 별자리인 각(角), 항(亢), 저(氐), 방(房), 심(心), 미(尾), 기(箕)의 위치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일곱 문 안에는 각각 한 명의 파총(把總, 중급 장교) 대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의 '동방창룡목성'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사자 모양의 투구를 쓰고 몸에는 산예(狻猊) 무늬 갑옷을 입었으며, 비취색이 감도는 푸른 도포를 겹쳐 입고 금실과 벽옥으로 장식된 띠를 둘렀다. 손에는 금실을 꼬아 만든 자루가 달린 월부(月斧, 달 모양 도끼)를 들고, 용의 새끼인 용구(龍駒)라 불리는 푸른 말을 타고 있었다. 바로 번장 지견불랑이 푸른 보번(寶旛, 보물 같은 깃발)을 든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동진구성군'의 진법에 따

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청룡기 아래 좌우로 에워싼 군병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시로 이르되,

비취색 빛이 황금 길을 수놓으니, 푸른 노을이 자줏빛 구름의 뿌리를 끊는구나.

우군에는 백호기(白虎旗)가 가득했는데, 역시 일곱 개의 깃발 문이 줄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천 마리의 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마다 대장 한 명씩이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수마투구(水磨盃)를 쓰고 몸에는 은빛이 찬란한 난은갑(爛銀鎧)을 입었으며, 흰 비단 도포를 걸친 채 눈처럼 하얀 말을 타고 있었다. 손에 든 무기 또한 서방의 별자리인 규(奎), 루(婁), 위(胃), 묘(昴), 필(畢), 자(觜), 참(參)의 위치를 따라 배치되어 있었다.

일곱 문 안에는 각각 한 명의 파총(把總) 대장이 배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의 '서방함지금성'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봉황 날개가 달린 투구를 쓰고 몸에는 은빛이 화려한 쌍구갑(雙鉤甲)을 입었으며, 허리에 찬 옥띠에서는 차가운 빛이 뿜어져 나왔고, 몸에 걸친 흰 비단 도포는 마치 날리는 눈처럼 깨끗했다. 발에는 밤을 밝히는 보물 같은 말인 조야옥산예마(照夜玉駿貌馬)를 타고, 손에는 순강(純鋼, 순수한 강철)으로 만든 은빛 삭(搨, 찌르는 무기)을 휘둘렀다. 바로 번장 오리가안이 흰 술이 달린 흰 깃발을 든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서태칠성군'의 진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백호기 아래 앞뒤로 호위하는 군병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시로 이르되,

낙타 부대가 음산의 눈을 휩쓸어 가듯, 번장의 기세는 옥정의 얼음
처럼 서늘하구나.

후군에는 비홍색 깃발이 가득했는데, 역시 일곱 개의 깃발 문이 줄
지어 있었고, 각 문마다 천 마리의 말이 배치되어 있었으며 문마다 대
장 한 명씩이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붉은 칠
을 한 상주홍색 투구를 쓰고 몸에는 짐승의 피로 물들인 듯한 붉은 정
복을 입었으며, 복숭아빛이 도는 쇠갑(鎧甲, 고리 갑옷)은 물고기 비늘
처럼 빛났다. 돌격할 때 타는 말은 용의 새끼인 용구 중에서도 적토(赤
兔)라 불리는 붉은 말이었다. 손에 든 무기 또한 남방의 별자리인 정
(井), 귀(鬼), 유(柳), 성(星), 장(張), 익(翼), 진(軫)의 위치를 따라 배
치되어 있었다.

일곱 문 안에는 각각 한 명의 파총(把總, 중급 장교) 대장이 배치되
어 있었는데, 이는 하늘의 '남방주작화성'을 따르는 것이었다. 그 차림
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진홍색 관을 썼는데 붉은 술이 찬란하
게 빛났고, 몸에는 비홍색 도포를 입어 빛깔이 선명했으며, 갑옷은 한
조각 붉은 노을처럼 펼쳐져 있었다. 장화에는 여러 줄의 꽃무늬 자수가
놓여 있었다. 허리에는 붉은 보물 띠를 맸고, 팔에는 강한 활과 긴 화살
을 댔다. 손에는 여덟 자 길이의 화룡도를 들고, 연지색을 띤 말을 타고
있었다. 바로 번장 동선문영이 붉은 비단 깃발을 든 삼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남리삼성군'의 진법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었다. 홍기 아래 붉
은 술과 진홍색 옷을 입은 군병의 수는 헤아릴 수조차 없었다.

시로 이르되,

이궁에서 육정신(六丁神)이 달려 나오는 듯하고, 벼락이 삼매화(三昧火)를 뒤흔들어 깨우는구나.

진영 앞 왼쪽에는 오천 명의 용맹한 군사들이 한 부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금실로 장식한 관을 쓰고 금을 입힌 구리 갑옷을 입었으며, 붉은 도포에 붉은 술을 달고 화염처럼 붉은 깃발 아래 진홍색 안장을 얹은 붉은 말을 탄 채 한 명의 대장을 호위하고 있었다. 그 대장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연꽃처럼 화려한 여의루금관(如意纓金冠)을 쓰고, 몸에는 짐승 문양이 새겨진 황금빛 연쇄쇄자갑(連環獸面鎖子甲)을 입었으며, 강렬한 불꽃 무늬를 수놓은 진홍색 도포를 걸치고 허리에는 옥을 박아 넣은 황금 보물 띠를 맸다. 손에는 해와 달이 그려진 쌍도(日月雙刀) 두 자루를 휘두르며, 오명적마(五明赤馬)라 불리는 붉은 말을 타고 있었다. 바로 요나라의 왕 동생인 야율득중이 하늘의 '태양성군'을 따르는 진법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기세는 마치 태양을 상징하는 금오(金烏)가 부상(扶桑)의 나라에서 솟아오르고, 불타는 우산 같은 태양이 동쪽 바다를 막 벗어난 듯하였다.

진영 앞 오른쪽에는 오천 명의 여군 부대가 한 부대를 이루고 있었는데, 모두 은빛 꽃잎 모양의 관을 쓰고 은갈고리 모양의 쇠갑(鎖甲)을 입었으며, 하얀 도포에 하얀 술을 달고 백기(白旗)와 백마(白馬)를 앞세운 채 은자루가 달린 칼과 창을 든 군사들이 한 명의 여장수를 호위하고 있었다. 그 여장수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금빛 봉황 비녀를 검은 머리에 꽂았고, 이마에는 진주와 비취를 촘촘히 박은 붉은 띠를 둘렀으며, 구름무늬 어깨띠가 비단 치마와 잘 어우러졌다. 수놓은

저고리 안에는 은빛 갑옷을 깊게 받쳐 입었고, 작은 꽃무늬 장화에 금빛 등자(鎧子)를 차고 안정감 있게 앉아 있었으며, 하늘거리는 비취색 소매 아래로 옥 채찍을 가볍게 흔들었다. 손에는 칠성보검 한 자루를 들고, 은빛 갈기를 가진 백마를 타고 있었다. 바로 요나라의 천수공주 답리패가 하늘의 '태음성군'을 따르는 진법에 맞춰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 모습은 마치 달토끼가 바다 끝을 둥글게 돌아 나오고, 얼음처럼 맑은 달이 요대를 환하게 비추는 듯하였다.

두 진영 안을 한 바퀴 둘러보니 온통 황색 깃발뿐이었고, 군사들과 장수들은 모두 황색 말을 타고 금빛 갑옷을 입고 있었다. 갑옷 위에 걸친 도포가 어우러져 마치 황금빛 구름이 피어오르는 듯했고, 머리에 쓴 수건이 훑날리는 모습은 마치 황색 안개가 하늘을 뒤덮은 듯하였다. 황색 군대 중에는 네 명의 대장이 각기 삼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네 모서리에 나누어 배치되어 있었다. 각 모서리에는 대장 한 명씩이 군사들을 겹겹이 호위하며 서 있었다.

동남쪽 모서리의 대장은 푸른 도포에 금빛 갑옷을 입고 보창을 든 채 분청색 말을 타고 진영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의 '나성군'을 따르는 진법을 펼치고 있었으니 바로 요나라 황제의 조카 야율득영이었다.

서남쪽 모서리의 대장은 자줏빛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보도 한 자루를 휘두르며 해류마를 타고 진영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의 '계도성군'을 따르는 진법을 펼치고 있었으니 바로 요나라 황제의 조카 야율득화였다.

동북쪽 모서리의 대장은 초록색 도포에 은빛 갑옷을 입고 방천화극을 손에 쥔 채 오명황마를 타고 진영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의 '자성군'을 따르는 진법을 펼치고 있었으니 바로 요나라 황제의 조카 야율득충이었다.

서북쪽 모서리의 대장은 흰 도포에 구리 갑옷을 입고 칠성보검을 든 채 척운오추마(踢雲烏騅馬)를 타고 진영 앞에 서 있었는데, 하늘의 '월패성군'을 따르는 진법을 펼치고 있었으니 바로 요나라 황제의 조카 야율득신이였다.

황색 군대 진영 안에는 한 명의 상장이 군사들에게 겹겹이 호위받고 있었다. 왼쪽에는 청색 깃발을 든 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백월(白鉞)을 든 자가 있었으며, 앞에는 주번(朱旛)이 솟아 있고 뒤에는 조개(皂蓋, 검은 일산)가 펼쳐져 있었다. 깃발의 배치는 이십사절기와 육십사괘, 남진과 북두칠성, 그리고 비룡, 비호, 비웅, 비표의 형상을 따랐으니, 겉으로는 음양의 좌우를 분명히 나누면서도 속으로는 선기옥형(璇璣玉衡)의 원리에 부합하여 천지 만물이 혼돈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 상장은 주홍색으로 칠한 긴 자루의 방천화극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의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하면, 머리에는 칠보자금관을 쓰고 몸에는 거북등 모양의 황금 갑옷을 입었으며, 서천의 붉은 비단으로 수놓은 화려한 도포를 걸치고 남전의 아름다운 옥으로 만든 영롱한 허리띠를 맸다. 왼쪽에는 금빛으로 장식한 철태궁(鐵胎弓)을 매달았고, 오른쪽에는 봉황 깃털을 단 비전(鉃子箭, 화살)을 찼다. 발에는 매의 부리 모양을 한 운근화(雲根靴)를 신었으며, 철질 등줄기에 은빛 갈기를 가진 말

을 타고 있었다. 비단으로 조각한 안장 위에 금빛 등자를 달고 안정감 있게 앉아 있었으며, 자줏빛 비단 고삐는 말을 단단히 붙들고 있었다. 허리에는 칼을 차고 번방의 장수들을 휘어잡으며, 손에는 채찍을 휘둘러 대군을 통솔하고 있었다. 이 군마들이 내뿜는 광채가 사방을 가득 채우니 마치 온 세상이 황금빛으로 물든 듯하였는데, 이는 하늘의 '중궁토성 일천군'을 따르는 진법이었으니, 바로 요나라 도통군 대원수 올안광이었다.

황색 깃발 뒤편 중군에는 봉련(鳳輦)과 용차가 놓여 있었다. 전후좌우로는 일곱 겹으로 검과 창, 칼과 도가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아홉 겹의 호위 안쪽에는 서른여섯 쌍의 황견역사가 수레를 밀고 받들고 있었다. 앞쪽에는 금빛 안장을 엮은 아홉 마리의 준마가 수레의 끌채를 당기고 있었고, 뒤쪽에는 여덟 쌍의 금의위 호위병들이 진영을 따르고 있었다.

가마 중앙에는 요나라의 낭주(郎主, 임금)가 앉아 있었으니, 머리에는 충천당건(衝天唐巾)을 쓰고 몸에는 아홉 마리 용이 수놓아진 황룡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남전의 옥띠를 맸고 발에는 붉은 신과 조화(朝靴)를 신고 있었다. 좌우에는 두 명의 대신이 있었는데, 좌승상은 유서발근(幽西孛瑾)이요, 우승상은 태사 저견(褚堅)이었다. 두 사람은 각기 초선관(貂蟬冠)을 쓰고 붉은 치마와 주홍빛 관복을 입었으며, 자줏빛 끈에 금빛 신표를 달고 상간(象簡)과 옥띠를 차고 있었다. 용상 양옆에는 금동과 옥녀가 서서 상아 패와 규(珪)를 받들고 있었다. 용차의 전후좌우 양옆으로는 천병(天兵)들이 겹겹이 에워싸 호위하고 있었다. 요나라 낭주는 하늘의 '북극자미대제'를 상징하며 진성(鎮星)을 총

팔하고 있었고, 좌우의 두 승상은 하늘의 '좌보'와 '우필' 성군을 상징하니, 이는 마치 하늘의 별들이 건위(乾位)를 떠나 만물의 형상이 세상에 내려온 듯한 모습이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별자리 적절히 여덟 방향에 늘어놓고
다시 흙의 기운으로 중앙을 다스리네
오랑개는 하늘의 현상을 돌보지 않거늘
어찌하여 번잡하게 하늘을 모독하는가?

요나라 번방의 군대가 천진(天陣)을 펼쳐 놓으니, 그 모습이 마치 달 갈의 형상 같기도 하고 대야를 뒤집어 놓은 듯하기도 했다. 깃발은 사방 모서리에 배치되었고 창들은 팔방으로 뻗어 있었는데, 진형이 순환하며 정해진 곳이 없으면서도 나아가고 물러남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었다. 송강이 이를 보고는 강궁과 쇠뇌를 시켜 진영의 발치를 쏘게 한 뒤, 곧바로 중군에 운제(雲梯, 구름사다리)와 장대(將臺, 지휘용 높은 대)를 세우고 오용과 주무를 불러 대 위로 올라가 살피게 했다.

송강은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주무는 그것이 천진임을 알아보고 송강과 오용에게 말했다. "이것은 바로 '태을혼천상진(太乙混天象陣)'입니다!" 송강이 물었다. "어떻게 공격해야 하겠소?" 주무가 대답했다. "이 천진은 변화가 무궁무진하고 기묘한 장치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라, 함부로 공격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만약 저 진세를 깨뜨리지 못한다면, 어찌 적군을 물러나게 하

겠소?"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적 진영 안의 허실을 급히 파악할 수 없는데, 어찌 곧장 공격하러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한창 상의하는 사이, 요나라의 통군이 중군에서 명령을 내렸다. 오용은 '금(金)'의 기운이 드는 날이니, '항금룡' 장기, '우금우' 설웅, '누금구' 아리이, '귀금양' 왕경 네 장수를 보내 '태백금성' 대장 오리가안을 수행하게 하여 진을 나서 송강의 군대를 공격하라는 것이었다.

송강의 장수들이 진영 앞에서 지켜보니, 맞은편 우군 일곱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였다. 군중에서는 천둥 같은 소리가 울려 퍼졌고, 진세는 둥글게 말려 있는데 진영 안의 깃발이 동쪽에서 북쪽으로, 북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남쪽으로 스스로 돌아갔다. 주무가 이를 보고 말 위에 앉아 말했다. "이것은 천반(天盤)이 왼쪽으로 회전하는 형상입니다. 오늘은 금의 기운이 드는 날이니, 천반이 왼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니 필시 병사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대포 다섯 문이 일제히 울리더니, 맞은편 적군이 벌써 용솟음치며 달려 나왔다. 중앙에는 '금성'이 있고 사방에는 사숙(四宿)이 배치되어, 다섯 부대의 군마를 이끌고 산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기세로 덮쳐오니 도저히 막아낼 길이 없었다. 송강의 군사들은 손쓸 겨를도 없이 급히 후퇴했다. 대부대가 진영의 발치를 누르고 있는 사이 요나라 병사들이 양쪽에서 협공해 오니, 송강은 대패하여 서둘러 퇴각하여 본채로 돌아왔다. 요나라 병사들은 뒤쫓아오지 않았다.

군중의 우두머리들을 살펴보니 공량은 칼에 다쳤고, 이운은 화살을 맞았으며, 주부는 포탄에 맞았고, 석용은 창에 맞았다. 부상을 입은 군

줄들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곧바로 부상자들을 수레에 실어 후채로 보내 안도전에게 치료하게 했다. 송강은 전군에 철질려(鐵蒺藜, 쇠가시)를 뿌리고 녹각(鹿角, 사슴뿔 모양의 방어용 말뚝)을 깊이 박아 성문을 굳게 지키게 했다.

송강은 중군에서 시름에 잠겨 있다가 노준의 등과 상의하며 말했다. "오늘 한 차례 패하였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만약 다시 교전을 벌이지 않는다면, 적들이 필시 우리를 공격하러 올 것이요." 노준의가 말했다. "내일은 두 갈래의 군마를 보내 저 진영을 누르고 있는 병사들과 맞붙게 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다른 두 갈래의 군마를 움직여 저들의 정북쪽 일곱 문을 들이받게 한 뒤, 보병들을 그 사이로 쳐들어가게 한다면, 저 안의 허실이 어떠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것도 좋겠소."

다음 날, 송강은 곧바로 노준의의 말대로 진영을 정비하고 진 앞까지 나아가 준비를 마친 뒤, 성문을 활짝 열고 군사를 이끌고 전진했다. 멀리 요나라 병사들이 보였는데, 여섯 부대의 압진군(壓陣軍, 진영을 누르는 병사들)이 멀리서 살피며 다가오고 있었다. 송강은 즉시 관승을 왼쪽에, 호연작을 오른쪽에 배치하여 본대 군마를 이끌고 압진군을 들이받아 물리치게 했다.

대부대가 전진하여 요나라 병사들과 맞붙자, 송강은 다시 화영, 진명, 동평, 양지를 왼쪽에 배치하고 임충, 서녕, 소초, 주동을 오른쪽에 배치하여 두 부대의 군사로 저들의 조기(皂旗, 검은 깃발) 일곱 문을 들이받게 했다. 과연 조기진의 형세를 깨뜨리고 조기군 인마를 흩어놓으니, 정북쪽 일곱 개의 깃발 문이 대열이 흐트러졌다.

이때 송강의 진영에서 이규, 번서, 포옥, 향충, 이곤 다섯 명의 패수(牌手, 기수) 오백 명을 앞으로 내보내고, 그 뒤를 노지심, 무송, 양웅, 석수, 해진, 해보가 마땅히 거느려야 할 보병 두목들을 데리고 몰아치며 들어갔다. '천진' 속으로 뛰어들자마자 사방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졌고, 동서 양쪽 군사와 정면의 황기군이 몰려와 들이받았다. 송강의 군마들은 이를 건디지 못하고 몸을 돌려 달아났다. 뒤쪽의 방어선도 제대로 갖추지지 않아 대패하여 도망치듯 본채로 퇴각했다.

급히 군사를 점검해 보니 절반 이상을 잃었으며, 두천과 송만은 중상을 입었다. 또한 진영 안에는 '흑선풍' 이규가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규가 싸움에 흥이 나 앞뒤 가리지 않고 적진 속으로 뛰어들었다가, 적의 갈고리에 걸려 생포되고 만 것이었다. 송강은 성채 안에서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답답하여 어찌할 바를 몰랐다. 그는 즉시 명령을 내려 두천과 송만을 먼저 후채로 보내 안도전에게 치료하게 하고, 부상당한 말들은 황보단에게 보내 돌보게 했다.

송강은 다시 오용 등과 상의하며 말했다. "오늘 또 이규를 잃었으니, 이번 싸움마저 지면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오용이 말했다. "엇그제 저희가 생포한 저 어린 장수가 바로 올안광 통군의 아들입니다. 마침 그 아이와 맞바꾸면 될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이번에 맞바꾼다 해도, 나중에 또 장수를 잃으면 그때는 어떻게 구출한단 말ियो?" 오용이 말했다. "형님, 어찌 그리 미련하게 구십니까. 우선 눈앞의 일부터 생각하십시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소교(小校, 하급 관리)가 달려와 요나라 장수가 사신을 보내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송강이 그를 중군으로

불러들이자, 요나라 관리가 들어와 송강과 마주하며 말했다. "우리 원 수님의 명을 받들어, 오늘 귀측의 두목 한 명을 잡았소. 우리 총병(總兵) 어른 앞에 데려갔더니, 차마 죽이지 못하고 좋은 술과 고기를 대접하며 정성껏 돌보고 계시구려. 통군께서는 그 아이를 귀측에 보내어, 귀측의 두목과 맞바꾸려 하시니, 만약 장군께서 뜻을 같이하신다면 이 두목을 돌려보내겠소."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일 소장군을 데리고 진 앞으로 나갈 테니, 그때 서로 맞바꾸시다." 관리는 송강의 말을 듣고 말을 타고 떠났다.

송강은 다시 오용과 상의했다. "우리가 저들의 진세를 깨뜨릴 방도가 없으니, 차라리 소장군을 데려다가 여기서 화친을 맺고 양측 모두 싸움을 멈추는 게 어떻겠소?" 오용이 말했다. "일단 군마를 쉬게 하며 다른 좋은 계책을 찾아본 뒤에 적을 공격해도 늦지 않습니다."

날이 밝자, 사람을 급히 보내 밤낮없이 달려가 올안광의 아들을 데려오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올안광 통군에게 보내 사정을 알리게 했다. 한편 올안광 통군은 막사 안에 앉아 있다가, 소인이 달려와 송 선봉이 사람을 보내 이야기를 전해왔다고 보고했다. 통군이 명령을 내려 사람을 불러들였다. 막사 앞에 도착한 사신이 올안광 통군을 뵈고 말했다. "저의 송 선봉께서 통군 휘하에 문안드립니다. 지금 소장군을 돌려 보내어 저희 두목과 바꾸고자 합니다. 마침 날씨가 매우 추워 군사들이 고생하고 있으니, 양측 모두 잠시 싸움을 멈추고 내년 봄에 다시 논의하여 인마가 동상 입는 일을 면하게 해주시길 청합니다. 통군님의 명을 기다리겠습니다."

올안광 통군은 그 말을 듣고 크게 호통을 쳤다. "무식한 놈이 자식을 욕보이다니! 네놈에게 생포당하고도 살아남는다면,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겠느냐? 맞바꾸는 일은 없다. 당장 저놈을 잡아다가 내 대신 목을 쳐라! 만약 싸움을 멈추고 쉬고 싶다면, 송강 네놈이 스스로 항복해 오면 죽임을 면하게 해주마.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내가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 가 한 포기의 풀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크게 한 번 소리치며 명령했다. "물리가라!"

사신은 말을 달려 송강의 진영으로 돌아가 이 말을 전했다. 송강은 이규를 구하지 못할까 봐 겁이 나, 즉시 진을 움직여 올안광의 아들을 데리고 전군 앞까지 나갔다. 그리고 진을 사이에 두고 크게 외쳤다. "우리 두목을 놓아주면 소장군을 돌려보내겠소! 화친을 맺지 않더라도 다시 맞붙어 싸울 용의는 있소!"

그러자 요나라 병사들이 진영에서 이규를 말에 태워 곧바로 진 앞으로 내보냈다. 송강 쪽에서도 말 한 필을 끌고 나와 올안광의 아들을 진 밖으로 보냈다. 양측이 이렇게 약속을 맺고, 동시에 한 명을 보내고 한 명을 받았다. 이규는 진영으로 돌아왔고, 소장군도 말을 타고 건너갔다. 그날 양측은 서로 싸우지 않았다. 송강은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와 이규와 함께 기뻐하며 축하했다.

송강은 막사 안에서 여러 장수와 상의하며 말했다. "요나라 병사들의 기세가 워낙 강해 도무지 깨뜨릴 방도가 없으니, 내 마음이 근심으로 타들어가 하루가 일 년 같구나.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호연작이 말했다. "내일은 저희가 군마를 열 부대로 나누겠습니다. 두 갈래는 저들의 압진군(壓陣軍, 진영을 누르는 병사들)을 막아내고, 나머지 여덟

갈래는 일제히 들이받아 이번에 반드시 승부를 내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모두 그대들 형제들이 마음을 합쳐 힘을 보태주어야 하니, 내일 반드시 실행합시다." 오용이 말했다. "두 번이나 들이받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다면, 차라리 적이 먼저 공격해 오기를 기다려 맞서 싸우는 편이 낫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적을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도가 아니요. 다만 우리 형제들이 힘을 다해 맞서 싸워야지, 어찌 연달아 패하기만 한단 말이오!"

그날 명령을 내려 다음 날 아침 일찍 진을 움직여 군사를 일으켰다. 군사를 열 부대로 나누어 쏜살같이 전진하게 했다. 두 갈래 군마가 먼저 뒤를 받치고 있는 압진군을 가로막자, 나머지 여덟 갈래 군마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고 함성을 지르며 깃발을 흔들며 '혼천진' 속으로 들이받으며 들어갔다.

그러자 진 안에서 천둥 같은 소리가 높이 울려 퍼지더니, 스물여덟 개의 문이 일제히 열리며 '일자장사(一字長蛇, 한 줄로 길게 늘어선 뱀 모양)' 진형으로 변하여 쏟아져 나왔다. 송강의 군마들은 미처 손을 쓸 틈도 없이 당황하여 급히 군사를 돌려 퇴각했으나, 대패하여 도망치는 바람에 깃발과 창이 어지럽게 뒤섞이고 징과 북마저 엉망이 된 채 서둘러 돌아왔다. 본채로 돌아오는 길에 수많은 군마를 잃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장수와 병사들에게 산길 입구의 성채와 울타리를 엄중히 지키게 하고, 해자를 깊이 파며 녹각(鹿角, 적의 접근을 막는 나무 가지 울타리)을 단단히 박아 넣은 뒤, 추운 겨울을 날 때까지 굳게 문을 닫고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일렀다.

한편, 부추밀(副樞密, 부차관급 무관) 조안무가 연달아 상소문을 올려 조정에 의복과 갑옷 등을 요청했다. 이에 조정에서는 어전 팔십만 금군(禁軍, 황제 직속 부대)의 창봉 교두(鎗棒教頭, 무술 스승)이자 현재 정주 단련사(團練使, 지방 무관)로 재직 중인 왕문빈을 특별히 파견했다. 왕문빈은 문무를 겸비하여 조정의 모든 이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경사(京師, 수도)의 군사 만여 명을 거느리고 민부(民夫, 군수품 운반을 맡은 인부)와 수레를 동원하여, 의복 50만 벌을 싣고 송 선봉의 군영으로 가서 물자를 전달한 뒤, 군사들을 독려하여 속히 승전보를 가져오라는 명을 받았다.

왕문빈은 성지(聖旨)와 문서를 받들고 수행할 군기와 갑옷, 안장과 말들을 챙겼다. 그리고 인부와 군마를 재촉하며 수레를 몰아 동경을 떠나 진교역을 향해 출발했다. 그는 백여 대의 수레를 호송하며 황색 깃발을 꽂고 '어사 의복(御賜衣襖)'이라 적어 넣은 채 줄지어 나아갔다. 지나는 곳마다 관아에서 식량을 공급해 주었다. 그렇게 길을 떠난 지 며칠 만에 변방에 도착한 그는 조 추밀을 알현하고 중서성(中書省, 행정 기관)의 공문을 올렸다.

조 안무는 공문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마침 잘 오셨소. 지금 송 선봉이 요나라 올안광 통군에게 밀려 병마가 '혼천진'의 기세에 눌려 연달아 몇 차례나 패했소이다. 두목급 장수들도 부상자가 많아 지금 이곳에서 요양하며 안도전에게 치료를 받고 있소. 송 선봉은 영청현 근처에 진을 치고 감히 싸우려 나오지도 못한 채 몹시 시름에 잠겨 있소이다."

왕문빈이 아뢰었다. "조정에서 저를 보낸 것은 군사들을 독려하여 앞으로 나아가 속히 승리를 거두라는 뜻입니다. 오늘 연달아 패했으니, 제가 경사로 돌아가면 관리들에게 보고하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저 문빈이 재주는 부족하나 어려서부터 병서를 꽤 읽어 진법을 조금은 알고 있으니, 곧장 군영으로 가서 작은 계책을 펼쳐 송 선봉의 근심을 덜어주고 결판을 내보고 싶습니다. 추밀 어른께서는 어찌 명하시겠습니까?"

조 추밀은 매우 기뻐하며 술과 음식을 베풀어 상을 내리고, 군중에 있는 수레 운반 인부들에게도 격려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이어 왕문빈에게 의복을 운반하여 송강의 군영에 나누어 주도록 명했다. 조 안무는 먼저 사람을 보내 송 선봉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송강은 중군 막사 안에서 시름에 잠겨 있다가, 조 추밀이 사람을 보내 동경에서 보낸 교두이자 정주 단련사인 왕문빈이 의복 50만 벌을 호송하여 군영 앞으로 왔으며, 군사들을 독려하여 진격을 재촉하러 왔다는 소식을 들었다. 송강은 사람을 보내 그를 성채로 마중 나가게 한 뒤, 말에서 내리게 하여 막사 안으로 모시고 술을 대접하며 환영했다. 술을 몇 잔 나눈 뒤 송강이 그 경위를 물었다.

송강이 말했다. "이 송 아무개가 조정의 부름을 받아 변방에 왔을 때는 천자의 홍복을 입어 네 곳의 큰 군을 얻었소. 그런데 이제 유주에 이르니, 뜻밖에도 변방의 올안광이 군사를 거느리고 '혼천상' 진법을 설치하고는 20만 병력을 정연하게 배치해 두었구려. 저들은 주천성상(周天星象, 하늘의 별자리 운행)에 따라 움직이며 황제께서 직접 친정하시기를 청하고 있소. 송 아무개가 연달아 몇 차례나 패하고 도무지 방

도가 없어, 진을 치고도 감히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소. 이제 다 행히 장군께서 강림하셨으니, 부디 가르침을 내려주시길 바라오."

왕문빈이 말했다. "그 '혼천진'이라는 것이 그리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저 문빈이 재주는 부족하나 함께 군영으로 가서 직접 본 뒤에 따로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먼저 배선을 시켜 의복을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게 했다. 장수와 병사들이 옷을 다 갈아입은 뒤 남쪽을 향해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렸다. 그날 중군 막사에서는 술자리를 마련하여 정성껏 대접하며 삼군을 격려하고 상을 내렸다.

다음 날 해가 뜨자 다섯 군이 모두 일어났다. 왕문빈은 가져온 투구와 갑옷을 챙겨 입고 온몸을 무장한 채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요나라 군사들은 송나라 군사가 출전하는 것을 보고 중군에 보고했다. 징과 북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지고 함성이 드높아지더니, 여섯 부대의 기마병이 깃발을 휘날리며 진영을 나섰다. 송강이 병력을 나누어 공격하자 요나라 군사들이 패퇴했다. 왕문빈은 장대 위에 올라 직접 전투를 지켜본 뒤, 구름사다리를 내려오며 말했다.

"이 진세는 평범한 수준일 뿐, 딱히 놀라운 구석은 보이지 않는구려."

하지만 왕문빈은 정작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적을 속여 공을 세우고 명성을 떨치고 싶은 욕심에 앞장선 부대에게 북을 치며 싸움을 걸라고 명령했다. 요나라 군대와 맞붙자 북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송강이 즉시 크게 호통을 쳤다.

"비겁한 무리들아, 감히 나와 맞서 싸울 자가 없느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흑기대(黑旗隊)의 네 번째 문 안에서 장수 한 명이 튀어나왔다. 그 요나라 장수는 머리를 풀어헤치고 황색 비단 머리띠를 둘렀으며, 검은 기름을 바른 금제 갑옷을 입고 검은 소매의 검은 도포를 걸치고 있었다. 그는 검은 말에 올라 삼첨도(三尖刀)를 꺼내쥐고 진영 앞으로 곧장 달려왔고, 그 뒤로는 부하 장수들이 셀 수 없이 따르고 있었다. 검은 깃발에는 은색 글씨로 '대장 곡리출청(大將 曲利出淸)'이라 적혀 있었는데, 그는 말을 달려 진영 앞으로 뛰어들어 싸움을 청했다.

왕문빈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서 내 재주를 펼쳐 보이지 못하면, 또 어디서 실력을 보여준단 말인가?'

그는 곧장 창을 치켜들고 말을 몰아 진영으로 나갔다. 요나라 장수와는 한마디 말도 섞지 않은 채 맹렬히 맞붙었다. 왕문빈이 창을 내찌르자 요나라 장수가 칼을 휘두르며 맞대응했다. 스무 합 남짓 싸우더니 요나라 장수가 몸을 돌려 달아나기 시작했다. 왕문빈은 이를 보고 말을 몰아 창을 던지며 추격했다. 사실 그 요나라 장수는 패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빈틈을 보여 왕문빈이 따라오게끔 유인한 것이었다. 요나라 장수는 칼을 휘두르며 왕문빈이 가까이 다가오기를 기다렸다가, 몸을 돌려 왕문빈의 어깨와 가슴을 향해 단칼에 내리쳤다. 왕문빈은 그 자리에서 몸이 두 동강이 나 말 아래로 떨어져 죽고 말았다.

송강이 이 광경을 보고 급히 군대를 거두라고 외쳤다. 요나라 군사들이 몰려와 공격해 오자 송나라 군은 또 한 차례 패퇴했고, 요나라 군

은 황급히 성채로 물러갔다. 수많은 장수와 병사들은 왕문빈이 순식간에 참살당하는 것을 보고 서로 얼굴을 마주 보며 아연실색했다.

송강은 성채로 돌아와 문서를 작성하여 조 추밀에게 보고했다. 왕문빈이 자원하여 싸우다 전사했으니, 가져온 물자를 인부들과 함께 경사로 돌려보내라는 내용이었다. 조 추밀은 이 소식을 듣고 근심과 걱정애 휩싸여 밤잠을 설칠 정도로 괴로워했다. 그는 결국 상소문을 써서 조정의 관리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물자를 인솔해 온 인부들을 경사로 돌려보내도록 조치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조괄은 한갓 아버지의 병서를 읽을 줄만 알았을 뿐이니,
문빈이 목숨을 잃은 것 또한 어찌 이리 어리석은가.
평소에는 천 명을 당하리라 큰소리치는 자 넘쳐나더니,
막상 전장에 임하니 공을 이룬 자는 단 한 명도 없구나.

한편, 송강은 성채 안에서 온갖 방도를 짜내며 고민에 빠졌으나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 요나라 군사를 어떻게 격파해야 할지 몰라 먹지도 자지도 못한 채, 꿈속에서도 불안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 밤은 엄동설한이라 날씨가 몹시 추웠다. 송강은 막사 문을 닫아걸고 촛불을 밝힌 채 깊은 시름에 잠겨 앉아 있었다. 어느덧 밤이 깊어 이경(二鼓, 밤 10시경)이 되자, 정신이 흐릿해지고 몸이 나른해진 송강은 옷도 갈아입지 못한 채 탁자에 머리를 기대고 잠시 누웠다. 그런데 갑자기 성채 안에 광풍이 일더니 찬 기운이 몸을 파고드는 것이 느껴졌다.

송강이 일어나 보니, 푸른 옷을 입은 한 어린 여자아이가 앞에 서서 정중히 절을 올리고 있었다. 송강이 물었다. "애야, 어디서 왔느냐?"

아이가 대답했다. "소녀는 마마의 법지를 받들어 장군님을 모시러 왔사오니, 부디 발걸음을 옮겨 주십시오."

송강이 다시 물었다. "마마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느냐?"

아이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 계십니다."

송강은 곧 아이를 따라 막사 밖으로 나갔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하늘과 땅이 온통 한 빛깔로 어우러져 금빛과 벽록색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은은한 향기가 바람을 타고 흐르고 상서로운 안개가 넘실거려 마치 이삼월의 따스한 봄날 같았다. 두세 리 남짓 걸어가니 커다란 숲이 나타났는데, 푸른 소나무가 무성하고 초록빛 측백나무가 뻗뻗했으며, 자줏빛 계수나무가 높이 솟아 있고 돌난간이 은은하게 보였다. 양옆으로는 울창한 숲과 곧게 뻗은 대나무가 가득했고, 늘어진 버드나무와 복숭아꽃이 어우러져 있었다. 굽이진 난간을 따라 돌다리를 건너니 붉은 기둥에 별 모양 창살이 달린 문(欂櫨門)이 나타났다.

고개를 들어 사방을 살펴보니, 가림벽(蕭牆)과 하얀 분벽이 둘러 있고 화려한 기둥과 조각된 들보가 눈에 띄었다. 금못을 박은 붉은 문과 푸른 기와를 얹은 겹처마가 장관을 이루었고, 사방에는 새우 수염 모양의 휘장이 말려 올라가 있었으며 정면의 창에는 거북 등껍질 모양의 창살이 가로질러 있었다. 아이는 송강을 왼쪽 복도로 안내하여 이끌더니, 동쪽을 향한 어느 누각 앞에 이르러 붉은 문을 밀어 열고 송강에게

안으로 들어가 앉으라고 권했다. 송강이 눈을 들어 바라보니, 사방의 구름무늬 창문은 고요하고 노을빛은 계단에 가득했으며, 하늘에서 내리는 꽃잎이 흩날리고 기이한 향기가 주위를 감돌고 있었다.

아이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법지를 전했다. "마마께서 부르시니, 성주께서는 즉시 움직이십시오."

송강은 자리가 채 따뜻해지기도 전에 곧바로 몸을 일으켰다. 이어 밖에서 선녀 두 명이 들어왔는데, 머리에는 부용꽃과 벽옥으로 만든 관을 쓰고 금실로 수놓은 진홍색 비단옷을 입은 채 송강에게 예를 갖추었다. 송강은 감히 고개를 들어 쳐다보지 못했다. 두 선녀가 말했다.

"장군께서는 어찌하여 그리 겸손해하십니까? 마마께서 의복을 갈아 입고 곧 나오실 터이니, 장군께서는 국사를 논의하러 함께 가 주십시오."

송강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나섰다. 전각 안에서는 금종 소리와 옥경 소리가 울려 퍼졌다. 푸른 옷을 입은 시종이 송강을 맞이하며 전각 위로 안내했다. 두 선녀가 앞장서고 송강이 동쪽 계단을 따라 올라가니, 구슬 발 앞에 이르렀다. 발 안쪽에서는 장신구가 부딪히는 소리와 옥패가 찰랑거리는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다. 시종이 송강에게 발 안으로 들어와 향안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청했다. 송강이 눈을 들어 전각 위를 바라보니, 상서로운 구름이 자욱하고 자줏빛 안개가 피어 오르고 있었다. 정면에 놓인 구룡상(九龍床) 위에는 구천현녀 마마가 앉아 계셨다. 마마는 머리에 구룡비봉관을 쓰고, 칠보로 장식된 용봉무늬의 진홍색 비단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산하일월균을 두르고 발

에는 구름과 노을 무늬가 새겨진 보석 신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흠잡을 데 없는 백옥 규(珪, 임금이 신하에게 주던 옥패)를 들고 있었으며, 양옆으로는 이삼십 명 남짓한 여선들이 시종을 들고 있었다.

구천현녀 마마가 송강에게 말했다. "내가 너에게 천서를 전해준 지도 어느덧 몇 해가 지났구나! 너는 충의를 굳게 지키며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제 송나라 천자께서 네게 요나라를 격파하라 명하셨는데, 승패가 어떠하냐?"

송강이 땅에 엎드려 절하며 아뢰었다. "신이 마마께 천서를 하사받은 이래, 단 한 번도 이를 가벼이 여겨 남에게 누설한 적이 없사옵니다. 이제 천자의 칙명을 받들어 요나라를 치려 하였으나, 뜻밖에 올안광이 군사를 거느리고 '혼천상' 진법을 펼치는 바람에 여러 차례 패하였나이다. 신은 도무지 방도가 없어 지금 매우 위급한 처지에 놓여 있사옵나이다."

구천현녀 마마가 물었다. "너는 '혼천상' 진법을 알고 있느냐?"

송강이 다시 절하며 아뢰었다. "신은 땅 위의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 법을 알지 못하오니, 부디 마마께서 가르침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천현녀 마마가 말했다. "이 진법의 원리는 양의 기운을 모으는 데 있다. 이대로 공격한다면 결코 깨뜨릴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이 진을 깨뜨리고자 한다면, 반드시 상생상극(相生相剋)의 이치를 따라야 한다. 우선 앞쪽의 검은 깃발(皂旗) 군마 부대에는 '수성(水星)'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상계의 '북방오진성'에 따른 것이다. 너의 송나라 군사 중에서 대장 일곱 명을 뽑아 노란 깃발과 노란 갑옷, 노란 옷과 노란 말을

갖추게 하여 요나라 군사의 검은 깃발 일곱 문을 들이받아 깨뜨려라.
 그다음 맹장 한 명을 뽑아 황포를 입히고 곧장 수성을 치게 하라. 이것
 이 바로 토극수(土剋水)의 이치다. 또한 흰 옷을 입은 군마 부대에서
 장수 여덟 명을 뽑아 적의 왼쪽 청색 깃발 군진을 뚫게 하라. 이것은 금
 극목(金剋木)의 이치다. 이어 붉은 옷을 입은 군마 부대에서 장수 여덟
 명을 뽑아 적의 오른쪽 백색 깃발 군진을 뚫게 하라. 이것은 화극금(火
 剋金)의 이치다. 그리고 검은 깃발 군마 부대에서 장수 여덟 명을 뽑아
 적의 후군 홍색 깃발 군진을 뚫게 하라. 이것은 수극화(水剋火)의 이치
 다. 다시 청색 깃발 군마 부대에서 장수 아홉 명을 뽑아 중앙의 황색 깃
 발 군진 주장을 곧장 치게 하라. 이것은 목극토(木剋土)의 이치다. 거
 기에 군마 두 부대를 더 뽑되, 한 부대는 수놓은 깃발과 화려한 꽃무늬
 옷을 입혀 '라(羅)'로 변장시켜 요나라 군사의 '태양' 군진을 홀로 깨뜨
 리게 하고, 다른 한 부대는 무늬 없는 깃발에 은빛 갑옷을 입혀 '계도
 (計都)'로 변장시켜 요나라 군사의 '태음' 군진을 곧장 격파하게 하라.
 또한 스물네 대의 뇌차(雷車, 천둥소리를 내는 수레)를 만들어 이십사
 절기(二十四氣)에 맞춰 화석과 화포를 장착한 뒤, 요나라의 중군을 향
 해 곧장 밀고 들어가게 하라. 마지막으로 공손승에게 풍뢰천강정법(風
 雷天罡正法)을 펼치게 하여 요나라 주군의 가마 앞으로 단숨에 달려가
 게 하라. 이 계책을 행한다면 충분히 완전한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
 다. 낮에는 군사를 움직일 수 없으니 반드시 밤이 되어 어두워졌을 때
 진격해야 한다. 너는 마땅히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중군을 장악하여 인
 마를 독려해 단번에 성공을 거두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을 반드시 비
 밀리에 간직하라. 나라를 보위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는 일에 결코 물러
 나거나 후회하지 마라. 하늘의 기운은 유한하니 이만 작별을 고하노

라. 훗날 구름 위의 궁궐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이다. 너는 속히 돌아가야 하니 오래 머물지 마라."

마마는 특별히 시종에게 차를 올리라 명했다. 송강이 차를 다 마시자, 시종은 즉시 송강을 데리고 성주가 머무는 성채로 돌아갔다.

송강이 다시 절하며 마마께 간곡히 감사를 드린 뒤 전각을 물러나왔다. 시종이 앞장서 송강을 전각 아래로 안내하여 서쪽 계단으로 나가게 했고, 능성홍문을 돌아 다시 옛길로 올라갔다. 돌다리를 지나 소나무가 우거진 길을 막 지나자, 시종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요나라 군사가 저곳에 있으니, 장군께서는 저들을 격파하셔야 합니다!"

송강이 뒤를 돌아보는데, 시종이 손으로 획 밀치니 갑자기 깜짝 놀라 깨어나 보니 장막 안에서 꿈을 꾸고 있었던 것이었다.

군중에서 울리는 북소리를 들어보니 이미 사경(四更, 새벽 1시~3시 사이)이었다. 송강은 즉시 군사 오용을 불러들였다. 오용이 중군 장막 안으로 들어오자 송강이 물었다.

"군사께서는 '혼천상' 진법을 깨뜨릴 계책이 있으시오?"

오용이 대답했다. "아직 실행할 만한 좋은 방책이 없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내가 꿈속에서 구천현녀 마마로부터 비결을 전해 받았소.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군사와 상의하여 장수들을 모으고 역할을 나누어 일을 진행해야 할 것 같아 특별히 청하는 것이요."

과연 천기를 깨달아 묘책을 펼치니, 별자리처럼 진을 펼쳐 미궁을
돌파하리라. 결국 송강이 어떻게 진법을 깨뜨릴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
진다.

제89회 — 송공명이 진법을 깨뜨려 공을 세우고, 숙 태위가 은혜로운 강림 조서를 내리다

宋公明破陣成功 宿太尉頒恩降詔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꿈속에서 구천현녀로부터 전수받은 비법을 한 구절도 잊지 않고 기억해 냈고, 곤장 군사 오용과 의논하여 계획을 세운 뒤 조추밀에게 보고했다. 양산박에서는 뇌차 24대를 새로 제작했는데, 모두 나무판에 철판을 덧대고 못을 박아 만들었으며, 안에는 기름과 땀감을 채우고 위에는 화포를 장착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매달린 끝에 마침내 완공되었다.

진법을 상의하고 장수와 군사들을 집결시킨 뒤, 송강은 명령을 내려 각 부대를 다음과 같이 나누어 배치했다.

먼저 '중앙 무기토황(戊己土黃)'의 황포군을 점검하여 료나라의 '수성'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대장으로는 쌍창장 동평을 보내 좌우에서

검은 깃발을 든 군사 일곱 문을 돌파하게 했으며, 부장으로 주동, 사진, 구봉, 등비, 연순, 마린, 목춘 일곱 명을 붙였다.

다음으로 '서방 경신금(庚辛金)'의 백포군을 점검하여 료나라의 '목성'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대장으로는 표자두 임충을 보내 좌우에서 푸른 깃발을 든 군사 일곱 문을 돌파하게 했으며, 부장으로 서녕, 목홍, 황신, 손립, 양춘, 진달, 양림 일곱 명을 붙였다.

이어서 '남방 병정화(丙丁火)'의 홍포군을 점검하여 료나라의 '금성'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대장으로는 벽력화 진명을 보내 좌우에서 흰 깃발을 든 군사 일곱 문을 돌파하게 했으며, 부장으로 유당, 뇌횡, 단연규, 위정국, 주통, 공왕, 정득손 일곱 명을 붙였다.

또한 '북방 임계수(壬癸水)'의 흑포군을 점검하여 료나라의 '화성'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대장으로는 쌍편 호연작을 보내 좌우에서 붉은 깃발을 든 군사 일곱 문을 돌파하게 했으며, 부장으로 양지, 색초, 한도, 팽기, 공명, 추연, 추운 일곱 명을 붙였다.

다음으로 '동방 갑을목(甲乙木)'의 청포군을 점검하여 료나라의 '토성' 주장 진영을 공격하게 했다. 대장으로는 대도 관승을 보내 중군 황색 깃발의 주진을 좌우에서 돌파하게 했으며, 부장으로 화영, 장청, 이응, 시진, 선찬, 학사문, 시은, 설영 여덟 명을 붙였다.

여기에 수놓은 깃발을 들고 꽃무늬 도포를 입은 군사 한 부대를 더 보내 료나라의 '태양' 좌군 진영을 치게 했는데, 대장으로 노지심, 무송, 양웅, 석수, 초정, 탕룡, 채복 일곱 명을 보냈다. 또 흰 도포에 은갑을 갖춘 군사 한 부대를 보내 료나라의 '태음' 우군 진영을 치게 했으

며, 대장으로 호삼낭, 고대수, 손이낭, 왕영, 손신, 장청, 채경 일곱 명을 보냈다.

아울러 중군을 직접 타격하여 료나라 군주를 사로잡을 용맹한 부대도 편성했는데, 대장으로 노준의, 연청, 여방, 광성, 해진, 해보 여섯 명을 보냈다. 그리고 뇌차를 중군까지 호송할 부대로는 이규, 번서, 포옥, 향충, 이곤 다섯 명의 대장을 보냈다. 나머지 수군 두령들과 인원들은 모두 진 앞에서 진을 깨는 것을 돕도록 배치했다.

진영 앞에는 다시 오방의 깃발 여덟 면을 세우고 인원을 나누어 배치하여, 여전히 '구궁팔괘'의 진세를 갖추었다. 송강이 명령을 내리자 모든 장수가 각자 그 명을 받들어 움직였다. 한편으로는 뇌차 제작을 마치고 법물을 실어 진 앞으로 밀어 놓았다.

시로 이르되, 천지를 놀라게 할 계책을 세우니 귀신도 무너뜨릴 승리가 눈앞이라.

한편, 올안통군(兀顏統軍)은 송강이 며칠째 나와 싸우지 않자, 압진군(押陣軍, 진영 뒤를 맡아 누르는 군사)을 보내 송강의 진영 앞까지 정찰하게 했다. 송강은 며칠에 걸쳐 모든 준비를 마친 뒤 날짜를 잡았고, 그날 저녁 드디어 료나라 군사와 맞붙기 위해 출진했다. 그는 진세를 일렬로 길게 펼쳐 놓고, 앞쪽에는 강력한 활과 쇠뇌를 배치하여 적의 진영 근처를 꿈쩍 못 하게 쏘아대며 해가 저물기만을 기다렸다.

황혼 무렵이 되자, 매서운 북풍이 몰아치고 붉은 구름이 뻗뻗하게 깔려 천지를 뒤덮으니, 아직 저물기도 전에 사방이 어두워졌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갈대를 꺾어 피리를 만들어 입에 물게 한 뒤, 이를 불어

신호로 삼으라고 일렀다. 그날 밤, 먼저 네 갈래의 군사를 나누어 보냈는데, 황포군만 진 앞에 남겨두었다. 이렇게 나누어 보낸 네 갈래의 군마는 정찰하던 료나라 군사를 몰아 죽이며 진영 가장자리를 돌아 북쪽을 향해 돌격해 갔다.

초경(初更, 밤 7시~9시 사이) 무렵, 송강의 군중에서 연달아 포성이 울려 퍼졌다. 호연작이 진영의 문을 열고 후군으로 돌격하여 곧장 '화성' 진영을 들이쳤다. 관승도 즉시 중군으로 난입하여 '토성'의 주장 진영을 노렸다. 임충은 군사를 이끌고 좌군 진영 안으로 쳐들어가 '목성' 진영을 공격했다. 진명은 군사를 거느리고 우군 진영을 들이받으며 '금성' 진영을 노렸다. 동평은 곧바로 군대를 움직여 선봉을 공격하며 '수성' 진영을 들이쳤다. 공손승은 군영에서 칼을 잡고 법술을 부리며, 별의 운행을 따르는 보법(답강보두)을 밟으며 다섯 갈래의 벼락을 일으켰다.

그날 밤 남풍이 거세게 몰아쳐 나무 끝이 땅에 닿을 듯 휘청거리고, 돌이 튀고 모래가 날렸다. 일제히 24대의 뇌차에 불을 붙이자, 이규, 번서, 포옥, 향충, 이곤이 오백 명의 방패수와 용맹한 군사들을 거느리고 뇌차를 호송하며 료나라 군의 진영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일장청' 호삼낭도 군사를 이끌고 곧장 료나라의 '태음' 진영으로 쳐들어갔으며, '화화상' 노지심도 군사를 이끌고 료나라의 '태양' 진영을 공격했다. '옥기린' 노준의는 군마 한 부대를 거느리고 뇌차를 따라 중군을 향해 곧장 질주했다.

「각자 제 몫의 적을 찾아가 싸워 죽여라!」

그날 밤 뇌차에서 불길이 치솟고 하늘에서는 벼락이 번갈아 내리치니, 참으로 별이 옮겨가고 북두칠성이 뒤틀릴 만큼 격렬한 싸움이었다. 해와 달이 빛을 잃고 귀신이 울부짖으며 신이 통곡하는 듯한 아수라장이 펼쳐졌고, 병사들은 혼비백산하여 어지럽게 흩어졌다.

한편, 올안통군(兀顏統軍)이 중군에서 장수들을 배치하고 있을 때, 사방에서 함성이 드높게 울려 퍼지며 곳곳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급히 말에 올라타려는데, 이미 뇌차는 중군에 도달해 있었다. 불길은 하늘을 찌를 듯 치솟고 포성은 땅을 뒤흔들었으며, 관승의 군마 한 부대는 이미 적의 막사 앞까지 당도해 있었다. 올안통군이 급히 방천화극을 들고 관승과 대전을 벌였으나, '몰우전' 장청이 돌을 집어 공중으로 마구 던져대는 것을 어찌 견뎌낼 수 있겠는가. 사방의 야장(牙將)들이 돌에 맞아 부상을 입거나 혼비백산하여 흩어져 달아났다. 이응, 시진, 선찬, 학사문도 말을 달려 도를 휘두르며 적의 장수들을 무차별적으로 베어 넘겼다. 올안통군은 곁에서 날개처럼 자신을 호위하던 부장들이 모두 사라진 것을 보고는, 말머리를 돌려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관승도 말을 달려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시로 이르되, 네가 설령 염마천(焰摩天) 꼭대기까지 달아나 발밑에 구름을 타고 내달린다 해도 기어이 따라잡으리라.

화영은 뒤에서 올안통군이 밀리는 것을 보고, 말을 몰아 단기로 뒤쫓아갔다. 그는 급히 활시위를 당겨 화살을 먹인 뒤 올안통군을 향해 쏘았다. 화살은 올안통군의 등 한복판을 정확히 맞혔으나,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며 호심경(護心鏡, 가슴을 보호하는 거울)에 맞고 튕겨 나갔다. 화영이 다시 화살을 쏘려는데 관승이 따라붙어 청룡도를

치켜들고 머리 위를 향해 내리쳤다. 올안통군은 세 겹의 갑옷을 입고 있었는데, 안쪽에는 연환 동철갑을, 중간에는 해수 가죽 갑옷을, 그 겹에는 황금 사슬 갑옷을 입고 있었다. 관승의 칼날이 내리쳤으나 겨우 두 겹만을 뚫었을 뿐이었다. 다시 칼을 휘두르자 올안통군이 칼 그림자 사이로 몸을 피해 말머리를 돌리며 방천화극을 세워 맞섰다. 두 사람이 서너 합을 더 겨루는 사이, 화영이 다가와 올안통군의 얼굴을 겨냥해 다시 화살을 날렸다. 올안통군이 급히 몸을 피했으나, 화살은 귓전을 스치며 봉시금관(鳳翅金冠, 봉황 날개 모양의 금관)에 박히고 말았다. 올안통군이 급히 도망치려 하자 장청이 말을 달려 뒤쫓으며 돌을 집어 그의 얼굴을 향해 던졌다. 날아온 돌에 맞은 올안통군은 말 위로 고꾸라진 채 화극을 끌며 겨우 달아났다. 관승이 다시 다가가 매섭게 칼을 휘둘렀다. 청룡도가 내리꽂히자 올안통군은 허리와 척추뼈가 머리까지 베이며 그대로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화영이 달려와 먼저 그 좋은 말을 가로챘고, 장청이 뒤따라와 창을 한 번 더 찔러 넣었다. 가련하게도 한 시대의 호걸이었던 올안통군은 칼 한 자루와 창 한 자루에 결국 목숨을 잃고 말았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이정의 '육화(六花)' 진법은 사람들도 다 알고, 공명(孔明)의 '팔괘(八卦)' 진법은 세상이 다 아는구나.

'혼천(混天)' 진법이 적수가 없기를 바랐으나, 신기한 기계 장치가 이를 깨뜨릴 때도 있는 법이로구나.

한편, 노지심이 무송을 비롯한 여섯 명의 두령을 이끌고 수많은 장수와 함께 함성을 지르며 료나라 군대의 '태양' 진영 안으로 들이닥쳤다. 태양진의 장수 야율득중이 급히 도망치려 했으나, 무송이 휘두른

계도(戒刀)에 말 머리가 잘려 나가면서 말에서 거꾸러지고 말았다. 무송은 그대로 놈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단칼에 목을 베어버렸고, 그 기세에 눌린 태양진은 순식간에 무너져 흩어졌다. 노지심이 외쳤다. 「우리 다시 중군으로 가서 료나라 군주를 잡아버리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한편, 료나라 군대의 '태음' 진영에 있던 천수공주는 사방에서 들려오는 살육의 함성을 듣고는 황급히 무기를 정돈하고 말에 올라 여병들을 거느리며 대비했다. 이때 '일장청' 호삼낭이 쌍도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고대수, 손이낭 등 여섯 명의 두령을 이끌고 천수공주의 막사 안으로 들이닥쳐 맞붙었다. 두 사람이 수없이 합을 겨루던 중, 호삼낭이 쌍도를 거두고 공주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 먹살을 움켜쥐었다. 두 사람은 말 위에서 한데 뒤엉켜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다. 이때 왕영(王矮虎, 별호 왜각호)이 뒤따라 들어와 천수공주를 사로잡았다. 고대수와 손이낭은 진영 안에서 여병들을 소탕했고, 손신, 장청, 채경은 밖에서 협공을 가했다. 가련하게도 옥엽금지(玉葉金枝)의 고귀한 공주가 결국 항복하여 포로로 붙잡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한편, 노준의가 군사를 이끌고 중군까지 쳐들어갔다. 해진과 해보가 먼저 '수(帥)' 자가 적힌 깃발을 베어 넘어뜨린 뒤, 료나라 병사들과 장수들을 마구 베어 넘겼다. 이때 호위 대신들과 수많은 아장(牙將)들이 료나라 국주의 가마(난가)를 엄호하며 북쪽으로 급히 피신했다. 진영 안에서는 '나(羅)'와 '월패(月孛)' 두 황실 조카가 말 아래에서 모두 찢려 죽었고, '계도(計都)'라는 황실 조카는 말 위에서 생포되었으나, '자(紫)'라는 황실 조카는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양산박 대군은 겹겹

이 적을 에워싸고 몰아붙였는데, 사경(四更, 새벽 두 시경)이 되어서야 비로소 공격을 멈추었다. 이 전투로 료나라 군사 20여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큰 피해를 입었다.

날이 밝아오자 장수들이 모두 돌아왔다. 송강은 징을 울려 군대를 거두어 진영을 차리게 한 뒤, 생포하거나 사로잡은 포로들을 모두 내놓아 각자의 공을 증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호삼낭은 '태음성' 천수공 주를, 노준의는 '계도성' 황제의 조카 야율득화를, 주동은 '수성' 곡리출청을 바쳤다. 구팽, 등비, 마린은 '두목해' 소대관을, 양림과 진달은 '심월호' 배직을, 단정규와 위정국은 '위토치' 고표를, 한도와 팽기(彭玘)는 '유토장' 뇌춘과 '익화사' 적성을 바쳤다. 장수들이 바친 적장의 머리는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송강은 생포한 여덟 명의 장수를 모두 조추밀의 중군으로 압송하여 구금하게 했다. 또한 전리품으로 얻은 말들은 각 장수에게 나누어 주어 타고 갈 수 있게 하였다.

한편, 료나라 국주는 황급히 연경으로 퇴각하며 급히 교지를 내려, 성문의 네 곳을 굳게 닫고 성을 엄중히 지키며 적과 맞서 싸우지 말라고 명령했다. 송강은 료나라 국주가 연경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군마를 이끌고 진영을 움직여 성 밑까지 곧장 추격해 성을 겹겹이 에워쌌다. 또한 사람을 보내 조추밀에게 요청하여, 그가 후영(後營)까지 와서 성을 공격하는 것을 지켜보게 했다. 송강은 연경 성 밖에서 운제포석(雲梯炮石, 구름사다리와 대포, 투석기)을 겹겹이 세우고 울타리를 쳐서 진영을 구축한 뒤, 성을 공격할 준비를 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료나라 국주는 마음이 몹시 불안하여 신하들을 불러 모아 상의하였는데, 신하들이 모두 입을 모아 말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위급하니, 대송에 항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상책은 없습니다." 료나라 국주는 결국 신하들의 뜻을 따랐다. 이에 성 위에는 일찍이 항복의 깃발을 올리고, 사람을 보내 송나라 진영에 간청하기를, "해마다 소와 말을 바치고, 해마다 보물과 진귀한 보석을 올리겠으니, 다시는 중원을 침범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송강은 그 사람을 데리고 후영까지 가서 조추밀을 배알한 뒤, 항복하겠다는 뜻을 상세히 전했다. 조추밀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이 일은 국가의 중대사라 반드시 황제 폐하의 결정을 받아야 하니, 내가 감히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소. 만약 료나라가 진심으로 항복하고자 한다면, 마땅한 대신을 보내 동경으로 직접 와서 천자를 알현하게 하시오. 성旨(성지, 황제의 명령)를 통해 료나라가 귀의한다는 표문을 허락하고, 죄를 사면한다는 조서를 내려주어야만 비로소 군대를 물리고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이오."

사람은 그 말을 듣고 곧장 성안으로 들어가 국주에게 보고했다. 국주는 문무백관을 불러 모아 이 일을 상의하였는데, 이때 우승상 태사저견이 나서서 아뢰었다. "지금 우리 나라의 병력은 미약하고 군사도 거의 없으니, 어떻게 적을 맞이하겠습니까? 제 미천한 생각으로는, 제가 직접 송나라 선봉 진영으로 가서 두둑한 뇌물을 약속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군사를 멈추고 전쟁을 쉬게 만들고, 다른 한편으로는 예물을 챙겨 곧장 동경으로 가서 성원(省院, 조정의 관청)의 여러 관리에게 뇌물을 주어 천자 앞에서 잘 말해 달라고 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이 원만하게 풀릴 것입니다. 지금 송나라 조정은 채경, 동관, 고구, 양전 네 명의 간신이 권력을 독점하고 있으며, 어린 황제는 그들 네

사람의 뜻에만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금과 비단으로 이 네 사람을 매수하여 화친을 청하게 한다면, 반드시 항복을 허락하고 죄를 사면한다는 조서를 내려줄 것이니, 그때 군사를 거두고 전쟁을 멈출 수 있을 것입니다." 국주가 이 제안을 허락하였다.

다음 날, 승상 저견이 성 밖으로 나와 송나라 선봉 진영까지 찾아왔다. 송강이 그를 막사로 맞이하여 찾아온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저견은 먼저 국주가 항복하겠다는 뜻을 전한 뒤, 송나라 선봉에 줄 금과 비단, 그리고 진귀한 보물들을 약속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저견에게 말했다.

"나는 요 며칠간 성을 공격해 오며,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할까 걱정해 본 적이 없소. 한 번에 뿌리를 뽑아버려야 나중에 다시 발단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요. 그런데 그대 성 위에 항복의 깃발이 올라온 것을 보고, 이로써 군사를 멈추고 전쟁을 쉬기로 한 것이요. 두 나라가 맞붙을 때 예부터 항복하는 이치는 있는 법이니, 그대들이 항복하고 예물을 바치는 것을 허락하겠소. 그러니 우리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기할 테니, 그대는 조정에 가서 죄를 청하고 예물을 바치도록 하시오. 그런데 이제 와서 뇌물을 약속하다니, 송강이 어떤 사람인지 보고도 다시는 그런 말을 꺼내지 마시오!"

저견은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라 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그대가 항복의 표문을 작성해 조정으로 보내면, 황제의 결정을 기다리겠소. 우리는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대기할 테니, 지체하지 말고 속히 다녀오시오!"

저건은 송강에게 절하며 감사의 뜻을 표한 뒤, 작별을 고하고 진영을 나왔다. 그는 말을 타고 연경으로 돌아가 국주에게 보고했다. 여러 대신이 상의하여 결정을 내리자, 다음 날 료나라의 군신들은 진귀한 보물과 금은보화, 비단과 진주 등을 수레에 가득 실었다. 그리고 승상 저건과 번관(番官, 외국 관리) 열다섯 명을 선발하여 경사로 향하게 했다. 말과 기병 서른여 기가 함께 움직였으며, 죄를 청하는 표문을 갖추어 연경을 떠났다. 이들은 송강의 진영에 도착하여 송강을 알현했다. 송강은 저건을 데리고 조추밀을 찾아가 이 일을 알렸다. "료나라에서 지금 승상 저건을 보내 직접 경사로 가서 항복의 죄를 고하게 하려 합니다." 조추밀은 저건을 머물게 하며 예우를 다해 대접했다. 그러고는 직접 송선봉을 찾아와 함께 의논한 뒤, 곧바로 문서를 작성하여 천자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다. 이어 시진과 소량을 보내 상주문을 받들어 올리게 하고, 군사 행정 문서를 지참하여 성원(省院, 조정의 관청)에 통보하게 한 뒤, 승상 저건과 동행하여 동경으로 떠나도록 했다.

여러 날을 길에서 보낸 끝에 마침내 경사에 도착한 일행은 열 대의 수레에 가득 실은 금은보화와 예물을 바쳤다. 그리고 수레와 말, 일행을 관역(館驛, 관청에서 운영하는 역참)에 머물게 했다. 시진과 소량은 행군 공문을 받들어 먼저 성원(省院, 조정의 관청)으로 가서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오늘날 병마가 연경을 포위하고 있어 당장이라도 함락할 기세입니다. 료나라의 국주가 성 위에 항복의 깃발을 올렸으며, 이제 승상 저건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죄를 청하며 항복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군사를

거두어 달라는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황제의 성지(聖旨)를 받들러 왔습니다."

성원의 관리가 말했다.

"우선 저들을 관역에 머물게 하며 잠시 기다리게 하시오. 우리가 여기서 차분히 의논해 본 뒤에 알려주겠소."

이때 채경, 동관, 고구, 양전과 성원의 크고 작은 관리들은 모두 이익을 탐하는 자들이었다. 한편 료나라의 승상 저견과 일행은 먼저 길을 찾기 위해 태사 채경 등 네 명의 대신을 찾아갔고, 그다음 성원의 여러 관리에게도 뇌물을 써서 미리 인맥을 통해 예물을 바쳐 두었다.

다음 날 아침 조례가 열려 백관이 축하의 춤을 추며 인사를 마쳤을 때, 추밀사 동관이 나아가 보고했다.

"선봉장 송강이 료나라 군대를 물리치고 연경까지 쳐들어와 성을 포위하고 공격하니, 당장이라도 함락될 기세입니다. 이에 료나라 국주가 일찌감치 항복의 깃발을 올리고 투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승상 저견을 사절로 보내 표문을 올리게 하여, 죄를 청하고 항복하며, 군사를 거두고 화친을 맺기를 청해왔습니다. 또한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이니 결코 어기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디 성상께서 살펴 결정해 주시옵소서."

천자가 말했다.

"이러한 조건으로 화친을 맺고 전쟁을 멈춘다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곁에 있던 태사 채경이 나아가 보고했다.

"신을 비롯한 여러 관원이 의논한 결과는 이러합니다. 예부터 지금까지 사방의 이민족을 완전히 멸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희의 어리석은 생각으로는 료나라를 살려두어 북방의 방패막이로 삼는 것이 좋겠습니다. 매년 세폐(歲幣, 매년 바치는 공물)를 바치게 한다면 나라에도 이득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항복과 죄를 청하는 요청을 받아들여 전쟁을 멈추고, 군마를 돌려보내 경사를 보호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희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으니 부디 폐하께서 성스러운 판결을 내려 주시옵소서."

천자가 이를 허락하고, 료나라 사절이 임금을 알현하도록 성지를 내렸다. 이에 전두관(殿頭官)이 명령을 내려 저건 일행을 불러들였고, 사절들은 모두 금전 아래에 도착하여 먼지를 일으키며 춤을 추고 절하며 세 번 크게 머리를 조아렸다. 시신(侍臣)이 표문을 받들어 어안(御案, 임금의 책상) 위에 펼치자, 선표학사(宣表學士)가 높은 목소리로 읽어 나갔다.

"료나라의 국주와 신하 耶律輝(야율휘)는 머리를 조아리고 백 번 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씀드립니다.

신은 북방의 거친 땅에서 태어나 이민족의 나라에서 자라났기에, 성현의 경전을 알지 못하고 인륜의 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겉으로는 문사를 흉내 내고 무예를 부리는 척하나, 곁에는 늑대나 개처럼

간사한 무리가 가득하며, 뇌물을 좋아하고 재물을 탐하는 쥐나 노루 같은 무리가 앞뒤로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미련한 신이 어리석게도 미친 무리를 불러 모으는 바람에, 국경을 침범하여 천병(天兵)의 벌을 받게 하고, 함부로 군사를 몰아 왕실을 번거롭게 하여 군사를 일으키게 만들었습니다.

개미 같은 저희가 어찌 태산 같은 성상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다만 못 물줄기가 결국 바다로 흘러가듯, 저희의 잘못을 뉘우치고자 합니다. 이에 특별히 사절 저건을 보내 천자의 위엄 앞에 몸을 낮추어, 영토를 바치고 죄를 청합니다. 만약 성상께서 이 보잘것없는 미천한 생명을 가엾게 여기시어, 조상 대대로 이어온 나라를 폐하지 않으시고 지난 허물을 사해주신다면, 새로운 앞날을 열어주시고 저희를 저 북방의 오랑캐 땅으로 물러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원히 천조(天朝)의 방패막이가 되게 해주신다면, 노인과 아이들 모두 진정 다시 태어난 기분을 느낄 것이며, 자손만대까지 그 은혜를 오래도록 기리겠습니다. 매년 공물을 바칠 것을 맹세하며 결코 어기지 않겠습니다!

저희 신하들은 두려움에 떨며 숨을 죽이고 이 글을 올리나이다. 삼가 표문을 올려 보고하나이다."

"선화 4년 겨울, 료나라 국주와 신하 야율휘의 표문"

황제 휘종이 표문을 다 읽고 나자, 계단 아래에 있던 신하들이 일제히 축하를 올렸다. 천자는 어주(御酒)를 가져오라 명하여 사절단에게 하사했다. 승상 저건 등은 즉시 금과 비단으로 된 세폐를 가져와 조정 앞에 올렸다. 천자는 보물창고에 이를 거두어들이게 한 뒤, 매년 바칠

소와 말 등의 세폐를 따로 바치게 했다. 천자는 답례로 비단 옷감을 내리고 광록시(국가 연회를 담당하는 관청)를 통해 연회를 베풀게 했다. 또한 승상 저견 등에게 먼저 돌아가 있으라 명하며, 과인이 관리를 보내 직접 조서를 전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일렀다. 저견 등은 은혜에 감사하며 절을 올린 뒤 조정에서 물러나 숙소로 돌아갔다. 그날 조회가 끝난 후, 저견은 다시 사람을 보내 각 관리의 문하로 가서 두둑한 사례를 했다. 채경은 승상에게 직접 돌아가도 좋다고 흔쾌히 허락하며, 이 일은 모두 우리 네 사람이 맡겠다고 했다. 저견은 태사에게 감사 인사를 올린 뒤 료나라로 돌아갔다.

한편, 채 태사는 다음 날 백관을 거느리고 조정에 들어가, 조서를 내려 료나라에 회신할 것을 아뢰었다. 천자가 이를 허락하자, 즉시 한림학사에게 조서를 한 통 짓게 한 뒤, 어전에서 태위 숙원경에게 붉은 조서(丹詔)를 들려 료나라로 직접 가서 낭독하게 했다. 또한 조추밀에게 명하여 송나라 선봉 부대에게 군사를 거두고 전투를 멈춘 뒤 수도로 회군하게 하라고 일렀다. 아울러 포로로 잡힌 자들은 모두 석방하여 나라로 돌려보내고, 빼앗았던 성읍들은 원래대로 료나라가 다스리게 하며, 부와 창고의 기물들도 료나라 측에 넘겨 관리하게 하라는 내용도 함께 전하게 했다. 천자가 퇴조하자 백관은 모두 흩어졌다. 다음 날, 성원(省院)의 여러 관리들은 숙태위의 부(府)로 모여 함께 배웅하기로 약속했다.

한편, 숙태위는 조서를 받자마자 감히 지체하지 못하고 곧장 가마와 말, 수행원들을 준비했다. 천자에게 작별을 고하고 성원의 관리들과도 인사를 나눈 뒤, 시진, 소량과 함께 료나라로 향했다. 이들은 수도를

떠나 진교역을 거쳐 변방을 향해 나아갔다. 길을 떠날 때는 마침 엄동설한이라 붉은 구름이 뻘뻘하게 깔리고 상서로운 눈이 평지처럼 내려앉아, 온 세상 숲은 가루를 뿌린 듯하고 만리는 은빛으로 장식되어 있었다. 숙태위 일행은 눈보라를 뚫고 줄지어 전진했다. 눈이 그쳤으나 아직 다 녹지 않은 채 변방에 다다랐다. 시진과 소량이 먼저 전령을 보내 조추밀에게 알리고, 다시 송강에게 전하도록 했다. 송강은 전령의 급보를 받자마자 술과 예물을 챙겨 수하들을 이끌고 50리 밖 매복로로 나가 마중 나갔다. 숙태위와 일행이 만나 인사를 마친 뒤 환영의 술을 나누니 모든 관리가 기뻐했다. 이들은 군영으로 자리를 옮겨 연회를 베풀며 조정의 일을 함께 논의했다. 숙태위가 말했다. "조정의 관리들인 채경, 동관, 고구, 양전이 모두 료나라로부터 뇌물을 받고 천자 앞에서 이 일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 덕분에 항복을 승인하고 전투를 멈추게 했으며, 조서를 내려 군사를 돌려 수도를 지키게 한 것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말했다. "저 송강이 조정에 원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공훈을 이만큼 쌓아놓고도 이렇게 허무하게 날려버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숙태위가 위로했다. "선봉 장군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제가 조정에 돌아가면 천자 앞에서 반드시 장군님의 공을 높게 천거하겠습니다." 조추밀 또한 거들었다. "이 하관이 증인이 되어 드릴 테니, 어찌 장군님의 큰 공을 허비하게 두겠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저희 108명은 오로지 나라에 보답하기 위해 온 힘을 다했을 뿐, 딴 마음을 품거나 은혜를 입어 보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형제들과 함께 고생하며 지켜낸 것만으로도 참으로 다행이라 여깁니다. 만약 추밀사께서 이 일을 잘 추진해 주신다면 그 은혜에 깊이 감사하겠습니다." 그날 연회는 모두가 즐거워하며 나누다 밤이

되어서야 끝이 났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 료나라 측에 알리고 조서를 받을 준비를 했다.

다음 날, 송강은 열 명의 대장을 뽑아 숙태위가 료나라로 가서 조서를 전하는 길을 호위하게 했다. 대장들은 모두 비단 도포에 금빛 갑옷을 입고 무관의 가죽 허리띠를 둘러 위엄을 갖추었다. 열 명의 장수 관승, 임충, 진명, 호연작, 화영, 동평, 이응, 시진, 여방, 광성이 보병과 기병 삼천 명을 이끌고 태위를 호위하며, 앞뒤로 병사들을 배치하여 성안으로 당당하게 진입했다. 연경의 백성들은 수백 년 동안 중원의 군대를 본 적이 없었는데, 숙태위 일행이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모두 기뻐하며 집집마다 문을 열고 향과 꽃, 등불을 내놓아 환영했다. 료나라 국주는 문무 백관을 직접 거느리고 정복을 갖춰 입은 채 말을 타고 남문으로 나와, 조서를 받기 위해 금란전(황제의 보좌가 있는 대전)까지 마중 나왔다. 열 명의 대장은 좌우에 섰고, 숙태위는 용정(조서를 모신 가마) 왼편에 섰으며, 국주는 백관과 함께 전각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전두관이 큰 소리로 절하라 외치자 국주와 문무 백관이 절을 올렸다. 이어 료나라 시랑이 분부를 받들어 조서를 청하자, 전각 위에서 조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조서에 이르되,

"대송의 황제가 제(制)하여 이르노라. 삼황이 자리에 오르고 오제가 선양을 이어왔으니, 비록 중화에도 임금이 있거늘, 어찌 이적(夷狄)이라 하여 임금이 없겠는가? 너희 료나라는 천명을 따르지 않고 수차례 국경을 침범하였으니, 본래라면 단번에 북을 울려 멸망시켜 마땅하였다. 짐이 이제 그 사정과 하소연을 살펴보니, 그 슬픔이 절절하고 외로이 남겨진 처지가 가련하여 차마 벌을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나라를 보

존해주려 한다. 조서가 도착하는 즉시, 군영에서 사로잡은 장수들을 모두 풀어주어 나라로 돌려보내고, 본래 빼앗았던 성읍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원래대로 돌려주어 본국에서 다스리게 하라. 또한 바치기로 한 세폐(歲幣)를 보내는 일에도 부디 소홀함이 없도록 하라. 아아! 큰 나라를 공경히 섬기고 천지를 두려워하는 것이야말로 번방(藩翰)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직분이다. 너희는 이를 깊이 받들어 경건히 행하라!"

"선화 4년 겨울 어느 날"

그때 료나라 시랑이 조서를 다 읽고 나자, 료나라 국주와 백관들이 다시 절을 올리며 은혜에 감사했다. 군신 간의 예법을 모두 마친 뒤 조서가 놓인 용안을 물러가게 하자, 국주는 숙태위와 마주 앉았다. 인사를 나눈 뒤 국주는 그를 후전으로 모셔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으니, 술과 고기가 산처럼 쌓였다. 번관들이 술을 올리고 무장들이 잔을 돌리며, 노래와 춤이 잔치 자리를 가득 채웠다. 호가(胡笳) 소리가 귀를 울리고 연나라 미녀들이 저마다 북과 피리 소리에 맞춰 춤을 추었으며,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호선무(胡旋慢舞)가 펼쳐졌다. 잔치가 끝나자 숙태위와 여러 장수를 역관 내의 숙소로 안내하여 쉬게 하였다. 이날 뒤따라온 사람들에게는 모두 상을 내려 노고를 치하했다.

다음 날, 료나라 국주는 승상 저견에게 명하여 성 밖 진영까지 나가게 한 뒤, 조추밀과 송 선봉(송강)을 초대하여 연경으로 들어와 잔치를 함께 즐기자고 청했다. 송강은 군사 오용과 의논한 끝에, 조추밀만 성안으로 불러들여 숙태위와 함께 잔치를 즐기도록 대접하기로 했다. 이날 료나라 국주는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송나라 사절들을 극진히 대접

했다. 포도주는 은 항아리에 가득 담겨 아낌없이 따랐고, 맛 좋은 황양 고기는 금쟁반에 가득 차려졌다. 기이한 과일들이 상 위에 쌓이고 아름다운 꽃들이 빗갈을 뿜내며 잔치를 장식했다. 잔치가 끝날 무렵, 국주가 금쟁반에 진귀한 보물들을 받쳐 들고 나와 숙태위와 조추밀에게 올렸다. 잔치는 밤이 깊도록 이어지다 비로소 끝이 났다. 셋째 날, 료나라 국주는 문무백관을 모두 모은 가운데 북소리와 악기 소리를 울려 태위와 추밀이 성을 떠나 돌아가는 길을 배웅했다. 이어 승상 저견에게 명하여 소와 양, 말과 금은보화, 비단 등의 예물을 가지고 송 선봉의 군영 앞까지 가서 성대한 잔치를 열고, 삼군을 격려하며 여러 장수에게 큰 상을 내리게 했다.

송강은 명령을 내려 천수공주 일행을 모두 풀어 본국으로 돌려보내게 하고, 빼앗았던 단주, 계주, 패주, 유주를 예전처럼 다시 료나라가 다스리도록 돌려주게 했다. 한편으로는 먼저 숙태위를 경성으로 배웅하게 한 뒤, 여러 장수와 군사, 수레와 말들을 정돈하고 인원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먼저 중군 군마를 출발시켜 조추밀이 길을 떠나는 것을 호송하게 했다. 송 선봉의 진영에서는 자체적으로 잔치를 열어 수군 두목들의 노고를 치하한 뒤, 그들에게 배를 타게 하여 수로를 통해 먼저 동경으로 돌아가 대기하도록 명하였다.

송강은 다시 사람을 성안으로 보내, 좌우 두 승상을 군영으로 불러와 이야기를 나누자고 청했다. 이에 료나라 국주는 좌승상 유서패근과 우승상 태사 저견을 보내어 송 선봉의 행영에 이르게 하였고, 중군에서 서로 마주하였다. 송강은 그들을 상석으로 초대하여 손님으로서 자리를 나누어 앉혔다.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우리 무장들이 성 아래에 들이닥쳐 해자 앞까지 다다랐으니, 큰 공을 세우는 일이 머지않았습니다. 본래라면 성을 함락시키고 적을 모조리 소탕하는 것이 마땅한 이치이나, 우리 주帥께서 조정에 뜻을 전달할 기회를 주라고 명하셨기에 이를 허락한 것입니다. 황제께서도 가련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차마 끝까지 추격하여 죽이지 못하시고, 너희가 항복하여 죄를 청하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왕실의 대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으니, 나는 조정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너희는 우리 송강 무리가 너희를 이길 수 없다고 해서 다시 마음을 바꾸어 반역을 꾀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매년 바치는 공물도 빠짐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본국으로 돌아가니, 너희는 마땅히 몸을 삼가고 조심하여 예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마십시오. 만약 천병(天兵)이 다시 들이닥친다면 결코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두 승상은 머리를 조아리며 죄를 빌고 감사를 표했다. 송강이 다시 좋은 말로 경계하며 타이르자, 두 승상은 간곡히 인사를 올리고 물러갔다.

한편, 송강은 군사 한 부대를 뽑아 여장수 '일장청' 일행과 함께 먼저 보내게 했다. 이어 군에 속한 석공들을 불러 돌을 채취하여 비석을 만들게 하고, 소양에게 글을 짓게 하여 이 일을 기록하게 했다. 금대전이 비석에 글자를 다 새기자, 이를 영청현 동쪽 15리 지점인 모산 아래에 세웠으니 지금까지도 그 유적이 남아 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오랑캐 말들이 음산을 넘어온다는 소식 들을 때마다,
전연 전투에서 적을 놓아준 것이 사무치게 한스럽네.

누가 모산의 공적을 기록하였는가,
구 공도 저승에서 미소 지으며 웃으리라.

송강은 군마를 다섯 부대로 나누어 진격하게 하고, 정해진 날짜에 출발했다. 그때 노지심이 갑자기 장막 앞으로 달려와 합장하며 예를 갖추고 송강에게 말했다.

"아우가 '진관서'를 때려죽인 뒤, 대주 안문현까지 도망쳐 갔을 때 조원외가 저를 오대산으로 보내주어 지진장로님을 모시고 머리를 깎아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술에 취해 두 번이나 선문에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스승님께서 저를 동경 대상국사로 보내 지청 선사님께 의탁하게 하셨고, 저는 거기서 집사승이 되어 상국사의 채원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임충을 구하려다 고 태위의 모함을 받아 결국 산채로 숨어들게 되었지요. 그러다 형님을 만나 여러 해 동안 형님을 따르며 지내왔으나, 스승님이 그리워 한 번도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저는 늘 스승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곤 합니다. '네 비록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성정을 가졌으나, 머지않아 정과를 얻어 참된 몸을 이루리라'고 하셨지요. 이제 세상이 태평해졌으니, 아우가 잠시 며칠간 휴가를 내어 오대산으로 가서 스승님께 문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모은 금과 비단은 모두 보시로 드리고, 스승님께 앞으로의 앞날이 어떠할지도 여쭙어보고 싶습니다. 형님께서서는 군마를 이끌고 먼저 전진하십시오. 아우가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송강은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말했다.

"그곳에 그런 살아있는 부처와 나한 같은 스승님이 계시거늘, 어찌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 우리와 함께 가서 문안을 드리고 앞날을 여쭙어보자꾸나."

그때 여러 사람과 상의하니 모두가 가겠다고 했으나, 오직 공손승만은 도교를 믿는 도사인지라 가지 않았다. 송강은 다시 군사와 의논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금대견, 황보단, 소양, 악화 네 사람은 남겨두어 부선봉 노준의와 함께 군마를 관리하게 하고 먼저 출발시킨다. 우리는 천 명 정도만 데리고 다른 형제들을 따라 노지심과 함께 지진장로님을 뵈러 가자."

송강 일행은 이윽고 군영을 떠났다. 향과 명주, 비단과 금은을 챙겨 오대산으로 향했다.

정작 금빛 창과 갑옷 입은 말들은 잠시 내려놓고, 세속을 벗어나 숲을 찾아 떠나네. 우화대 기슭에서 덕 높은 고승을 찾아가고, 선법당 앞에서 연등고불(燃燈古佛)을 뵈고자 하네. 한 마디 말로 명예와 이익의 길을 열어주고, 한 구절 말로 삶과 죽음의 문을 깨우치려 하네.

결국 송강과 노지심이 어떻게 참선을 하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0회 — 오대산에서 송강이 참선하고, 쌍림진에서 연청이 옛 친구를 만나다

五臺山宋江參禪 雙林鎮燕青遇故

이야기는 이러하다. 오대산의 지진 장로라고 하면, 본래 송나라 시절 세상을 비추던 살아있는 부처와 같은 고승으로, 과거와 미래의 일을 꿰뚫어 보는 능력이 있었다. 몇 해 전부터 그는 노지심이 능히 몸을 벗고 운명을 깨달아 끝내 해탈할 근기를 지닌 인물임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만 아직 세속의 인연이 다하지 않았고, 지은 살생의 빚을 갚아야 했기에 그를 속세로 보내 한 차례 다녀오게 한 것이었다. 노지심은 본래 타고난 근기가 있고 도를 닦는 마음도 있었기에, 오늘에 이르러 스승을 찾아가 참선하며 예를 올리겠다는 마음을 품게 되었다. 송강 또한 본래 선한 마음을 지닌 인물이었기에, 노지심과 함께 지진 장로를 찾아가 뵙고자 한 것이다.

이때 송강과 여러 장수는 수행하는 인원과 말만 데리고 노지심과 함께 오대산 아래에 도착했다. 먼저 군사를 주둔시키고 사람을 보내 산 위로 소식을 전하게 했다. 송강을 비롯한 형제들은 모두 군복과 무장

도구를 벗어 던지고 평복 차림으로 산을 올랐다. 산문에 다다르니 절 안에서 종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승려들이 나와 송강과 노지심 일행을 맞이하며 예를 갖추었다. 그중에는 노지심을 알아보는 이가 많았는데, 송강을 따라온 수많은 우두머리들을 보고는 모두 깜짝 놀랐다.

법당의 책임 승려가 송강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로님께서 지금 좌선하며 입정에 드셨기에 직접 뵙기 어렵습니다. 장군께서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는 송강 일행을 먼저 손님을 맞는 방인 지객료로 안내했다. 차를 대접하고 잠시 기다리자, 시자가 나와 말했다. "장로님께서 이제 선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지금 방장실에서 기다리고 계시니 장군께서는 안으로 드십시오."

송강 일행 백여 명은 마침내 방장실에 이르러 지진 장로를 알현했다. 장로는 황급히 계단을 내려와 그들을 맞이하며 상당으로 안내했다. 예를 마친 후 송강이 스님을 살펴보니, 예수는 죽히 넘은 나이에 눈썹과 머리카락은 모두 희었으나 골격이 청아하고 기품이 넘쳐, 마치 천태산의 위대한 고승이 세상에 나온 듯한 모습이었다. 일행이 방장실 안으로 들어가자 송강은 지진 장로를 상좌에 모시고 향을 피우며 절을 올렸다. 여러 장수가 모두 절을 마친 뒤, 노지심이 앞으로 나아가 향을 쫓고 절을 올렸다.

지진 장로가 말했다. "제자가 떠난 지 벌써 몇 해가 지났구나. 살생과 방화를 저지르며 살기가 쉽지 않았을 터인데." 노지심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서 있었다. 송강이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장로님의 높은 덕망은 익히 들었으나, 세속의 인연이 얹어 그 존안을 뵙기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어명을 받들어 요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곳에 들

러 대덕 높은 스님을 뵈게 되었으니, 평생의 큰 행운입니다. 지심 아우가 비록 살생과 방화를 저질렀으나, 충심은 결코 선량한 이들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형제들을 데리고 스님을 뵈고자 왔습니다."

지진 장로가 말했다. "이곳에는 고승들이 자주 찾아와 세상 돌아가는 일을 논하곤 하네. 장군께서 하늘을 대신해 도를 행하며 충의로운 마음을 지니셨다는 이야기는 익히 들었네. 내 제자인 지심이 장군을 따르고 있으니, 어찌 잘못된 길을 가겠는가!" 송강은 거듭 감사의 뜻을 표했다.

노지심은 금은보화와 비단 꾸러미를 가져와 스승에게 공양하려 했다. 그러자 지진 장로가 말했다. "내 제자가 이 물건들을 어디서 얻었느냐? 의롭지 못한 재물이라면 결코 받을 수 없다." 노지심이 아뢰었다. "제자가 그동안 공을 세워 받은 포상과 쌓아둔 재물들입니다. 제게는 쓸데없는 것들이라, 특별히 스승님께 바쳐 사찰의 공적인 용도로 쓰이게 하고자 합니다." 장로가 말했다. "이런 재물은 대중(승려들)도 함부로 받아 쓰기 어렵다. 그러니 이것으로 너를 위해 대장경 한 절을 조성하여, 네 죄업을 소멸하고 하루빨리 선한 과보에 오르게 하겠다." 노지심은 절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 또한 금은과 비단을 꺼내 지진 장로에게 올렸으나, 장로는 완강히 거절했다. 송강이 다시 아뢰었다. "스님께서 받지 않으신다면, 사찰의 창고 관리인에게 명하여 재(齎)를 마련하고 이 절의 모든 승려에게 공양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송강 일행은 오대산의 절에서

하룻밤을 묵어갔다. 장로가 채식 공양을 대접하며 정성껏 맞이하였으니, 이는 더 말할 것이 없었다.

한편, 다음 날 사찰의 창고 관리인이 재계 의식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다. 오대산 절의 법당에서는 종과 북소리가 울려 퍼졌고, 지진 장로는 법당에 모든 승려를 모아놓고 법문을 설하며 참선을 가르쳤다. 잠시 후, 절의 모든 승려가 가사를 걸치고 좌복을 챙겨 법당으로 모여들어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송강과 노지심, 그리고 여러 장수는 양옆에 나란히 섰다. 인경 소리가 울려 퍼지자 두 개의 붉은 사(紗) 등불이 앞장 서며 장로를 법좌로 인도했다. 지진 장로는 법좌에 올라 먼저 향을 만지며 축원했다.

"이 한 자루 향으로, 황제 폐하의 성수가 하늘과 같아 만백성이 평안히 생업에 종사하기를 엮으려 비옵나이다. 다시 한 자루 향을 만지며, 오늘 재계를 올린 이들이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수명이 길기를 비옵나이다. 다시 한 자루 향을 만지며, 나라가 안녕하고 백성이 태평하며, 풍년이 들어 삼교가 흥하고 사방이 고요하기를 비옵나이다."

축원을 마친 장로는 법좌에 앉았다. 양옆의 승려들도 문안 인사를 마친 뒤 다시 곁에 서서 모셨다. 송강이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린 뒤, 합장하고 가까이 다가가 참선을 청하며 말했다.

"제가 감히 스승님께 한 가지 여쭙고자 합니다. 덧없는 세상의 시간은 유한하나 고통의 바다는 끝이 없고, 사람의 몸은 지극히 미미하나 삶과 죽음의 문제는 가장 큼니다."

그러자 지진 장로가 계송으로 답했다.

"육근에 묶인 지 이미 여러 해요, 사대(四大)에 휘말린 지도 오래되었구나. 덧없는 찰나의 빛 속에서, 그간 몇 번이나 공중제비를 돌며 몸부림쳤느냐. 허나 보아라! 염부세계의 모든 중생은, 진흙과 모래더미 속에서 끊임없이 울부짖고 있도다."

장로가 계송을 마치자, 송강은 절을 올리고 곁에 서서 모셨다. 여러 장수도 모두 앞으로 나아가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며 맹세했다.

"그저 우리 형제들이 생사를 함께하고, 대대손손 다시 만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향을 다 피우자 모든 승려가 물러났고, 이어 운당 안에서 재계 의식을 이어가도록 청했다.

재계 의식을 마친 후, 송강과 노지심은 장로를 따라 방장실로 들어갔다. 저녁 무렵 한담을 나누던 중, 송강이 장로에게 간곡히 여쭙었다.

"제자와 노지심은 본래 며칠 동안이라도 스승님을 모시며 어리석은 저희를 깨우쳐 주시기를 바랐으나, 대군을 거느려야 하는 몸이라 감히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스승님의 말씀을 읽어도 참으로 깨닫는 바가 없습니다. 이제 작별을 고하고 수도로 돌아가려 하오니, 저희 형제들이 앞으로 나아갈 앞길이 어떠할지 부디 스승님께서 밝히 일러 깨우쳐 주시옵소서."

지진 장로가 종이와 붓을 가져오라 명하더니, 네 구절의 계송을 써 내려갔다.

바람 부는 날 기러기 그림자 너울거리는데,
동쪽 궁궐은 온전한 달을 보지 못하네.
한쪽 눈으로도 세운 공로 충분하니,
두 숲의 복과 수명은 온전하리라.

글을 다 쓴 뒤, 지진 장로가 송강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장군 일생의 일이니, 비밀히 간직하고 있으면 머지않아 반드시 응답이 있을 것이오."

송강이 이를 보았으나 그 뜻을 알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장로에게 간청했다.

"제자가 어리석어 스승님의 법어를 깨닫지 못하겠나이다. 부디 스승님께서 명확히 풀이해 주시어 제 마음속의 의구심을 풀어 주시옵소서."

지진 장로가 말했다.

"이것은 선문의 은밀한 말이니, 너는 스스로 참구해야지 내가 명확히 말해줄 수는 없다."

장로는 말을 마치고는 노지심을 가까이 불러 말하였다.

"내 제자가 이번에 떠나면 너와는 앞날을 영원히 작별하는 것이니, 곧 정과(正果, 깨달음의 경지)를 이룰 때가 다가왔구나! 이 네 구절의 계송을 가지고 가서 평생의 밑천으로 삼거라."

계송이 이르되,

여름이 오면 사로잡히고, 겨울이 오면 붙잡히네.

밀물 소리 들으면 둥글어지고, 소식 보이면 고요해지네.

노지심은 계송을 받들어 몇 번이고 거듭 읽은 뒤 품속에 깊이 갈무리하고는 스승에게 절하며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그렇게 하룻밤을 더 묵었다. 이튿날, 송강과 노지심은 오용을 비롯한 여러 장수와 함께 장로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왔다. 일행이 절을 나서자, 지진 장로와 스님들은 모두 산문 밖까지 나와 배웅하며 작별을 나누었다.

장로와 스님들이 절로 돌아간 뒤의 이야기는 차치하고, 한편 송강과 장수들은 오대산 아래에 도착하자마자 군마를 몰아 불꽃 같은 기세로 서둘러 달려갔다. 장수들이 군대 앞에 도착하자 노준의와 공손승 등이 송강과 장수들을 맞이하며 모두 상봉하였다. 송강은 노준의 등에게 오대산에서 사람들이 참선하며 서원을 세운 일을 말해주고, 지진 장로가 써준 계송을 꺼내어 노준의와 공손승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도 모두 그 뜻을 알지 못했다. 그러자 소양이 말했다.

"선문의 깊은 법어를 어찌 평범한 생각으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모두가 그 말에 몹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송강이 명령을 내려 군마를 재촉하고 길을 떠나게 했다. 명령을 받은 장수들은 삼군(三軍)의 인마를 몰아 동경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다. 지나가는 곳마다 군사들은 백성의 재물을 아주 작은 것 하나도 건

드리지 않았다. 백성들은 노인과 아이의 손을 잡고 나와 승전한 왕의 군대를 구경했다. 송강과 장수들의 영웅적인 기개를 본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칭송하며 모두가 진심으로 감탄했다.

송강 일행이 길을 떠난 지 며칠이 지나 쌍림진이라는 곳에 이르렀다. 마을 사람들과 근처 마을의 농부들이 모두 몰려나와 구경을 했다. 송강과 형제들은 기러기가 줄을 지어 날아가듯 차례로 줄을 맞춰 행진했고, 말들은 고삐를 나란히 한 채 나아갔다. 한창 행진하던 중, 앞쪽 부대의 한 장수가 말에서 뛰어내리더니 왼쪽에서 구경하던 사람들 무리 속으로 들어가 한 사람을 붙잡고 외쳤다.

"형님,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두 사람은 서로 인사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송강의 말이 점점 가까워져 살펴보니, 바로 '낭자' 연청이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연청이 손을 모아 읊하며 말했다.

"허 형님, 이분이 바로 송 선봉이십니다."

송강이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그 사람을 살펴보니, 생김새가 이려하였다.

눈동자는 형형하게 빛나고 눈썹은 팔자 모양으로 나 있었다. 키는 일곱 자 정도로 건장한 체구였으며, 입 주변에는 세 갈래로 갈라진 수염이 무성하게 나 있었다. 머리에는 검은색 주름진 사(紗)로 만든 머리띠를 두르고, 가장자리에 검은 테를 두른 갈색 삼베 도포를 입고 있었다. 허리에는 갖가지 색이 섞인 여공의 끈을 묶었으며, 발에는 네모진

모양의 푸른 천 신을 신고 있었다. 보아하니 결코 평범한 범인이 아니라, 틀림없이 산림에 은거하는 고결한 선비였다.

송강은 그 사람의 생김새가 예사롭지 않고 풍채가 늠름하며 기품이 고결한 것을 보고, 급히 말에서 내려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물었다.

"고결하신 선비님의 함자를 여쭙어도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송강을 바라보며 절을 올렸다.

"성함을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뵈게 되니 영광입니다."

송강은 당황하여 연신 답례를 하며 서둘러 그를 일으켜 세웠다.

"저는 미천한 송강이라 합니다. 어찌 이리 격식을 차리십니까."

그가 말했다.

"소인은 성은 허요, 이름은 관충이라 합니다. 조상은 대명부 사람이나 지금은 산야로 거처를 옮겨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 장군님과 교분을 나누었는데, 헤어진 지 벌써 십수 년이 흘러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 후 강호를 떠돌며 소을(小乙) 아우가 장군님 휘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속으로 늘 그리워했습니다. 마침 장군께서 요나라를 격파하고 승전하여 돌아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까지 와서 영웅들을 뵈게 되니 평생의 행운이라 생각합니다. 관찮으시다면 연 형님을 저희 집으로 초대하여 잠시 담소를 나누고 싶은데, 장군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연청 역시 곁에서 아뢰었다.

"소제는 허 형님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 뜻밖에 이곳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허 형님의 정중한 뜻을 받들어 저도 한 번 다녀오겠습니다. 형님과 다른 장수들은 먼저 가 계십시오. 소제가 뒤따라가겠습니다."

송강이 그제야 깨달은 듯 말했다.

"아우 연청, 자네가 평소 선생 같은 영웅을 모시고 있다고 말하곤 했지만, 내 팔자가 사나워 만날 인연이 없었구려. 이제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으니, 감히 함께 가서 가르침을 청하고자 하네."

허관충이 사양하며 말했다.

"장군님의 너그러운 충의를 보니, 저 허 아무개도 오래전부터 곁에서 모시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다만 노모께서 일흔이 넘으셨기에 멀리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소."

그러고는 다시 연청에게 말했다.

"아우는 이만 돌아가게. 내가 마음이 놓이지 않으니 말이네. 게다가 곧 도성에 도착하면 아침저녁으로 입궐하여 뵈게 될 것이 아닌가."

연청이 대답했다.

"소제, 결코 형님의 명을 어기지 않겠습니다."

연청은 다시 노준의에게 가서 보고한 뒤, 두 사람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송강이 다시 말에 올라타니, 앞서가던 장수들은 이미 화살 하나 거리만큼 떨어져 있었다. 그들은 송강과 허관충이 대화하는 것을 보고는 모두 말의 고삐를 잡아당겨 기다렸다. 송강은 말의 속도를 높여 앞으로 나아가며 장수들과 함께 길을 떠났다.

이야기는 두 갈래로 나뉜다. 한편, 연청은 측근인 군졸 하나를 불러 짐을 묶게 하고 말 한 필을 따로 준비하게 한 뒤, 자신의 준마를 허관충에게 양보하여 타게 했다. 앞쪽에 있는 주막에 도착한 연청은 무관의 복장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다. 두 사람이 각자 말에 올라타고 군졸이 짐을 등에 진 채 뒤를 따르며, 쌍림진을 떠나 북서쪽 작은 길을 따라 나아갔다. 몇몇 마을과 숲길을 지나자 앞에는 험하고 굽이진 산길이 나타났다. 두 사람은 옛 정을 나누며 가슴속에 맺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산길을 벗어나 큰 시내를 하나 건너고 서른여 리쯤 나아갔을 때, 허관충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높고 험한 산중에 제 초라한 집이 있습니다."

그렇게 십여 리를 더 가자 비로소 산속에 도착했다. 산봉우리는 빼어나고 수려했으며 시냇물은 맑고 깨끗했다. 연청이 산세를 구경하다 보니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다.

시로 이르되,

지는 해는 안개를 머금어 푸른 안개를 피워 올리고, 끓긴 노을은 물결에 비쳐 붉은 빛을 흩뿌리네.

이 산의 이름은 대비산(大俵山)으로, 상고 시대의 성인 대우(大禹)가 치수를 위해 이곳에 왔었다고 한다. 『서경』에 "대비에 이르렀다(至於大俵)"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바로 그 증거라 할 수 있다. 지금은 대명부 준현 지역에 속한다. 이야기가 길어지면 번거로우니 이쯤 해두자.

한편, 허관충은 연청을 데리고 산굽이를 몇 군데 돌아 산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사방 삼사 리 정도 되는 넓고 평탄한 땅이 펼쳐져 있었다. 나무가 무성한 숲 사이로 초가집 두서너 채가 보였는데, 그중에는 시냇가 남쪽을 향해 자리 잡은 초가집 몇 채가 있었다. 문밖에는 대나무 울타리가 둘러쳐져 있고 사립문은 반쯤 가려져 있었으며, 푸른 대나무와 울창한 소나무, 붉은 단풍과 푸른 측백나무가 앞뒤로 뺨뺨하게 들어서 있었다. 허관충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이곳이 바로 제 초라한 집입니다."

연청이 대나무 울타리 안을 살펴보니, 노란 머리의 마을 아이 하나가 베로 만든 누더기 옷을 입고 땅에 말려둔 솔가지와 땔감을 모아 초가 처마 밑에 쌓아두고 있었다. 아이는 말뚝굽 소리가 들리자 몸을 일으켜 밖을 내다보더니, 이상하다는 듯 외쳤다.

"여기 어찌 말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자세히 보니 말 위에는 주인인 허관충이 타고 있었다. 아이는 황급히 문밖으로 달려 나와 두 손을 모으고 서서 멍하니 바라보았다. 알고 보니 떠날 준비를 할 때 허관충이 말 방울을 달지 말라고 했기에, 이제야 소리를 듣고 깨달은 것이었다. 두 사람이 말에서 내려 대나무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고, 군졸이 말을 매어 두었다. 두 사람이 초가집 안으로 들어가 손님과 주인으로 나누어 앉았다. 차를 마신 뒤, 허관충은 따라온 군졸에게 말 안장과 고삐를 벗겨 두 마리의 말을 뒤쪽 초가로 끌고 가게 하고, 아이를 불러 풀을 가져다 먹이게 한 뒤 군졸은 앞쪽 행랑채에서 쉬도록 했다. 연청은 허관충의 노모를 뵈고 인사를 드렸다. 허관충은 연청을 데리고 동쪽에 자리해 서쪽을 향한 초가 안으로 들어갔다. 뒷창문을 열자 맑은 시냇물이 바로 눈앞에 펼쳐졌고, 두 사람은 창틀에 기대어 자리에 앉았다.

허관충이 웃으며 말했다.

"송강 공과 여러 장군님은 영웅 중의 영웅으로서 위로는 천강성(天罡星)에 응하시며, 이제는 오랑캐들까지 위엄으로 굴복시키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놈은 그저 이 거친 산속에 웅크리고 살 뿐이니, 어찌 형님들께 감히 비길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제 처지도 세상 흐름과 맞지 않는 구석이 있어, 간신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조정의 눈을 가리는 것을 볼 때마다 뜻을 펼칠 마음을 접고 강호를 떠돌았는데, 몇몇 곳을 다니면서 저도 자못 유심히 눈여겨 살펴 두었습니다."

말을 마친 허관충은 크게 웃으며 잔을 씻고 다시 술을 따랐다. 연청은 은자 스무 냥을 꺼내 허관충에게 건네며 말했다.

"약소한 정성이니 부디 받아주십시오."

허관충은 완강히 거절했다. 그러자 연청이 다시 권했다.

"형님처럼 재능과 지략이 뛰어나신 분이 저와 함께 경사(수도)로 가셔서 기회를 엿보며 관직을 얻으시면 어떻겠습니까?"

허관충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지금은 간사한 무리들이 득세하여 어질고 능력 있는 자를 시기하고 질투하니, 귀신이나 물여우 같은 자들이 화려한 관복을 입고 권세를 누리고 있습니다. 반대로 충성스럽고 곧은 이들은 모두 움아매여 모함을 당하고 있지요. 제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채처럼 식어 버렸습니다. 형님께서도 공을 세워 이름을 떨치시는 날이 오면, 미리 물러날 길을 찾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부터 이르기를, '나는 새가 다하면 좋은 활은 거두어 감춘다(鳥盡弓藏)'고 하지 않았습니까."

연청은 고개를 끄덕이며 탄식했다. 두 사람은 한밤중이 되어서야 이야기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세수를 마치고 일찍이 식사를 차려 연청에게 대접한 뒤, 허관충은 연청을 데리고 산 앞뒤로 유람을 나갔다. 연청이 높은 곳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첩첩산중이 가로막고 있어 사방이 온통 산뿐이었고, 오직 새 울음소리만 위아래로 들려올 뿐 사람의 발길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산속에 사는 집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니 스무서너 채밖에 되지 않았다. 연청이 말했다.

"이곳은 무릉도원이라 해도 손색이 없겠군요."

연청은 산세 구경에 푹 빠져 있는 바람에 어느덧 날이 저물었고, 그렇게 하룻밤을 더 머물렀다.

다음 날, 연청은 허관충에게 작별을 고하며 말했다.

"송강 선봉장께서 걱정하실까 염려되어 이만 떠나야겠습니다."

허관충은 문밖까지 배웅하며 말했다.

"형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잠시 후, 마을 아이가 손에 쥐여준 두루마리 하나를 들고 달려왔다. 허관충은 그것을 받아 연청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것은 제가 최근에 그린 서투른 그림들입니다. 형님께서 경사에 가시면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나중에 혹시라도 쓸모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연청은 감사를 표하고는 군사에게 일러 행낭 안에 잘 묶어 두게 했다. 두 사람은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1, 2리 정도를 더 함께 걸었다. 연청이 말했다.

"천 리를 배웅해도 결국은 헤어져야 하는 법'이니, 너무 멀리까지 나오지 마십시오. 다음에 다시 만납시다."

두 사람은 모두 아쉬운 마음을 뒤로한 채 헤어졌다.

연청은 허관충이 멀리 돌아가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비로소 말에 올라탔다. 이어 군사들에게도 말에 오르게 한 뒤 함께 길을 떠났다. 하루가 지나 도성인 동경에 도착하니, 마침 송강 선봉장이 성지를 기다리며 진교역에 군마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연청은 진영으로 들어가 송강을 뵈고 인사를 드렸다.

한편, 앞서 숙태위(宿太尉)와 조추밀(趙樞密)의 중군 군마가 성 안으로 입성하여 송강 일행의 공로를 이미 천자에게 아뢰어 알렸다. 보고에 따르면, 송강 선봉장과 여러 장수의 군마가 회군하여 돌아오고 있으며 이미 관외에 도착했다는 것이었다. 조추밀이 나아와 송강 등 여러 장수가 변방에서 고생한 일을 아뢰자, 천자는 그 보고를 듣고 크게 찬탄하였다. 이어 성지를 내려 황문시랑을 통해 송강 등을 불러 직접 뵈게 하고, 모두 무장을 갖춘 채 성 안으로 들어오라 명하였다.

송강을 비롯한 장수들은 성지를 받들어 몸에 무구를 갖추고 갑옷과 띠를 매었으며,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고 비단 옷을 걸쳤다. 또한 금과 은으로 된 패를 차고 동화문을 통해 입성하였다. 그들은 모두 문덕전으로 나아가 천자를 뵈고 절하고 춤추며 문안을 드린 뒤, 세 번 만세를 외쳤다. 황제가 송강 등 장수들의 영웅다운 모습을 살펴보니, 모두 비단 도포에 금띠를 두른 차림이었으나 오용, 공손승, 노지심, 무송만은 본래 입던 옷차림 그대로였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과인은 경들이 정벌에 나아가 노고가 많았고 변방에서 마음을 다하였으며, 부상을 입은 자가 많았음을 잘 알고 있으니, 과인이 심히 근심스럽고 애통하도다."

송강이 다시 절을 올리며 아뢰었다.

"성상의 홍복이 하늘과 같으심에 힘입어, 저희 장수들이 비록 부상을 입은 이가 있었으나 모두 무사합니다. 이제 역적들이 항복하여 변방이 평온해진 것은 실로 폐하의 위엄과 덕이 이룬 바이니, 저희가 무슨 수고를 했다 하겠습니까?"

송강은 다시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천자는 특별히 성원관(省院官)에게 작위를 논의하여 정하라고 명하였다. 태사 채경과 추밀사 동관이 상의한 뒤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송강 등의 관직과 작위는 저희가 적절히 논의한 뒤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천자가 이를 허락하자, 곧바로 광록사에서 성대한 어연을 베풀게 하였다. 또한 송강에게 비단 도포 한 벌과 금갑옷 한 벌, 명마 한 필을 하사하고, 노준의 이하 장수들에게는 금과 비단을 상으로 내리되 모두 내부(內府)에서 지출하도록 하였다. 송강과 장수들이 은혜에 감사하는 예를 마친 뒤 궁궐을 나와, 모두 서화문 밖으로 가서 말에 올라 진영으로 돌아가 휴식하며 성지를 기다렸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으나, 채경과 동관 등은 작위를 논의하기는커녕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였다.

한편, 송강은 진영에서 한가로이 앉아 군사 오용과 고금의 흥망성쇠와 그 득실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그때 대종과 석수가 평북 차림으로 찾아와 아뢰었다.

"저희가 진영에 가만히 앉아 있자니 너무 무료하여, 오늘 석수 형제와 잠시 산책을 다녀오려고 형님께 먼저 아뢰러 왔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일찌감치 진영으로 돌아오너라. 돌아오면 너희와 함께 술을 몇 잔 나누마."

대종과 석수는 진교역을 떠나 북쪽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몇몇 거리와 시장통을 지나는데, 문득 길가에 커다란 비석 하나가 보였다. 비석에는 '조자대(造字臺)'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그 위에 적힌 몇 줄의 작은 글씨는 비바람에 깎여나가 선명하지 않았다. 대종이 자세히 살피더니 말했다.

"과연 창힐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곳이로구나."

석수가 웃으며 말했다.

"저는 그런 건 쓸 일이 없어요."

두 사람은 웃으며 다시 앞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다 어떤 곳에 이르렀는데, 넓은 공터에 땅바닥에는 기와 조각들이 널려 있었다. 정북쪽에는 돌로 만든 패방이 서 있었고, 가로로 놓인 돌판에는 '박랑성(博浪

城)'이라는 세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대종이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다.

"과연 이곳이 한나라 유후(留侯)가 진시황을 저격했던 곳이로구나!"

대종이 거듭 감탄하며 덧붙였다.

"참으로 대단한 유후로다!"

석수가 말했다.

"다만 그 첩퇴 한 방이 빗나간 게 아쉬울 뿐이지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탄식하며 이야기를 나누다 다시 북쪽을 향해 걸어갔다. 진영에서 20여 리쯤 떨어졌을 때, 석수가 말했다.

"우리 둘이 이 반나절 동안 실컷 놀았으니, 어디서 술 한 사발 먹고 진영으로 돌아갑시다."

대종이 말했다.

"저 앞이 주막 아니냐?"

두 사람은 주막으로 들어가 창가 쪽의 밝은 자리를 골라 앉았다. 대종이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다.

"여기 술 좀 내오시오!"

점소이가 채소 대여섯 접시를 탁자 위에 차려 놓으며 물었다.

"나으리, 술은 얼마나 드릴까요?"

석수가 말했다.

"우선 술 두 각(角)만 내오고, 안주는 입맛에 맞는 것으로 좀 가져다 주시오."

얼마 지나지 않아 점소이가 술 두 각과 소고기 한 접시, 양고기 한 접시, 그리고 어린 닭 요리 한 접시를 가져왔다. 두 사람이 술을 마시며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어떤 사내가 우산과 막대기를 짊고 보따리를 멘 채 들어왔다. 검은 적삼을 질러 묶고 허리에는 전대를 찻으며, 무릎 보호대를 하고 팔탐마혜(八搭麻鞋)를 신은 사내는 숨을 헐떡이며 급히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우산과 막대기, 보따리를 내려놓자마자 한 자리에 털썩 앉더니 외쳤다.

"어서 술과 고기를 내오시오!"

점소이가 술 한 각과 채소 두세 접시를 내왔다. 그러자 그 사내가 말했다.

"복잡하게 차리지 말고, 고기 있으면 한 접시 얼른 썰어 오시오. 먹고 얼른 성안으로 가서 공무를 봐야 하니 말이오."

사내는 술을 들어 고기를 크게 한 입씩 먹어 치웠다. 대종이 그 모습을 지켜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저 자는 관아의 사람 같은데, 대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걸까?'

대중이 사내에게 손을 모아 정중히 물었다.

"형씨, 무슨 일이기에 이토록 급하십니까?"

사내는 술과 고기를 먹으면서도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았다. 그 이야기가 송 공명이 다시 큰 공을 세워 분심(汾沁) 지역을 대송에 되찾아 주는 계기가 될 것이었다. 과연 그 사내가 어떤 말을 했을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1회 — 송공명이 군사를 이끌고 황하 를 건너고, 노준의가 밤중에 성을 속여 빼앗다

宋公明兵渡黃河 盧俊義賺城黑夜

이야기는 이러하다. 대종과 석수가 보니, 그 사내는 관원 차림을 하고 있었는데 무척이나 허둥지둥하는 모습이었다. 대종이 물었다.

“무슨 급한 공무라도 맡으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입술을 닦으며 대종에게 말했다.

“하북에서 전호가 난을 일으켰다는 소식, 그쪽도 알고 계시오?”

대종이 대답했다.

“저도 대략 알고 있습니다.”

사내가 말을 이었다.

“전호 그놈이 주와 현을 침범하고 빼앗으니 관군도 도저히 당해내질 못하고 있소. 최근에는 개주까지 함락시켰으니, 머지않아 위주까지 공격할 것ियो. 성 안 백성들은 밤낮으로 공포에 떨고 있고, 성 밖 주민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고 있소. 그래서 본부에서 나를 성원(省院, 도성의 중앙 관청)으로 보내 급한 공문을 올리게 한 것ियो.”

말을 마친 사내는 짐을 챙겨 메고 우산을 챙겨 들더니, 서둘러 술값을 계산하고 문을 나서며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이지 관원 노릇도 편할 게 없구려. 우리 식솔이 모두 성 안에 있는데, 하늘이시여, 제발 구원병이 빨리 도착하기만을 바랄 뿐이오!”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경성을 향해 급히 발걸음을 재촉했다.

대종과 석수도 이 소식을 듣고 술값을 계산한 뒤 주막을 떠나 진영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송강 선봉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송강이 오용과 상의하며 말했다.

“우리 장수들이 이곳에서 한가하게 머물고만 있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소. 차라리 천자께 상소를 올려, 우리가 기꺼이 군사를 일으켜 정벌하러 가겠다고 청하는 것이 어떻겠소?”

오용이 대답했다.

“이 일은 반드시 숙태위께서 보좌하여 상소를 올려주셔야 가능합니다.”

곧바로 여러 장수를 모아 이 일을 상의하니, 모두가 기쁘게 찬성했다. 다음 날, 송강은 관복을 갖춰 입고 십여 기의 기병을 거느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 태위의 관아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마침 태위가 관아에 있었기에 사람을 보내 소식을 전하게 했다. 태위는 소식을 듣고 급히 안으로 모시라고 일렀다. 송강은 대청에 올라 다시 한번 절을 올린 뒤 예를 갖추었다.

숙태위가 물었다.

“장군께서 어찌 이리 귀한 걸음을 하셨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은상(恩相)께 아뢰입니다. 송가(宋某)가 듣기로 하북에서 전호가 반란을 일으켜 주와 군을 점령하고 연호까지 멋대로 바꾸었으며, 개주까지 침범하여 머지않아 위주를 공격할 기세라고 합니다. 저희 송강 일행은 오랫동안 군사를 움직이지 않고 쉬고 있었으니, 이번에 저희가 직접 병마를 거느리고 나가 반란군을 토벌하여 충성을 다해 나라에 보답하고자 합니다. 부디 은상께서 천자께 이 일을 잘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숙태위는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들께서 이토록 충의로우시고 나라를 위해 힘을 쓰고자 하시니, 이 숙모(宿某)가 온 힘을 다해 보좌하여 상소를 올리겠소.”

송강이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희가 태위의 두터운 은혜를 입은 것이 뼈에 사무칠 정도라,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숙태위는 다시 술을 차려 대접하게 했다. 저녁이 되어 송강이 진영으로 돌아오자, 여러 두령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한편, 숙태위는 다음 날 이른 아침 입궐하여 피향전에 있는 천자를 알현했다. 마침 관원이 하북에서 전호가 반란을 일으켜 5부 56현을 점령하고, 연호를 멋대로 바꾸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며 세력을 떨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있었다. 또한 룡주, 회주, 진린이 함락되어 급박한 공문을 올렸다는 내용도 함께 보고되었다. 천자는 크게 놀라며 백관과 무관들에게 물었다.

“경들은 누구를 보내 이 도적 떼를 토벌하게 하겠는가?”

이때 관리들 사이에서 숙태위가 앞으로 나서며 상소문을 받들어 들고 앞드려 아뢰었다.

“신이 듣기로 전호의 기세는 이미 숲을 태우는 불길처럼 번져나가고 있어, 용맹한 장수와 강력한 군대가 아니면 토벌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마침 요나라를 격파하고 승리한 송 선봉이 성 밖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으니, 부디 칙령을 내려 이 군마들을 보내 정벌하게 하소서. 반드시 큰 공을 세울 것입니다.”

천자는 크게 기뻐하며 즉시 관원에게 명하여 칙령을 받들어 성 밖으로 나가게 했다. 송강과 노준의를 불러 피향전 아래까지 오게 하여 천자를 알현하게 했다. 절과 춤을 마친 뒤 천자가 말했다.

“짐은 경들이 영웅적이고 충의롭다는 것을 잘 알고 있노라. 이제 경들에게 하북 정벌의 명을 내리니,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말라. 속히 승전보를 가지고 돌아온다면 짐이 특별히 승진시켜 주겠노라.”

송강과 노준의가 머리를 조아리며 아뢰었다.

“저희가 성은의 임명을 받았으니, 몸을 아끼지 않고 죽을 때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천자는 매우 기뻐하며 칙령을 내려 송강을 ‘평북정선봉’으로, 노준의를 부선봉으로 봉했다. 또한 각자에게 어주와 금띠, 비단 도포, 금갑옷, 채색 비단을 하사했다. 나머지 정장과 편장들에게는 각각 비단과 은량을 내렸다. 반란을 평정한 뒤 공을 논하여 관직을 높여주고 봉해 주기로 했다. 삼군의 두목들에게도 은량을 나누어 주었는데, 이는 모두 내부의 창고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출정 날짜를 정하여 군사를 일으키기로 했다. 송강과 노준의는 다시 한번 절하며 은혜에 감사한 뒤, 명을 받들어 조회를 마치고 말에 올라 진영으로 돌아와 장막에 앉았다. 당시 여러 장수를 불러 모으니, 모두가 말과 안장, 갑옷을 챙기며 전호의 반란을 토벌하기 위해 떠날 준비를 마쳤다.

다음 날, 내부의 창고에서 하사받은 비단과 은량을 받아와 여러 장수에게 나누어 주고, 삼군의 두목들에게도 골고루 나누어 주었다. 송강이 오용과 상의하여 수군 두령들에게 명령하기를, “전투용 배들을 정돈하여 앞서 나가라. 변하를 거쳐 황하로 들어간 뒤, 원무현 경계까지 가서 대군이 도착하기를 기다렸다가 강을 건너는 것을 돕도록 하라”고 하였다. 또한 마군 두령들에게도 명령하여 말들을 정돈하게 하

고, 수군과 기병이 함께 나아가 배와 말이 나란히 행군할 수 있도록 출정 준비를 갖추게 하였다.

한편, 하북의 전호라는 자는 위승주 침원현의 사냥꾼 출신으로, 힘이 장사이고 무예에 능했으며 오로지 악한 무리들과만 어울리던 자였다. 그가 사는 곳은 산세가 첩첩이 둘러싸여 있어 무리를 지어 은거하기에 좋았다. 게다가 때마침 가뭄과 홍수가 빈번하게 일어나 백성들은 가난에 시달리고 재산은 바닥났으며, 민심은 흉흉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전호는 이 기회를 틈타 도망자들을 모으고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내어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했다. 처음에는 약간의 재물을 약탈하는 정도였으나, 나중에는 주와 현을 침략하고 빼앗으니 관병들도 감히 그 기세에 맞서지 못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전호는 그저 사냥꾼 출신일 뿐인데, 어찌하여 이토록 날뛰게 되었는가? 독자 여러분, 잘 들어보라. 당시 문관들은 돈을 탐냈고 무장은 죽는 것을 두려워했기에, 각 주와 현에 관병이 있어 방어하고 있다 한들 모두 노약자뿐이거나 걸치레뿐인 허수아비들이었다. 어떤 이들은 병사 한 명의 녹봉을 두세 명 몫이나 챙겨 먹기도 했고, 혹은 권세 있는 집안의 한가하게 노는 하인이 십여 냥의 자릿세(頂首)를 내고 병사 한 명 자리를 사서 명부에 채워 넣은 뒤, 그저 군량과 녹봉을 타내 쓰기도 했다. 막상 점호하고 훈련할 때가 되면 사람을 사서 대신 세웠다. 위아래가 모두 이렇게 속이니 그 부패함은 뽕을 길이 없었다. 나라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으나 정작 쓸모 있는 곳은 눈곱만큼도 없었다. 그러다 막상 전쟁터에 나갈 때가 되면, 병사들은 싸우는 법도 몰라 앞뒤 가리지 않고 우왕좌왕하다가, 적군이 일으키는 먼지와

포성만 봐도 부모님을 원망하며 겁에 질려 도망치기 바빴다. 당시 몇몇 군관이 병마를 이끌고 전호를 토벌하러 나간 적도 있었으나, 그들이 어찌 앞장설 수 있었겠는가? 그저 뒤를 쫓으며 이리저리 도망 다니고 허장성세를 부리거나, 심지어는 양민을 죽이고 공을 가로채기까지 했다. 백성들은 더욱 원망이 깊어져 관병을 피하고자 도리어 도적의 편에 가담하게 되었으니, 이 때문에 전호가 5주 56현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그 5주란 첫째가 위승으로 지금의 침주요, 둘째가 분양으로 지금의 분주요, 셋째가 소덕으로 지금의 로안이요, 넷째가 진녕으로 지금의 평양이요, 다섯째가 개주로 지금의 태주였다. 56개 현은 모두 이 5주 산하의 현들이다. 전호는 분양에 궁궐을 짓고 문무 관료들을 가짜로 세워 조정과 군대를 갖춘 뒤, 한 지방을 독차지하고 스스로 '진왕'이라 칭했다. 병사들은 정예였고 장수들은 용맹했으며 산천은 험준했다. 이제 그는 군사를 두 갈래로 나누어 침략해 오고 있다.

한편, 송강은 날을 잡아 출정하기로 하고 성 안의 여러 관원과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이때 숙태위가 직접 찾아와 송강을 배웅하였고, 조안무(조樞密)는 어명을 받들어 군영 앞까지 와서 삼군의 노고를 치하하였다. 송강과 노준의는 숙태위와 조 추밀에게 감사의 인사를 올린 뒤, 군사를 세 부대로 나누어 진격하기 시작했다. 이때 오호팔표(다섯 호랑이와 여덟 용맹한 장수)를 선봉으로 삼아 앞장서게 하였다.

오호장 다섯 명은 다음과 같다. '대도' 관승, '표자두' 임충, '벽력화' 진명, '쌍편장' 호연작, 그리고 '쌍창장' 동평이다.

팔표기 여덟 명은 다음과 같다. '소이광' 화영, '금창수' 서녕, '청면수' 양지, '급선봉' 색초, '몰우전' 장청, '미염공' 주동, '구문룡' 사진, 그리고 '몰차란' 목홍이다.

열여섯 명의 표장(彪將)에게 후방을 맡겼다.

열여섯 명의 소표장(小彪將)은 다음과 같다. '진삼산' 황신, '병위치' 손립, '추군마' 선찬, '정목안' 학사문, '백승장' 한도, '천목장' 팽기, '성수장군' 단정규, '신화장' 위정국, '마운금치' 구봉, '화안산예' 등비, '금모호' 연순, '철적선' 마린, '조간호' 진달, '백화사' 양춘, '금표자' 양림, 그리고 '소패왕' 주통이다.

송강, 노준의, 오용, 공손승과 그 외 장수들, 그리고 마보두령(馬步頭領)들이 중군을 거느렸다. 그날 세 차례의 포성 소리와 함께 징과 북, 악기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고, 군대는 진교역을 떠나 동북쪽을 향해 진격했다.

송강의 호령은 엄격하고 분명하며 대열이 질서 정연하여, 군대가 지나가는 곳마다 백성의 터럭 하나 침범하는 일이 없었으니, 이는 말할 필요도 없었다. 군대가 원무현 경계에 이르자 현령이 성 밖까지 나와 영접했는데, 전방의 초병이 보고하기를 본군의 두령들이 이끄는 배들이 이미 강가에서 건너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였다. 송강은 이준에게 명령을 내려 수병 육백 명을 두 갈래 초병으로 나누어 좌우로 배치하게 했다. 또한 인근의 배들을 거두어 말과 수레를 실었다. 송강 일행의 대군이 차례차례 황하 북안을 건너자, 송강은 즉시 이준에게 전선을 거느리고 위주(衛州)의 위하(衛河)로 나아가 일제히 집결하게 했다.

송강의 병마는 전방에서 위주에 진을 쳤다. 마침 위주의 관원들이 잔칫상을 차려놓고 송강 선봉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관원들은 송강을 성 안으로 모셔 대접하며 다음과 같이 하소연했다.

“전호의 도적 떼가 워낙 거대하여 결코 적을 앞보아서는 안 됩니다. 태주는 전호의 수하인 위추밀 뉴문충이 지키고 있는데, 그가 부하인 장상과 왕지를 보내 병사 만 명을 거느리고 우리 관할인 휘현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또한 심안과 진승에게도 병사 만 명을 주어 회주 소속 현인 무섭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부디 선봉께서 속히 출정하여 이들을 구해주십시오!”

송강은 말을 다 듣고 진영으로 돌아와 오용과 상의한 뒤, 군사를 일으켜 구원하러 가기로 했다. 오용이 말했다.

“릉천은 개주의 요충지이니, 차라리 곧장 병사를 이끌고릉천을 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포위된 두 현의 상황도 자연히 풀릴 것입니다.”

그러자 노준의가 나섰다.

“부족한 제가 병사를 이끌고릉천을 치러 가겠습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노준의에게 마군 일만 명과 보병 오백 명을 배정했다. 마군 두령은 화영, 진명, 동평, 색초, 황신, 손립, 양지, 사진, 주동, 목홍이었고, 보군 두령은 이규, 포옥, 함충, 이곤, 노지심, 무송, 유당, 양웅, 석수였다.

다음 날, 노준의가 병사를 이끌고 떠났다. 송강은 막사 안에서 오용과 함께 진군할 좋은 계책을 다시금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도적 때가 오랫동안 교만해져 있으니, 노 선봉께서 이번에 가시면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삼진(三晉) 지역의 산천이 험준하니 반드시 두 명의 두령을 첩자로 보내 먼저 산천의 형세를 정탐해야 진군할 수 있습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막사 앞으로 연청이 나서며 보고했다.

“군사님,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산천의 형세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말을 마친 연청은 두루마리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펼쳤다. 송강과 오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히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삼진 지역의 산천과 성곽, 관문이 그려진 지도였다. 어느 곳에 진을 쳐야 하는지, 어디에 매복해야 하는지, 어디에서 싸워야 하는지가 아주 상세하게 적혀 있었다. 오용이 놀라며 물었다.

“이 지도는 어디서 얻었는가?”

연청이 송강을 향해 대답했다.

“며칠 전 요(遼)나라를 격파하고 회군하여 쌍림진에 이르렀을 때, 성이 허(許) 씨이고 이름은 관충(貫忠)이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가 저를 자기 집으로 초대했다가 헤어질 때 이 지도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그저 불품없는 그림 몇 점일 뿐이라고 하더군요. 제가 진영으로 돌

아와 한가할 때 우연히 펼쳐 보았더니, 그제야 이것이 삼진의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내가 며칠 전 돌아왔을 때는 마침 조정에 입조할 준비를 하느라 바빠서 자세히 묻지 못했구나. 내가 보기에 그 사람도 참으로 호걸 같던데, 네가 평소에도 그의 좋은 점을 내게 자주 말하곤 했지. 그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연청이 대답했다.

“관충은 학식이 넓고 재주가 많을 뿐만 아니라 무예도 뛰어나며 간담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거문고, 바둑, 그림 같은 소소한 재주들도 하나같이 능통한 사람입니다.”

연청은 그가 관직에 나아가기를 원치 않아 깊은 산중에 은거하고 있다는 이야기와 그와 나누었던 대화 내용을 상세히 들려주었다. 오용이 감탄하며 말했다.

“참으로 세상에 뜻이 있는 사람으로구나.”

송강과 오용은 탄복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한편, 노준의는 병마를 이끌고 먼저 황신과 손립에게 삼천 명의 병사를 주어 룡천성 동쪽 5리 밖으로 가서 매복하게 했고, 사진과 양지에게도 삼천 명의 군사를 주어 룡천성 서쪽 5리 밖에서 매복하게 했다.

“오늘 밤 오고(五鼓, 새벽 3시~5시 사이)가 되면, 입에 하무를 물리고 방울을 떼어 소리가 나지 않게 하여 조용히 각자 가라. 내일 우리가 진군할 때, 만약 적이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면 우리 군이 이미 성을 차지했을 것이니, 그저 남문의 깃발 신호를 보고 여러 두령이 군마를 이끌고 천천히 성 안으로 들어오면 된다. 만약 적이 대비를 하고 있다면 대포를 쏘아 신호를 보낼 것이니, 그때는 두 길에서 일제히 튀어나가 지원하라.”

내 장수가 이 계책을 듣고 물러갔다. 노준의는 이튿날 오경(五更, 새벽 3시~5시 사이)에 일어나 밥을 짓게 하고, 날이 밝자마자 군마를 몰아 룡천성 아래로 거침없이 압박해 들어갔다. 군사들은 세 부대로 나뉘어 일자로 진영을 펼치고,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적에게 싸움을 걸었다.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수장인 동징과 편장 심기, 경공에게 달려가 보고했다. 동징은 뉴문충 부하의 선봉장으로, 키가 아홉 자에 달하고 힘이 남달라 서른 근 무게의 파풍도를 휘두르는 자였다. 동징은 송나라 조정이 양산박의 병마를 파견하여 이미 성 아래에 진을 치고 성을 공격하려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막사로 올라가 군마를 정비한 뒤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려 했다.

경공이 간곡히 말렸다.

“송강 무리의 영웅들은 결코 만만히 볼 상대가 아니니,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저 성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사람을 보내 개주로 구원병을 요청한 뒤, 안팎에서 협공해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자 동징이 크게 노하며 외쳤다.

“저놈들이 감히 나를 얹보고 어찌 성을 공격하려 든단 말이냐! 멀리서 왔으니 필시 지쳐 있을 터, 내가 나가서 저놈들이 갑옷 조각 하나 건지지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

경공이 괴로워하며 간언했으나 듣지 않았다. 동징이 덧붙였다.

“정 그렇다면 천 명의 군사를 내게 남겨 성을 지키게 하겠다. 너는 성루에 올라가 내가 저놈들을 죽이는 것을 지켜보거라.”

말을 마친 동징은 서둘러 무장을 하고 칼을 든 채, 심기와 함께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성문이 열리고 조교(弔橋, 성문 앞 해자를 가로지르는 다리)가 내려오자, 이삼천 명의 병마가 조교를 건너 몰려 나왔다. 송나라 군대는 강궁과 쇠뇌를 사용하여 적진의 발을 묶기 위해 화살을 퍼부었다. 그때 북소리가 뒹뒹 울리더니, 릉천의 진영에서 장수 한 명이 나타났다. 그 차림새는 어떠했는가?

그는 금박을 입힌 머리띠로 머리카락을 단단히 고정하고 커다란 철갑을 머리에 썼는데, 투구 위에는 크고 작은 붉은 술이 가득 달려 있었다. 몸에는 고리들이 촘촘히 이어진 연환쇄자 갑옷을 입고, 그 위로 구름과 노을 무늬가 수놓아진 전포를 걸쳤다. 발에는 구름무늬가 새겨진 가죽 장화를 신고 허리에는 붉은 못을 박은 화려한 띠를 맸다. 한 손에는 활을 들고 화살통을 찻으며, 은빛 털이 섞인 말에 올라타 손에는 파풍도를 휘두르고 있었다.

동정은 말 위에서 칼을 가로로 쥐고는 크게 외쳤다. “양산박의 도적 놈들아, 죽으러 왔구나!” 그러자 주동이 말을 몰아 호통을 쳤다. “천군이 이곳에 이르렀으니, 어서 말에서 내려 포박을 당하라! 그래야 도끼와 칼에 베이는 수모를 면할 것이다!” 양측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질렀다. 주동과 동정은 서로를 향해 한복판으로 돌진하여 말과 말이 맞부딪쳤고, 두 장수는 무기를 함께 치켜들고 싸웠다. 그러나 열 합을 넘게 싸워도 승부가 나지 않자, 주동은 말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달아났고 동정이 그 뒤를 쫓았다.

동쪽 부대에 있던 화영이 창을 들고 나와 그를 맞아 싸웠다. 두 사람은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어느 쪽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때 조교 근처에서 동정이 승기를 잡지 못하는 것을 본 심기가 출백 점강창을 치켜들고 말을 달려 앞으로 나아가며 전투를 도왔다. 화영은 두 사람이 협공해 오는 것을 보고 다시 말을 돌려 동쪽으로 달아났다. 동정과 심기가 바짝 뒤쫓아오자, 화영은 다시 말을 돌려 맞서 싸웠다.

성벽 위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경공은 동정과 심기가 쫓아가는 것을 보고 형세가 잘못될까 염려되어, 급히 북을 쳐서 군사를 거두어들여야 했다. 그런데 그때 송나라 군대 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들이 갑자기 튀어나왔다. 이규, 노지심, 포옥, 향충 등 십여 명의 두령이 마치 날아가는 듯한 기세로 조교를 건너 돌진해 왔다. 북방 군사들은 이토록 맹렬한 기세를 당해낼 재간이 없어 도저히 막아서지 못했다.

경공이 급히 성문을 닫으라고 외쳤으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노지심과 이규가 이미 성 안으로 난입하고 말았다. 성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으나, 노지심이 크게 한 번 호통을 치며 선장(禪杖)을

휘두르자 두 명이 맥없이 나가떨어졌다. 이규는 도끼를 휘둘러 대여섯 명을 단숨에 베어 넘겼고, 포육 일행도 한꺼번에 성 안으로 들이닥쳤다. 이들은 성문을 장악하고 적군을 흠어놓았다. 상황이 불리해진 것을 깨달은 경공은 급히 성벽에서 굴러 내려와 북쪽으로 달아나려 했으나, 결국 보병들에게 따라잡혀 생포되고 말았다.

동징과 심기가 화영과 싸우던 중, 도교 근처에서 함성이 터져 나오는 것을 듣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그곳으로 달려갔다. 화영은 굳이 뒤쫓지 않고, 대신 강철 창을 안장 고리에 걸어 두고 활을 당겨 화살을 집어 들었다. 그는 동징의 뒷모습을 겨냥해 화살을 쏘았고, 화살은 바람을 가르며 날아가 동징의 등을 꿰뚫었다. 동징은 두 발이 허공에 뜨더니 털썩 소리를 내며 말 아래로 고꾸라졌다.

이때 노준의 등이 군마를 몰아 몰려와 적들을 휩쓸며 공격해 들어왔다. 심기는 동평의 창에 찔려 죽었고, 릉천의 병사들은 태반이 전사하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다. 여러 장수가 군사를 이끌고 일제히 성 안으로 진입했다. 흑선풍 이규는 마치 불길이 치솟듯 앞뒤 가리지 않고 도끼를 휘두르며 적들을 베어 넘겼다. 이를 본 노준의가 거듭 소리쳤다. “아우야, 백성들은 해치지 말거라!” 그제야 이규는 손을 멈추었다.

노준의는 군사들에게 남문 앞에 양산박의 깃발을 세워 매복해 있던 두 갈래 군사들에게 알리게 하고, 나머지 군사들은 각 성문을 나누어 지키게 했다. 잠시 후, 황신과 손립, 사진, 양지 등이 이끄는 두 갈래 매복군이 일제히 도착했다. 화영은 동징의 머리를 바쳤고, 동평은 심기

의 머리를 바쳤으며, 포육 일행은 경공과 그의 부하 두령 몇 명을 생포해 왔다.

노준의 선봉은 생포된 이들의 포박을 풀어준 뒤, 경공을 손님석으로 안내하고 주인과 손님을 나누어 자리를 마련했다. 경공이 절하며 말했다. “사로잡힌 장수임에도 이토록 극진한 대접을 받으니 송구할 따름입니다.”

노준의가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지 않으신 데에는 분명 깊은 뜻이 있었을 것이니, 어찌 동징 따위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송 선봉께서는 어진 인재를 모시는 데 힘쓰고 계시니, 장군께서 만약 천조(송나라 조정)에 귀순하신다면 송 선봉께서 반드시 장군을 중용하도록 상소할 것입니다.”

경공이 머리를 조아리며 대답했다.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은혜에 보답하고자, 기꺼이 장군의 휘하에서 일개 졸병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노준의는 크게 기뻐하며 나머지 두령들에게도 좋은 말로 달래 안심시켰다. 그러고는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는 한편, 술과 음식을 준비하여 군사들을 격려하고 경공과 장수들을 대접하며 잔치를 베풀었다.

노준의가 경공에게 개주 성안의 병사와 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 경공이 대답했다. “개주에는 뉴 추밀이 중병력을 거느리고 지키고 있습니다. 양성과 심수는 모두 개주의 서쪽에 있고, 오직 고평현만이 이곳에서 육십 리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고평의 성곽은 한왕산 옆에

자리 잡고 있으며, 수장인 장례와 조능의 휘하에는 이만 명의 군마가 있습니다.”

노준의는 그 말을 듣고 잔을 들어 경공에게 권하며 말했다. “장군께서는 이 잔을 다 비우십시오. 오늘 밤 노 아무개가 장군께 공을 세울 기회를 하나 드릴 터이니, 절대로 거절하지 마십시오.”

경공이 말했다. “선봉께서 이토록 두터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경공이 어찌 온 마음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노준의가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께서 기꺼이 가겠다고 하시니, 노 아무개가 형제 몇 명과 장군의 부하 두령들을 골라 이렇게 이렇게 할 것이니, 즉시 일어나 주십시오.”

그리고는 새로 항복한 여섯 일곱 명의 두령을 불러 각각 술과 음식, 은량을 상으로 내리며, 공을 세우면 따로 큰 상을 내리겠다고 약속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노준의는 이규, 포옥 등 보병 두령 일곱 명과 보병 백 명에게 명을 내려, 릉천 군사들의 갑옷과 깃발로 갈아입게 했다. 또한 사진과 양지에게 명하여 오백 명의 기병을 이끌고, 소리를 내지 않도록 입에 재갈을 물리고 방울을 가려 매단 채 경공의 군사 뒤를 멀찍이 따르게 했다. 그리고 화영 등 여러 장수에게는 성을 지키게 하고, 자신은 삼천 명의 병사를 거느리고 뒤를 따라가며 지원하기로 했다.

계획이 다 세워지자 경공 일행은 계획에 따라 성 밖으로 나갔다. 날이 이미 저물어 고평 성의 남문 밖에 이르니 어느덧 황혼 무렵이었다. 별빛 아래로 성 위의 깃발들이 뻗뻗하게 숲을 이룬 것이 보였고, 성 안에서는 야간 경계를 알리는 경고(更鼓) 소리가 엄정하게 울려 퍼졌다.

경공이 성 아래에 도착하여 크게 외쳤다. “나는 룡천의 수장 경공이다! 동정과 심기 두 장수가 내 말을 듣지 않고 적을 얕보아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성을 잃고 말았다! 내가 급히 백여 명의 군사를 이끌고 북문의 새길을 통해 몰래 이곳까지 왔으니, 어서 성문을 열어 나를 들여 보내 주시오!”

성을 지키던 군사들이 횃불을 비추어 확인한 뒤, 급히 장례와 조능에게 보고하러 갔다. 장례와 조능이 직접 성루 위로 올라오자 군사들이 여러 개의 횃불을 들어 앞뒤로 환히 비추었다. 장례가 아래를 향해 경공에게 말했다. “비록 아군이라 해도 확실히 확인해야겠다.”

아래를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룡천의 경공이 백여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었으며, 옷차림과 깃발도 조금의 착오도 없었다. 성 위의 군사들 중에는 두령들을 알아보는 이들이 많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사람은 손여호입니다!” 또 다른 이가 말했다. “저 사람은 이금룡입니다!”

장례가 웃으며 말했다. “그를 들여보내라!”

성문이 열리고 도개교가 내려오자, 서른 마흔 명의 군사들이 도개교 양옆을 지키게 한 뒤에야 비로소 경공을 성안으로 들여보냈다. 그런데 뒤따라오던 군사들이 한꺼번에 밀고 들어오며 외쳤다. “어서 들어가자! 어서! 뒤에서 쫓아온다!”

그들은 경공 장군이 누구인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행동했고, 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호통을 쳤다. “여기가 어디라고 이렇게 함부로 밀고 들어오느냐!”

한창 서로 밀고 실랑이가 벌어지던 그때, 한왕산 입구에서 불길
이 치솟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튀어나왔다. 두 장수가 앞장서서 크게 외
쳤다. “적장은 달아나지 마라!”

경공의 군사들 사이에는 이미 이규, 포옥, 항충, 이곤, 유당, 양웅,
석수 등 일곱 명의 맹호 같은 호걸들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일제히 병
기를 뽑아 들고 함성을 지르며 백여 명의 군사와 함께 성안으로 들이닥
쳤다. 성안 사람들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성문을 닫으려 했으나 끝
내 닫지 못했다. 성문 안팎의 군사들은 이미 수십 명이 그들에게 베어
나갔고, 결국 성문을 빼앗기고 말았다.

장례는 속수무책이 되어 창을 치켜들고 경공을 찾으려 급히 성 아래
로 내려오다가 석수와 맞닥뜨렸다. 두 사람이 서너 합을 겨루는 사이,
장례는 싸울 마음이 없어 창을 끌며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이규가 뒤
쫓아와 도끼를 휘둘러 그를 단칼에 두 동강 내버렸다.

한편, 한왕산 입구에서 달려온 군마 무리가 성벽에 이르자마자 일제
히 들이닥쳤으니, 바로 사진과 양지가 이끄는 부대였다. 그들은 갈라
져 북방 군사들을 쫓아 죽였다. 조능은 난병에게 살해당했다. 고평의
군사들은 태반이 죽임을 당했고, 장례의 늙은이와 아이까지 온 식솔을
모조리 죽였다. 성안의 백성들은 잠결에 놀라 깨어나 하늘이 무너질 듯
통곡했다.

잠시 후 노준의 선봉 부대도 도착했다. 그는 즉시 각 성문을 지키게
하고, 십여 명의 군사들에게 나누어 명령하며 백성들을 해치지 말라고
크게 외치게 했다. 날이 밝자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군사들에

게 상을 내린 뒤, 전령을 보내 송 선봉에게 이 사실을 급히 알리게 했다.

노준의가 어찌하여 두 성을 이토록 쉽게, 이토록 신속하게 함락할 수 있었겠는가? 그것은 전호의 부하들이 그동안 거침없이 활약하며 적수가 없었기에 관군을 압도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송강을 비롯한 양산 박 장수들이 이토록 영웅적인 인물들이라는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다. 노준의는 바로 이 점을 꿰뚫어 보고 허를 찌름으로써 연달아 두 성을 함락시킨 것이니, 과연 오용이 "노 선봉은 이번에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라고 말한 보람이 있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잠시 멈추고, 한편 송강의 군마가 위주 성 밖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자. 송 선봉이 막 막사 안에서 회의를 하던 중, 노 선봉이 전령을 보내 승전보를 전하며 송 선봉에게 다시금 진군할 계책을 논의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오용에게 말했다. “노 선봉이 이틀 만에 연달아 두 성을 함락시켰으니, 적들도 이미 간담이 서늘해졌을 것이오.”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또 다른 두 갈래의 초병들이 보고를 해왔다. “휘현과 무섭 두 곳을 포위하고 있던 적의 병사들이 룡천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포위를 풀고 물러갔습니다!”

송강이 오용에게 말했다. “군사의 신묘한 계산은 고금을 통틀어 보기 드문 것이구려!”

송강은 진영을 걷고 서쪽으로 이동하여 노 선봉과 군사를 합친 뒤, 진군할 계획을 세우고자 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위주는 왼쪽으

로는 맹문, 오른쪽으로는 태행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큰 강에 임하며 서쪽으로는 상당을 누르고 있어 지형이 매우 요충지입니다. 만약 적들이 우리 대군이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고, 소덕에서 군사를 이끌고 남하한다면 우리 군사가 동서로 나뉘어 서로 돌볼 수 없게 될 텐데, 이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씀이 지당하오!”

송강은 즉시 관승, 호연작, 공손승에게 오천의 군마를 주어 위주를 지키게 하였다. 또한 수군 두령인 이준, 두 장씨 형제(장황·장순), 세 완씨 형제, 그리고 두 동씨 형제에게 수군 선박들을 거느리고 위하에 정박하게 하여, 성 안의 군사와 서로 의각지세(犄角之勢)로 호응하도록 배치하였다. 분배가 끝나자 장수들은 명령을 받들어 물러갔다.

송강의 장수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그날로 진영을 걷고 길을 떠났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고평에 도착하자 노준의 등이 성 밖으로 나와 맞이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들이 연달아 두 성을 함락시켰으니 공이 적지 않소. 공적 장부에 하나하나 기록해 두겠소.”

노준의는 새로 항복한 장수 경공을 데리고 송강을 뵈게 했다. 송강이 말했다. “장군께서 사악한 무리를 버리고 바른 길로 돌아와 송 아무개 등과 함께 나라를 위해 힘쓰기로 하였으니, 조정에서도 마땅히 중용할 것이오.”

경공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송강은 인마가 너무 많아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불편했으므로 성 밖에 진영을 쳤다. 그날 즉시 오용, 노준의와 함께 이제 어느 주군을 공격해야 할지 상의했다. 오용이 말했

다. “개주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으며 길도 험난합니다. 지금 이미 속한 현 두 곳을 함락시켰으니 적의 세력이 이미 고립되었습니다. 먼저 개주를 취해 적의 기세를 꺾어놓은 뒤,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어 협공한다면 위승도 충분히 격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선생의 말씀이 내 뜻과 딱 맞소.”

송강은 시진과 이응에게 명령을 내려 룡천을 지키게 하고, 화영 등 여섯 장수를 불러들여 명령을 기다리게 했으며, 사진과 목흥에게는 고평을 지키게 했다. 시진 등 네 사람은 명을 받들어 떠났다. 이때 ‘몰우전’ 장청이 아뢰기를, “소장이 이틀 동안 감기 기운이 있어 고평에서 잠시 머물며 몸을 추스른 뒤, 진영으로 가서 명령을 받들고자 합니다.”라고 했다.

송강은 즉시 ‘신의’ 안도전을 보내 장청과 함께 고평으로 가서 치료하게 했다.

다음 날, 화영 등이 도착했다. 송강은 화영, 진명, 색초, 손립에게 오천의 군마를 주어 선봉으로 삼게 하고, 동평, 양지, 주동, 사진, 목흥, 한도, 팽기에게 만의 군마를 주어 좌익으로 삼게 했다. 또한 황신, 임충, 선찬, 학사문, 구팽, 등비에게 만의 군마를 주어 우익으로 삼게 하고, 서녕, 연순, 마린, 진달, 양춘, 양림, 주통, 이충에게는 후방 부대를 맡겼다. 송강과 노준의 등 나머지 장수들은 대군을 거느리고 중군을 맡았다. 이 다섯 갈래의 웅장한 군대가 개주를 향해 맹렬히 달려가니, 그 기세가 마치 용이 바다를 떠나고 호랑이가 깊은 숲에서 나온 듯했다.

시로 이르되, 사람마다 제후의 공을 세우려 하고 하나하나 도적을 소탕할 공을 생각하네.

결국 송강의 군마가 어떻게 개주를 공격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2회 — 군대의 위엄을 떨친 소이광의 신궁, 개갑군을 상대로 지다성 오룡이 비 밀리에 계책을 세우다

振軍威小李廣神箭 打蓋郡智多星密籌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이 군사와 군마를 거느리고 다섯 부대로 나누어 개주(蓋州)를 치러 진격했다. 개주의 정찰병들이 적의 움직임을 살핀 뒤, 사실대로 보고를 올리며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성 안의 수장인 뉴문충은 본래 녹림 출신으로, 강호에서 약탈한 금은보화를 모두 전호에게 보태어 함께 반란을 꾀하고 송나라의 주군(州郡)을 점령하는 데 힘을 보탰다. 그 공으로 추밀사(고위 무관직)라는 관직까지 받았다. 그는 삼첨양인도(날이 세 갈래로 갈라진 칼)를 능숙하게 다루는 무예가 뛰어난 장수였다. 그의 부하에는 개주를 함께 지키는 네 명의 맹장이 있었으니, 이들은 모두 '사위장(네 명의 위엄 있는 장수)'이라 불렸다. 그 이름은 예위장 방경, 비위장 안사영, 표위장 저형, 웅위장 우옥린이었다.

이 사위장들의 수하에는 각각 네 명씩의 편장(중간 간부)이 있어, 모두 열여섯 명의 편장이 있었다. 그 이름은 양단, 곽신, 소길, 장상, 방순, 심안, 노원, 왕길, 석경, 진승, 막진, 성본, 혁인, 조홍, 석손, 상영이었다.

뉴문충은 정장과 편장들을 거느리고 삼만 명의 복군을 통솔하여 개주를 지켰다. 그러던 중 능천과 고평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한편으로는 관군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승과 진녕 두 곳에 급보를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보고를 받은 뉴문충은 즉시 정장 방경과 편장 양단, 곽신, 소길, 장상에게 군사 오천을 주어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하게 했다. 출전하기 직전 뉴문충이 말했다.

“장군, 부디 조심하시오. 나도 곧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러자 방경이 대답했다.

“추밀사께서 분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두 성(능천과 고평)은 힘이 부족해 대적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모두 그의 계략에 빠진 것입니다. 저 방경은 오늘 그놈들 몇 놈을 죽이지 못한다면 맹세코 성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다.”

장수들은 즉시 갑옷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동문으로 출전하여 달려들었다. 송나라 군대의 전대가 이를 맞이하며 진을 쳤고, 북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복군 진영의 안쪽 문에서 깃발이 휘날리며 방경이 말을 몰고 나왔고, 그 좌우로는 네 명의 편장이 호위하듯 에워싸고 있었다. 방경은 머리에 구름무늬가 새겨진 관을 쓰고 용비늘 모양의 갑옷을

입었으며, 초록색 비단 도포를 걸치고 사자 문양이 새겨진 허리띠를 맸다. 발에는 초록색 장화를 신은 채, 왼쪽에는 활을 차고 오른쪽에는 화살통을 맸다. 황갈색 갈기가 멋진 말을 타고 쇠창을 움켜쥔 그는 크게 외쳤다.

"물웅덩이에 사는 풀떼기 같은 도적놈들아, 어찌 감히 계락을 써서 우리 성을 빼앗으려 하느냐!"

송군 진영에서 손립이 호통을 쳤다.

"반역자 놈들을 돕다니, 오늘 군사가 들이닥쳤으니 죽을 날만 기다려라!"

손립은 말을 몰아 곧장 방경을 향해 돌진했다. 두 장수는 자욱한 먼지와 살기 어린 기운 속에서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방경은 점차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북군 진영에서 이를 지켜보던 장상이 방경이 손립을 당해내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활을 들어 화살을 매긴 뒤 말을 진영 앞으로 몰아 손립을 향해 화살을 쏘았다. 손립은 이미 이를 예견하고 말 머리를 치켜올렸으나, 화살은 정통으로 말의 눈에 박혔고 말은 그 자리에서 뒷발로 일어섰다. 손립은 옆으로 뛰어내리며 창을 휘둘러 보병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상처를 입은 말은 북쪽으로 열댓 걸음을 달아나다 쓰러졌다. 장상은 화살로 손립을 쓰러뜨리지 못하자 칼을 들고 말을 달려 도우려 했으나, 이번에는 진명이 나타나 그를 막아섰다. 손립이 진영으로 돌아가 말을 갈아타려 하자, 방경이 창을 휘둘러 그의 겹을 끈질기게 괴롭히며 빠져나가지 못하게 했다.

이때 '신비장' 화영이 나타나 욕설을 내뱉었다.

"저 도적놈이 감히 암수를 쓰다니, 내 화살 맛을 좀 봐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화영은 활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그는 방경의 거리를 정확히 겨냥해 화살을 날렸고, 화살은 방경의 얼굴 정중앙에 명중했다. 방경은 몸을 뒤집으며 말에서 떨어졌다. 손립이 쫓아가 창으로 방경을 단숨에 처단하고는 급히 본진으로 돌아가 말을 갈아탔다. 장상은 진명과 싸우고 있었는데, 진명의 몽둥이가 장상의 머리 위를 실새 없이 몰아치자 장상은 그저 막아내기에 급급했다. 설상가상으로 방경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장상은 겁에 질려 점점 밀리기 시작했다.

북군 진영에서 곽신이 말을 몰고 창을 휘두르며 장상을 도우러 나왔다. 진명은 두 장수를 상대로 전혀 두려움 없이 세 마리의 말을 '丁'자 모양으로 펼쳐 놓고 진 앞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화영이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집어 들어 시위를 당겼다. 그는 장상의 등 뒤를 노려 활을 만월처럼 팽팽하게 당겼고, 화살은 유성처럼 날아갔다. 화영이 "화살을 받아라!"라고 외치며 쏜 화살은 장상의 등 뒤를 꿰뚫어 가슴 앞으로 튀어나올 정도였다. 장상은 투구가 뒤로 꺾이고 두 발이 허공에 뜬 채 털썩 말에서 떨어졌다. 곽신은 장상이 화살에 맞은 것을 보고 빈틈을 타 본진을 향해 달아나려 했고, 진명이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이때 말을 갈아타고 나온 손립이 화영, 소초와 함께 병사들을 몰아 휘몰아치듯 공격해 오자 북군은 대혼란에 빠졌다. 양단, 곽신, 소길 등이 버티지 못하고 급히 후퇴했다. 그때 북군 후방에서 함성이 드높게 울려 퍼졌으니, 바로 뉴문충이 방경을 잃을까 염려하여 안사영과 우옥린에게 각각 오천 명의 군사를 주어 두 갈래로 나누어 공격해 오게 한

것이였다. 화영 등 네 장수가 급히 병력을 나누어 적을 막으려 했으나, 양단, 광신, 소길이가 병마를 돌려 다시 공격해 오는 바람에 삼면에서 협공을 당하게 되었다. 화영 일행은 필사적으로 저항했으나 결국 포위당하고 말았다.

한편 동쪽에서도 함성이 하늘을 찌르며 북군이 대혼란에 빠졌다. 왼쪽에서는 동평을 비롯한 일곱 장수가, 오른쪽에서는 황신을 비롯한 일곱 장수가 양 날개에서 동시에 돌격해 들어오니 북군은 대패하여 죽는 자가 속출했다. 안사영과 우옥린 등은 급히 병사를 이끌고 성안으로 들어가 성문을 닫아걸었다. 송군이 성 아래까지 추격해 오자, 성 위에서 통나무와 돌을 쏘아 내려 공격했기에 송군은 그제야 물러났다.

잠시 후, 송군의 선봉 부대를 비롯한 대군이 성에서 오 리 떨어진 곳에 도착하여 진을 쳤다. 송강은 막사로 올라가 소양에게 명하여 화영의 첫 공을 기록하게 했다. 그때 갑자기 괴이한 바람이 일더니 흙먼지가 날아오르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몰아치며 깃발들을 사정없이 흔들어 놓았다. 오용이 말했다.

“이 바람을 보니 오늘 밤 반드시 적군이 우리 진영을 습격할 징조입니다. 서둘러 대비해야 합니다.”

송강도 맞장구를 쳤다.

“이 바람은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송강은 즉시 구평, 등비, 연순, 마린에게 삼천 명의 군사를 주어 진영 왼쪽에 매복하게 하고, 왕영, 천달, 양춘, 이충에게 삼천 명의 군사

를 주어 진영 오른쪽에 매복하게 했다. 또한 노지심, 무송, 이규, 포옥, 향충, 이곤에게 오백 명의 군사를 주어 진영 안에 매복시킨 뒤, 대포 소리를 신호로 삼아 일제히 들이닥치게 했다. 배치를 모두 마친 후, 송강과 오용은 촛불을 밝히고 앉아 군사를 논의했다.

한편, 뉴문충은 장수 세 명을 잃고 병력을 헤아려 보니 이천여 명이 나 전사한 상태였다. 막사 안에서 번민하고 있을 때, '비위장' 안사영이 찾아와 계책을 올렸다.

“대감, 안심하십시오! 송강 무리가 연달아 승리를 거두어 기세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분명 아무런 대비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밤 저 안사영이 군사를 이끌고 적의 진영을 습격한다면, 반드시 완전한 승리를 거두어 오늘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뉴문충이 말했다.

“장군이 간다면 나도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뒤따라가 지원하겠습니다. 다만 우옥린과 저형 두 장군에게는 성을 굳게 지키라고 명하겠습니다.”

안사영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대감께서 친히 출전하신다면 반드시 송강을 사로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계책을 세운 뒤 이경(밤 9시~11시) 무렵이 되자, 안사영은 편장 심안, 노원, 왕길, 석경과 함께 오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왔다. 장수들은 부드러운 갑옷을 입고, 말에서는 방울을 떼어내 소리가 나지 않게

했으며, 입에는 재갈을 물린 채 급히 성을 나섰다. 그들은 송군 진영 앞까지 달려가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진영을 향해 돌격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진영의 문은 활짝 열려 있고 진 안은 촛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안사영은 그제야 계략에 빠졌음을 깨닫고 급히 퇴각하려 했다.

그 순간 송군 진영에서 대포 소리가 울려 퍼지더니, 왼쪽에서는 연순 등 네 장수가, 오른쪽에서는 왕영 등 네 장수가 일제히 몰려와 공격해 왔다. 진 안에서는 이규 등 여섯 장수가 방패를 든 보병들을 거느리고 진 밖으로 쏘아져 나왔다. 북군은 대패하여 사방으로 흩어져 목숨을 구걸하며 달아났다. 심안은 무송의 계도(戒刀)에 맞아 죽었고, 왕길은 왕영에게 죽임을 당했다. 송군 병사들이 안사영, 노원, 석경의 군사를 포위하여 몰아넣으니 상황이 매우 위태로워졌다. 다행히 뉴문충이 편장 조흥, 석손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구원하러 나타나 한바탕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고, 그제야 양측 모두 군사를 거두어 물러났다.

다음 날, 뉴문충이 병력을 헤아려 보니 천여 명의 군사가 줄어들어 있었다. 게다가 심안과 왕길 두 장수까지 잃고, 석손은 중상을 입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태였다. 뉴문충이 깊은 시름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위승에서 사신이 영지(令旨)를 가지고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뉴문충은 급히 말을 타고 북문으로 나가 사신을 맞이했다. 사신이 성안으로 들어와 영지를 낭독하니, 내용은 이러했다. 최근 사천감(司天監, 천문을 관측하는 관청)에서 밤에 천문을 관측한 결과, 강성(罡星)이 진(晉) 땅의 분야(分野)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으니, 반드시 성을 굳게 지켜 한 치의 실수도 없게 하라는 것이었다.

뉴문충은 사신에게 송나라에서 송강 등이 군사를 이끌고 와서 연달아 두 성을 함락시켰다고 호소했다. 송군이 이미 이곳까지 이르렀으며, 어제 전투에서 정·편장 다섯 명을 더 잃었으니 구원병이 조속히 도착해야만 무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신이 대답했다.

“제가 위승을 떠날 때만 해도 그런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오는 길 중간쯤 되어서야 송나라에서 이곳으로 군사를 보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뉴문충은 사신을 위해 잔치를 베풀고 선물을 내려 대접하였다. 한편, 그는 구원병을 기다리며 성을 굳게 지키기 위해 통나무와 돌을 쏘아 올릴 장치, 강궁과 쇠뇌, 화살과 화기 등을 준비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한편, 연순과 왕영 등 여러 장수는 진영을 습격하려던 적군을 격퇴하고 승전보를 울리며 진영으로 돌아왔다. 다음 날, 송강은 공성전을 준비하기 위해 각종 공성 병기를 수리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임충, 소초, 선찬, 학사문에게는 만 명의 군사를 주어 동문을 공격하게 했고, 서녕, 진명, 한도, 팽기에게는 만 명의 군사를 주어 남문을 공격하게 했다. 또한 동평, 양지, 단정규, 위정국에게는 만 명의 군사를 주어 서문을 공격하게 했다.

북문은 구원병이 도착하여 성 안의 군대와 충돌하는 바람에 양쪽에 서 적을 맞게 될까 우려되어 비위두었다. 대신 송강은 사진, 주동, 목홍, 마린에게 오천 명의 군사를 주어 성 북동쪽의 높은 언덕 아래에 매복하게 했고, 황신, 손립, 구팽, 등비에게는 오천 명의 군사를 주어 성

북서쪽의 울창한 숲속에 매복하게 했다. 만약 적군이 구원병을 보내오면 양쪽에서 협공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화영, 왕영, 장청, 손신, 이립에게는 기병 천 명을 주어 유격대로 삼아 네 성문을 오가며 적의 동태를 살피게 했고, 이규, 포옥, 함충, 이곤, 유당, 뇌홍에게는 보병 삼백 명을 주어 화영 일행과 서로 호응하도록 했다. 배치가 모두 끝나자 장수들은 명을 받들어 흩어졌다.

송강은 노준의, 오용 등 정·편장들과 함께 성 동쪽에서 일 리 떨어진 곳으로 진영을 옮겼다. 그리고 이운과 탕룡에게 명하여 운제(雲梯, 성벽을 오르는 사다리)와 비루(飛樓, 높은 공격용 망루)를 감독하여 수리하게 한 뒤, 각 진영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실어 나르게 했다.

한편, 임충 등 네 장수는 동쪽 성벽에 운제와 비루를 세워 성벽에 바짝 다가서게 했다. 그리고 날렵한 군사들을 비루 위로 올려 성벽을 기어오르게 하며, 아래에서는 함성을 질러 기운을 북돋았다. 하지만 성 안에서 매뚜기 떼처럼 쏟아져 나오는 화살과 불화살을 어찌 막아낼 수 있겠는가. 군사들은 피하기에 급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비루는 불타버렸고, 불길이 치솟으며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군사 대여섯 명이 떨어져 죽고 십수 명이 부상을 입었다. 남서쪽의 두 곳에서도 공세를 펼쳤으나, 역시 화살과 화포에 맞아 군사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엿새나 이레 동안 연달아 공격을 퍼부었음에도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다.

송강은 성을 공격해도 함락되지 않는 것을 보고, 노준의, 오용과 함께 직접 남문 성벽 아래로 내려가 공성전을 독려했다. 그때 화영 등 다섯 장수가 유격대를 이끌고 서쪽에서 경계를 서다 동쪽으로 달려오는

것이 보였다. 성루 위에서는 우옥린이 편장 양단, 곽신과 함께 군사들을 감독하며 수비에 힘쓰고 있었다. 양단이 화영이 성루 쪽으로 점점 다가오는 것을 보고는 말했다. "엇그제 저놈들에게 장수 두 명을 잃었으니, 오늘은 반드시 복수해주마!" 그러고는 급히 활을 당겨 화살을 먹이더니, 화영의 가슴을 겨냥해 썸 하고 화살을 날렸다. 화영은 활시위를 울리는 소리를 듣자마자 몸을 뒤로 휙 젖혔다. 화살은 그 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갔다. 화영은 손을 뻗어 날아온 화살을 낚아채 입에 물었다. 이어 일어나 창을 고리 모양의 장식에 걸어두고, 왼손으로는 활을 당기며 오른손으로는 그 화살을 집어 시위에 먹였다. 그리고 양단이 가까이 있음을 확인하고는 조준하여 쏘니, 화살이 정확히 양단의 목구멍에 박혔다. 양단은 털썩 소리를 내며 뒤로 넘어졌다. 화영이 크게 외쳤다. "비겁한 놈들이 감히 기습 화살을 쏘다니, 너희를 모조리 죽여버리겠다!" 화영이 다시 화살을 집어 들고 쏘려는데, 성루 위에서 소란스러운 함성이 들리더니 군사 몇 명이 한꺼번에 성루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우옥린과 곽신은 얼굴이 흠뻑이 되어 허둥지둥 몸을 피했다. 화영이 냉소하며 말했다. "오늘이야말로 '신궁 장군'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주었구나!" 송강과 노준의는 화영의 호방함에 크게 호응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들, 저희도 화 장군과 함께 성벽의 형세를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화영 등은 송강, 노준의, 오용을 호위하며 성벽 주위를 한 바퀴 돌았다.

송강, 노준의, 오용은 진영으로 돌아왔다. 오용은 임천(臨川)의 항장 경공을 불러 개주성의 내부 경로를 물었다. 경공이 대답했다. “뉴문충은 옛 주의 관아(舊州治)를 수사부(帥府, 사령부)로 삼아 성 한가운데서 지휘하고 있습니다. 성 북쪽에는 사당이 몇 군데 있고, 빈터는 모두

초장(草場, 군량과 풀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오용은 그 말을 듣고 송강과 함께 계책을 세운 뒤, 시천과 석수를 가까이 불러 은밀히 명령했다. “계획대로 화영의 군영 앞으로 가서 명령을 몰래 전하라. 상황을 봐서 적절히 움직여야 한다.” 이어 릉진, 해진, 해보에게 군사 이백 명을 거느리게 하고, 굉천(轟天)·자모(子母)의 대소 화포를 챙겨 출발하게 했다. 노지심과 무송에게는 금고수(金鼓手, 북과 징을 치며 진격하는 병사) 삼백 명을 거느리게 했고, 유당, 양웅, 옥보사, 단경주는 각각 군사 이백 명씩을 거느리게 하여 횃불을 준비시킨 뒤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계획대로 움직이게 했다. 또한 대종을 동, 서, 남 세 진영으로 보내 비밀리에 신호를 전하게 하니, 성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는 즉시 힘을 합쳐 성을 공격하라는 내용이었다. 분배가 끝나자 모든 두령은 명령을 받들어 흩어졌다.

한편, 뉴문충은 밤낮으로 구원병을 기다렸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어 매우 답답하고 번민스러웠다. 그는 군사들을 더 보충하고 나무와 돌을 날라 성벽을 보강하며 굳게 지켰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무렵, 갑자기 북문 밖에서 하늘을 뒤흔드는 함성이 들리고 북과 징,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뉴문충이 북문으로 달려가 성벽 위에서 멀리 내다보았으나, 함성과 북소리는 이미 멎어 있었고 병마가 어디에 있는지 알 길이 없었다. 의구심이 들 때쯤 성 남쪽에서 다시 함성이 터져 나오며 북과 징 소리가 하늘을 진동시켰다. 뉴문충은 우옥린에게 북문을 굳게 지키게 하고 직접 남쪽 성벽으로 급히 달려갔으나, 가보니 함성은 이미 그쳤고 북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뉴문충이 한참을 망연히 바라보고 있으니, 송군의 남쪽 진영에서 은은하게 들려오는 경고(更鼓) 소리만 들릴 뿐, 사방은 고요하고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성에서

내려와 사령부 앞으로 가 점검하려는데, 갑자기 동문 밖에서 연주포(連珠炮, 연달아 쏘는 화포) 소리가 울리더니 성 서쪽에서는 함성이 터져 나오고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뉴문충은 동쪽과 서쪽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밤이 밝을 때까지 소란을 수습해야 했다. 송군은 다시 성을 공격해 왔고, 밤이 되어서야 물러갔다.

그날 밤, 초경 무렵 다시 북과 나팔 소리, 함성이 들려왔다. 뉴문충이 말했다. “저놈들의 의병(疑兵) 계책이다. 신경 쓰지 마라. 우리는 그저 성을 굳게 지키며 저놈들이 어떻게 나오나 지켜보자꾸나.” 그런데 갑자기 동문 밖이 햇불로 하늘을 뒤덮을 듯 밝아지더니, 셀 수 없이 많은 햇불과 함께 운제와 비루가 성벽 가까이 다가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뉴문충은 보고를 듣자마자 동쪽 성벽으로 달려갔다. 그는 저형, 석경, 진승과 함께 군사들을 독려하며 화살과 화포를 쏘아 대항하게 했다. 그때 엄청난 화포 소리가 산골짜기를 뒤흔들며 성루까지 진동시키니, 성 안의 군사와 백성들이 크게 경악했다. 이처럼 이틀 밤을 소란 속에서 보낸 뒤, 날이 밝자 또다시 성을 공격해 왔다. 군사들은 한시도 눈을 붙이지 못했고, 뉴문충 역시 쉴 새 없이 성 안을 순찰했다. 그러다 문득 북서쪽 하늘을 가릴 정도로 깃발이 가득한 것을 보았는데, 동남쪽에서 달려오는 송군 사이로 십여 기의 정찰 기병이 마치 날아오듯 대진영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뉴문충은 저들이 구원병이라 짐작하고, 우옥린에게 성 밖으로 나가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명했다.

한편, 북서쪽에서 달려오던 그 군마는 진녕의 수장 전호의 형제인 삼대왕 전표의 군대였다. 그는 개주에서 보낸 구원 요청 문서를 받고, 부하 맹장인 봉상 왕원을 보내 군사 이만 명을 거느리고 구원하러 오게

했다. 왕원이 이미 양성을 지나 개주를 향해 진격하던 중, 성까지는 아직 십여 리가 남은 지점에서 갑자기 화포 소리가 한 번 크게 울려 퍼졌다. 그러더니 동서쪽 높은 언덕 아래 밀림 속에서 두 갈래의 군사가 튀어나왔는데, 바로 사진, 주동, 목흥, 마린, 황신, 손립, 구팽, 등비 여덟 명의 맹장이 이끄는 일만 명의 정예병이었다. 이들은 무서운 기세로 몰아치며 공격해 왔다. 진녕의 군사가 비록 이만 명이나 되었으나, 멀리서 오느라 지치고 피곤한 상태였다. 게다가 이곳에 십여 일 동안 매복하여 정예를 길러온 송군이 양쪽에서 협공해 오니 어찌 당해낼 수 있겠는가. 진녕군은 대패하여 수많은 북과 징, 깃발, 창, 갑옷, 말들을 버려두고 갔으며, 군사들 또한 태반이 죽었다. 봉상 왕원은 겨우 목숨만 건져 패잔병과 부하들을 이끌고 진녕으로 도망치듯 돌아갔으니, 그 후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한편, 뉴문충은 양쪽 군대가 서로 맞붙어 싸우는 것을 보고 급히 우옥린에게 병사를 보내 북문을 열고 나가 저들을 맞이하게 했다. 그러나 북문 쪽은 공격하는 병사가 전혀 없었다. 우옥린이 병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조교(弔橋)를 막 지나려는데, 마침 서쪽에서 화영의 정찰기병이 다가오고 있었다. 북군이 "신전장군(神箭將軍)이 오셨다!"라고 크게 외치며 소란을 피우자,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뒤로 물러나더니 앞다투어 성 안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우옥린은 이미 남쪽 성벽에서 겁을 잔뜩 집어먹은 상태라 감히 맞서 싸울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자신도 성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화영 일행이 달려들어 스무 명 남짓을 베었으나, 더 쫓아가 죽이지 않고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성 안에서는 급히 성문을 닫아걸었다.

그때 석수와 시천은 북군의 군복으로 갈아입고 이미 성 안으로 몰래 들어갔다. 시천과 석수는 성문으로 들어서자마자 혼란스러운 틈을 타 작은 골목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다. 골목을 돌아서니 '당경토지신사(當境土地神祠, 지역 수호신을 모시는 사당)'라고 적힌 현판이 걸린 사당이 하나 있었다. 시천과 석수가 사당 안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니, 한 도사가 동쪽 벽 아래에서 불을 피우고 있었다. 도사는 군사 차림의 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장관님, 밖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군사 중 한 명이 대답했다. "방금 우 장군님 명령을 받고 싸우러 나갔다가 그 신전장군(神箭將軍)과 맞닥뜨렸지 뭡니까. 우 장군님도 감히 그와 맞서 싸우지 못하더군요. 그래서 우리도 정신없이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오다가, 혼란을 틈타 이리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은 조각 두 덩이를 꺼내 도사에게 건네며 말했다. "숨겨둔 술이 있다면 두 사발 정도만 내어주게. 날이 추워 몸을 좀 녹여야겠네." 그러자 도사가 웃으며 말했다. "장관님, 요즘 군사 상황이 워낙 긴박해서 신당에 향불조차 끊겼는데, 술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하며 은을 다시 시천에게 돌려주었다. 석수가 도사의 손을 붙잡으며 말했다. "이건 일단 받아두게. 며칠째 성을 지키느라 눈 한 번 붙이지 못하고 고생이 심하네. 오늘 밤은 여기서 눈 좀 붙이고 내일 아침에 가겠네." 도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두 분 장관님, 부디 노여워 마십시오! 뉴 장군님의 군령이 엄해서 곧 순찰을 나올 것입니다. 제가 두 분을 여기 머물게 했다가는 저도 무사하지 못합니다." 시천이 말했다. "그렇게 말하니 알겠네. 그럼 이대로 있게나." 석수도 도사 곁에 붙어 앉아 불을 쬔다. 시천이 주위를 살피며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석수에게 눈짓을 보냈고, 석수는 몰래 품속에서 패도를 꺼냈다. 도사는 불을

피우는 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는데, 석수가 뒤에서 단숨에 칼을 휘둘러 그의 목을 베어버리고는 사당 문을 걸어 잠갔다.

때는 이미 유시(酉時, 오후 5시~7시) 무렵이었다. 시천이 주방 쪽으로 돌아가니 뒷벽에 문이 하나 있었다. 문 밖으로는 작은 안뜰이 있었고, 처마 밑에는 마른 풀 더미가 두 무더기 쌓여 있었다. 시천과 석수는 그것을 가져다 도사의 시신을 덮어버린 뒤, 사당 문을 열고 뒤쪽 안뜰을 통해 지붕 위로 기어 올라갔다. 두 사람은 지붕 마루에 엎드려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수십 개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시천과 석수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지붕에서 내려와 사당 밖을 살폈으나, 오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두 사람이 몇 걸음 더 움직이며 좌우를 살피니, 근처에 민가 몇 채가 있었으나 모두 문을 굳게 닫은 채 적막했고, 간간히 흐느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다. 시천이 다시 남쪽으로 향해 흙담을 돌아서자, 커다란 공터가 나타났는데 그 위에는 수십 더미의 땀감이 쌓여 있었다. 시천은 속으로 생각했다. '여기는 초료장(草料場, 군용 풀·땀감 저장소)인데 어쩌서 지키는 군사가 없단 말인가?' 알고 보니 성 안의 장병들이 성벽 위에서 적을 막아내는 데만 급급하여 이곳까지 살필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지키던 군사들도 송군이 구원병을 격파했다는 소식을 듣고 성 안의 상황이 이미 끝났음을 직감하여, 제 목숨을 부지하려고 미리 숨어버린 것이었다. 시천과 석수는 다시 사당으로 돌아가 불씨를 챙겨온 뒤, 도사의 시신 위에 덮어둔 마른 풀에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초료장 안으로 뛰어들어 두 사람이 나누어 가며 대여섯 군데에 불을 질렀다. 잠시 후, 초료장에서 불길이 치솟으며 하늘을 찌를 듯 타올랐고, 사당 안에서도 불길이 번지기 시작했다. 초료장 서쪽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본 한 주민이 횃불을 들고 상황을 살피러 나왔다. 시천이 달

려들어 그 횃불을 낚아챘다. 석수가 말했다. "우리가 뉴 원수님께 알려 가야 하네." 주민은 두 사람이 군사 차림인 것을 보고 감히 대들 엄두를 내지 못했다. 시천은 횃불을 든 채 석수와 함께 남쪽을 향해 달려가며 원수님께 알린다고 소리쳤다. 그러다 주민의 집 근처에서 불을 붙이기 좋은 곳을 발견하자 다시 두 곳에 불을 지르고는, 횃불을 던져버린 채 옆으로 몸을 피했다. 두 사람은 북군의 군복을 벗어 던지고 인적이 드문 곳에 몸을 숨겼다.

성 안 곳곳에서 대여섯 갈래로 불길이 치솟자, 순식간에 성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뉴문충은 초량장에 불이 난 것을 보고 급히 군사들을 거느리고 불을 끄러 달려갔다. 성 밖의 군사들은 성 안에서 불이 나는 것을 보고는 시천과 석수가 안에서 호응한 것임을 알아차리고는 더욱 기세를 올려 성을 공격했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해진, 해보를 거느리고 성 남쪽으로 달려갔다. 오용이 말했다. "며칠 전에 보니 저쪽 성벽이 조금 낮더군요." 그러고는 진명 등에게 명령하여 비루(飛樓, 성벽을 공격하기 위한 높은 망루)를 성벽 가까이 밀어붙이게 했다. 오용이 해진과 해보에게 말했다. "적들은 겁에 질려 군사들도 이미 흩어졌으니, 아우님들은 힘을 내어 성벽 위로 올라가게!" 해진은 박도를 들고 비루에 올라가 성벽 난간을 붙잡고 단숨에 뛰어올랐고, 뒤이어 해보도 힘차게 올라갔다. 두 사람은 크게 소리치며 성벽 난간을 부수고 내려와 칼을 휘두르며 난폭하게 베어 넘겼다. 성벽 위의 군사들은 본래 지쳐 겁에 질려 있던 데다, 해진과 해보의 기세가 워낙 흥명하니 모두 혼비백산하여 성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저형이 두 사람이 성벽에 오른 것을 보고 창을 들고 맞서 싸우며 수십 합을 겨루었으나, 해보의 박도에 찔려 넘어졌고 뒤이어 달려온 해진이 그의 목을 베어버렸다. 이때 비루를

타고 성벽을 기어오른 송군 병사들이 이미 백 명 남짓 되었다. 해진과
 해보가 앞장서서 성 안으로 들이닥치며 크게 외쳤다. "앞에 있는 놈들
 은 다 고기떡으로 만들어버려라!" 장졸들이 석경과 진승을 죽이고 성
 문을 지키던 군사들을 베어 넘기며 성문을 탈취했다. 이어 조교(弔橋,
 성 밖을 잇는 다리)를 내려놓자, 서녕을 비롯한 여러 장수가 병사를 거
 느리고 성 안으로 밀고 들어갔다. 서녕과 한도는 병사를 이끌고 동문으
 로 돌격하여, 적을 막아내지 못한 안사영을 창으로 찔러 죽이고 문을
 탈취해 임충 등 여러 장수가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진명과 팽기는
 병사를 이끌고 서문을 탈취하여 동평 등이 성 안으로 들어오게 했다.
 모진, 혁인, 조홍은 난전 중에 죽임을 당했다. 싸움이 치열해 시체가
 저잣거리에 가득 쌓이고 피가 길거리에 넘쳐났다. 뉴문충은 성문들이
 모두 함락된 것을 보고는 어쩔 수 없이 말을 타고 성을 버려둔 채, 우옥
 린과 함께 이백여 명의 병사를 이끌고 북문을 통해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채 일 리도 못 가 어둠 속에서 '흑선풍' 이규와 '화화상' 노지심
 이 톱 튀어나왔다. 한 명은 맹장이고 한 명은 거친 승려였는데, 그들이
 길을 딱 가로막았다. 마치 하늘에는 그물망이 쳐져 발을 떼기 어렵고,
 땅에는 촘촘한 그물이 펼쳐져 있어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격이었다. 결국
 뉴문충과 우옥린의 목숨은 어떻게 되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3회 — 이규가 꿈속에서 천지를 소란 케 하고, 송강이 병력을 두 갈래로 나누 다

李達夢鬧天池 宋江兵分兩路

이야기는 이러하다. 뉴문충은 개주를 이미 잃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성 밖으로 도망쳤다. 그는 부하인 우옥린, 곽신, 성본, 상영과 함께 서로를 보호하며 필사적으로 나아갔으나, 마침 앞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이규와 노지심과 정면으로 마주치고 말았다.

이규가 크게 외쳤다. "나는 송 선봉의 명을 받들어, 너희 같은 패잔병 놈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는 양손에 도끼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도끼가 내리쳐질 때마다 곽신과 상영이 맥없이 쓰러졌다. 뉴문충은 혼비백산하여 손쓸 틈도 없었는데, 노지심이 휘두른 선장(禪杖) 일격에 투구와 머리가 한꺼번에 박살 나며 말 아래로 굴러떨어졌다. 이로써 이백여 명의 군사는

거의 몰살당했고, 오직 우옥린과 성분만이 옆으로 비스듬히 죽을힘을 다해 뛰쳐나가 간신히 도망칠 수 있었다.

노지심이 말했다. "저 두 놈은 살려두자! 가서 소식을 전하게 해라."

그러고는 적의 머리 세 개를 베어 취하고, 안장과 말, 갑옷까지 챙겨 곧장 성안으로 들어가 바쳤다.

한편, 송강의 대군이 개주성에 입성하자마자 즉시 장령을 내려, 먼 저 불을 꺼서 화재를 막게 하고 백성들에게는 일절 해를 끼치지 못하게 엄히 명했다. 장수들은 모두 모여 공을 세웠다. 송강은 군사들에게 적의 머리를 각 성문에 보여주며 위세를 떨치게 한 뒤, 날이 밝는 대로 방을 붙여 백성들을 안심시켰다. 또한 삼군(三軍)의 병력을 모두 개주에 머물게 하며, 수고한 장수들에게는 상을 내렸다. 공적부에는 석수, 시천, 해진, 해보의 공로를 기록하였고, 한편으로는 조정에 공을 보고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개주를 얻은 후에는 관청 창고에 있던 재물과 금은보화를 모두 거두어 경사로 보냈으며, 숙태위(宿太尉)에게도 서신을 보내 보고하였다.

이 무렵은 선달이 끝나갈 무렵이었다. 송강이 군무를 돌보다 보니 어느덧 서너 날이 훌쩍 지나갔는데, 갑자기 장청이 병이 나았으며 안도전이 찾아와 뵈기를 청한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송강이 기뻐하며 말했다. "참으로 잘되었구나. 내일이 바로 선화 5년의 원단(정월 초하루)이니, 마침 다 함께 모일 수 있겠구나."

다음 날 새벽, 장수들은 공복을 갖춰 입고 머리에 관을 썼다. 송강은 형제들을 이끌고 황제가 계신 곳을 향해 예를 갖추어 조하(朝賀)를 올

렸다. 다섯 번 절하고 세 번 머리를 조아리는 오배삼고(五拜三叩)의 예를 마친 뒤, 공복을 벗고 붉은 비단으로 만든 전포를 갈아입었다. 그러자 아흔두 명의 두령과 새로 항복한 장수 경공이 모두 정연하게 모여들어 송강에게 새해 인사를 올렸다.

송강은 성대한 연회를 베풀어 축하와 포상을 함께하였다. 형제들은 차례로 송강에게 술잔을 올리며 장수를 빌었다. 술이 몇 차례 돌자 송강이 장수들에게 말했다. "우리 형제들이 힘을 합친 덕분에 국가의 성세 곳을 되찾을 수 있었다. 게다가 마침 원단을 맞아 이렇게 다 함께 모여 즐거워하니 참으로 보기 드문 경사가 아니겠느냐. 다만 공손승, 호연작, 관승, 수군 두령 이준 등 여덟 명과 룡천을 지키는 시진과 이응, 고평을 지키는 사진과 목홍까지, 이 열다섯 명의 형제가 눈앞에 없으니 참으로 마음이 허전하고 아쉽구나."

송강은 즉시 군중의 두목들을 불러 이백여 명의 군역을 거느리게 한 뒤, 각자 따로 포상을 내렸다. 그리고 그날로 즉시 양과 술을 끓여지게 하여 위주, 룡천, 고평 세 곳의 수성 장수들에게 나누어 보내 승전보를 전함과 동시에 보상하도록 명했다. 분부를 다 마치기도 전에, 세 곳의 수성 장수들이 축하 사절을 보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선봉의 명을 받들어 군무를 수행 중이라 직접 와서 축하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이런 소식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치 직접 만난 것과 다름없구나."

송강은 찾아온 사절들에게 포상을 내린 뒤, 형제들과 함께 마음껏 술을 마시며 취기가 오를 때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송강은 동쪽 교외로 나가 봄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마침 그때는 시(時)로 정사각(時正四刻, 오전 2시경)이었는데, 마침 입춘 절기까지 맞물려 있었다. 그날 밤 북동풍이 불어오더니 짙은 구름이 겹겹이 몰려와 하늘을 뒤덮었고, 이내 온종일 눈이 펄펄 쏟아져 내렸다. 이튿날 아침, 두령들이 일어나 보니 눈앞에는 오직 이런 풍경뿐이었다.

 흘날리는 버들강아지, 날날이 흩어지는 거위 깃털.
 하늘에는 백로 떼가 날고, 강 위에는 흰 갈매기 물결친다.
 뜰 안으로 날아와, 바람 따라 멋스럽게 춤을 추고;
 창끝에 비치어, 햇살 아래 연꽃처럼 찬란히 빛난다.
 온 산의 하얀 눈길은, 나무꾼의 길을 잃게 하고;
 온 마을의 은빛 풍경은, 선비의 시를 짓게 한다.
 참으로 풍년이라 말하건만, 이 풍년의 상서로움은 무엇인가?
 변방에 창칼이 많으니, 상서로운 기운이 너무 과하지 않기를.

그때 '지문성' 소양이 두령들에게 말했다. "눈에는 몇 가지 이름이 있소. 한 조각이면 벌떼 같다고 하여 봉아라 하고, 두 조각이면 거위 털 같다고 하여 아모라 하오. 세 조각은 찬삼, 네 조각은 취사, 다섯 조각은 매화, 여섯 조각은 육출이라 부르지. 눈은 본래 음기가 응결되어 생기는 것이라, 음의 수에 맞춰 여섯 조각인 육출이 되는 것이오. 입춘이 지나면 모두 매화처럼 흩어지니 육출은 더 이상 볼 수 없소. 오늘은 비록 입춘이 지났으나 아직 겨울과 봄이 교차하는 시기이니, 눈송이가 다섯 조각이거나 여섯 조각일 것이오."

악화는 이 말을 듣고 처마 밑으로 걸어가 검은 옷소매를 내밀어 떨어지는 눈송이를 받아 살펴보았다. 보니 정말로 눈송이가 여섯 조각으로 피어 있었는데, 그중 어떤 것은 아직 완전히 다 피지 않아 모서리가 남아 있었고, 어떤 것은 다섯 조각이었다. 악화가 연신 소리쳤다. "정말이구나! 정말이야!"

사람들이 모두 몰려와 구경하려는데, 이규가 코에서 뜨거운 김을 훑내뿜는 바람에 그 눈송이가 녹아 없어져 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크게 웃자 송강이 놀라 밖으로 나와 물었다. "형제들이 무엇 때문에 이토록 웃는가?" 사람들이 대답했다. "눈송이를 구경하고 있었는데, '흑선풍' 이규의 콧김에 녹아 버렸습니다."

송강도 웃으며 말했다. "의춘포에 술을 준비해 두었으니, 형제들과 함께 그곳에서 눈을 구경하며 즐기도록 하자."

본래 이 주의 치소 동쪽에 의춘포라는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안에는 우향정이라는 정자가 하나 있었고, 정자 앞에는 측백나무와 소나무, 매화나무가 몇 그루 심겨 있었다. 그날 밤 두령들은 우향정에 모여 웃고 떠들며 술잔을 주고받았는데, 어느덧 해가 저물자 등불을 밝혔다. 술기운이 오른 송강은 한가로이 이야기를 나누다 예전에 난관에 처했을 때를 회상하며, 형제들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했다. "나는 본래 운성(鄆城)의 말단 관리였으나 큰 죄를 지었었지. 하지만 형제들이 수많은 창칼이 빗발치는 죽을 고비 속에서도 여러 차례 목숨을 걸고 나를 구해내 주었네. 강주에서 대종 형제와 함께 저잣거리 형장으로 끌려갈 때는 정말이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었는데, 오늘날 이렇게 나라의 신하가 되어 나라를 위해 힘쓸 수 있게 되었구려. 지난날을 돌이켜보니

참으로 꿈만 같소!" 송강은 여기까지 말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대종과 화영, 그리고 함께 고난을 겪었던 몇몇 형제들도 이 말을 듣고 모두 눈물을 흘렸다.

이규는 이때 술을 몇 잔 더 마신 터라 잔뜩 취해 있었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눈꺼풀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두 팔로 얼굴을 괴고 는 어느덧 잠이 들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들었다. '밖에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구나.' 생각은 이랬으나 몸은 잘 움직이지 않았고, 마치 정자 밖으로 걸어 나간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밖을 내다보니 또 이상했다. '눈은커녕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안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던 건가! 저 쪽으로 한번 가봐야겠다.'

의춘포를 벗어나 순식간에 주성을 빠져나왔을 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다. '아차! 판도를 챙겨 나오지 않았구나!' 허리춤을 더듬어 보니 다행히 그곳에 꽂혀 있었다. 앞뒤 분간도 못 한 채 정신없이 걷다 보니 어느덧 길을 꽤 지나 눈앞에 높은 산 하나가 나타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 산 앞에 이르렀는데, 산 골짜기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더니 꺾인 모양의 두건을 쓰고 연노란색 도포를 입은 채 마중 나와 웃으며 말했다. "장군께서 산책을 즐기시려면 이 산을 넘어가십시오. 그곳에 즐거운 곳이 있습니다." 이규가 물었다. "형씨, 이 산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러자 그 선비가 대답했다. "이 산은 천지령이라 부릅니다. 장군께서 유람을 마치고 돌아오시면 다시 이곳에서 만납시다."

이규는 그 말대로 산을 넘어갔고, 곧 길가에 장원 하나가 있는 것을 보았다. 장원 안에서는 한바탕 소란이 일고 있었는데, 이규가 들이닥쳐 보니 십여 명의 사내들이 몽둥이와 병기를 들고 탁자와 의자를 두들

기며 집안의 살림살이를 박살 내고 있었다. 그중 한 대한이 욕설을 퍼부었다. "이 늙은이, 어서 딸년을 내 마누라로 보내주어야 만사가 조용할 것이야! 만약 조금이라도 거절한다면 너희 모두 죽음을 면치 못할 줄 알아라!"

이규는 밖에서 이 말을 듣자마자 가슴 속에서 불이 나고 입에서는 연기가 치밀어 오르는 듯했다. 그는 크게 호통을 쳤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 어찌 남의 딸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느냐!" 사내들이 소리쳤다. "우리가 그 집 딸을 데려가겠다는데, 네놈이 무슨 상관이야!" 이규는 크게 노하여 판도를 뿔아 휘둘렀다. 그 기세가 어찌나 대단한지 멈출 수가 없었다.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두세 명씩 맥없이 쓰러졌다. 도망치려는 자들이 있기에 이규가 뒤쫓아가 도끼를 대여섯 번 연속으로 내리치니, 사내들은 이리저리 나뒹굴며 시체가 땅에 가득 찼다. 겨우 한 놈만 멀리 도망쳤다.

이규가 안으로 들이닥치니 문 두 짝이 짝 닫혀 있었다. 이규가 발로 차서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인과 할멈 한 명이 울고 있었다. 이규가 들이닥친 것을 보고 그들이 소리쳤다. "큰일 났다! 도둑이 들었다!" 이규가 크게 외쳤다. "나는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온 사람이다! 저 앞의 나쁜 놈들은 내가 다 죽였으니, 어서 따라와서 보아라." 노인은 벌벌 떨며 따라 나와 상황을 확인하더니, 이규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며 말했다. "흉악한 놈들을 없애준 것은 고맙지만, 이 일로 내가 관가에 끌려가 고초를 겪게 생겼소!"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이 노인네가 사람을 볼 줄 모르는구려. 나는 양산박의 '흑선풍' 이규요! 지금은 송강 형님을 모시고 전호를 토벌하러 가는 길이지. 성안에서 술을

마시는 것이 지루하여 잠시 산책을 나온 것뿐이란 말이오. 저런 놈들 몇 명 죽인 것쯤이야, 수천 명을 죽인다 해도 아무 상관 없단 말이오!"

그제야 노인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이셨군요! 장군님, 어서 안으로 들어와 앉으십시오." 이규가 안으로 들어가니 이미 술상과 안주가 차려져 있었다. 노인이 이규를 상석에 앉히고 술을 한 사발 가득 따라 두 손으로 받들어 올리며 말했다. "장군께서 저희 딸을 구해주셨으니, 이 술 한 잔을 다 비워주십시오." 이규가 술을 받아 마시자 노인이 다시 권했다. 대여섯 사발을 연달아 마시고 있는데, 아까 울던 할멈이 어린 처녀 하나를 데리고 나와 공손히 절을 올렸다. 할멈이 말했다. "장군께서는 송 선봉의 휘하에 계시는 귀한 분이신데, 이 비천한 것을 부디 가엽게 여기신다면 제 딸을 장군께 시집보내고 싶사옵니다."

이 말을 들은 이규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다. "이런 지저분하고 천한 계집이라니! 내가 네 딸을 차지하려고 저놈들을 죽인 줄 아느냐? 그 입 좀 닦치고 헛소리하지 마라!" 그러고는 발로 탁자를 걷어차고 문밖으로 뛰쳐나갔다. 그때 건장한 사내 하나가 박도를 들고 성큼성큼 쫓아오며 크게 외쳤다. "이 검은 도둑놈아, 거기 서라! 고작 이 몇 명의 형제를 다 죽이다니, 우리가 그 집 딸을 데려가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사내가 박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다. 이규도 크게 노하여 도끼를 휘둘러 맞았고, 두 사람은 스무 합 넘게 싸웠다. 사내는 이규를 당해내지 못하자 도끼를 막아내고 박도를 든 채 쏜살같이 도망쳤다. 이규가 바짝 뒤쫓아 숲을 지나니, 갑자기 거대한 궁전들이 나타났다.

사내는 전각 앞에 이르자 박도를 내팽개치고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겨 사라져 버렸다.

그때 전각 위에서 호통 소리가 들려왔다. "이규는 무례하게 굴지 마라! 들어와서 조례를 받들라!" 이규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여기는 문덕전이구나! 며칠 전 송 형님을 모시고 이곳에서 조례를 올렸었지. 이곳이 바로 황제께서 계신 곳이구나.' 전각 위에서 다시 명령이 내려왔다. "이규는 어서 앞으러라!" 이규는 도끼를 숨기고 앞으로 나아가 살펴보니, 멀리 황제가 전각에 앉아 있고 수많은 관리가 그 앞에 줄지어 있었다. 이규는 정중하게 세 번 절을 올리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차! 한 번을 덜 했구나!'

천자가 물었다. "조금 전 네가 어찌하여 사람들을 많이 죽였느냐?" 이규가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저놈들이 남의 딸을 강제로 빼앗으려 하기에, 소신이 순간 화를 참지 못해 죽였습니다." 천자가 말했다. "이규가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간악한 무리를 처단하였으니, 그 의로움이 가상하다. 네 죄를 사하며, 너를 전각을 지키는 장군으로 임명하노라." 이규는 속으로 기뻐하며 생각했다. '황제께서 이토록 명석하시다니!' 이규는 연신 열댓 번을 머리를 조아려 절한 뒤, 자리에서 일어나 전각 아래에 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채경, 동관, 양전, 고구가 일렬로 무릎을 꿇고 앞으러 아뢰었다. "지금 송강이 병마를 거느리고 전호를 토벌하러 왔으나, 진격하지 않고 머뭇거리며 종일 술만 마시고 있사오니, 부디 황제께서 그 죄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들은 이규는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분노가 삼천 길 높이로 솟구쳐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

다. 그는 두 도끼를 휘두르며 앞으로 달려들어, 한 번 휘두를 때마다 한 명씩 머리를 찍어 내리며 크게 외쳤다. "황제여, 저 간신들의 말을 듣지 마시오! 우리 송 형님은 벌써 성 세 곳을 함락시켰고, 지금은 개주에 군사를 주둔시키며 곧 출병하려는데, 어찌 이리도 거짓을 일삼는단 말이오!" 문무백관들이 대신 네 명을 죽인 것을 보고 모두 이규를 잡으려 달려들었다. 이규는 두 도끼를 치켜들고 소리쳤다. "감히 나를 잡으려 드느냐! 저 네 놈들처럼 만들어 주마!" 그 기세에 놀려 사람들은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이규가 크게 웃으며 말했다. "종구나, 좋아! 저 네 간신이 오늘에야 제자리를 찾았으니, 내가 가서 송 형님께 알려드려야겠다." 이규는 성큼성큼 궁전을 떠났다. 그러다 다시 산 하나를 마주했는데, 보니 아까 그 선비를 만났던 곳이었다. 그 선비는 여전히 산비탈 앞에서 있다가 다시 마중 나와 웃으며 물었다. "장군, 유람은 즐거우셨습니까?" 이규가 대답했다. "형씨에게 알려줄 기쁜 소식이 있소. 방금 내가 간신 네 놈을 죽였소이다." 선비가 웃으며 말했다. "과연 그렇군요! 나는 본래 분수(汾水)와 심수(沁水) 사이에 살다가 근래에 이곳을 유람하던 중이었습시다. 장군 일행이 충의를 품고 있음을 알기에, 장군께 드릴 긴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송 선봉이 전호를 토벌 중이니, 전호를 사로잡을 수 있는 열 글자 비결이 있습니다. 장군께서는 이를 명심하여 송 선봉께 전해주시시오." 그러고는 이규에게 읊어 주었다. "요이전호족 수해경시축(要夷田虎族 須諸瓊矢鏃, 전호의 일족을 멸하려면 모름지기 경시축을 갖추어야 한다)." 선비는 이 말을 대여섯 번이나 연달아 읊었다. 이규는 그 말이 이치에 맞다고 여겨, 선비가 하는 대로 이 열 글자를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선비가 다시 숲속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숲속에 한 노파가 앉아 있습니다." 이규가 몸을 돌려 확인했을 때는 이미 선비가 사라진 뒤였다. 이규가 말했다. "어찌 저리

도 빨리 사라진단 말인가! 일단 저 숲속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가봐야겠다." 이규가 숲으로 달려 들어가 보니 과연 한 할멈이 앉아 있었다. 이규가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는 바로 철우의 어머니였다. 그녀는 멍하니 눈을 감은 채 청석 위에 앉아 있었다. 이규가 다가가 그녀를 껴안으며 울먹였다. "어머니! 그동안 어디서 고생하며 지내신 겁니까? 철우는 어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힌 줄로만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뵈는군요!" 어머니가 말했다. "아들아, 나는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았단다." 이규가 울며 말했다. "철우는 오늘 조정의 부름을 받아 정말로 관리가 되었습니다. 송 형님의 대군이 복성에 주둔하고 있으니, 철우가 어머니를 모시고 성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창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숲속에서 커다란 소리와 함께 얼룩무늬 호랑이 한 마리가 튀어나왔다. 호랑이는 포효하며 꼬리를 휘두르더니 이규를 향해 곧장 덮쳐왔다. 당황한 이규가 판부를 휘둘러 호랑이를 내리치려 했으나, 힘을 너무 과하게 준 나머지 도끼가 허공을 갈랐고, 호랑이가 덮치는 기세에 밀려 이규는 의춘포 우향정의 술상 위로 나동그라졌다.

송강과 형제들이 지난 일을 떠올리며 깊은 대화에 빠져 있었다. 처음에는 이규가 탁자 위에 엎드려 꾸벅꾸벅 조는 것을 보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으나, 갑자기 쿵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규가 잠결에 두 손으로 탁자를 내리치는 바람에 그릇들이 뒤집히고 국물이 소매에 튀었는데, 입으로는 여전히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어머니, 큰 호랑이가 가버렸어요!" 이규가 눈을 번쩍 뜨고 보니, 촛불은 환하게 빛나고 형제들이 둥글게 둘러앉아 여전히 술을 마시고 있었다. 이규가 말했다. "헛! 꿈이었구나. 참으로 기막힌 꿈이야!"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물었다. "무슨 꿈이기에 그리도 신이 났느냐?" 이규가 먼저 말하기를, 꿈속

에서 어머니를 뵈었는데 돌아가시지 않고 계셨으나, 한창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말을 끊었다고 했다. 사람들은 모두 탄식했다. 이규가 다시 간신들을 죽이고 탁자를 걷어찬 이야기를 하자, 노지심과 무송, 석수가 듣고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기막히구나!" 이규가 웃으며 말했다. "아직 기막힌 일이 더 남았소!" 이어 채경, 동관, 양전, 고구 네 간신을 죽였다는 이야기까지 하자, 사람들은 모두 손뼉을 치며 한목소리로 외쳤다. "기막히다, 기막혀! 이 정도면 꿈꾼 보람이 있구나!" 송강이 말했다. "형제들아, 조용히 하거라. 꿈속 이야기를 하는데 무엇이 그리 대수냐." 이규가 한창 흥에 겨워 주먹을 불끈 쥐고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다.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이오! 평생 이렇게 통쾌한 일은 처음이란 말이오. 그리고 또 기이한 일이 하나 더 있는데, 꿈속에서 어떤 선비가 나에게 '요이전호족 수해경시축(要夷田虎族 須諧瓊矢鏃)'이라고 말했소. 이 열 글자가 전호를 물리칠 비결이니 꼭 기억했다가 송 선봉께 전하라고 했던 말이오." 송강과 오용이 머리를 맞대어 보았으나 도무지 그 뜻을 풀이할 수 없었다. 그때 안도전이 '경시축(瓊矢鏃)'이라는 세 글자를 듣고 막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으나, 장청이 눈짓으로 그를 제지하자 안도전은 미소만 지으며 입을 다물었다. 오용이 말했다. "꿈이 참으로 기이하구나. 눈이 그치면 곧 군사를 움직여야겠다." 그렇게 술자리는 끝나고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그 밤에는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눈이 그치자, 송강은 막사로 올라가 노준의, 오용과 함께 군사를 동쪽과 서쪽 두 갈래로 나누어 진격할 계획을 세웠다.

동쪽 길은 호관을 건너 소덕을 취하고, 노성과 유사를 거쳐 적의 소굴 후방까지 직행한 뒤, 다시 대곡을 지나 임현으로 가서 병력을 합쳐 토벌하는 길이다.

서쪽 길은 진녕을 취하고, 호산을 나와 분양을 거친 뒤, 분휴, 평요, 기현을 지나 위승의 북서쪽까지 직행하여, 임현에서 병력을 합쳐 위승을 취하고 전호를 사로잡는 길이다.

이에 곧바로 두 갈래 길로 나뉠 장수와 부관들을 나누어 배치하였다.

정선봉 송강이 거느린 정·편장좌(正偏將佐, 정장·부장 등의 장수와 부관)는 47명이었다.

군사 오용, 임충, 색초, 서녕, 손립, 장청, 대중, 주동, 번서, 이규, 노지심, 무송, 포옥, 향충, 이곤, 단정규, 위정국, 마린, 연순, 해진, 해보, 송청, 왕영, 호삼낭, 손신, 고대수, 능진, 탕륵, 이운, 유당, 연청, 맹강, 왕정륙, 채복, 채경, 주귀, 배선, 소양, 장경, 악화, 금대건, 안도전, 육보사, 황보단, 후건, 단경주, 시천, 그리고 하북에서 항복해 온 장수 경공이다.

부선봉 노준의는 정장과 부장 40명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군사 주무, 진명, 양지, 황신, 구팽, 등비, 뇌횡, 여방, 광성, 선찬, 학사문, 한도, 팽기, 목춘, 초정, 정천수, 양웅, 석수, 추연, 추윤, 장청, 손이낭, 이립, 진달, 양춘, 이충, 공명, 공량, 양림, 주통, 석용, 두천, 송만, 정득손, 공왕, 도종왕, 조정, 설영, 주부, 백승을 배치하였다.

송강이 군사 배치를 모두 마친 뒤, 다시 노준의와 상의하며 말했다. “이제 여기서 군사를 나누어 동쪽과 서쪽을 각각 토벌하려 하는데, 아 우께서는 어느 쪽으로 군사를 이끄시겠소?” 노준의가 대답했다. “군사를 거느리고 장수를 보내는 일은 형님의 엄격한 명령을 따를 뿐인데, 어찌 제가 감히 직접 고르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늘의 뜻을 한번 살펴봅시다. 두 부대의 인원을 정한 뒤에 제비뽑기를 하여 각자 하나씩 뽑는 겁니다.” 곧바로 배선이 동쪽과 서쪽의 인원이 적힌 제비 두 개를 만들었다. 송강과 노준의가 향을 피워 기도를 올린 뒤, 송강이 제비 하나를 뽑았다. 송강이 이 제비를 뽑음으로써 삼군 대열에 다시 몇 명의 영웅과 맹장이 더해지게 되었고, 오룡산 앞에 서는 기이한 술법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다. 결국 송 선봉이 뽑은 제비는 어느 쪽이었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4회 — 관승이 의리로 세 장수를 항복시키고, 이규가 무모하게 행동하여 모두를 함정에 빠뜨리다

關勝義降三將 李達莽陷眾人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은 개주에서 두 부대의 병력 배분을 결정하기 위해 인원수를 적은 제비뽑기용 종이를 만들었다. 그러고는 노준의와 함께 향을 피우며 하늘에 기도를 올렸다. 송강이 제비 하나를 집어들어 확인하니 동쪽 길로 가는 부대였고, 노준의는 서쪽 길로 가는 부대가 되었다. 더 말할 것도 없었으니, 이제 눈이 다 녹아 길이 깨끗해지면 출발하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송강은 화영, 동평, 시은, 두흥을 남겨 두고 병사 2만 명을 떼어 주어 개주를 지키게 했다.

길일인 초엿새가 되자, 송강과 노준의는 출병을 준비했다. 이때 갑자기 보고가 들어왔다. 개주에 속한 양성과 심수 두 곳의 군민이 그동안 전호에게 잔인하게 학대를 당해 어쩔 수 없이 항복했는데, 이제 천병(조정의 관군)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양성의 수장 구부와 심수의 수

장 진개를 사로잡아 군진으로 압송해 왔다는 것이었다. 두 고을의 어르신들은 백성들을 이끌고 양과 술을 메고 와서 성을 바치며 항복했다. 송강은 크게 기뻐하며 두 곳의 군민에게 큰 상을 내리고, 방을 붙여 위로하며 다시 양민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다. 송강은 구부와 진개가 천병이 이곳에 온 것을 알고도 즉시 항복하러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목을 베어 깃발에 제사 지냄으로써 적들에게 경고를 보냈다.

이날 두 길의 대군은 모두 북문으로 나섰고, 화영 등이 술을 차려 배웅했다. 송강이 잔을 들어 화영에게 말했다. "현재는 위엄이 적군을 떨게 하니, 이 성을 지키는 보루가 되기에 충분하네. 지금 이 성은 북쪽 면으로만 적을 마주하고 있으니, 만약 적병이 나타나면 기습을 가해 적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게나. 그리하면 적들이 감히 남쪽을 엿보지 못할 것이네." 화영 등이 명을 받들었다. 송강은 다시 잔을 들어 노준의에게 말했다. "오늘 출병하며 양성과 심수가 포로를 바쳐 온 경사를 맞이했네. 두 곳이 이미 평정되었으니, 아우는 곧장 진령으로 진격하여 일찌감치 큰 공을 세우고, 적의 우두머리 전호를 생포하여 조정에 보답함으로써 함께 부귀를 누리세." 노준의가 대답했다. "형님의 위엄 덕분에 두 곳이 싸우지도 않고 굴복했습니다. 엄명을 받았으니 어찌 온 힘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송강은 지난날 소양에게 허관충의 그림을 본떠 그리게 했던 것을 따로 한 폭의 두루마리로 베껴 써서 노준의에게 주며 비상시를 위해 간직해 두라고 일렀다. 이어 정선봉 송강이 명령을 내려 병력을 세 부대로 나누었다. 임충, 삭초, 서녕, 장청이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전대를 맡았고, 손립, 주동, 연순, 마린, 단정규, 위정국, 탕륵, 이운이 병사 1만

명을 거느리고 후대를 맡았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나머지 장수들을 거느리고 병사 3만 명을 이끄는 중군이 되었다. 세 부대의 총병력 5만 명은 동북쪽을 향해 진격했다. 부선봉 노준의는 송강과 화영 등에게 작별을 고하고, 장수 40명과 병사 5만 명을 거느린 채 서북쪽을 향해 정벌을 떠났다.

화영, 동평, 시은, 두흥은 송강과 노준의를 배웅한 뒤 성 안으로 들어갔다. 화영은 명령을 내려 성 북쪽 5리 밖에 두 개의 진영을 구축하게 했다. 시은과 두흥은 각각 병사 5천 명씩을 거느리고 강력한 활과 쇠뇌, 그리고 각종 화기를 갖추어 진을 치고 적의 선봉을 맞이하도록 했다. 또한 동쪽과 서쪽 양방향에도 기습을 위한 별동대를 매복시켰으나,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알리지 않았다. 한편 고평에는 사진과 목홍이, 능천에는 이응과 시진이, 위주에는 공손승과 관승, 호연작이 각각 성을 지키며 수비에 나섰다. 독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잘 기억해 두시라.

한편, 송강의 세 부대 군마는 개주를 떠나 30여 리를 나아갔다. 송강이 말 위에 앉아 멀리 앞을 바라보니 산등성이가 하나 보였다.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자 산기슭이 말머리 오른쪽 방향에 나타났다. 송강이 그 산의 형세를 살펴보니, 이전에 보았던 산들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그 모양은 이러했다.

겹겹이 쌓인 구름 안개는 층층이 뻗뻗하고,
몇몇 봉우리 이어선 곳엔 기러기 떼 줄 지어 날아드네.

고개 끝 깎아지른 바위는 성곽처럼 솟아 있고,
하늘 찌를 듯한 나무들은 푸른 빛을 두르고 있구나.

송강이 산의 경치를 구경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규가 앞으로 나서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형님, 이 산의 풍경이 옛그제 꿈속에서 보던 것과 똑같습니다!” 송강이 즉시 항장인 경공을 불러 물었다. “그대는 이곳에 오래 머물렀으니 분명 이 산의 내력을 알 것이요. 허관충의 지도에 따르면 방산이 주성 동쪽에 있으니, 이곳을 천지령이라 부를 것이요.” 이규가 말했다. “꿈속의 그 선비가 바로 천지령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그만 잊고 있었습니다.” 경공이 대답했다. “이 산은 과연 천지령이 맞습니다. 산꼭대기의 바위 절벽이 마치 성곽처럼 생겨서 옛날 사람들이 병란을 피해 숨어들던 곳이지요. 요즘 마을 사람들 말로는 이 고개에 신령스러운 기운이 있어, 밤마다 바위 절벽 사이에서 붉은 빛이 번득이기도 하고, 나무꾼이 언덕가에 가면 코를 찌르는 기이한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는 말했다. “그렇다면 이규의 꿈과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그날 군사들은 60리를 행군하여 진을 쳤고, 가는 길에 별다른 일은 없었다. 이튿날, 군대는 호관에 도착하여 관문에서 5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한편, 호관은 원래 산의 동쪽 기슭에 있었다. 산의 모양이 마치 호리병을 닮아 한나라 때부터 이곳에 관문을 설치하였고, 그 때문에 호관이라 불리게 되었다. 호관 산 동쪽에는 포독산이 있는데, 호관의 산기슭과 서로 이어져 있다. 호관은 두 산 사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소덕성 남쪽으로 80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여 소덕성의 험난한 요충지를 이루

고 있다. 이곳에는 전호 휘하의 용맹한 장수 여덟 명과 정예병 3만 명이 지키고 있었다. 그 여덟 명의 장수는 누구인가.

산사기, 육휘, 사정, 오성

중량, 운종무, 오숙, 축경

한편, 산사기는 원래 심주의 부유한 집안 자제로, 타고난 힘이 남달라 창과 봉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났다. 사람을 죽인 뒤 죄를 받을까 두려워한 그는 전호의 휘하로 들어갔는데, 적을 막아내는 데 공을 세워 병마도감(兵馬都監, 군사 지휘관 직책)이라는 직책을 가짜로 받았다. 그는 마흔 근이나 나가는 무거운 철몽둥이를 능숙하게 휘둘렀으며 무예 또한 매우 정교했다. 전호는 조정에서 송강 등이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특별히 산사기를 소덕으로 보내 정예병 만 명을 선발하게 한 뒤 육휘 등과 함께 호관을 지키게 했다. 또한 그곳의 모든 군사 배치와 명령은 임의로(편의대로) 처리하도록 하여, 일일이 조정에 보고할 필요가 없게 했다.

산사기가 호관에 도착해 보니 이미 개주가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송강의 군사가 반드시 호관을 빼앗으러 올 것이라 짐작하고, 매일같이 병사들을 독려하고 군마를 먹이며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그러던 중, 송강의 군사가 이미 관문 남쪽 5리 밖에서 진을 쳤다는 급보가 날아들었다. 산사기는 즉시 기병 만 명을 정비하고 사정, 축경, 중량과 함께 무장을 갖추어 말을 타고 나가 송강의 군사와 대치했다. 양측의 군대가 진을 치고 늘어선 가운데, 강궁과 쇠뇌로 적진의 발치를 쏘아 막았다. 두 진영 사이로는 화려한 악기 소리가 울려 퍼지고 형형

색색의 수놓은 깃발이 거세게 휘날렸다. 북쪽 진영의 문기(門旗)가 열리자 한 장수가 말을 타고 선두에 우뚝 섰다. 그가 어떻게 차려입었는지 보라.

봉황 날개 달린 투구는 머리에 얹고, 물고기 비늘 갑옷은 겹겹이 둘렀네.

비단 붉은 도포 위에는 꽃가지가 수놓아져 있고, 사자 모양 허리띠에는 옥이 촘촘히 박혔구나.

순강철 봉은 꽃꽂이 들려 있고, 푸른 갈기 말은 연신 울부짖네.

호관에 새로 부임한 대장군, 산도감 사기 바로 그 사람이로다.

산사기가 크게 외쳤다. "물웅덩이에 사는 초라한 도적놈들아, 감히 우리 변방을 침범하려 드느냐!" 저쪽에서 표자두 임충이 말을 몰아 진영 밖으로 뛰어나오며 꾸짖었다. "악한 놈을 돕는 필부야, 천군이 들이닥쳤거늘 아직도 감히 저항하느냐!" 임충은 창을 휘두르며 말을 몰아 곧장 산사기를 향해 돌격했다. 두 장수가 싸움의 한복판에 이르자 양쪽 군사들이 함성을 질렀고, 두 기마병이 맞붙었다. 네 개의 팔이 종횡무진 움직이고 여덟 개의 말발굽이 어지럽게 튀어 올랐다. 신 합 넘게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자, 임충은 속으로 내심 감탄했다. 축경이 산사기가 이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말을 달려 비도를 던지며 전투를 도우려 하자, 저쪽에서 몰우전 장청이 말을 달려 이를 맞아바쳤다. 네 기마병이 진영 앞에서 두 쌍으로 나뉘어 난전을 벌였다. 장청이 축경과 스무 합 넘게 싸우다 힘이 부치자, 즉시 말을 몰아 달아나기 시작했다. 축경이 급히 뒤쫓아오자 장청은 화창을 거두고 몸을 틀어 비단 주머니 속에서 돌멩이 하나를 꺼냈다. 그러고는 축경의 얼굴을 겨냥해 돌을 던

지며 외쳤다. "받아라!" 둘은 정확히 축경의 코를 강타했고, 축경은 몸을 뒤로 넘기며 말에서 떨어져 선혈이 낭자하게 흘렀다. 장청이 다시 말을 돌려 창을 찌르려 하자, 북쪽 진영에서 사정과 중량이 함께 나서서 죽기로 싸워 간신히 축경을 구해 탈출시켰다. 성 위에서 장수 한 명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산사기가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들였다. 송강 또한 징을 울려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오게 한 뒤, 오용과 상의하며 말했다. "오늘 적장 한 명을 쓰러뜨려 기세를 조금 꺾기는 했으나, 산세가 험준하고 성곽이 견고해 보이는구나. 이 관문을 깨뜨릴 좋은 계책이 무엇이겠느냐?" 임충이 말했다. "내일 다시 관문을 공격하며 전투를 청해 반드시 저 적장을 죽이고, 형제들이 힘을 합쳐 돌격해 올라가야 합니다." 그러자 오용이 말했다. "장군,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손무가 이르기를, '이기지 못할 때는 지키는 것이요, 이길 수 있을 때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적을 이길 수 없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지켜야 하고, 적을 이길 수 있을 때 비로소 공격해야 하는 법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의 말이 참으로 옳소."

다음 날, 임충과 장청이 송강을 찾아가 병사를 거느리고 전투를 청하겠다고 보고했다. 송강이 당부했다. "설령 싸움에서 이긴다 해도, 함부로 성으로 돌격해서는 안 되오." 그러고는 서녕과 소초에게 병사를 거느리고 뒤를 받치라고 명했다. 곧 임충과 장청이 오천의 군마를 이끌고 관문 아래에서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적을 욕하고 전투를 청했다. 진시(辰時, 오전 7~9시)부터 오시(午時, 오전 11~오후 1시)까지 성 안에서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다. 임충과 장청이 이제 진영으로 돌아가려는데, 갑자기 성 안에서 포성 한 발이 울리더니 성문이 열리며 산사기가 오숙, 사정, 오성, 중량과 함께 이만 명의 병사를 이끌고 무

서 기세로 돌격해 내려왔다. 임충이 장청에게 말했다. "적들이 우리의 피로를 틈타 공격해 오니, 힘을 다해 앞으로 나아가자!" 후대의 소초와 서녕도 병사를 이끌고 일제히 앞으로 나섰다. 양측 군대가 진을 치고는 말 한마디 섞지 않은 채 곧장 맞붙어 싸웠다. 임충은 오숙과 싸웠고, 산사기가 출전하자 장청이 배꽃 모양의 창을 휘두르며 맞받아쳤다. 오성과 사정이 동시에 나서자 소초가 도끼를 휘두르며 말을 달려 두 장수를 힘껏 상대했다. 양측 군사들이 연신 함성을 내질렀고, 일곱 기의 말들이 자욱한 먼지와 살기 어린 기운 속에서 마치 등불을 마주하듯 서로 짝을 지어 난전을 벌였다. 한창 격렬하게 싸우던 중, 표자두 임충이 크게 한 번 호통을 치더니 단 한 번의 창질로 오숙을 말 아래로 찰러 떨어뜨렸다. 오성과 사정이 소초와 싸우다 힘이 부치던 차에, 오숙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본 사정이 급히 허점을 보이며 말을 몰아 본진으로 도망치려 했다. 오성은 사정이 패퇴하는 것을 보고 도끼를 휘둘러 막으며 달아나려 했으나, 소초가 휘두른 도끼에 맞아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산사기는 두 장수를 잃자 즉시 말을 돌려 진영으로 후퇴했다. 장청이 뒤쫓아가 돌멩이 하나를 던졌는데, 그것이 산사기의 투구 뒷부분을 강타하며 쟁그랑 소리를 냈다. 깜짝 놀란 산사기는 말 안장에 몸을 엮드린 채 급히 달아났다. 중량이 급히 병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가려 했으나, 임충 등이 몰아붙이는 공격에 밀려 북쪽 군대는 대패했다. 산사기는 병사들을 이끌고 혼란스럽게 성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 서둘러 문을 닫았다. 임충 일행이 성문 바로 아래까지 몰아붙였으나, 성 위에서 쏟아지는 화살과 돌에 막혀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임충은 왼쪽 팔에 화살을 맞는 바람에 결국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왔다. 송강은 안도전에게 명하여 임충의 화살 상처를 치료하게 했는데, 다행히 갑옷이 두꺼워 중상을 입지는 않았다.

한편, 산사기가 성 안으로 들어가 군사를 점검해 보니 이천여 명의 병사를 잃고 장수 두 명까지 죽은 상태였다. 그는 장수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하며, 한편으로는 위승에 있는 전호에게 사람을 보내 "송강 일행의 병력과 장수들이 워낙 강성하여 대적하기 어려우니, 어서 유능한 장수를 보내 수비하게 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십시오"라고 보고하게 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포독산의 수장인 당빈, 문중용, 최야와 비밀리에 약조하여, 그들이 정예병을 이끌고 몰래 포독산 동쪽으로 나와 송강의 군사들 뒤를 기습하기로 했다. 약조한 날짜가 되면 포성을 신호로 삼기로 했는데, "내가 여기서 병사를 이끌고 관문을 돌파해 내려갈 테니, 양쪽에서 협공하면 반드시 대승을 거둘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뒤, 그들은 관문을 굳게 지키며 당빈 측에서 보내올 소식만을 기다렸다.

한편, 송강은 호관의 지형이 험준하여 좀처럼 함락되지 않자, 보름 넘게 대치하며 속을 태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위주를 지키는 관(關)장군(관승)이 사람을 보내 기밀한 내용이 담긴 서신을 가져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서둘러 봉투를 뜯어 내용을 확인했다. 서신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었다.

"포독산의 수장 당빈은 원래 포동의 군관이었다. 그는 용맹하고 강직한 성품이라 평소 나(관 장군)와 의형제를 맺고 지냈다. 세도가의 모함으로 당빈이 분노하여 원수를 죽이자, 관아의 추격이 매우 급박해졌다. 그때 그가 포동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양산박에 투항하려다 이 산을 지나던 중 약탈을 당했다. 당시 당빈이 이곳의 두목인 문중용, 최야와 싸웠는데, 두 사람 모두 그를 이기지 못하자 그를 산에 모셔 수장으로

삼았다. 작년에 전호가 호관을 침탈하며 항복을 권했을 때, 당빈은 본래 굴복하고 싶지 않았으나 세력이 외로운 것을 보고 마지못해 항복했다. 그러나 그는 그저 이곳 산에 머물며 호관의 측면을 지키고, 남쪽에서 오는 병사들에 대비할 뿐이었다. 그러다 최근 내가 위주를 지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새해 첫날 당빈이 홀로 말을 타고 위주로 잠입해와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그는 오랫동안 형님의 충의를 사모해 왔으며, 본래 조정에 귀순하여 형님의 휘하로 들어가 공을 세워 죄를 씻고자 했다. 내가 홀로 말을 타고 당빈과 함께 포독산에 가보니, 문중용과 최야 두 사람 모두 시원시원하고 떳떳하여 조금도 비겁한 기색이 없었다. 두 사람 역시 귀순하기를 원하여, 기회를 엿보아 비밀리에 호관을 바치기로 약조했으니, 이를 출세의 발판으로 삼으려는 것이다."

송강은 서신의 내용을 상세히 파악한 뒤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했다. 그는 일단 병사들을 움직이지 말고 대기시키며, 호관 내부의 움직임을 살핀 뒤에 맞춰서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산사기는 사람을 보내 당빈과 비밀리에 약속하여 몰래 출병하기로 했다. 부하가 돌아와 보고했다. "지금은 달이 밝아 낮과 같으니, 달이 기울 때를 기다려 병사를 움직여야 적이 알아채지 못할 것입니다." 산사기가 말했다. "그 말이 옳다."

그렇게 열흘 남짓 지났는데도 송강의 군대는 공격해 오지 않았다. 그러다 갑자기 당빈이 기병 몇을 거느리고 포독산 측면을 통해 성 안으로 달려 들어왔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잠시 후 당빈이 성에 도착하여 산사기를 알현했다. 당빈이 말했다. "오늘 밤 삼경에 문중용과 최야가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포독산 동쪽으로 몰래 빠져나갈 것입니다. 갑옷

은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고 말의 방울도 떼어내어, 새벽녘이면 반드시 송나라 군대의 진영 뒤편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니 이곳에서 서둘러 준비했다가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해 주십시오." 산사기가 기뻐하며 말했다. "양쪽에서 협공하면 송나라 군대는 반드시 패할 것이다!" 산사기는 술을 베풀어 당빈을 대접했다.

날이 저물 무렵, 당빈이 성벽에 올라 살피더니 말했다. "이상하군요. 별빛 아래를 보니 성 밖에서 초병이 정찰하는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수행하던 군사에게 화살통에서 화살 두 대를 가져오게 하여 성 밖을 향해 쏘았다. 마침 이 성이 함락될 운명이었는데, 실제로 성 밖에는 송나라 선봉장의 명령을 받은 군졸 몇 명이 어둠을 틈타 성 안의 동태를 살피러 잠입해 있었다. 당빈이 쏜 화살 중 하나가 군졸의 오른쪽 허벅지를 맞혔는데, 살점이 아프기는 했으나 화살촉이 없는 듯했다. 군사가 이상하게 여겨 화살을 가져와 자세히 살펴보니, 원래 화살촉에 비단 천이 겹겹이 감겨 있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안 군졸은 급히 진영으로 달려가 송나라 선봉장에게 보고했다.

송강이 등불 아래에서 서신을 뜯어보니, 파리 머리처럼 작은 글씨로 몇 줄이 적혀 있었다. 바로 당빈의 밀약이었다. "다음 날 새벽에 성을 바칠 것입니다. 문중용과 최야가 군사를 거느리고 선봉장 진영 뒤편으로 몰래 접근할 것이니, 포성만 울리면 성 안에서 들이닥쳐 맞이해 주십시오. 그때 제가 그곳에 있을 것이니 기회를 틈타 성을 탈취하겠습니다. 송 선봉장께서는 서둘러 성에 들어갈 준비를 해주십시오." 송강은 서신을 다 읽고 오용과 함께 비밀리에 대책을 논의했다.

오용이 말했다. "관 장군이 계획한 대로 틀림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군이 우리 뒤로 나타날 것에 대비해 만약을 기해야 합니다. 우선 손립, 주동, 단정규, 위정국, 연순에게 명하여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깃발을 내리고 북소리를 멈춘 채 몰래 진영 뒤편으로 가게 하십시오. 만약 문중용과 최야의 군사가 도착하더라도 그들이 급히 우리 진영을 압박하게 두지 말고, 우리 군사가 이미 성을 점령할 때까지 기다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 '굉천자모호(轟天子母號)' 포성이 울리면 그때 비로소 가까이 다가오게 하십시오. 또한 서녕과 소초에게 군사 오천을 주어 성 동쪽에 몰래 매복하게 하고, 임충과 장청에게 군사 오천을 주어 성 서쪽에 매복하게 하십시오. 진영 안에서 포성이 울리면 양쪽에서 동시에 나와 맞이하며, 모든 병력을 합쳐 성 위로 돌격해 올라가야 합니다. 만약 우리 군사가 적의 간계에 빠지더라도 즉시 구원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군사님의 계책이 참으로 훌륭하오!" 즉시 그 계책에 따라 명령을 내리니, 장수들이 이를 받들어 준비에 들어갔다.

한편, 산사기는 성 안에서 당빈의 소식을 들은 뒤로 오로지 송나라 군대 진영 뒤편에서 울릴 포성만을 기다렸다. 날이 밝아올 무렵, 갑자기 호관 남쪽에서 연달아 포성이 울려 퍼졌다. 당빈과 산사기가 성벽에 올라 살피니, 송나라 군대 진영 뒤편에서 먼지가 일며 깃발이 어지럽게 휘날리고 있었다. 당빈이 말했다. "이것은 필시 문중용과 최야의 군사가 도착한 것입니다. 어서 성 밖으로 나가 맞이해야 합니다!"

산사기는 사정(史定)과 함께 정예병 만 명을 거느리고 먼저 성 밖으로 나가 돌격했으며, 당빈과 육휘에게도 만 명의 군사를 주어 뒤따라

지원하게 했다. 그리고 축경과 중량에게는 성벽 위를 지키게 했다. 이때 성벽 위에서 병사들이 들이닥치는 것을 본 송나라 군사들은 뒤를 보며 급히 퇴각했다. 산사기가 앞장서서 군사를 몰아 죽일 듯이 달려들 때, 갑자기 포성이 한 번 더 크게 울리더니 송나라 군사들의 좌우에서 두 부대의 기병이 튀어나와 앞을 향해 무섭게 돌진해 왔다. 당빈은 송나라 군사 두 부대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급히 말머리를 돌려 병사들을 이끌고 성벽을 향해 달려가 성문 밖에서 창을 겨누고 말을 세웠다.

산사기와 사정이 각기 나누어 싸우고 있을 때, 송나라 진영에서 또 한 번 포성이 울리더니 이규, 포옥, 함충, 이곤이 표창과 방패를 든 군사들을 거느리고 맹렬히 달려왔다. 산사기는 적이 미리 준비를 해두었음을 깨닫고, 급히 병사들을 불러 모아 말을 타고 성벽 위로 올라가려 했다. 그런데 성문 앞의 한 장수가 말을 타고 크게 외쳤다. "당빈이 여기 있다! 호관은 이미 송나라의 차지가 되었으니, 산사기는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말을 마친 그는 창을 휘둘러 축경을 찔러 죽였다. 산사기는 크게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기병 수십 명을 이끌고 서쪽을 향해 필사적으로 뚫고 도망쳤다.

임충과 장청은 성을 탈취하려던 중이었기에 굳이 뒤쫓지 않고, 병사들을 이끌고 성벽 위로 돌격해 올라왔다. 이때 이규를 비롯한 보병들이 가볍고 빠르게 움직여 이미 성벽을 점령한 상태였고, 신호 포성을 울리며 당빈과 함께 호관을 지키던 군사들을 몰아붙여 호관을 탈취했다. 중량은 난전 중에 죽임을 당했고, 성 밖의 사정은 서녕에게 맞아 말에서 떨어졌다. 북쪽 군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는데, 수많은 갑옷과

말을 버려둔 채 이천여 명이 죽고 오백여 명이 생포되었으며 항복하는 자도 매우 많았다.

잠시 후, 송강의 선봉 부대와 대군이 차례로 성 안으로 들어왔다. 당빈은 말에서 내려 송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다. "저 당빈이 죄를 지었으나, 선봉장님의 인의를 듣고 일찍이 양산박으로 달려가고 싶었습니다. 다만 길이 막막하여 그 존안을 뵈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기회를 빌려 선봉장님을 모실 수 있게 되었으니, 참으로 평생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다시 한번 절을 올렸다. 송강은 연신 답례하며 황급히 그를 부축해 일으키고 말했다. "장군께서 조정에 귀순하여 저와 함께 반역을 평정하셨으니, 제가 조정으로 돌아가면 천자에게 보고하여 반드시 장군께 큰 상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손립을 비롯한 여러 장수와 문중용, 최야가 두 갈래로 병마를 나누어 거느리고 성 밖에 주둔하며 명령을 기다렸다. 송강이 문중용과 최야 두 장수에게 성 안으로 들어와 인사를 나누라 명하자, 손립 등은 병마를 거느리고 성 밖에 진을 쳤다. 문중용과 최야가 성 안으로 들어와 송강을 알현하며 말했다. "저희 문중용과 최야는 장군님을 모실 인연이 닿았으니, 휘하에서 견마지로를 다하고자 합니다."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장군들께서 이번에 성을 함께 탈취하셨으니 공이 결코 작지 않습니다. 제가 공적 명부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기록해 두겠습니다."

다음 날, 송강은 즉시 연회를 베풀어 당빈과 문중용, 최야를 위해 축하 잔치를 열었다. 한편으로는 성 안팎의 군사와 새로 항복한 병사 이

만여 명, 그리고 노획한 전마 천여 필을 세고 정리하였다. 여러 장수도 모두 모여 공을 보고하였다.

송강의 선봉 부대가 장수와 군사들에게 노고를 치하하고 군사를 정리하는 일을 모두 마쳤다. 송강이 당빈에게 소덕성의 병사와 장수가 얼마나 되는지 묻자, 당빈이 대답했다. "성 안에는 원래 삼만 명의 병마가 있었으나, 산사기가 그중 만 명을 뽑아 성을 지키게 했습니다. 지금 성 안에 남은 병마는 이만 명이며, 정·편 장수는 모두 열 명입니다." 그 열 명은 바로 이리하였다.

손기, 엽성, 금정, 황월, 냉녕

대미, 옹규, 양춘, 우경, 채택

당빈이 다시 말했다. "전호는 호관을 소덕성의 방패로 삼고 있으나, 이제 호관이 뚫렸으니 전호는 팔 하나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저 당빈이 재주가 비천하나, 앞장서서 소덕성을 치고자 합니다."

이때 능천에서 항복한 장수 경공도 당빈과 함께 앞장서겠다고 청하니, 송강이 이를 허락했다. 잠시 후, 송강이 문중용과 최야에게 말했다. "두 분은 평소 포독산에 머물며 적의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위풍도 오랫동안 떨치셨습니다. 저 송강은 두 분께서 본래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다시 포독산으로 돌아가 진을 치며 한쪽 면을 맡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소덕성을 격파하고 나면 그때 장군들을 모시고 만나고자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문중용과 최야가 한목소리로 대답했다. "선봉장님의 명령을 어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술자리가 끝나자 문중용과 최야는 송강을 작별하고 포독산으로 떠났다.

다음 날, 송강이 장막 위로 올라가 대종에게 명령했다. "진녕에 있는 노준의 선봉장에게 가서 군사 형편을 알아보고 신속히 보고하라." 대종은 명령을 받들고 곧장 길을 떠났다.

송강은 오용과 함께 계책을 논의하여 군사를 나누어 소덕성을 공격하기로 했다. 당빈과 경공은 군사 만 명을 거느리고 동문을 공격하기로 했고, 소초와 장청은 만 명을 거느리고 남문을 공격하기로 했다. 서문은 비워두었는데, 이는 위승에서 구원군이 올 경우 안팎에서 충돌하는 불편함을 막기 위함이었다. 또한 이규, 포옥, 항충, 이곤에게 보병 오백 명을 맡겨 유격병으로서 앞뒤를 지원하게 했으며, 손립, 주동, 연순에게는 군사를 이끌고 관문으로 진격하게 하여 번서, 마린과 함께 호관을 지키도록 했다.

군사 배치가 모두 결정되자, 송강은 학식 높은 오용과 함께 나머지 장수와 부하들을 거느리고 진영을 옮겨 출발했다. 그들은 소덕성 남쪽 십 리 지점에 진을 쳤다.

이야기는 다른 곳에서 이어진다.

한편, 위승에서 가짜 조정의 성원(省院) 관원 노릇을 하던 자가 호관의 수비 장수 산사기와 진녕의 전표가 보낸 급보를 받았다. 급보의 내

용은 송강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여 호관과 진녕 두 곳이 모두 위급하다는 것이었다. 전호가 전각에 올라 사람들과 함께 구원군을 보낼 계책을 논의하고 있을 때, 관원들 사이에서 한 사람이 쑥 나타났다. 그는 머리에 황관을 쓰고 학의 깃털로 만든 도포를 입은 채 앞으로 나아가 아뢰었다.

"대왕께 아뢰입니다. 신이 호관으로 가서 적을 물리치고 싶사옵니다."

그 사람의 성은 조(喬)이고 이름은 렬(洌)이었다. 본래 섬서성 경원 출신인데, 그의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승냥이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으나 나중에 사슴으로 변했다. 꿈에서 깨어난 뒤 렬을 낳았다. 조렬은 여덟 살 때부터 창과 몽둥이를 휘두르는 것을 좋아했는데, 우연히 공동산을 유람하다가 기인을 만나 환술을 전수받았다. 그 환술은 바람과 비를 부르고 안개를 타고 구름 위를 넘나들 수 있는 것이었다. 또한 구궁현의 이선산을 찾아가 도를 구하기도 했으나, 나진인은 그를 만나주지 않고 도동을 통해 다음과 같이 전했다.

"너는 외도에 빠져 현묘한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덕 있는 자를 만나 네 마(魔)가 항복하게 되거든 그때 비로소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조렬은 분한 마음으로 돌아왔으나, 스스로 술법이 뛰어나다고 믿으며 정처 없이 떠돌아다녔다. 환술이 워낙 뛰어나 사람들은 그를 '환마군'이라 불렀다. 그러다 안정주에 이르르게 되었다. 당시 이 주에 큰 가뭄이 들어 다섯 달 동안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다. 이에 주관(州官, 주를 다스리는 관리)이 방을 붙여 "비를 내려달라고 빌어 성사시키는

자에게는 포상금 삼천 관을 내리겠다"라고 공고했다. 조렬이 방을 보고 제단에 올라가 술법을 부리자, 마침내 단비가 쏟아져 내렸다. 주관은 비가 충분히 내리는 것을 보고는 포상금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하지만 이것은 조렬에게 닥칠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곳에 하재(何才)라는 이름의 비뚤어진 서생이 있었는데, 그는 주 관청의 창고 관리인과 매우 친밀했다. 하재는 이 일을 알아내고는 창고 관리인을 부추겨 포상금의 태반을 주관에게 상납하게 하고, 나머지는 자기 주머니로 챙겼다. 하재는 그 창고 관리인에게 돈을 빌려주며 뒷돈까지 챙겼다. 창고 관리인은 조렬에게 삼 관의 돈을 내밀며 말했다.

"당신처럼 높은 술법을 가진 분이 이런 푼돈이 무슨 소용입니까? 나는 지금 정식 군량과 곡식을 메우느라 턱없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빌려 쓰고 있는 처지입니다. 이 포상금은 나를 믿고 일단 창고에 맡겨 두었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차례차례 찾아 가십시오."

그 말을 들은 조렬이 크게 노하여 외쳤다.

"이 포상금은 본래 이 주의 부호들이 도운 것인데, 네가 어찌 제멋대로 가로챌단 말이냐! 창고의 식량과 군량은 모두 백성들의 피와 살인데, 너는 제 배를 채우고 유흥에 빠져 국가의 큰일을 망치고 있구나. 너같은 더럽고 추악한 놈은 맞아 죽어도 마땅하며, 창고의 좀벌레 하나를 없애는 것과 같다!"

조렬은 주먹을 휘둘러 관리인의 얼굴을 그대로 내리쳤다. 창고 관리인은 술과 여색에 빠져 몸이 허약한 데다 비만하기까지 해서, 손을 쓰기도 전에 숨부터 헐떡거렸다. 조렬의 주먹과 발길질을 견디지 못한 그

는 만신창이가 되어 돌아갔고, 며칠을 앓아눕더니 결국 상처가 깊어 죽고 말았다. 관리인의 처자식은 주관에게 고발장을 제출했다. 주관 역시 이 모든 일이 포상금 때문에 벌어진 일임을 짐작하고, 공문을 작성하여 범인 조렬을 잡아다 문초하도록 사람을 보냈다.

조렬은 이 사실을 알고 밤을 틈타 경원으로 도망쳐 집을 찾긴 뒤, 어머니와 함께 집을 떠나 위승으로 달아났다. 그는 성과 이름을 바꾸고 전진교(全眞) 도사로 행세했는데, '렬(冽)' 자를 '청(淸)' 자로 바꾸고 법호를 새로 지어 '도청'이라 불렀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전호가 난을 일으켰을 때, 전호는 도청에게 술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를 불러들였다. 도청은 요사스러운 말을 지어내고 환술을 부리며 어리석은 백성들을 선동하여, 전호가 주와 현을 침탈하는 것을 도왔다. 전호는 매사를 도청의 뜻에 맡겼고, 그를 '호국영감진인'과 '군사좌승상'이라는 직책에 가짜로 봉했다. 이때에야 비로소 본래의 성을 드러냈기에, 사람들은 모두 그를 '국사 조도청'이라 불렀다.

조도청은 전호에게 호관으로 군사를 이끌고 가서 적을 막겠다고 아뢰었다. 전호가 말했다.

"국사께서 이토록 과인을 위해 근심을 나누어 주시다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수(殿帥, 군 지휘관) 손안이 전각 위로 올라와 아뢰었다.

"신이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을 구원하러 가기를 원하옵니다."

전호는 조도청과 손안을 정남대원수(征南大元帥)로 추대하고, 각각 병사 이만 명씩을 나누어 주었다. 조도청이 다시 아뢰기를,

"호관이 위급하니, 신이 경기병을 선발하여 밤낮없이 달려가 구하겠 나이다."

전호가 크게 기뻐하며 추밀원(樞密院, 군사 행정 기관)에 명하여 장수와 병사를 나누어 조도청과 손안을 따르게 하여 정벌에 나서게 했다. 추밀원은 명을 받들어 장수를 선발하고 병사를 나누어 두 사람에게 넘겨주었다. 조도청과 손안은 그날로 즉시 군마를 정돈하여 길을 떠났다.

손안은 조도청과 고향이 같은 경원 사람이었다. 키는 아홉 자에 허리는 여덟 아름이나 될 정도로 건장했으며, 병법에 밝고 힘 또한 남달랐다. 뛰어난 무예를 익힌 그는 늘 두 자루의 강철검을 휘두르곤 했다. 훗날 그는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 두 사람을 죽였으나, 관아의 추격이 워낙 거세자 집을 버리고 도망쳤다. 그는 평소 조도청과 친분이 두터웠는데, 조도청이 전호의 수하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곧장 위승으로 달려가 조도청에게 몸을 의탁했다. 조도청은 그를 전호에게 추천했고, 손안은 적을 막아내는 공을 세워 가짜로 전수(殿帥) 직책을 받았다. 오늘 그는 열 명의 편장(偏將, 중간 직급의 장수)과 군마 이만 명을 거느리고 진영을 구원하러 가는 길이다. 그 열 명의 편장은 누구인가? 바로 다음과 같다.

매옥, 진영, 금정, 육청, 필승

판신, 양방, 풍승, 호매, 육방

그 열 명의 편장들은 모두 통제(統制, 군관 직책)라는 직함을 가짜로 받았다. 이윽고 손안은 조청과 작별을 고하고 군마를 거느린 채 진영을 향해 출정하였다.

한편, 조청은 이만 명의 군마를 거느리되, 단련(團練) 섭신과 풍통령(馮統領)에게는 뒤따라오게 하고, 자신은 네 명의 편장과 함께 앞장서서 나아갔다. 그 네 명은 다음과 같다.

뇌진, 예린, 비진, 설찬이다.

그 네 명의 편장은 모두 총관(總管)의 직책을 가짜로 부여받아 조청을 따르며, 정예병 이천 명을 거느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소덕을 향해 진격했다.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소덕성 북쪽 십 리 밖까지 이르렀는데, 앞서 나간 정찰병이 말을 타고 돌아와 보고했다.

"어제 송강의 군사들에게 호관을 빼앗겼습니다. 지금 그들은 병력을 세 갈래로 나누어 소덕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청은 보고를 듣고 크게 노하며 외쳤다.

"이놈들이 아주 무례하구나! 내 수단이 어떤지 똑똑히 보여주마!"

조청은 군사를 거느리고 앞을 향해 급히 달려 나갔다. 마침 당빈과 경공이 군사를 이끌고 북문을 공격하던 중이었다. 이때 갑자기 북서쪽에서 이천여 명의 기병이 몰려온다는 보고가 올라오자, 당빈과 경공은 진을 쳐서 적을 맞이했다. 조청의 군마가 도착하여 양측의 진영이 마주

섰다. 깃발과 북소리가 서로 마주 보였고, 남북의 거리는 화살 한 대가 날아갈 정도였다.

당빈과 경공은 북쪽 진영 앞에 있는 네 명의 장수가 한 선생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선생은 붉은 비단 휘장이 드리워진 보개(寶蓋) 아래 말에 올라타 있었다. 그 선생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머리에겐 자금색 보석을 박은 어미(魚尾) 모양의 도관을 쓰고, 검은 바탕에 붉은 불꽃무늬와 학이 수놓아진 비단 도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오색 빛깔의 비단 띠를 두르고 발에는 구름무늬가 있는 붉은 신을 신고 있었다. 손에는 곤오(鋤鋸)의 무쇠로 만든 고검 한 자루를 들고, 눈처럼 흰 은색 갈기의 말을 타고 있었다. 팔자(八字) 모양의 눈썹에 푸른 눈, 풍성한 수염을 가졌으며, 네모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마치 종소리처럼 웅장했다.

그 선생의 말 앞 검은 깃발에는 금색 글씨로 열아홉 글자의 큰 글자가 적혀 있었으니, 바로 '호국영감진인 군사좌승상 정남대원수 조'였다. 경공이 이를 보고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저 자는 보통내기가 아니다!"

양군이 채 맞붙기도 전에, 마침 이규를 비롯한 오백 명의 유병(游兵)이 갑자기 들이닥쳤다. 이규가 곧장 앞으로 달려 나가려 하자 경공이 만류하며 말했다.

"저 자는 진왕(晉王) 수하 중 가장 뛰어난 자로, 요술을 부릴 줄 아니 매우 무서운 자다."

이규가 대꾸했다.

"내가 달려가서 저놈을 단칼에 베어버리면 그만이지, 무슨 요술을 부린단 말이오?"

당빈 역시 거들었다.

"장군, 적을 가벼이 보아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이규가 어찌 그 말을 듣겠는가. 그는 도끼를 휘두르며 맹렬히 돌진했다. 포옥, 함충, 이곤은 이규가 잘못될까 염려되어 오백 명의 단패(團牌)와 창병을 이끌고 한꺼번에 몰려가 싸웠다. 그 선생은 허허 웃으며 호통을 쳤다.

"이놈들, 함부로 날뛰지 마라!"

그는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보검을 들어 허공을 가리키더니, 입으로 주문을 외우며 크게 외쳤다.

"가라!"

그러자 멀쩡하던 대낮의 푸른 하늘에 갑자기 검은 안개가 구름처럼 몰려들더니, 광풍이 몰아치며 흙먼지가 휘날렸다. 게다가 한 덩어리의 검은 기운이 이규와 오백여 명의 군사를 덮치니, 마치 검은 가죽 주머니 속에 집어넣은 듯 눈앞에 빛 한 줄기 보이지 않았고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귓가에는 오직 거센 바람과 비 소리만 들릴 뿐,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아무리 영웅호걸이라 해도 날개를 달고 날아오를 수 없으니, 설령 화수금강이라 해도 그 촌촌한 천라지마를

피할 길이 없고, 팔이 여덟 개 달린 나타라 해도 용의 못과 호랑이 굴을 벗어나기 어렵다.

결국 이규와 군사들이 위기에 빠졌으니, 이들의 생사가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5회 — 송공명이 충심으로 후토를 감 동시키고, 교도청이 술법으로 송나라 군 사를 패퇴시키다

宋公明忠感后土 喬道清術敗宋兵

이야기는 이러하다. ‘흑선풍’ 이규는 당빈과 경공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장수들을 거느리고 적진으로 돌격했으나, 교도청이 부리는 요술에 휘말리고 말았다. 이로 인해 이규를 포함한 오백여 명의 병사가 단 한 명도 도망치지 못한 채 모두 생포되었다. 경공은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말머리를 돌려 동쪽으로 달아나며 채찍을 두 번 휘두르고는 먼저 자리를 떴다.

당빈은 이규 일행이 함정에 빠져 군대가 혼란에 빠진 것을 보고, 경공마저 먼저 도망치는 것을 보자 속으로 생각했다. ‘교도청의 법술이 이토록 무서우니, 만약 도망치지 못하고 잡힌다면 남들에게 웃음거리가 되겠구나. 군사란 겁을 먹고 죽느니 차라리 싸우다 명예롭게 죽는 법이라 했는데, 내 처지에 어찌 목숨만 아끼겠는가!’

당빈은 목숨을 걸고 창을 움켜쥔 채 말을 몰아 돌격해 들어갔다. 교도청은 그가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을 보고 급히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주문을 외우더니, 크게 호통을 쳤다. “빨리!” 그러자 본진 안에서 거대한 황사 바람이 일어나 당빈의 얼굴을 향해 무섭게 몰아쳤다. 눈앞이 모래바람으로 가려져 당빈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적군이 달려들어 그의 왼쪽 다리를 창으로 찔렀다. 당빈은 말에서 떨어져 그대로 생포되고 말았다.

본래 북군에는 장수나 관리급 인물을 생포해 오면 포상을 배로 내린다는 규칙이 있었기에, 다른 장수들도 죽임을 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당시 당빈 휘하의 일만 군사는 온통 황사 속에 갇혀, 병사들이 쓰러지고 말들이 죽어 나가며 군세가 뿔뿔이 흩어져 절반 이상이 전사하고 말았다.

한편, 임충과 서녕은 동문에 있다가 성 남쪽에서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들려오자, 급히 병사들을 이끌고 지원하러 나갔다. 성 안의 수장 손기와 부하들은 교도청의 깃발을 보고 서둘러 성문을 열어 그들을 맞이했다. 그사이 이규 일행은 이미 적의 성안으로 끌려 들어간 뒤였다.

한편, 경공은 패잔병 몇몇과 함께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는데, 안장과 고삐는 빠뚫어지고 투구마저 옆으로 돌아가 있는 처참한 모습이었다. 그는 임충과 서녕을 보고서야 겨우 말의 고삐를 잡아 멈추었다. 임충과 서녕이 급히 어떤 일이냐고 묻자, 경공은 비틀거리며 상황을 간략히 설명했다. 임충과 서녕은 서둘러 경공을 데리고 큰 진영으로 돌아왔다. 마침 왕영과 호삼낭이 삼백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정찰을 나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함께 돌아와 송강에게 보고했다. 경공은 이규 일행이 교도청에게 붙잡힌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보고를 받은 송강은 크게 놀라며 울먹였다. “이규 일행의 목숨이 이제 다 되었구나!”

그러자 오용이 그를 달래며 말했다. “형님, 너무 낙담하여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어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적에게 요술이 있으니, 서둘러 호관으로 가서 번서를 데려와 맞서 싸우게 해야 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번서를 데려오는 동시에 군사를 움직여, 저 요술쟁이에게 이규 일행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겠다.”

오용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송강은 듣지 않았다.

송강은 즉시 오용에게 명령하여 장수들을 거느리고 진영을 지키게 한 뒤, 자신은 직접 임충, 서녕, 노지심, 무송, 유당, 탕룡, 이운, 육보사 여덟 장수와 이만 군사를 이끌고 곧장 소덕성 남쪽으로 공격을 나섰다. 삭초와 장청이 뒤를 이어 합류하니, 군사들이 깃발을 흔들고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고 징과 나팔을 울리며 성 아래로 맹렬히 돌격해 들어갔다.

한편, 교도청은 성안으로 들어가 수부(帥府, 장수의 집무처)에 올랐다. 손기 등 열 명의 장수가 배알하여 인사를 마친 뒤, 손기 등이 막 연회를 베풀어 대접하려 할 때, 정찰병이 급히 달려와 송나라 군사가 또 왔다고 보고했다. 교도청이 노하여 외쳤다. “이놈들이 무례하구나!” 그는 손기를 향해 말했다. “내가 송강을 잡고 나서 돌아오겠다.” 그리고

는 즉시 말을 타고 편장(偏將) 네 명과 삼천 군사를 거느리고 성 밖으로 나가 적을 맞이했다.

송나라 군사가 진을 치고 싸움을 걸고 있을 때, 성문이 열리더니 조교(吊橋, 성문 앞의 도개교)가 내려왔다. 문 안쪽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쏟아져 나왔는데, 그 선두에 말을 탄 한 도인이 보였다. 바로 ‘환마군’ 교도청이었다. 그는 보검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조교를 건너왔다. 양측 군사가 마주 서서 깃발과 북이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각자 강궁과 쇠뇌를 들어 진영 앞을 향해 쏘아 막았다. 양 진영에서는 나팔(畫角)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투 북소리가 일제히 진동했다.

송나라 진영에서 군기가 열리자 송강이 출전했다. 육보사가 ‘수(帥)’자가 적힌 깃발을 받들어 송강의 말 앞에 세웠고, 왼쪽에는 임충, 서녕, 노지심, 유당이, 오른쪽에는 삭초, 장청, 무송, 탕룡 이렇게 여덟 장수가 호위했다. 송강은 가슴속에 분노가 치밀어 올라 교도청을 가리키며 꾸짖었다. “역적을 돕는 도사 놈아, 어서 내 형제들과 오백여 명의 병사를 풀어주지 못할까!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네놈을 잡아 갈가리 찢어 죽이겠다!”

교도청이 호통을 쳤다. “송강, 무례하게 굴지 마라! 내가 너희를 풀어주지 않을 것이니, 네가 나를 어찌할 셈이냐!”

송강이 크게 노하여 채찍 끝으로 가리키자, 임충, 서녕, 삭초, 장청, 노지심, 무송, 유당이 일제히 돌격해 나갔다. 교도청은 이를 갈며 법술을 부리기 시작했다. 그는 결인을 맺고 주문을 외우더니, 검으로 서쪽을 가리키며 외쳤다. “빨리!” 그러자 순식간에 수많은 병사와 장수들이

서쪽에서 날아오듯 달려와 송나라 군대를 들이받았다. 교도청이 다시 검은 북쪽을 가리키며 입속으로 주문을 외우고 외쳤다. “빨리!”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하늘과 땅이 어두워지고 햇빛이 사라지더니, 모래바람과 돌덩이가 날아다니며 천지를 뒤흔들었다. 임충 등 장수들이 막 앞으로 달려 나가려는데, 눈앞이 온통 황사와 검은 기운으로 가득 차 적군이 보이지 않았다. 송나라 군사들은 싸워보지도 못한 채 혼란에 빠졌고, 겁에 질린 말들이 날뛰며 울부짖었다. 임충 등은 급히 말을 돌려 송강을 호위하며 북쪽으로 도망치기 시작했다.

교도청이 병사들을 몰아 공격하자, 송강 일행의 군세는 뿔뿔이 흩어지고 끊어졌다. 병사들은 서로 형제와 부모를 부르짖으며 아비규환을 이루었다. 송강 일행이 혼란 속에서 도망친 지 채 반 리도 되지 않았을 때, 눈앞에 기이한 광경이 펼쳐졌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한 평원과 들판이었는데, 어찌 된 일인지 사방이 안개처럼 자욱하게 끝없이 펼쳐져, 온통 하늘에 닿을 듯한 하얀 파도가 끝없이 일렁였다. 마치 동쪽의 거대한 바다 같아서, 옆구리에 날개가 돈다 한들 결코 날아 건널 수 없을 듯했다.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니,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죽은 목숨이었다.

노지심, 무송, 유당이 일제히 소리쳤다. “설마 이대로 손 묶인 채 잡히란 말이냐!” 세 사람은 힘껏 몸을 돌려 북쪽을 향해 싸우며 달려들었다. 그때 갑자기 벼락이 치는 듯한 소리와 함께 공중에서 금갑(金甲)을 입은 신인(神人) 스무여 명이 나타나 병기를 마구 내리쳤다. 그 서슬에 노지심, 무송, 유당은 쓰러졌고, 뒤쫓아온 북군에게 생포되고 말았다.

이어서 큰 외침이 들려왔다. “송강은 말에서 내려 결박을 받아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송강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했다. “나 송강이 죽는 것은 아깝지 않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지 못했고, 연로하신 부모를 봉양할 사람도 없으며, 이규 같은 형제들도 구하지 못했구나.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차라리 한 번 죽음을 택하여 붙잡혀 치욕을 당하는 일을 면하리라.”

임충, 서녕, 삭초, 장충, 탕릉, 이운, 옥보사 일곱 두령은 송강을 둘러싸고 한데 모여 외쳤다. “저희도 형님을 따라 악귀가 되어 적을 죽이겠습니다!”

옥보사는 이토록 절박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몸에 화살을 두 발이나 맞았음에도, ‘수(帥)’ 자 깃발을 곳곳이 받들어 든 채 송강의 곁을 한 치도 떨어지지 않고 바짝 따랐다. 북군은 그 수자기가 쓰러지지 않은 것을 보고 감히 함부로 다가오지 못했다.

송강 일행은 이미 검을 뽑아 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때 갑자기 한 사람이 앞으로 걸어 나오더니, 사람들을 만류하며 말했다. “그만두시오! 모두 너무 근심하지 마시오. 나는 무기(戊己)의 자리를 다스리는 존재로서, 그대들의 충의를 보고 특별히 저 요사한 물(妖水)을 물리쳐 그대들을 진영으로 구해 돌려보내려 왔소.”

장수들이 그 사람을 살펴보니 생김새가 참으로 기이했다. 머리에는 두 개의 살로 된 뿔이 돋아 있고, 온몸은 청흑색이었으며, 붉은 머리에 몸은 벌거벗은 상태였다. 하체에는 노란 잠방이 하나만을 걸치고 있었

고, 왼손에는 방울(鈴鐸)을 하나 들고 있었다. 그 사람이 땅의 흙을 한 움큼 집어 들더니, 눈앞에 바다처럼 넘실대는 하얀 파도를 향해 휙 뿌렸다. 그러자 눈 깜짝할 사이에 다시 원래의 평지로 돌아왔다. 그는 장수들에게 말했다. “그대들에게 며칠간 재앙이 닥칠 운수였으나, 이제 요사한 물은 멸하였으니 속히 진영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사람을 위주(衛州)로 보내야만 비로소 (붙잡힌 이들을) 구해낼 수 있을 것이요. 부디 힘써 나라에 보답하시오!”

말을 마친 그는 회오리바람이 되어 홀연히 사라졌다. 장수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면서도 송강을 보호하며 남쪽으로 향했다. 5~6리쯤 갔을 때, 갑자기 먼지가 일어나는 곳에서 또 다른 군마 한 무리가 남쪽에서 달려오고 있었다. 바로 오용이 왕영, 호삼낭, 손신, 고대수, 해진, 해보와 함께 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원하러 온 것이었다.

송강이 오용에게 말했다. “자네의 말을 듣지 않았다가 하마터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할 뻔했네!”

오용이 대답했다. “우선 진영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장수들은 차례로 진영 안으로 들어간 뒤, 군사가 패하고 포위되었다가 신인을 만난 일을 상세히 보고했다. 오용이 손을 이마에 대며 말했다. “무기(戊己)의 자리를 다스리는 분이니 토신(土神)이십니다. 형님의 충의가 후토(后土)의 신을 감동시켰으니, 흙이 물을 이긴 것이지요.”

송강 일행은 그제야 깨닫고 허공을 향해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때 하늘이 어둑어둑해질 무렵, 패잔병들이 도망쳐 돌아와 보고하기를, 혼란스러운 와중에 소덕성 안에서 손기, 엽성, 금정, 황월 등이 남문을 열고 병사를 몰아 들이쳐 죽은 자가 매우 많고 나머지는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고 하였다. 송강이 병사들의 수를 세어보니 만여 명의 손실이 있었다.

오용이 송강에게 말했다. “적들이 요술을 부릴 줄 알아 두 차례나 연이어 이겼으니, 서둘러 계책을 세워 대비하고 영채 기습(劫寨)을 막아야 합니다. 더구나 우리 병사들은 이미 겁에 질려 있어, 잔 속 뱀 그림자에 놀라고 바람 소리와 풀잎마저 적병으로 여기는 격이라, 무엇을 보든 사기를 흔드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이 영채는 비워둔 채, 양을 매달아 그 발굽으로 북만 두드리게 하여 (사람이 지키는 것처럼 위장해 두고), 우리 대군은 십 리를 물려 따로 영채를 세워야 합니다.”

송강이 즉시 명령을 내려 대군을 십 리 뒤로 물렸다. 오용은 또 송강에게 명령을 전하게 하여, 영채를 나누어 세우되 큰 영채가 작은 영채를 감싸고, 모퉁이마다 갈고리처럼 이어지며 구불구불 서로 마주 보도록, 마치 이약사(李藥師, 이정)의 ‘육화진(六花陣)’ 법식처럼 배치하라고 일렀다. 모든 장수가 명을 받들어 따랐다.

진영을 다 세우자마자, 번서가 명을 받들어 호관에서 급히 달려왔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번서가 진영으로 들어와 송강을 알현한 뒤 교도청에 관한 자세한 사정을 묻자, 번서가 말했다. “형님, 안심하십시오. 그저 요술일 뿐입니다. 내일 제가 도술을 부려 그놈을 잡아내겠습니다.”

오용이 말했다. “적이 만약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일단 움직이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 공손승 도사가 도착하면 그때 다시 계획을 세워 봅시다.”

송강은 즉시 장청, 왕영, 해진, 해보에게 명하여 500명의 경기병을 이끌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관문을 나가 위주로 달려가게 했다. 공손승을 모셔와 이곳으로 돌아와 적을 물리치고 우리를 구하게 하려는 계획이었다. 장청 일행은 말의 장비를 갖추고 송강과 작별한 뒤 떠났다.

그사이 송강의 군사들은 말뚝을 깊게 박아 장애물을 만들고, 울타리를 튼튼히 세웠다. 활에는 시위를 걸고 칼은 칼집에서 뽑았으며, 모두 갑옷을 입고 창을 든 채 방울을 흔들며 기세 좋게 소리를 질렀다. 송강 일행은 촛불을 밝힌 채 밤을 지새우며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한편, 교도청이 요술을 부려 송강 일행을 가두고 앞으로 나아가 생포하려는데, 갑자기 눈앞의 물이 한 방울도 없이 말라버린 것을 보고 송강 일행이 이미 달아난 것을 알게 되었다. 교도청은 경악하며 의아해하며 말했다. “내 법술은 보통이 아닐진대, 저들이 어찌 이리 단번에 깨뜨린단 말인가? 분명 군중에 기이한 재주를 가진 자가 있는 모양이로구나.”

그는 즉시 군사를 거두어 손기 등과 함께 성 안으로 들어가 수부(帥府)에 자리를 잡았다. 손기 등이 한편으로 축하 연회를 베푸는 동안, 군사들은 노지심, 무송, 유당과 더불어 앞서 생포했던 이규, 포옥, 향충, 이곤, 당빈을 뽕뽕 묶어 장막 앞으로 끌고 왔다. 손기가 교도청의

왼쪽에 서 있다가 당빈을 보고는 욕설을 퍼부었다. “반역자 놈, 진왕께 서 네놈을 저버린 적이 없거늘!”

당빈이 호통을 쳤다. “네놈들의 죽을 날도 머지않았다!”

교도청이 사람들에게 이름을 대라고 명했다. 이규는 둥근 눈을 부라리고 호랑이 수염을 곤두세우며 가슴을 펴고 크게 욕설을 내뿜었다. “도적 도사 놈아, 잘 들어라! 나는 흑대인(黑爺爺), ‘흑선평’ 이규님이시다!”

노지심과 무송 등은 교도청이 묻든 말든 내버려둔 채, 분에 차서 입도 병긋하지 않았다. 교도청이 저들의 부하 병졸들도 끌고 오라고 시키자, 곧 도부수(刀斧手, 칼과 도끼를 든 병사)들이 병졸들을 압송해 왔다. 교도청이 한 명씩 심문해 보니 모두 송강 군의 용맹한 장수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말했다. “너희가 만약 항복한다면, 내가 진왕께 아뢰어 모두에게 큰 관작을 내려주겠다.”

이규가 천둥 같은 소리로 외쳤다. “네놈 눈에는 이 어르신들이 어떤 사람으로 보이느냐? 어디서 그따위 개소리를 지껄이느냐! 감히 이 흑대인을 베겠다면 어디 한번 끌어다 수백 칼을 쳐 보아라. 그래도 이 흑대인이 눈썹 하나 찌푸린다면, 그때는 내가 사내대장부가 아니다!”

노지심, 무송, 유당 등도 일제히 소리 높여 욕했다. “요사스러운 도사 놈아, 꿈 깨거라! 우리 형제들은 머리는 잘릴지언정, 이 무쇠 같은 두 다리는 결코 굽히지 않을 것이다!”

교도청이 크게 노하여 모두 밖으로 끌어내 처형하고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그러자 노지심이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이 몸은 죽음을 집으로 돌아가듯 여기니, 오늘 바른길을 따라 죽는구나!”

도부수들이 사람들을 에워싸고 끌고 내려갔다. 교도청은 속으로 생각했다. ‘내 평생 저토록 강단 있는 사내들은 처음 보는구나. 일단 살려 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처리해야겠다.’

교도청은 즉시 명령을 내려 군사들에게 이자들을 도로 데려가 가두어 두고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무송이 욕을 했다. “더러운 반역자 놈, 차라리 어서 나를 깨끗이 베어버려라!”

교도청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군졸들은 이규 일행을 끌고 가 가두었다.

교도청은 ‘삼매신수(三昧神水, 신통한 물을 일으키는 요술)’의 법술이 제대로 통하지 않자 속으로 몇 분의 의구심이 생겼다. 그는 일단 성안에 진을 치고 송강군의 움직임을 살피기로 했다. 그리하여 양측 모두 움직이지 않고 대치하는 상태가 이어졌다.

그렇게 대엿새가 지나자, 섭신과 풍(馮)이 이끄는 대군이 도착했다. 그들은 성안으로 들어와 교도청을 알현한 뒤, 모든 병마를 성안으로 불러들여 진을 쳤다. 교도청은 송강의 군사들이 진영을 굳게 지키며 싸움을 걸어오지 않는 것을 보고, 별다른 계책이 없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는 군마를 점검하고 장수들을 통솔하며, 손기, 대미, 섭신, 풍 등과 함께 2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경(五鼓)에 성을 나섰다. 그들은 성 남쪽 오룡산에 진을 친 뒤, 날이 밝으면 진군하기로 했다.

교도청이 손기에게 말했다. “오늘 반드시 송강을 사로잡아 호관을 되찾아야 한다.”

손기가 대답했다. “모두 국사 상공의 법력에 달려 있습니다.”

교도청은 즉시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송강의 본영을 향해 돌격했다. 정찰병들이 적의 움직임을 확인하고 송강에게 급히 보고했다. 송강은 번서, 단정규, 위정국에게 명하여 군사를 정비하고 말을 채비시켜 적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교도청은 높은 언덕 위에서 송강의 진영을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다음과 같은 모습이 보였다.

사방팔방으로 진영이 반듯하게 갖추어져 있고, 앞뒤 좌우로는 서로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진영의 문과 통로는 법도에 따라 잘 열려 있었고, 호호하듯 주고받는 연락 체계 또한 절도 있게 갖추어져 있었다.

교도청은 속으로 내심 감탄했다. 그때 송강의 진영에서 포성 한 발이 울려 퍼지더니, 진영의 문이 열리며 군사 한 무리가 쏟아져 나왔다. 양쪽 진영에서는 오색 깃발이 휘날리고 북소리가 하늘을 찌를 듯 울려 퍼졌다. 교도청은 높은 언덕을 내려와 진영 앞으로 나아갔다. 뇌진, 예린, 비진, 설찬이 그의 좌우를 호위했다. 송강의 진영에서 깃발이 펼쳐지자 한 장수가 말을 달려 나왔으니, 바로 '혼세마왕' 번서였다. 번서는 보검을 손에 들고 교도청을 가리키며 크게 꾸짖었다.

"이 요사한 도사놈, 어찌 감히 여기서 흥포함을 부리느냐!"

교도청은 속으로 생각했다. '저자가 분명 요술을 좀 부릴 줄 아는 모양이니, 내 한번 시험해 보아야겠다.' 그는 번서에게 호통을 쳤다.

"무지한 패장 놈이 감히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하는구나! 감히 나와 무예를 겨루어 보겠느냐?"

번서가 대답했다.

"무예를 겨루고 싶다면 당장 앞으로 나와 내 칼을 받아라!"

양쪽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고 북을 두드렸다. 번서는 말을 몰아 검을 치켜들고 교도청을 향해 곧장 달려들었다. 교도청 역시 말을 뛰어오르며 검을 휘둘러 맞섰다. 두 검이 맞부딪치며 두 요괴가 격렬하게 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두 기마병이 뒤엉켜 난전을 벌이는 듯하더니, 곧이어 각자 신통력을 발휘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진영 앞에서 두 줄기 검은 기운이 왼쪽 오른쪽으로 회전하며 어지럽게 뒤섞여 굴러다녔다. 양측 군사들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넋을 잃고 바라보았다.

번서가 한창 기세 좋게 싸우던 중 빈틈을 포착하고 교도청을 향해 검을 내리쳤으나,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자칫하면 말에서 떨어질 뻔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알고 보니 교도청이 일부러 빈틈을 보여 번서가 공격하도록 유도한 것이었다. 그는 그사이 '오룡탈골(烏龍蛻骨)'이라는 법술을 써서 이미 진영 앞으로 돌아가 호탕하게 웃고 있었다. 번서는 당황하며 진영으로 물러났다.

송강의 진영 좌우에서 깃발이 펼쳐지더니, 왼쪽에서는 '성수장군' 단정규가 검은 깃발과 검은 갑옷을 갖춘 보병 오백 명을 이끌고 날아오르

듯 나타났다. 그들은 둥근 방패를 들고 날카로운 창과 강철 갈퀴를 치켜들고 있었다. 오른쪽에서는 '신화장군' 위정국이 붉은 옷을 입고 화기를 든 화군(火軍) 오백 명을 이끌고 나타났다. 그 앞뒤로 불을 붙이는 갈대 더미를 실은 화차(火車) 오십 대가 줄지어 나왔다. 군사들은 저마다 등에 유황과 초석, 오색 연기를 담은 철호로를 하나씩 매고 있었다.

두 부대가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자 왼쪽에서는 먹구름이 땅을 휩쓰는 듯했고, 오른쪽에서는 불길이 치솟는 듯하여 기세 좋게 돌격해 왔다. 북군 군사들은 겁에 질려 퇴각하려 했다. 그때 교도청이 호통을 쳤다.

"물러나는 자는 베어버리겠다!"

그는 오른손에 보검을 든 채 입으로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순식간에 먹구름이 땅을 뒤덮고 바람과 천둥이 몰아치더니, 커다란 우박이 쏟아져 내렸다. 우박은 '성수'와 '신화' 군의 진영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내리쬘었고, 벼락이 치고 불길이 꺼져버렸다. 군사들은 우박에 얻어맞아 정신을 못 차리고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단정규와 위정국은 혼비백산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죽을 힘을 다해 본진으로 도망쳐 돌아왔다. 이로써 '성수장군'과 '신화장군'의 위세는 한낱 허상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순식간에 우박이 흩어지고 구름이 걷히더니, 다시 푸른 하늘에 밝은 해가 떠올랐다. 하지만 땅 위에는 닭알만큼이나 커다란 얼음 덩어리들이 수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송강의 군사들은 우박을 맞아 머리가 깨지

고 이마가 터졌으며, 눈은 멀고 코는 비뚤어진 채 엉망이 되어 있었다. 그들은 얼음 덩어리를 밟고 미끄러져 여기저기 넘어지기 일쑤였다.

교도청은 기세를 높이며 크게 외쳤다.

"송나라 군사 중에 더 뛰어난 수단과 대단한 신통력을 가진 자가 있느냐!"

번서는 수치심과 분노가 뒤섞여 머리를 풀어헤친 채 검을 들고 말 위에 올라섰다. 그는 평생 쌓아온 법력을 모조리 쏟아부으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자 사방에서 광풍이 일고 모래와 돌이 날아다니며, 하늘은 슬픈 듯 어두워지고 햇빛은 자취를 감추었다.

번서가 군사와 말을 몰아 돌격해 오자, 교도청이 비웃으며 말했다.

"네놈의 보잘것없는 요술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교도청 역시 검을 들고 주문을 외우며 법술을 부렸다. 그러자 바람이 송군 진영을 따라 어지럽게 휘몰아치더니, 허공에서 벼락이 한 번 크게 울리며 수많은 신병(神兵)과 천장(天將)이 쏟아져 내려왔다. 송강의 진영에서는 말 울음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이며 군사들이 혼비백산하여 흩어졌다. 교도청은 네 명의 편장(偏將)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몰아붙이며 살육을 벌였다. 번서는 법술이 제대로 먹히지 않자 도저히 버티지 못하고 말머리를 돌려 퇴각했다.

북군이 추격해 오며 상황이 매우 위급해지던 그때, 갑자기 송강의 진영에서 한 줄기 금빛이 쏟아져 나오더니 휘몰아치던 모래바람을 흩

뜨려 놓았다. 뒤이어 쏟아져 내리던 천병신장들도 모두 어지럽게 진영 앞으로 떨어져 내렸는데, 사람들이 자세히 보니 그것들은 모두 오색 종이를 오려 만든 것이었다.

교도청은 '신병법'이 깨진 것을 보고는 다시 신통력을 발휘하고자 머리를 풀어헤친 채 검을 들고 손가락으로 결인을 맺으며 주문을 외웠다. 그러고는 크게 호통을 쳤다.

"빨리!"

이어 그는 '삼매신수'의 법술까지 부렸다. 그러자 순식간에 임계(壬癸)의 방위, 즉 북쪽에서 수만 갈래의 검은 기운이 구름처럼 몰려왔다. 바로 그때, 송군의 진영에서 한 도사가 말을 타고 급히 출전하더니, 송문(松紋)이 새겨진 고정검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고는 크게 외쳤다.

"빨리!"

그러자 허공에서 황포를 입은 수많은 신장이 나타나 북쪽으로 날아가 그 검은 기운을 모두 휩쓸어 없애버렸다. 교도청은 깜짝 놀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했다.

송군이 이 선사가 요술을 깨뜨리는 것을 보자, 일제히 소리 높여 욕설을 퍼부었다.

"교도청, 이 요괴 같은 놈아! 이제 아주 대단한 실력을 갖춘 분이 오셨다!"

교도청은 이 말을 듣고 수치심에 귀끝까지 새빨개져서는, 본진을 향해 황급히 퇴각했다. 평생 신통력을 휘두르며 기세를 떨치던 교도청이 오늘날 고개를 떨구고 기가 죽었으니, 이는 마치 온 세상의 물을 다 끌어다 써도 오늘 마주한 수치스러운 얼굴은 씻어낼 수 없는 것과 같았다.

결국 송군 진영에서 요술을 깨뜨린 선사는 과연 누구였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96회 — 환마군이 술수로 오룡산을 곤 경에 빠뜨리고, 입운룡 두가 백곡령을 에 워싸다

幻魔君術窘五龍山 入雲龍頭圍百谷嶺

이야기는 이러하다. 송강의 군대에서 교도청의 요술을 깨뜨린 그 도사는 바로 '입운룡' 공손승이었다. 그는 위주에서 송강의 명령을 받자마자 왕영, 장청, 해진, 해보와 함께 밤을 도와 군영으로 달려왔다. 군영에 도착해 송강을 뵈고 있는데, 마침 교도청이 요술을 부리며 번서를 싸워 패퇴시키는 장면과 맞닥뜨렸다.

그날은 2월 8일 무오일로, 무(戊)는 오행 중 토(土)에 속했다. 공손승은 즉시 천간의 신장들을 불러내어, 토의 기운으로 임계수(壬癸水)의 기운을 억눌러 요사스러운 기운을 쓸어버리고 맑은 하늘과 밝은 해를 드러내게 했다. 송강과 공손승이 말을 타고 진영 앞으로 나아가니, 교도청은 얼굴이 수치심으로 가득 찬 채 군사를 이끌고 남쪽을 바라보며 달아나고 있었다.

공손승이 송강에게 말했다. "교도청이 법술이 패해 도망치고 있으니, 만약 성안으로 들여보내면 뿌리를 깊이 내려 나중에 감당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형님께서는 급히 명령을 내려 서녕과 삭초에게 군사 5천 명을 주어 동쪽 길을 돌아 남문으로 가로질러 퇴로를 차단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왕영과 손신에게는 군사 5천 명을 주어 서문으로 달려가 길을 막게 하십시오. 만약 교도청의 패잔병들이 몰려오거든 성으로 들어가는 길만 막을 뿐, 굳이 그들과 싸워 목숨을 걸 필요는 없습니다."

송강은 이 계책에 따라 즉시 명령을 내려 장수들에게 분산 배치하였다.

이때는 마침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무렵이었다. 송강은 공손승과 함께 임충, 장청, 탕융, 이운, 호삼낭, 고대소 등 일곱 장수와 군사 2만 명을 거느리고 추격해 나갔다. 교도청을 호위하던 북쪽 장수 뇌진 등은 싸우면서도 계속 도망치기에 급급했다. 앞쪽에서는 손기와 섭신이 군사를 이끌고 나타나 지원하러 오다가, 송강의 군대와 합류하게 되었다.

그들이 막 오룡산채에 도착했을 때, 뒤편에서 송강 군대가 징과 북을 울리며 함성을 지르고 무섭게 쫓아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손기가 말했다. "국사(國師)께서 산채에 머무시며 진을 치고 계시니, 저 손기가 저들과 결사적으로 싸워보겠습니다."

교도청은 평소 요술을 부리며 기세등등했고 지금까지 적수를 만난 적이 없었기에, 지금 송강의 군대에게 쫓기는 상황이 몹시 수치스럽고 분했다. 그는 손기 등에게 말했다. "너희는 일단 뒤로 물러나 있거라.

내가 앞으로 나가 적을 막아보겠다." 그러고는 즉시 병사를 정비하고 진을 친 뒤, 뇌진 등 장수들을 좌우에 거느리고 앞장서서 나갔다. 교도청이 크게 외쳤다. "물웅덩이 같은 도적놈들이 어찌 이리 사람을 괴롭힌단 말이나! 내가 다시 한번 너희와 승부를 내주마!"

본래 교도청은 경원 출신으로 아주 먼 서북쪽 지방 사람이라, 산동 땅의 송강 형제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때 송강의 군대는 깃발을 좌우로 휘두르며 올리고 내리기를 반복하여 진형을 갖추었다. 두 진영이 서로 마주 보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전장의 북소리가 일제히 진동했다. 남쪽 진영에서는 황색 깃발이 펄럭였고, 성문이 열리며 두 명의 기사가 진영 밖으로 나왔다. 중앙의 말 위에는 산동의 '호보의'이자 '급시우'인 송강이 앉아 있었고, 왼쪽 말 위에는 '입운룡' 공손승이 앉아 있었다. 공손승은 손에 검을 쥐고 교도청을 가리키며 말했다.

"내가 부리는 술법은 모두 사악한 도술일 뿐, 바른 법을 듣지 못했구나.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교도청이 자세히 살펴보니, 바로 자신의 법술을 깨뜨린 그 도사였다. 공손승의 모습은 이러하였다.

별처럼 빛나는 옥관을 쓰고, 금실로 수놓은 학도포를 걸쳤다. 구궁(九宮)의 도복은 구름과 노을처럼 찬란하고, 육갑(六甲)의 의복에는 풍뢰의 보배로운 비결이 숨겨져 있다. 허리에는 오색 비단 띠를 둘렀고, 손에는 소나무 무늬가 새겨진 오래된 정검을 들었다. 구름 문양이 새겨진 붉은 신발을 신고, 머리를 높이 쳐든 황구마를 타고 있었다. 여

덥 자 모양의 눈썹에 살구 같은 눈을 가졌으며, 입을 가린 듯한 수염이 턱까지 내려와 있었다.

그때 교도청이 공손승을 향해 말했다. "오늘따라 어찌 이리 법술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단 말이냐! 내가 어찌 너를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

공손승이 대꾸했다. "아직도 그따위 조잡한 술법을 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교도청이 호통을 쳤다. "너도 나를 알아보지 마라! 내 법술을 다시 보 아라!"

교도청은 정신을 가다듬고 입으로 주문을 읊조리며, 손을 뻗어 비진을 향해 휘둘렀다. 그러자 비진이 손에 쥐고 있던 점강창이 마치 누군가에게 빼앗기길라도 한 듯 갑자기 손에서 쏙 빠져나갔다. 창은 마치 날뛰는 뱀처럼 허공으로 솟구쳐 올라 공손승을 향해 찰려 들어왔다. 공손승이 검을 들어 진명을 가리키자, 진명이 쥐고 있던 낭아곤이 기다렸다는 듯 손에서 떨어져 나가더니 강철 창과 맞부딪혔다. 두 무기는 공중에서 바람처럼 서로를 주고받으며 격렬하게 싸웠다. 양쪽 군사들은 연신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갑자기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며 양 진영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공중에서 낭아곤이 강철 창을 쳐서 떨어뜨리더니, '둥' 하는 소리와 함께 북군 진영의 전장에 놓인 북 위로 꽂혀 들어갔다. 그 충격에 북이 찢어지고 말았다. 북을 치던 군사는 얼굴이 흠빛이 되어 겁에 질렸다. 그런데 그 낭아곤은 마치 한 번도 손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다시 진명의 손으로 돌아갔다. 송강의 군사들은 배꼽을 잡고 웃어댔다.

공손승이 호통을 쳤다. "네놈이 명장 앞에서 재주를 부리려 하는구나!"

교도청은 다시 결인을 맺고 주문을 외우며 북쪽을 향해 손을 휘두르며 외쳤다. "빨리 나오너라!"

그러자 북군 진영 뒤편 오룡산 골짜기에서 갑자기 검은 구름 한 덩이가 솟구치더니, 구름 속에서 비늘을 세우고 갈기를 휘날리는 흑룡 한 마리가 나타나 날아왔다. 공손승이 허허 웃으며 자신도 오룡산을 향해 손을 휘두르자, 오룡산 골짜기에서 황룡 한 마리가 번개처럼 튀어나왔다. 황룡은 구름과 안개를 헤치며 흑룡을 맞이하여 공중에서 격돌했다. 교도청이 다시 소리쳤다. "청룡아, 어서 오너라!"

그러자 산꼭대기에서 청룡 한 마리가 날아오르더니, 뒤이어 백룡까지 나타나 앞을 가로막았다. 양측 군사들은 이 광경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았다. 교도청이 검을 휘두르며 크게 외쳤다. "적룡아, 어서 도와라!"

순식간에 산골짜기에서 적룡 한 마리가 솟구쳐 올라 날아왔다. 다섯 마리의 용이 공중에서 어지럽게 날뛰었는데, 이는 금, 목, 수, 화, 토의 오행에 따라 서로를 살리기도 하고 제압하기도 하며 한데 뒤엉킨 모습이였다. 광풍이 몰아치자 진영에서 깃발을 들고 있던 군사들이 바람에 휩쓸려 수십 명이 연달아 나동그라졌다.

공손승은 왼손에는 검을 쥐고 오른손으로는 먼지떨이인 주미를 들어 공중으로 던졌다. 주미는 공중에서 한 바퀴 구르더니, 마치 기러기 같은 새가 되어 날아올랐다. 주미는 점점 높고 커지더니 하늘 높이 솟

구쳐 올라 구만리 상공에서 거대한 대붕으로 변했다. 대붕은 날개를 펼치니 마치 하늘을 덮는 구름 같았고, 아래로 덮쳐오는 다섯 마리의 용을 향해 돌진했다.

그러자 '콰르르' 하는 굉음이 울리더니, 마치 푸른 하늘에서 벼락이 치는 듯한 기세로 다섯 마리의 용을 들이받았다. 용들은 비늘과 갑옷이 흩어질 정도로 치참하게 박살이 났다. 본래 오룡산에는 영험한 기운이 있어 산중에 오색 구름이 자주 나타나곤 했다. 마을 사람들은 용신이 꿈에 나타난다고 믿어 용왕의 위패를 모신 사당을 지었고, 오방을 상징하는 청, 황, 적, 흑, 백의 다섯 마리 용을 진흙으로 빚어 금칠을 하고 채색하여 기둥에 둘러 놓았는데, 이것이 바로 공손승의 주미가 대붕으로 변해 내리친 것이었다. 흙으로 만든 용들이 산산조각이 나며 북군 장수들의 머리 위로 어지럽게 쏟아져 내렸다.

북군은 비명을 지르며 피하기 바빴으나, 오래되어 딱딱하게 굳은 흙덩이들에 얼굴과 이마가 깨지고 피가 철철 흘렀다. 순식간에 200여 명이 부상을 입고 군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교도청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데, 공중에서 떨어진 누런 진흙 용의 꼬리 조각이 교도청의 머리를 내리치는 바람에 머리가 깨질 뻔하고 도사 모자까지 찌그러져 버렸다.

공손승이 손을 휘두르자 대붕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주미는 다시 그의 손으로 돌아왔다. 교도청이 다시 요술을 부리려 하자, 공손승이 '오뢰정법'의 신통력을 부렸다. 그러자 교도청의 머리 위에 금갑을 입은 신인이 나타나 크게 호통쳤다. "교도청은 말에서 내려 포박을 받으라!"

교도청은 입으로 주문을 중얼거렸으나 조금도 효험이 없었다. 당황한 그는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말을 몰아 본진으로 도망치려 했다. 이때 임충이 창을 들고 말을 달려 추격하며 외쳤다. "요도놈, 거기 서라!"

북진의 예린(倪麟)이 칼을 들고 말을 달려 이를 막아섰다. 뇌진이 극(戟)을 들고 말을 몰아 전투를 도우러 나섰고, 탕융이 철과추를 휘두르며 가세했다. 양 진영의 장수들이 진 앞에서 격렬하게 싸웠다. 예린과 임충이 스무 합 넘게 맞붙었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그러다 임충이 빈틈을 놓치지 않고 창으로 말다리를 찔렀고, 말이 쓰러지며 예린을 떨어뜨렸다. 임충은 그 틈을 타 예린의 가슴에 창을 꽂아 단숨에 죽였다. 뇌진이 탕융과 한창 싸우던 중 예린이 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고 빈틈을 노려 도망치려 했으나, 탕융이 뒤쫓아와 철과추로 그의 정수리를 내리쳤다. 뇌진은 투구와 함께 머리가 깨져 말 아래로 쓰러져 죽었다.

송강이 채찍 끝으로 가리키자 장청, 이운, 호삼낭, 고대소가 일제히 돌격했다. 북군은 큰 혼란에 빠져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쳤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다.

손기, 섭신, 비진, 설찬이 교도청을 보호하며 오룡산채를 버리고 군사를 이끌어 소덕성으로 향했다. 산등성이를 넘어 성까지는 아직 6~7리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앞쪽에서 하늘을 울리는 북소리와 함께 거대한 함성이 들려왔다. 그러더니 동쪽 길목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들이닥쳤는데, 앞장선 두 장수는 바로 '금창수' 서녕과 '급선봉' 삭초였다.

양쪽 군사가 채 맞붙기도 전에, 소덕성 안에서는 성 밖의 싸움을 목격한 수장 대미와 옹규가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남문을 열어 지원하러 나왔다. 서녕과 삭초는 각자 나누어 적을 막아섰다. 삭초는 군사 2천 명을 나누어 북쪽에서 오는 적을 막게 했고, 대미가 앞장서서 삭초와 열 합 넘게 맞붙었으나, 삭초가 휘두른 금점부(金蘸斧, 금색 도끼)에 맞아 몸이 두 동강이 나고 말았다.

옹규가 급히 군사를 이끌고 성 안으로 들어갔고, 삭초는 그 뒤를 바짝 쫓아 북군 100여 명을 베어 넘기며 남문 성벽 아래까지 몰아붙였다. 하지만 옹규의 병마는 이미 성 안으로 들어간 뒤였다. 성 안에서는 급히 현수교를 끌어올리고 성문을 굳게 닫았으며, 성 위에서는 나무 몽둥이와 돌덩이를 비처럼 퍼부어 내려보냈다. 결국 삭초는 군사를 거두어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서녕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북군의 퇴로를 가로막았다. 북군은 이미 한 차례 패배했음에도 여전히 2만여 명의 병력이 남아 있었다. 손기와 섭신 두 장수가 서녕의 군사를 막아섰다. 비진과 설찬은 싸움을 이어갈 마음이 없었기에,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교도청을 보호하며 서쪽으로 달아났다.

이때 서녕은 손기와 섭신 두 장수를 힘껏 상대했으나, 북군이 포위를 좁혀오자 수적 열세를 이기지 못하고 그만 적진 한가운데 갇히고 말았다. 다행히 삭초와 송강이 남북 양쪽에서 군사를 몰고 도착했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공격을 견디지 못한 손기와 섭신은 속수무책이었다. 섭신은 서녕의 금창에 왼쪽 팔을 찔려 말에서 떨어졌고, 뒤따라온 말과 병사들에게 짓밟혀 형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되었다. 손기는 길을

뚫고 도망치려 했으나 장청에게 가로막혔고, 장청이 휘두른 창에 등 뒤를 찔려 말에서 떨어지며 죽고 말았다.

북군은 대패하여 궤멸했다. 3만 명에 달하던 군사 중 태반이 죽임을 당했다. 시체가 들판에 가득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흘렀으며, 버려진 북과 징, 깃발, 갑옷과 말들이 셀 수 없이 많았다. 남은 병사들은 사방으로 흩어져 도망치기 바빴다.

송강과 공손승, 임충, 장청, 탕릉, 이운, 호삼낭, 고대수, 서녕, 삭초가 군사를 하나로 합치니 모두 2만 5천 명이었다. 이들은 교도청이 비진, 설찬과 함께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서쪽으로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추격하려 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신시(申時, 오후 3~5시 사이)라, 하루 종일 치열한 전투를 벌인 병사들은 굶주리고 지쳐 있었다. 송강이 막 군사를 거두어 진영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하려 할 때, 군사 오용이 급히 보고를 올렸다. 송강 일행이 오랫동안 싸우느라 고생하고 있음에 안 오용이 번서, 단정규, 위정국에게 명령하여 군사 1만 명을 정비하고 횃불을 준비해 지원하러 오게 한 것이었다.

송강은 크게 기뻐했다. 이때 공손승이 말했다. "이 정도 병력이 있다면 형님과 다른 두령님들은 진영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며 쉬십시오. 저와 번서, 단정규, 위정국 세 두령이 군사를 이끌고 교도청을 추격하여 반드시 그놈을 항복시키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현제(賢弟)의 신통한 도력 덕분에 재앙을 면했네. 멀리서 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함께 진영으로 돌아가 쉬게나. 교도청 그놈은 이미 법술이 깨지고 계책도 다했으니, 더는 걱정할 것이 없네."

그러자 공손승이 다시 말했다. "형님께서는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 스승님이신 나진인(羅真人)께서 평소 제게 말씀하시기를, '경원에 교렬(喬冽)이라는 자가 있는데, 도골(道骨)을 타고나 한때 나를 찾아와 도를 물은 적이 있다. 그때는 그놈의 마성(魔心)이 너무 강해 잠시 거절했으나, 이 또한 하계 중생이 악업을 지어 살겁(殺劫)이 아직 끝나지 않은 까닭이다. 하지만 나중에 마성이 점차 물러나고 기연이 닿으면 덕을 만나 굴복하게 될 것이다. 마침 너에게 기연이 닿으니, 네가 그를 깨우쳐 준다면 훗날 그도 깊은 도의 이치를 깨우쳐 어딘가에 요긴하게 쓰일 데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위주에 있을 때 스승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으로 오면서 길에서 요술 부리는 자의 내력을 물었습니다. 장 장군이 말하기를, 항복한 장수 경공(耿恭)이 그의 자세한 내력을 알고 있는데, 교도청이 바로 경현(涇縣) 출신의 교렬(喬冽)이라 하였습니다. 방금 본 그의 법술은 저와 비슷했으나, 저는 스승님께 전수받은 '오뢰정법(五雷正法)'이 있어 그의 술법을 깨뜨릴 수 있었습니다. 이 성의 이름이 소덕(昭德)인 것도 스승님의 '덕을 만나 마가 항복한다'라는 법어와 딱 들어맞습니다. 만약 그를 놓아주어 그가 다시 마도에 빠진다면 이는 스승님의 법지를 어기는 일이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으니, 제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추격하여 적절한 때에 그를 항복시키겠습니다."

공손승의 말을 들은 송강은 마음이 탁 트이는 듯하여 거듭 감사를 표했다. 곧이어 송강은 여러 장수와 함께 군사를 거느리고 진영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했다. 공손승은 번서, 단정규, 위정국과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교도청을 추격하러 떠났다.

한편, 교도청은 비진, 설찬과 함께 패하여 흩어진 군사 5천 명을 이끌고 소덕성 서쪽까지 달아났다. 그들이 서문으로 성에 들어가려 할 때, 갑자기 북소리와 나팔 소리가 일제히 울려 퍼졌다. 앞쪽의 울창한 숲 뒤에서 한 무리의 군사가 날아오르듯 나타났는데, 앞장선 두 장수는 바로 '왜각호' 왕영과 '소위지' 손신이였다. 이들은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진을 펼쳐 길을 가로막았다. 비진과 설찬은 죽기 살기로 부딪히며 저항했다. 손신과 왕영은 공손승의 명령을 받들어 그들이 성으로 들어오지만 못 하게 막을 뿐, 굳이 쫓아가 죽이지는 않고 그들이 북쪽으로 달아나게 내버려 두었다. 한편, 성 안에서는 교도청이 법술이 다하고 크게 패했다는 소식과 송강의 군세가 워낙 막강하다는 소식을 듣고, 성을 잃을까 두려워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근 채 감히 밖으로 나와 도울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손신과 왕영은 공손승이 번서, 단정규, 위정국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급히 추격해 오는 것을 보았다. 공손승이 말했다. "두 분 두령님은 우선 진영으로 돌아가 식사를 하며 쉬십시오. 저 빈도가 직접 가서 저놈을 쫓겠습니다." 손신과 왕영은 명령에 따라 진영으로 돌아갔다. 이때는 이미 유시(酉時, 오후 5~7시 사이)였다.

한편, 교도청은 비진, 설찬과 함께 패하여 흩어진 군사들을 이끌고 마치 집 잃은 개처럼, 혹은 그물에서 빠져나간 물고기처럼 허둥지둥 북쪽으로 달아나고 있었다. 공손승은 번서, 단정규, 위정국과 함께 1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 뒤를 바짝 추격했다. 공손승이 크게 외쳤다. "교도청은 어서 말에서 내려 항복하라! 미혹된 길에 빠지지 마라!"

앞서 달리던 교도청이 말 위에서 큰 소리로 대답했다. "사람은 각자 모시는 주군이 있는 법인데, 어찌 나를 이토록 몰아붙이는가!"

어느덧 날이 저물어 송강의 군사들이 횃불을 밝히니, 불빛이 사방을 대낮처럼 환하게 비추었다. 교도청이 좌우를 둘러보니 비진, 설찬과 서른 명 남짓한 기병뿐이었고, 나머지 병사들은 이미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난 뒤였다. 교도청이 차라리 칼을 뽑아 자결하려 하자, 비진이 황급히 그를 붙들며 말했다. "국사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는 손으로 앞쪽의 산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고개에 몸을 숨길 수 있습니다."

교도청은 계책도 다하고 기력도 소진된 상태라, 두 장수와 함께 급히 산령으로 달려 들어갔다. 본래 소덕성 동북쪽에는 백곡령이라는 고개가 있는데, 전해 내려오기를 신농(神農)이 온갖 곡식을 맛보았던 곳이라 한다. 그 산속에는 신농묘라는 사당이 있었다. 교도청은 비진, 설찬 두 장수와 함께 신농묘에 진을 쳤으나, 수하에는 겨우 열다섯 명 정도의 기병뿐이었다. 공손승이 그를 반드시 항복시키고자 했기에 일부러 산령 속으로 도망치게 내버려 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송강의 군사가 바로 들이닥쳤다면 교도청이 만 명이라 해도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이다.

이야기는 이와 같다. 한편, 공손승은 교도청이 백곡령으로 달아난 것을 알고 즉시 병마를 네 갈래로 나누어 진영을 세우고 백곡령 사방을 겹겹이 에워쌌다. 이경(二更, 밤 9~11시 사이) 무렵이 되자, 갑자기 동쪽과 서쪽 양쪽에서 큰 불빛이 일렁였다. 송강의 선봉 부대가 진영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이어 임충과 장청에게 각각 군사 5천 명씩을 주어 밤

새도록 주변을 정찰하며 오게 했다. 이들은 공손승의 군사와 합쳐져 총 2만 명의 대군이 되었으며, 각지에서 진을 치고 교도청을 빈틈없이 포위했다.

한편, 송강은 다음 날 교도청이 공손승 일행에게 포위되어 백곡령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즉시 오용과 함께 성을 공격할 계책을 논의했다. 송강은 대군에 명령을 내려 진영을 걷고 이동하게 하여 소덕성 아래에 이르렀다. 송강은 장수와 부관들을 소덕성으로 나누어 보내 성을 빈틈없이 에워싸게 했다. 성안을 지키던 수장 엽성과 그 부하들은 성을 굳게 지켰다. 송강의 군사가 이틀 동안이나 연달아 공격했으나 성은 좀처럼 함락되지 않았다. 송강은 성 남쪽 진영에서 공격이 뜻대로 되지 않자 몹시 근심하였고, 이규 일행이 적에게 붙잡혔으니 그 목숨이 어찌 되었을지 몰라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그러자 군사 오용이 위로하며 말했다. "형님, 너무 근심하지 마십시오. 종이 몇 장만 있으면 이 성은 손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송강이 급히 물었다. "군사, 무슨 좋은 계책이라도 있소?"

그제야 오용은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손가락 두 개를 겹쳐 보이며 계책을 설명했다. 그 내용은 병사들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고립된 성을 함락시켜, 장병들은 무기를 내려놓고 백성들은 평안을 되찾게 하자는 것이었다. 과연 오용이 어떤 계책을 내놓았을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